1995年度

城南文化研究

(第3號)

성남문화원

城南文化院
(附設) 鄕土文化研究所

目　　次

□ 發 刊 辭 — 전통적인 성남문화의 산실 …… 李亨河 所長 … 3

□ 祝　辭 — 향토문화 발굴과 계승 보존 …… 吳誠洙 市長 … 5

□ 祝　辭 —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 …… 姜富謨 市議會 議長 … 6

□ 硏究論文

金 昌 煥 …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 9

朴 相 圭 … 성남지역의 지명어 '-제' 연구 …… 39

白 南 郁 … 고대 남한산고 …… 75

蘇 鎭 光 … 성남의 산업구조 …… 107

張 三 鉉 …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 143

張 哲 秀 …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 171

全 寶 三 …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 225

韓 春 燮 …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 297

許 昌 武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 347

趙 炳 魯 …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 367

□ 附　錄

향토문화 연구소 활동 연혁(抄) …… 407

연구위원 소개 …… 413

※ 表紙畫 : 永昌大君 墓誌銘
(1993년 태평3동에서 발굴)

研　究　論　文

城南市의 人口增加와 人口構造에 관한 研究(Ⅰ)

金 昌 煥
(東國大 敎授)

〔目 次〕

1.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자료
2. 시기별 인구증가
1) 성남시 인구증가의 배경
2) 성남시의 인구증가 추세
3.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1) 연령별 인구구조
2) 성별 인구구조
4. 요약 및 결론

1. 서 론

1) 연구 목적

오늘날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그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구문제의 해결은 절실하여, 이미 60년대의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동안 5차에 걸친 성공적인 경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은 사회구성의 주체적 요소인[1] 인구 현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인구현상의 변화 중 기본적 특색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구성장률의 둔화로서, 이는 그동안의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사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총인구의 현상과 장래의 인구예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바로 인구의 도시 집중의 격화현상이다. 이는 60년대의 개발과정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됨으로써, 산업간 및 도농지역간에 현저한 소득격차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 인구 유입측인 대도시는 과도한 인구집적에서 오는, 이른바 과밀화현상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면 인구 유출측인 농어촌은 인구 격감에서 오는 과소현상을[2] 빚어내고 있다. 그리하여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 다같이 기존 지역질서의 붕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 伊藤郷平 編, 1967, 現代社會と地理學, 大明堂, p.170.

2) 이 용어의 정의는 아직 문제점이 있으나, 대체로 서구에서는 "social break-up"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인구감감으로 인한 사회생활, 산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라 하고 있다. 石田寛, 1969, "過疎", 地理學評論, 42-3, pp.212~213.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그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서둘러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점때문에 197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이전 기능을 가진 소위 위성도시로서 발전하였으며, 거기에 분당이라는 신도시까지 건설하여 지금은 인구 80만을 넘는 서울의 위성도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인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지역성을 지닌 성남시의 인구 증가는 시기별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의 인구현상은 지역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pivotal element)[3]로서 특정사회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을 반영하는 구체적 사실[4]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 증감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한 지역의 인구 상태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구 급증의 특이성을 지닌 성남시의 인구 연구는 지역연구 측면에서 매우 의의깊은 하나의 연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의 인구증가의 실태를 개측하고, 연령별 및 성별 인구구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의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와 관련된 학문 분야나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인구교육적 측면에 그 기본적인 자료로서 적지않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G.T. Trewartha, 1953, "A case for population Geogrpah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2, pp. 71~77.

4) 金相昊, 1981, 地理學槪論, 一潮閣, p. 519.

2) 연구 방법 및 자료

지리학에서 인구현상을 다루었던 역사는 인문지리학의 성립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이것이 인구지리학으로 체계화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G.T. Trewartha, W. Zelinsky, G. Pierre, J. Beaujeu-Garnier, J.I. Clark 및 일본의 石橋五郎, 武見芳二, 石田龍次郎 등 여러 학자들의 업적이 컸다.[5] 그러나 아직도 그 試論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자료 제공을 위한 도구적 역할[6]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인구지리학의 外延과 內包가 명확하지 못하여 그 내용이나 방법이 통일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동태적 측면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인구증감은 출생, 사망, 이동의 3요소에 의해 규제되므로 실제 어떤 지역의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는 이들 3요소의 분석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이들 3요소에 관한 명확한 자료의 수집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출생, 사망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신고통계 또는 동태 통계)는 완전성이 70%[7]에 미달한 것이고, 이동통계는 거의 불완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연감과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비교통계를 활용하였으며, 1980·1985·1990년 인구 census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현지 답사를 병행하였다.

인구증감의 유형구분에 있어서 1기, 2기, 3기는 연평균치로 구분하고 全期는 과거 15년간의 증감률을 파악하기 위해 1980년과 대비한 증감률로

5) 岸本實, 1968, 人口地理學, 大明堂, pp. 5~10.
6) 木內信藏 編, 1970, 文化地理學, 朝倉地理學講座 8, pp. 220~222.
7) 문교부 인구교육중앙본부, 1976, 교원연수교재, p. 5.

구분하는 양방법을 택하였다. 증감단계는 다음과 같이 10계급으로 구분하였다.[8]

	1~3期	全 期
증가지역	I : 0.0~0.9%	I : 0.0~ 4.9%
	II : 1.0~1.9%	II : 5.0~ 9.9%
	III : 2.0~2.9%	III : 10.0~14.9%
	IV : 3.0~3.9%	IV : 15.0~19.9%
	V : 4.0% 이상	V : 20% 이상
감소지역	A : −0.0~−0.9%	1 : −0.0~ −4.9%
	B : −1.0~−1.9%	2 : −5.0~ −9.9%
	C : −2.0~−2.9%	3 : −10.0~−14.9%
	D : −3.0~−3.9%	4 : −15.0~−19.9%
	E : −4.0% 이상	5 : −20% 이상

2. 시기별 인구 증가

1) 성남시 인구증가의 배경

한 지역의 인구증감 현상은 자연동태와 사회동태에 의해 규제된다. 국내의 지역별 인구증감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출생과 사망의 차인 자연동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구는 開放人口(open population)[9]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동태인 인구이동에 의해 보다

8) 홍기룡, 1977, "전남지방의 지역별 인구증감과 그 유형",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

9) 崔鍾碩, 1973, "한국에 있어서 人口重心과 그 移動에 관한 硏究", 人口問題論集, p. 1.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이동의 근원은 인간의 이동성에 있으며, 기술.경제 발달에 따라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인구분포 내지 재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다.[10]

인구이동의 요인은 일반적 이론으로는 경제적 불균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형운동[11]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이동 현상은 매우 복잡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특정 시점하의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요인[12]들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후 오늘날까지의 인구이동의 요인을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후 1960년까지의 인구이동을 지배하였던 요인은 8·15 해방으로 인한 해외 동포의 귀국, 국토 분단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다수의 월남 동포와 반자의적 피난생활 등[13] 주로 정치적 요인으로 집약되며, 1960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인구이동은 산업의 근대화에 의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주로 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 도시화과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14], 또한 대개의 개발도상국가들처럼 대도시 특히 수위도시(primary city)[15]인 서울에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80년을 고비로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및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 정책을 발판으로 서울로의 인구 집중률이 점차 완화되면서 서울 외곽의

10) J.J. Clark, 1965, Population Geogrpahy, New York: Porymond Press Ltd., p. 123.

11) 館 稔, 1961, 日本の人口移動, 古今書店, pp. 146~177.

12) P. George, 1951, Introduction l' tude G ographique de da Population du Monde, Paris, p. 9.

13) 이지호, 1962, "남한의 인구증감의 형태", 통계월보,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p. 11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의 인구증감 지배요인을 8.15해방, 국토분단, 한국전쟁의 3요소로 보고 있음.

14) 홍경희, 1973, "한국의 도시화", 경북대 논문집, 제 17 집, pp. 5~7.

15) 이현순, 1971, "한국내 인구이동의 연구", 인구논문집 별책, p. 109.

소위 위성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경기도의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남시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기도는 인구성장률에 있어 전국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고, 특히 인천을 포함한 서울 주변의 6개 시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한 읍·면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표. 1)

(표. 1) 수도권의 인구성장

거 리	도 시	인 구(천명)				인구 증가율(%)		
		1980	1985	1990	1994	'80~'85	'85~'90	'90~'94
0~20km	서 울	8,367	9,639	10,612	10,799	2.87	1.94	0.35
20~30km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과천,구리,미금,시흥,군포,의왕,하남,고양	1,015	1,895	3,144	4,503	13.30	10.66	7.45
30~50km	인천,수원	1,396	1,819	2,463	2,938	5.44	6.25	3.59
50~70km	동두천,평택	—	141	150	169	—	1.25	2.41
70km이상	송탄,오산	—	66	136	169	—	15.56	4.44

** 시 승격 이전의 읍.면부의 인구는 각 시기에서 제외하였음.

이와 같은 경기도의 급격한 인구성장은 주로 서울 인구의 外延的, 飛地域 확산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경기도로 직접 유입되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16]

16) 이태일, 1982, "서울과 주변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연구", 국토연구, 제1권, pp. 95~115.
조정제·음성직·나종성, 1982, "수도권 인구확산과 개발제한구역의 역할", 국토계획, 17-2, pp. 39~58.
권용우, 1986, "서울 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하겠지만, 특히 지역간의 통근 거리가 주요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성남시의 인구증가 추세

(1) 개발 이전

성남시가 1973년 7월 1일 시로 승격되기 이전 지역인 광주군 중부면 성남 출장소와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의 1967년과 1968년의 인구는 각각 25,695명, 25,609명이었다. 이러한 인구는 전국의 여타 농촌 지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표. 2〉[17]

〈표. 2〉 개발 직전의 인구 현황

연도	구분 / 지역별	면적(㎢)	인구수			인구밀도 (명/㎢)	가구당평균 인구수
			계	남	여		
1967	성남출장소	27.43	5,882	2,975	2,907	217	6.1
	대왕면	20.58	6,322	3,260	3,062	316	5.9
	낙생면	40.90	7,200	3,606	3,594	180	6.2
	돌마면	39.60	6,291	3,272	3,119	173	5.9
	계	128.51	25,695	13,113	12,687	200	6.1
1968	성남출장소	27.43	6,008	3,044	2,964	219	6.0
	대왕면	20.58	6,382	3,284	3,093	310	5.8
	낙생면	40.90	7,205	3,662	3,543	176	6.5
	돌마면	39.60	6,124	3,133	2,991	155	5.7
	계	128.51	25,609	13,023	12,596	199	6.0

(2) 개발기(1973년 이전)

성남 지역의 인구는 서울시의 철거민 48세대 152명이 입주를 시작한 1969년 5월 2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68년 당시의 중

17) 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성남시사, p. 90.

부면 성남출장소 관내 즉 성남단지내 인구는 6,008명이었던 것이, 1969년 말에는 15,778명 그리고 1972년에는 137,898명이었으며, 시로 승격된 1973년말에는 165,0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성남지역의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인구 증감 상황은 (표. 3)에 나타내었다.(표. 3)[18]

(표. 3) 개발기의 인구 증감

구분 / 연도	계획 구역			시가지 구역(성남단지)			비시가지 구역		
	인 구	인 구 증가율	증가율 (%)	인 구	인 구 증가율	증가율 (%)	인 구	인 구 증가율	증가율 (%)
1962	26,268	–	–	5,932	–	–	20,336	–	–
1963	26,756	488	1.86	6,062	130	2.19	20,694	358	1.76
1964	26,830	74	0.28	6,012	−50	−0.82	20,818	124	0.60
1965	27,078	248	0.92	6,046	34	0.57	21,032	214	1.03
1966	27,010	−68	−0.25	5,966	−90	−1.49	21,054	22	0.10
1967	26,607	−403	−1.49	5,882	−74	−1.24	20,725	−329	−1.56
1968	26,573	−34	−0.13	6,008	126	2.14	20,565	−160	−0.77
1969	36,233	9,660	36.35	15,778	9,770	162.62	20,456	−110	−0.53
1970	96,989	60,756	167.68	75,105	59,327	376.01	21,884	1,429	6.99
1971	160,059	63,070	65.03	22,939	58,834	78.34	26,120	4,236	19.36
1972	166,359	6,300	3.94	137,898	3,959	29.56	28,461	2,341	8.96
1973	191,400	25,041	15.05	165,001	27,103	19.65	26,399	−2,061	−7.25
평 균	–	15,012	26.29	–	14,461	60.68	–	551	2.61

(3) 시 승격 이후(1974~1979)

1973년 7월 1일 성남시로 승격된 이후 성남시의 인구는 1974년과 1975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9%를 상회하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평균 6.12%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에 기록하였다.

18) 상게서, p. 90~91.

〈표. 4〉 시 승격 이후의 인구 변천(1974~1979)

구분 \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인구수	227,178	272,329	284,946	307,668	324,064	345,314
인구증가수	36,598	45,151	12,617	22,722	16,396	21,250
인구증가율(%)	19.20	19.87	4.63	7.97	5.33	6.56

(4)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성남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1979년에서 1980년 1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은 무려 9.0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1년부터 1985년 동안에는 2.71%~4.55%로 완화되다가 1986년에는 전년대비 1.94%로 인구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편, 1987년에는 전년대비 7.68%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시 현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인근 서울특별시의 주택값 상승과 전세값 상승의 결과로 생각된다. 1988년에 들어서면서 성남시의 인구는 514,824명으로 50만 인구를 돌파하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표. 5〉, [그림. 1]

〈표. 5〉 1980년대의 성남시 인구 증가(인구증가율 단위 : %)

구분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인 구 수	376,447	388,202	405,875	416,876	434,078	447,839	456,529	491,537	514,824	530,730
인구증가수	31,133	11,755	17,673	11,001	17,202	13,761	8,690	35,048	23,247	15,906
인구증가율	9.02	3.12	4.55	2.71	4.13	3.17	1.94	7.68	4.73	3.09

(5) 1990년대(1990~1994)

1990년대는 성남시의 인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1989년 4월 27일에 성남시 남쪽 지역의 소위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분당지구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1991년 9월 29일 제1차 입주 이후 분당 신도시는 급

〔그림. 1〕 성남시의 1980년대 인구증가율

속히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인구증가율도 1992년은 전년대비 15.68%로 급격한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인구수도 645,793명으로 전년에 비해 87,531명이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도시 인구 기준수가 5만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구증가수는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1994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3.15%, 9.71%를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1994년에는 총 인구수가 80만명을 넘는 인구적 측면에서의 대도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1,042,000명으로 전망되는 서기 2,000년대 성남시의 미래상에 대한 중간 디딤돌로서, 한국의 중견도시로의 도약을 기약하는 신기원의 기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표. 6), 〔그림. 2〕

(6) 인구증감의 유형구분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을 지난 15년(1980년~1994) 동안 살펴보면(표. 7), 1980~1985년 사이 1기에서는 3.53%를 나타내어 Ⅳ계급에 해당된다. 동일

〈표. 6〉 1990년대의 성남시 인구 증가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인 구 수	540,764	558,262	645,793	730,715	801,646
인구증가수	10,034	17,498	87,531	84,922	70,931
인구증가율(%)	1.89	3.24	15.68	13.15	9.71

〔그림. 2〕 성남시의 1990년대 인구증가율

〈표. 7〉 성남시의 시대별 인구증가율(단위 : %)

구분 \ 시대	1980~1985 (1기)	1985~1990 (2기)	1990~1994 (3기)	1980~1994 (全期)
인구증가율	3.53	3.84	10.34	16.32

시기의 서울은 2.87%로 Ⅲ계급에 해당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30km 범위에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평균 증가율은 13.30%로 Ⅴ계급에 해당된다. 인천과 수원을 종합하면 5.44%로 역시 Ⅴ계급에 해당된다. 따라

서 1기에서의 성남시 인구증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인 2기의 경우 3.84%로 1기와 같은 Ⅳ계급을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일 시기의 서울은 1.94%로 Ⅱ계급에 해당되어 1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10.66%로 Ⅴ계급에 해당된다. 인천과 수원을 종합하면 6.25%로 역시 Ⅴ계급에 해당되어 2기에서도 1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도시에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분당 신도시의 건설이 본격화되고 입주가 시작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인 제3기의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은 10.34%를 기록하여, Ⅴ계급에 해당되어 인구증가면에서 최고의 지역이 되었다. 이 시기의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0.35%로 Ⅰ계급에 해당되어 현격하게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는 7.45%로 역시 Ⅴ계급에 해당되었으나 이는 2기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천과 수원의 경우에는 3.59%로 Ⅳ계급으로 하락하여 역시 3기에 들어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3기에 들어서면서 성남시의 인구증가율 만이 Ⅴ계급에 해당되는 증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당으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비롯된 급격한 인구유입의 결과이다.

1980년 대비 1994년(全期)의 성남시 인구증가율은 16.32%로 Ⅳ계급에 해당된다. 동일 시기의 서울은 5.24%로 Ⅱ계급, 수도권 전체 도시는 34.71%로 Ⅴ계급, 인천과 수원의 경우는 5.44%로 서울과 같은 Ⅱ계급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수도권 도시의 인구 증가율을 높이는데 상승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성남시의 각 시기별 인구증가율

3.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1) 연령별 인구구조

개인의지와 무관한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인구구성은 연령,성별로 지역사정과 관련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연령 구성(age structure)은 전체 인구에 대한 계층별 구성비율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차를 해명할 수 있고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연령 구성은 종축에 연령, 횡축에 남녀별 인구수를 배치하여 5세 간격의 연령계층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상대 표현), 또는 절대수(절대 표현)을 인구 피라미드로 표현한다. 시대에 따른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 표현하였으며, 각 지역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성은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각 지역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단위 : %)

구분	경 기			시 부			읍 부			면 부			성 남		
연도	I	II	III	I	II	III	I	II	III	I	II	III	I	II	III
1980	32.34	64.11	3.55	32.20	65.32	2.48	32.71	64.10	3.19	32.34	62.33	5.33	35.56	62.65	1.79
1985	29.66	66.18	4.16	30.38	66.70	2.92	29.60	66.51	3.89	28.57	65.21	6.22	31.21	66.09	2.70
1990	26.77	68.79	4.44	27.99	68.65	3.36	25.77	69.44	4.79	23.29	68.79	7.92	27.61	69.26	3.13

(I : 유소년층, II : 청장년층, III : 노년층)

1980년의 경기도 전체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한국의 전반적 현상과 다름없이 인구증가의 전형적인 형태인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鍾形으로 변형되어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가장 비대층이 0~9세의 유소년층(22.23%)이 아니라 15~24세(23.28%)의 청소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세의 연령층이 11.79%로 가장 비대한 층이 되었다는 것은 종형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연령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15~64세)의 경우 64.1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가 경제적인 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활발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85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소년층의 비율이 32.34%에서 29.66%로 줄어들고 65세이상인(비경제활동인구) 노년층의 경우는 3.55%에서 4.1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까지도 계속된다. 즉 유소년층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청장년층이 1990년 68.79%로 1980년 64.11%로, 노년층도 1980년 3.55%에서 4.44%로 증가하였다. 청장년층의 증가는 타도에서 많은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그림. 4〕 1980년의 각 지역별 인구 피라미드

〔그림. 5〕 1985년의 각 지역별 인구 피라미드

〔그림. 6〕 1990년의 각 지역별 인구 피라미드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노년층의 인구비율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1980년의 경기도 중 시부에서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징은 가장 비대한 층이 12.69%의 20~24세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청장년층(15~64세)의 경우도 65.32%로 경기도 전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소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의 경우는 각각 32.2%와 2.48%로 경기도 전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사회가 문화와 의식에서 선진 지역의 성격을 안고 있는 이상, 가족계획사업이라는 당위적 과제에 관해서 앞서 시행한데 연유한다고 보며, 이촌향도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만이 경기도 시부로 유입되고 부모들은 고향에 남아있음으로 인해 노년층의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5년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30.38%로 1980년에 비해 낮아진다. 이는 가족계획에 따른 출산율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노년층은 1980년에 비해 오히려 2.92%로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장년층 또한 66.7%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1985년의 특징은 1990년에도 계속된다. 유소년층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 사회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경기도 시부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 비율의 지속적 증가는 경기도 시부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좋은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읍부의 경우도 전술한 시부와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1990년 동안 유소년층의 감소와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유소년층의 경우 1980년 32.71%이었던 것이 1990년 25.77%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시부에 비해 더욱 낮은 것은 가장 비대층이 25~29세층(11.99%)으로 결혼 적령기에는

해당되지만 출산에 이르기에는 다소 빠른 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1995년 이후에는 유소년층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연령층이 전체의 64.10%에서 69.44%로 계속 증가하여 오히려 시부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읍부가 외형과 기능이 이미 도시적 성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경기도의 읍부지역은 많은 공업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특히 1980년대 말부터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싼 읍부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는 시부보다 높아 3.19%에서 4.79%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면부의 경우 가장 비대한 층은 11.52%의 10~14세층이며, 그 다음으로 15~19세층(11.28%), 5~9세층(11.21%)으로 나타난다. 이는 촌락사회의 성향을 띠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아 62.33%를 나타내며, 노년층이 5.33%로 경기도 전체와 시부.읍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도시보다 촌락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것은 부모들은 남고 자식들은 떠나는 즉 親殘子出의 村外轉出 유형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소년층의 비율은 1985년 28.57%, 1990년 23.29%로 급격한 감소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는 65.21%(1985)에서 68.79%(1990)로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 역시 1990년 7.9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면부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성은 인구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면부의 1990년 인구 피라밋은 전형적인 표주박형을 나타내고 있다. 표주박형 인구 피라밋 구조는 농촌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시형인 별형과 대비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주박형의 특징은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낮고 10~24세까지의 연령층이 높다가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며,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경기도 면부의 인구 피라

및 구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0년 성남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 중 가장 비대한 층은 5~9세층으로 12.24%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 층을 비롯한 유소년층의 비율이 35.56%로 전술한 모든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각각 62.65%, 1.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의 성남시 연령별 인구 구성 중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57.67%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동 시기의 면부와 별 차이가 없는 인구 구성 비율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노년층이 1.79%에 불과하지만 비생산연령층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62%에 불과한 경제활동인구에 돌아가는 부양부담은 곧으로 家計의 곤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변화와 더불어 제생산연령층과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85년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31.21%로 줄어든 반면 청장년층의 비율이 66.09%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유소년층의 감소(27.61%)와 청장년층(69.26%)과 노년층(3.13%)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성남시의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이 69.26%라는 것은 선진국의 평균인 60%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경기도 시부의 68.65%보다 높다. 따라서 1990년에는 도시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별형의 인구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남시 지역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화의 촉진과 취업기회의 확대가 농어촌의 청장년층을 끌어들이는 引力要因(pull factor)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서울시 인구의 U-turn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유소년층의 감소는 자연적 출산율에 의존할 경우 성남시의 인구는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할 소지가 있으나 성남시의 인구 자체가 자연적 증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증감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연령층 즉 청장년층(15~64세)은 생산 주체이며 노동력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전제할 때에,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소비주체가 되는 비생산연령층에 비하여 부양부담의 輕重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남시와 같이 생산적 요소보다는 소비적 요소가 큰 도시에서의 비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율 감소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을 안정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제는 노인문제가 수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아제한으로 유소년층을 30%이하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꾀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 성별 인구구조

인구의 性別 構成(sex composition)은 생업상태, 전쟁, 인구이동 등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지역차 또는 지역성을 해명하는데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남녀간의 성별에 따르는 수명의 차이에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보아도 평균 수명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도 장수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일반적으로 출생 당시 105 : 100의 남녀 성비(sex ratio)는 유아기에 들어와 女超현상으로 바뀌고, 혼기에 비율이 접근, 노년기에 다시 여초현상으로 환원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사망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 의의가 있는 것은 전쟁, 생업상태, 인구이동 등 환경차이에서 오는 인구의 성별 구성인 것이다. 연령에 따른 성별 인구구조는 〈표. 9〉에 정리하였다.

경기도 전체의 경우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지만, 청장년층으로 갈수록 연령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으로 갈수록 66.68 : 100(1980), 67.57 : 100(1985), 65.76 : 100(1990)으로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의 평균으로는 1980년은 100.58 : 100에서 1990년 101.44 : 100으로 근소한 비율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해에 여초현상을 나타내는 전국의 상황(99.48 : 100)과 대조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시부와 읍부, 면부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부의 경우에는 유소년층은 경기 전체보다 남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1980년과 1985년 모두 여초현상이 나타나 경기도 전체의 남초현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시부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장년층에서 여초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20~24세층으로 84.11 : 100을 나타낸다. 즉 젊은 여성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업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30세 이후부터는 다시 남초현상으로 환류되다가 45세 이후부터 다시 여초현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초현상은 연령층이 높을 수록 더욱 심화되어 80~84세 연령층에서는 무려 32.12 : 100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수명보다 길기 때문이다. 시부의 평균 성비는 1980년과 1985년 각각 99.54 : 100, 99.37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지만, 1990년에 이르러서는 100.57 : 100의 근소한 차로 남초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90년의 청장년층 비율이 100.76 : 100으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88.39 : 100으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국 시부 평균은 근소한 차이로 남초현상이 나타나지만 서비스업의 중심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에서는 큰 비율차로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국 대도시의 특징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30세이후 중 남초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35~44세이다. 물론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으로 환류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경기도의 읍부의 경우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부와 별 차이가

〈표. 9〉 연령에 따른 성별 인구구조(성비 :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수)

구분	연도	1980	1985	1990
경 기	유소년층	105.87	105.41	105.84
	청장년층	100.24	101.62	102.84
	노 년 층	66.68	67.57	65.76
	평 균	100.58	101.02	101.44
시 부	유소년층	105.79	106.60	106.38
	청장년층	98.16	98.39	100.76
	노 년 층	56.76	59.34	59.96
	평 균	99.54	99.37	100.57
읍 부	유소년층	106.68	104.90	105.12
	청장년층	99.03	100.70	102.88
	노 년 층	65.59	68.10	68.67
	평 균	99.97	100.40	101.50
면 부	유소년층	104.44	103.90	104.21
	청장년층	104.25	107.74	108.86
	노 년 층	74.56	73.72	73.65
	평 균	102.48	104.13	104.49
성 남	유소년층	106.36	105.91	106.53
	청장년층	97.55	97.53	101.07
	노 년 층	60.81	59.01	57.06
	평 균	99.40	99.05	100.77

없다. 이것은 읍부가 이미 도시적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경우 최근에 가까울수록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시부와 동일한 현상이다. 또한 시부에서와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에서는 뚜렷한 남초현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20~29세 연령층은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4세는 92.16 : 100으로 읍부에서는 여초현상이 가장 뚜렷한 연령층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전술한 시부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다. 25~29세 사이는 근소한 차이로 여초현상이 나타난다. 즉, 시부에서보다는 근소한 차이지만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30~49세 연령층에서는 다시 남초현상이 나타나다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여초현상으로 환류되는 등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면부의 경우는 유소년층에서 남초현상의 비율이 전술한 경기도 전체와 시.읍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심각한 남초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104.25 : 100(1980), 107.74 : 100(1985), 108.86 : 100(1990)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촌락 사회의 전형적인 특색으로 경기도 면부에서도 예외없이 청장년층의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0~9세, 15~19세의 연령층은 남여비율이 균등하게 나타나지만 20세 이후에서는 현격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20~24세 연령층에서는 137.72 : 100으로서 매우 심한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도시 진출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면부의 경우도 여성들의 도시 진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출가외인이 되어버리는 딸보다 부계 중심의 가문을 계승하며 노후의탁을 위하여 남아를 존중하는 한국의 전통의식에 기인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여기에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남성들의 결혼 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25~35세 연령층이 109.34 : 100으로 농촌 총각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경기도 면부 뿐 아니라 전국적인 촌락사회의 특징이다.

성남시의 경우는 성별 인구구성에 있어서 전술한 시부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유소년층에서는 뚜렷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1980년과 1985년의 청장년층에서는 각각 97.55 : 100, 97.53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1990년 청장년층의 경우는 101.07 : 100으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

만 남초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의 퇴조로 여성 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서울의 인구분산 내지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싼 성남으로 전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1980년의 경우,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연령층은 15~29세로 전술한 시부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에도 계속된다. 15~19세 연령층 즉 중등학교 남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되는 서울로의 전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90년에 이르러 둔화되어 15~19세 연령층의 성비 비율이 100.26 : 100으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세~24세 연령층에서는 88. 18 : 100으로 역시 뚜렷한 여초현상이 나타나 성남시의 도시적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30대와 50대 중반까지는 남초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역시 30대에서 50대로 올수록 점차 남초현상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50대 후반에서 노년층으로 오게되면 여초현상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별의 환류현상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의 연령에 따른 성별 인구구성의 평균 비율은 1980년에 99.40 : 100, 1985년에 99.05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입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1990년에는 100.77 : 100으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한 지역의 인구현상은 지역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pivotal element)로서 특정사회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을 반영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 증감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한 지역의 인구 상태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구 급증의 특이성을 지닌 성남의 인구 연구는 지역 연구 측면에서 매우 의의깊은 하나의 연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의 인구증감의 실태를 개측하고, 연령별 및 성별 인구구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의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와 관련된 학문 분야나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인구교육적 측면에 그 기본적인 자료로서 적지않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을 지난 15년(1980년~1994) 동안 살펴본 결과, 1980~1985년 사이 1기에서는 3.53%를 나타내어 Ⅳ계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1기에서의 성남시 인구증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인 2기의 경우 3.84%로 1기와 같은 Ⅳ계급을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당 신도시의 건설이 본격화되고 입주가 시작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인 제3기의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은 10.34%를 기록하여, Ⅴ계급에 해당되어 인구증가면에서 수도권 지역 중 최고의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3기에 들어서면서 성남시의 인구증가율 만이 Ⅴ계급에 해당되는 증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당으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비롯된 급격한 인구유입의 결과이다. 1980년 대비 1994년(全期)의 성남시 인구증가율은 16.32%로 Ⅳ계급에 해당된다. 동일 시기의 서울은 5.24%로 Ⅱ계급, 수도권 전체 도시는 34.71%로 Ⅴ계급, 인천과 수원의 경우는 5.44%로 서울과 같은 Ⅱ계급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성남시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수도권 도시의 인구 증가율을 높이는데 상승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성남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 중 가장 비대한 층은 5~9세층으로 12.24%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 층을 비롯한 유소년층의 비율이 35.5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

층과 노년층의 경우 각각 62.65%, 1.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변화와 더불어 재생산연령층과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85년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31.21%로 줄어든 반면 청장년층의 비율이 66.09%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유소년층의 감소(27.61%)와 청장년층(69.26%)과 노년층(3.13%)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성남시의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이 69.26%라는 것은 선진국의 평균인 60%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경기도 시부의 68.65%보다 높다. 따라서 1990년에는 도시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별형의 인구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남시 지역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화의 촉진과 취업기회의 확대가 농어촌의 청장년층을 끌어들이는 引力要因(pull factor)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서울시 인구의 U-turn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유소년층의 감소는 자연적 출산율에 의존할 경우 성남시의 인구는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할 소지가 있으나 성남시의 인구 자체가 자연적 증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증감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남시와 같이 생산적 요소보다는 소비적 요소가 큰 도시에서는 비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율 감소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을 안정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제는 노인문제가 수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아제한으로 유소년층을 30%이하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꾀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성별 인구구성에 있어서는 유소년층에서는 뚜렷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1980년과 1985년의 청장년층에서는 각각 97.55 : 100, 97.53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전형적인 특징으로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

다. 그러나 1990년 청장년층의 경우는 101.07 : 100으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남초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의 피조로 여성 인구가 줄었다기 보다는 서울의 인구분산 내지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싼 성남으로 전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1980년과 1985년의 경우,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연령층은 15~29세로 다른 도시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5~19세 연령층 즉 중등학교 남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서울로의 전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90년에 이르러 둔화되어 15~19세 연령층의 성비 비율이 100.26 : 100으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세~24세 연령층에서는 88. 18 : 100으로 역시 뚜렷한 여초현상이 나타나 성남시의 도시적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30대와 50대 중반까지는 남초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역시 30대에서 50대로 올수록 점차 남초현상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50대 후반에서 노년층으로 오게되면 여초현상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별의 환류현상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의 연령에 따른 성별 인구구성의 평균 비율은 1980년에 99.40 : 100, 1985년에 99.05 : 100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입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1990년에는 100.77 : 100으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의 인구증가 경향과 연령별.성별 인구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각 동별 인구특성은 제외하였다. 각 동별 인구특성의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정확한 성남시의 인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진함을 인정하면서 성남시의 각 동별 인구특성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城南地域의 地名語 '－재' 研究

－ 山·谷·野·벌 語系의 相關性을 중심으로 －

朴 相 圭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目 次〕

1. 서 언
2. 山·谷 語系 지명어
3. 결 어
참고문헌

1. 서 언

필자는 "성남문화연구" 창간호에서는 "성남지역의 지명 성격 고찰" 중에서 특히 '백제어와 고구려적인 요소를 중심으로'를 통해서 몇몇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제 2호에서는 "성남시 지명연구" 중에서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를 중심으로'를 통해서 역시 지명의 어원적인 문제를 살펴보았었다.

이러한 선행적인 연구를 토대로 제3호 "성남문화연구"에서는 "성남지역의 지명어 '一재' 연구"라는 주제로 '山'과 '谷' 그리고 '野'에 관한 지명어를 살펴볼 것이다. 단, 여기에서는 '一재'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山·谷·실'은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성남시는 지역적인 위치에서 보면 사방이 육지로만 에워싸인 내륙의 도시이다. 또한 탄천이라는 작은 물줄기만이 이 지역을 통과할 뿐이다. 또한 성남은 동쪽으로는 광주군 중부면, 광주읍, 오포면, 남쪽으로는 용인군 수지면, 서쪽으로는 의왕시와 과천시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군 서부면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깊게 관찰하면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연결되는 곳은 강동구와 접선 지역으로 성남에서는 오야동의 '새말', 심곡동의 '깊은 골', 창곡동의 '창말', 은행동과 단대동 그리고 신흥동과 상대원동의 '양지말', '웅달말' '금광리' '사기막골' '중간말' '보통골' 등이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주제의 '山·谷·野·재'와 관련이 되는 지명어이며 남쪽에서는 용인군과 부분적으로 광주군이 이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성남에서는 '대장동' '석운동'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정자동' '구미동' '분당동'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발화산리' '모두만이' '장투리' '쇠골' '굴안' '석촌' '불곡산' '당모루' '도랫말' '윗말' 등의

지명어가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있으며 이들이 '山·谷·野·재'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쪽으로는 의왕시와 과천시를 접선지역으로 성남에서는 '운중동' '상적동' '금토동'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명으로는 '윗되뜬' '두레이골' '청계산' '금현동' '국사봉' '학현' 등의 지명어는 역시 '山·谷·野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며, 동쪽으로는 '갈현동'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야탑동' '율동' 등이 광주군과 접적지역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새터말' '배지봉' '고든고개' '도랫말' '윗탑골'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모두가 본 논문의 주제에 부합되는 지명어임을 알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필자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과 인접해있는 동네의 지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성남의 지역이 어떠한 곳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나름으로 분석하고 간단한 결어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많은 질책과 협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특히 '－재'만을 가지고 상관성의 예를 제시하였다.앞으로 더욱 '－실' 등과 더불어서 연구할 계획이다.

2. 山·谷 語系

'－재'의 지명어

－(특히 山·谷·野·멀과 더불어서)－

(1) 매봉재 :

ㄱ) 하대원동, 도촌동, 여수동 경계에 있는 산

ㄴ) 높이 158.3m

ㄷ) 특징은 산이 매처럼 생겼다고 함.

(2) 이배재(二拜) :

ㄱ) 상대원 동쪽에 있는 고개

ㄴ) 뫼계 이황 선생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귀향하다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고 보면 황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두번 절하고 떠났다 함.

ㄷ) 二拜峴이라고도 한다.

(3) 초죽재 :

ㄱ) 판교동에 있는 들

ㄴ) 너더리(널다리)에 있는 들

(4) 도당재 :

ㄱ) 고등동에 있는 산.

ㄴ) 고등동은 고산동과 동자리를 병합하여 고등리라고 하였으나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고등, 삼작, 둔전의 3개 동을 합하여서 '고등동'이 되었다.

이상 (1)매봉재, (2)이배재, (3)초죽재, (4)도당재 에서 '-재'의 지명어는 산, 고개, 들의 뜻임을 지형적인 여건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밝힐 예정이다.

첫째, 백제 지명에는 '城'을 '子兮'(즈히>재)로 기록한 곳도 있다.[1]

秋子兮郡-秋 城郡(潭陽縣)

여기 '子兮'(즈히)는 '재'의 古形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재'는 '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城'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분석하여 보자.

예 : 1. 逢陽忽縣 - 峰城縣

2. 馬忽郡 - 堅城郡(抱川)

3. 童子忽縣 - 童城縣

4. 伏忽郡 - 寶城郡

5. 達忽 - 高城郡(高城)

6. 所忽達 - 僧山縣

1) 국어방언학, 한국방언학회 편, 형설출판사, 1973, p. 68참조.

7. 鄒子忽 － 節域
8. 肖巴忽 － 豊夫域
9. 史忽 － 似域
10. 甲忽 － 穴域
11. 甘勿伊忽 － 甘勿主域
12. 折忽 － 銀域
13. 非達忽 － 大豆山域
14. 安寸忽 － 安市域
15. 赤里忽 － 積利域
16. 冬忽 － 取域(黃川)

이상의 1~16의 예에서 보았듯이 '忽'은 '城'을 뜻하며 '城'은 '－子兮－'인 '조히>재'를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재'는 '山'을 뜻한다.

둘째, 또한 '忽'이 '城'이며 '城'이 '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忽'이 '城'인 경우는 고구려어의 측면에서 그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의미가 백제어에 있어서는 '－재(子兮)'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어의 한 특징적 단면을 보자.[2]

고대에 삼국의 선진이었고 그 중 강대했던 고구려의 언어는 어떠했던가. 이 문제는 기이하리만큼 일관된 무관심 속에 묻혀 있다.삼국사기,삼국유사의 편자는 고대 삼국의 언어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으며 현대에 와서도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의 국어가 단일언어이므로 고대에 있어서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언어가 단일했으리라는 선입견에 지배되어 온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비판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오늘날 남아 있는 고구려어 자료라는 내외 사적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인 바 그 중에서도 삼국사기 지리지는 그 주된 鑛源이다. …… 여기에는 하나의 지명에 대하여 音讀名과 釋讀名이 병기되어 있다. 가령 권 37의

2) 李基文, (개정)국어사개설, 민중서관, 1972, 서울, 32~33쪽 참조.

"買忽一云水城" "水谷城縣一云買旦忽"에서 買忽, 買旦忽은 음독명이요 '水城,水谷城'은 석독명이다. …… 이것은 곧 '買, 忽, 旦' 등이 각각 '水, 城, 谷'을 의미하는 고구려어 단어였음을 밝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忽'은 음독명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석독명도 '城'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忽'이 '城'이며 이 어휘가 백제어에 있어서는 '구멍'인 '재'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어휘들이 '山'과 관련됨을 역시 알 수 있었다.

셋째, 삼국사기의 지리지를 총관하면 신라지명에는 끝에 火·伐·夫里 들이 붙고 고구려 지명엔 忽이 붙어 대조를 보이는데, 백제 계통엔 두 가지 계통이 혼용된다. …… 그런데 고구려의 忽은 만주어 /hollo/ (谷)와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대어의 /골/에 해당된다. 어떻든 현재 우리말에서 두루 쓰이는 이들 지명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에선 /hollo/ (국어 -골< 谷·洞)만 쓰이고 ……[3]에서도 '忽'과 '谷'과 '洞' 그리고 '골'과 '城' '재' 그리고 '山' 등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골(kol '城·忽')과 재(čai '구멍' '山')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골'의 비교언어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골'과 '재'의 어휘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4] 그리고 다음에서는 '벌' '野' '谷' '들'과의 상관성도 어느 정도 밝히고자 한다.

kol(kol, ʔkol) : hollo(만주어)

1) 방언에서 나타나는 kol, ʔkol과의 變異形態와 의미[5]

1. 골짜기[kot'tʃagi] : 두 골 사이에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좁은 곳(지형).

---

3) 김형규, 국어사개요, 일조각, 1975년, 서울, 30쪽 참조.

4) 박상규, 성남문화연구, 창간호, 1994, 성남향토문화연구소 刊 참조.

이 밖에도 박상규 저,우랄 알타이 관계 언어 민속학 논고(민창문화사,1993년 간행)을 참조.

5) 崔鶴根, 國語方言辭典, 玄文社, 63~64쪽, 1977,서울.

谷地. a valley.

2. 골[고어] : 골곡(谷)〈訓蒙上 : 3, 類合上 : 5〉

3. 고 : ㄹ짜기[ko:l-ˈtʃagi] : 고흥지방

4. 골[kol] : 남해지방

5. 골짜기[kol-ˈtʃagi] : 영암지방

6. 골짝[kol-ˈtʃak] : 구례, 강진, 화순, 함평, 영암, 고흥지방

7. 골째기[kol-ˈtʃɛgi] : 순천, 구례, 완도, 울주, 충무, 거제, 하동, 창녕, 제주도, 대동, 강동(평남)지역.

8. 골째이[kol-ˈtʃɛi] : 사천지역

9. 골창[kol-ˈtʃan] : 완도지역

10. 꼬랑[ˈkoraŋ] : 하동지역

11. 꼬 : ㄹ짜리[ˈkoil-ˈtʃagi] : 여수지역

12. 꼴짜기[ˈkol-ˈtʃagi] : 순천, 진상, 광주, 장성, 담양, 거창, 함양, 진양, 남해, 하동, 거제지역.

13. 꼴짝[ˈkol-ˈtʃagi] : 광양, 나주, 구례, 곡성, 보성, 거창, 함양, 산청, 함천, 양산, 김해지역.

14. 꼴차기[ˈkol-tʃˈagi] : 구례(화계며네지역)

15. 꼴착[ˈkol-tʃˈak] :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16. 꼴창[ˈkol-tʃˈaŋ] : 진도, 하동지역

17. 꼴채기[ˈkol-tʃˈɛgi] : 구례(화계면)

18. 또랑[ˈtoraŋ] : 함평지역

2) 방언에서 kol, kol과 개연성이 있을 형태와 의미[6]

1. 구덩이[kudəŋi] : 땅이 움푹하고 깊게 파인 곳, 坑 hollow

2. 굳[고어] 굳길(坑) 〈訓蒙下 17〉 〈釋譜九 14〉

3. 구데이[kudɛŋ] : 예산, 구례지역

6) 최학근, 상게서, 64~65쪽.

4. 구더기[kudəŋi] : 포항, 춘무지역.
5. 구더이[kudəi] : 안동지역
6. 구디이[kudəŋi] : 영주, 봉화, 영덕, 청소, 안동, 문경, 의성, 남해, 청주, 괴산, 단양, 예산, 부여, 대전, 김제, 홍천, 충성, 제주, 광양, 진상, 완도, 순천, 구례, 곡성, 진도, 영암, 함평 지역.
7. 구:더이[kuidəŋi] : 여수지역
8. 구덕[kudək] : 전주,사천, 거제, 남해, 춘무, 구례, 광양지역
9. 구:덕[ku:dəŋi] : 여수지역
10. 구덩[kudəŋ] : 구례(외곡리) 지역
11. 구데이[kudei] :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영덕, 경주, 문경, 예천, 군위, 영천, 청송, 진주, 호산, 삼척지역.
12. 구:데이[ku:dei] : 안동지역
13. 구데이[kudei:] : 단양지역
14. 구데이[kudeŋi] : 울진, 선산, 청주, 영동, 부여, 논산, 청양, 서산, 당진, 조치원, 천안, 무주, 전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임실, 진안, 장계, 장성, 담양, 나주, 광주, 영광, 함평, 목포, 해남, 고흥, 순천, 진도, 장흥, 영암, 강진, 화순, 보성, 광양, 곡성, 구례, 여수, 정선, 원성, 횡성, 제주 지역
15. 구데:이[kude:ŋi] : 순천지역
16. 구데이[kudeŋi] : 포항,경주,구례(외곡리),곡성,강진,진상,광양지역
17. 구되기[kudɯgi] : 창녕지역
18. 구두기[kudugi] : 사천지역
19. 구두 : 이[kudu:ŋi] : 밀양지역
20. 구뒤이[kudwii] : 왜관지역
21. 구뒤 : 이[kudwi:ŋi] : 밀양지역
22. 구듸[kudii] : 왜관, 군위지역

23. 구디[kudii] : 진양, 영동지역
24. 구디 : [kudi:] : 울진, 영덕, 청송, 경주, 영천, 예천, 문경, 창녕 지역
25. 구디기[kudigi] : 양산, 충무, 김해, 밀양, 창원지역
26. 구디기이[kudigiŋi] : 마산, 합천지역
27. 구디이[kudii] : 포항, 경산, 영천, 대구, 예천, 산청, 진주, 울주 지역
28. 구디이[kudiŋi] : 경주, 군위, 성주, 상주, 청송, 고령, 울산, 영동 지역
29. 구디이[kudiŋi] : 포항, 경주, 문경,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지역
30. 구덩이[kudəŋŋi] : 괴산지역
31. 구멍[kuməŋ] : 여수지역
32. 구시[kusi] : 남해지역
33. 굼티기[kumt'igi] : 청도지역
34. 궁디[kuŋdi] : 문경지역
35. 그데이[kidɛŋi] : 구례지역
36. 꼬랑[ˀkoraŋ] : 이리지역
37. 꾸덕[kudək] : 하동지역
38. 두:룽뱅[tu:mbeəŋ] : 여수지역
39. 둠벙[tumbəŋ] : 순천, 광양지역
40. 물꾸덩[mul-ˀkudəŋ] : 하동, 남해지역
41. 물꾸뎅[mul-ˀkudəŋ] : 하동지역
42. 웅덩이[uŋdəŋi] : 청주, 연풍, 괴산, 보은, 영동, 제천, 예산지역
43. 웅데이[uŋdei] : 문경, 제천지역
44. 웅데이[uŋdeŋi] : 김천지역
45. 웅데힝[uŋdeŋi] : 김천지역
46. 웅디[uŋdi:] : 포항,경주,김천,문경지역
47. 웅디이[uŋdiŋi] : 포항지역

3) 방언에서 kol, kol과 개연성이 있을 형태와 의미[7]

1. 구레[kure] : 땅이나 바위가 패여 깊숙하게 들어간 곳. a tunnel. 窟은 굼기라 (月釋序:24)
2. 고래[koreɛ] : 안동, 울진, 영양, 영덕, 포항, 경주, 문경, 김천, 합천, 기창, 함양, 산청, 진주, 사천, 거제, 조치원 등의 지역.
3. 고래[kore] : 부산, 창녕지역
4. 고레[kore:]양산지역
5. 광[kwaŋ] : 화순지역
6. 구들목[kudul-mok] : 당진지역
7. 구들묵[kudul-muk] : 당진지역
8. 구들뻬[kudul-ˀpe] : 삼척, 호산지역
9. 구들삐[kudul-ˀpi] : 괴산지역
10. 구들장[kudul-tʃaŋ] : 제천, 평창, 원성, 홍천, 춘천지역
11. 구들짱[kudul-ˀtʃaŋ] : 무주, 괴산, 당진지역
12. 구들[kudil] : 청주, 연풍, 단양지역
13. 구들뻬[kudil-ˀpɛ] : 도계지역
14. 구들장[kudil-tʃaŋ] : 도계, 청주, 대천지역
15. 구들짱[kudil-ˀtʃaŋ] : 창양지역
16. 구:ㄹ[ku:l] : 마산지역
17. 구래[koreɛ] : 성주, 충무, 제천, 청양지역
18. 구레[kore] : 경주, 강진지역
19. 구레[kore:] : 밀양, 양산지역
20. 구리이[kurii:] : 문경지역
21. 구우:ㄹ[kuu:l] : 밀양지역
22. 굴[kul] : 울산지역

7) 최학근, 상게서, 65~66쪽.

23. 굴뚝[kul-ˀtuk] : 조치원 지역

24. 굴래[kullɛ] : 영주, 봉화, 청송, 영천, 경산, 대구, 의성지역

25. 굴레[kulle] : 고성, 군위지역

26. 꼬래[ˀkorɛ] : 문경지역

27. 꼬래[ˀkorɛ:] : 부산지역

28. 꾸:르[ˀku:l] : 김해지역

29. 나무창[namu-tʃaŋ] : 광양지역

30 마구[magu] : 완도지역

31. 마구깐[magu-ˀkan] : 장흥지역

32. 미주바꾸[midddʒu-baˀku] : 상주지역

33. 미주바끼[midddʒu-baˀki] : 상주지역

34. 방고래[paŋ-gorɛ] : 울진, 원성, 횡성, 홍천지역

35. 방꼬래[paŋ-ˀkorɛ] : 안동, 포항지역

36. 영게[jəŋgɛ] : 상주지역

37. 이닝게[iningɛ]

38. 이닝기[iningi] : 왜관, 군위지역

39. 잉기[iŋgi] : 상주지역

40. 허깐[həkan] : 광주, 구례지역

41. 허청[hatʃ'aŋ] : 담양, 나주, 보성, 고흥, 함평, 해남, 영암지역

42. 허청게[hatʃ'aŋ-gje] : 진도지역

이상의 1), 2), 3) 에서 볼 수 있었던 방언의 각각 형태와 kol(골), 〈kol, kol〉과의 언어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한 그것이 만주어 hollo(谷)와는 어떻게 어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를 나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kol, ˀkol의 방언에서의 변이형태

가) kol(골) : kol(고어) 〈훈몽상 3, 類合上 5〉

ㄱ. 동음, 동형태, 동의미이다.

ㄴ. 원시공통퉁어의 재구형은 KVt형이며

ㄷ. KVt>KVl~KVr이다.[8]

ㄹ. 따라서 kol과 중세국어 kol은 동형태이다.

나) kol(골) : ko:l-ʔtʃagi(고;르짜기)

ㄱ. 두 형태의 stem은 kol이며

ㄴ. -ʔtʃagi는 kol에 첨가된 어미라고 보겠다.

ㄷ. 따라서 원시공통퉁어의 재구형은 KVt형이며

ㄹ. KVt>KVl~KVr로 변하였다.

다) kol(골) : ʔkoraŋ(고랑)

ㄱ. 두 형태의 stem을 kol~kor이며

ㄴ. ʔkoraŋ은 kor + aŋ

ㄷ. kor은 stem이며 -a 은 첨가된 어미라 하겠고

ㄹ. ʔkor은 kor의 경음화로 봄이 옳을 것이며

ㅁ. 또한 ʔkora 의 첨가어미 -aŋ은 ʔtora 의 -aŋ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ㅂ. 따라서 kol과 kora 의 조어재구형은 KVl~KVr 형으로 stem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kol(골) : ʔkol-ʔtʃak(골짝) : ʔkol-tʃagi(골짜기) : ʔkol-tʃak(골짝)

ㄱ. kol, ʔkol-ʔtʃak, kol-ʔtʃagi, ʔkol-tʃak의 stem은 kol이다.

ㄴ. -ʔtʃak,-tʃ'ak은 kol에 붙은 첨가어미이며

ㄷ. ʔkol은 kol의 경음화이며

ㄹ. ʔkol-ʔtʃak, ʔkol-tʃ'agi, ʔkol-tʃ'ak은 kol의 경음화된 변이형태이며

ㅁ. ʔtʃak,-tʃ'agi,-tʃ'ak의 기본형은 tʃ'ak인 것 같다.

---

8) Nicholaus poppe, Ural-Altaioche bibliothek,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참조.

ㅂ. 따라서 위의 4형태의 공통조어는 KVl~KVr이며 이것은 KVt 형에서 변이한 형태라고 보겠다.

마〉 kol(골) : ˀtoraŋ(또랑)

ㄱ. kol은 KVt>KVl~KVr의 변천으로 볼 수 있다.

ㄴ. ˀtoraŋ은 tor + aŋ 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ㄷ. tor은 stem이며 aŋ은 첨가어미임을 알 수 있으며

ㄹ. tor의 조어재구형은 tVr이라 볼 수 있으니

ㅁ. 그 이유는 'TAR'이 산을 의미하는 고대 터어키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고구려어에서는 '達'이 '山''高''城'과 관련이 있음을 익히 알기 때문이며, 또한 '忽'과 '谷'과도 관련이 있음을 역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ㅂ. 따라서 kol과 toraŋ의 겹음화의 형태 ˀtoraŋ은 同意味 異形態임을 알 수 있으며, kol과 tora 은 의미론적으로 볼 때 '谷' '達' '山' '城' '忽' '高' 등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가〉, 나〉, 다〉, 라〉, 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kol,ko:l-ˀtʃagi, tʃagi, ˀkoraŋ, kol-ˀtʃak, kol-tʃ'-agi, ˀkol- tʃ'ak, ˀtoraŋ의 형태에서 공통조어를 재구해 보면 'kol'형 즉 'KVl~KVr' 형이 될 것이며 '- t agi' '-a' '- ak' '-t' 'agi' '-t ak' '-a '의 형태는 'kol'의 겹음화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 toraŋ'의 형태는 'toraŋ '의 겹음화현상이며 조어재구형은 tor의 'tVl~tVr' 형으로 고대 터어키어의 'tar'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이 'tVl~tVr'의 조어형태는 'KVl~KVr'의 조어형태와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공통의미를 예로 들면 '達' '山' '谷' '城' '高' 등이다.

(2) kol, kol의 방언에서의 변이형태

가〉 kol(골) : 굳, kut(고어) 〈訓蒙下 17〉 〈釋譜九 : 14〉

ㄱ. kol의 공통조어재구형은 'KVl~KVr' 형이며

ㄴ. 위 'KVl~KVr'은 KVt형에서 변천되었다고 본다면

ㄷ. 굳(kut)을 KVt형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ㄹ. kol의 전대 형태가 바로 kut 임을 알 수 있겠고

ㅁ. 따라서 kol : kut 의 관계는 통시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ㅂ. kol : kut은 동근어 동의미임을 알 수 있겠다.

나) kol(골) : kudəgi(구더기),kudək(구덕),kudəŋ(구뎅)

ㄱ. kol의 공통조어형 'KVl~KVr'

ㄴ. kudəgi, kudək, kudəŋ을 분석해 본다면,

1. kud + əgi, kud은 stem, -əgi는 첨가어미이고

2. kud + ək, kud은 stem,-ək은 첨가어미이고

3. kud + əŋ, kud은 stem,-əŋ은 첨가어미이고

따라서 kudəgi, kudək, kudəŋ의 stem은 'kud'이며 'əgi' '-ək' '-əŋ'은 첨가어미이다.

ㄷ. stem 인 'kud'은 'kut'으로 옮겨 쓸 수 있으므로

1. -d:-t의 관계는

2. d : 開口度 0도로 잇몸소리요,

t : 개구도 0도로 잇몸소리며

d : 可聽度 2도이며

t : 가청도 1도이다.

따라서

kutəgi : kudəgi, 즉 kutəgi -> kutəgi>kud + əgi(유성음화)

kutək : kudək, 즉 kutək -> kutəŋ>kud + ək(유성음화)

kutəŋ : kudəŋ, 즉 kutək -> kutəŋ>kud + əŋ(유성음화)

의 관계는 유성음화로

ㄹ. 결론적으로,

kol의 조어재구형은 KVl~KVr 형이며

kudəgi, kudək, kudəŋ의 조어재구형은 KVt형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도식화한다면,

KVt > ┌ KVl~KVr 형인 kol계 어형태로 발음화
└ KVt + suffix 형 ┌ (-əgi) (-dək)
└ (-dəŋ) ……etc

다) kol(곧) : 구데이(kudei), 구되기(ku gi), 구두기(kudugi), 구디(kudi)

ㄱ. kudei, kudʒgi,kudugi,kudi 를 분석해 본다면

1. kud + ei, kud(stem), -ei(첨가어미)
2. kud + ʒgi,kud(stem), -ʒgi(첨가어미)
3. kud + ugi,kud(stem), -upi(첨가어미)
4. kud + i, kud(stem), -i(첨가어미)

ㄴ. stem인 'kud'은 'kut'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kutei : kudei, 즉 kutei -> kutei>kud + ei(유성음화)

kutʒgi : kudʒgi, 즉 kutʒgi -> kutʒgi + kud + ʒgi(유성음화)

kutugi : kudugi, 즉 kutugi>kud + ugi(유성음화)

kuti : kudi, 즉 kuti)kud + i (유성음화)

이상의 관계로 볼 때,

- kudei : 조어재구형 kut + 첨가어미 -ei>krdei(유성음화현상)어미의 변천형태로 -əgi,-ək, əŋ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kudʒgi : 조어재구형 kut + 첨가어미 -ʒgi)kudʒgi(유성음화현상) 어미의 변이형태로 -eŋi, -ei:, -eiŋi, -eŋi, -u:ŋi,-wii, -wi:ŋi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kudugi : 조어재구형 kut + 첨가어미 -ugi)kudugi(유성음화현상) 어미의 변이형태로 -igi, -ii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kudi : 조어재구형 kut + 첨가어미 -i>kudi(유성음화현상) 어

미의 변이형태로 -i:, -iŋŋi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ㄷ. 결론적으로 kol의 조어재구형은 KVl~KVr형이나 이것은 KVl 형에서 변천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알 것이며, 또한 kudei, kudʒgi, kudugi, kudi의 조어재구형은 KVt형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도식화한다면,

KVt > ┌ KVl~KVr 형인 kol계 어형태로 발전화
└ KVt + suffix 형 ┌ {-əi} {-ʒgi} ┐
└ {-ugi} {-i} ┘

d. kol(골) : 구멍[kumaŋ], 구시[kusi], 꼬랑[ˀkoraŋ], 꾸덕[ˀkudək], 굼티기[kumtˀigi]

ㄱ. kum ,kusi, kora , kudek 를 분석해 본다면

1. kum + əŋ, kum,(stem), -əŋ(첨가어미)
2. kut + si, kut(stem), -si(첨가어미)
3. kor + aŋ, kor(stem), -aŋ(첨가어미)
4. kud + ək, kud(stem), -ək(첨가어미)
5. kum + t'igi, kum(stem), -t'igi(첨가어미)

ㄴ. stem인 kum과 kor의 관계

1. -m : -t : -r의 관계는

a. m : 開口度 2度
: 可聽度 4도
t : 개구도 0도
: 가청도 0도
r : 개구도 3도
: 가청도 5도

b. 개구도의 順位로는

t : m : r 이며

c. 可聽의 순위로도

t : m : r이나

a.,b.,c의 경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개구도적인 측면이나 가청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t>m와 t>r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m:t:r 관계를 도식화한다면

```
t> ┌> r
   └> m
```

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ㄷ. ㄱ, ㄴ을 통해서 보면 stem인 kum, kut, kor은 kut>kum과 kut>kor 임을 알 수 있겠다.

ㄹ. 결론적으로

kol의 조어재구형은 KVl~KVr 형이며 이것은 KVt 형에서 변천되었음도 앞에서 밝혔고 kumaŋ, kusi, koraŋ, kudak, kumt'igi 의 조어재구형은 KVt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도식화한다면,

```
KVt ┌ KVt~KVr 형은 kol계로 변화
    │ KVt)KVm형 + {-əŋ} (suffix 형태첨가) > kuməŋ
    │ KVt)KVt형 += {-si} (suffix 형태첨가) > kusi
    │ (이 때의 's'는 'ss'나 'cɛ'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
    │   접으로 시사함을 알 것이다.)
    │ KVt + KVr 형 +{-aŋ}(suffix 형태첨가) > *kuraŋ
    │ KVt + KVt 형 + {-ak}(suffix 형태첨가) > kud k
    │   (유성음화현상)
    └ KVt > KVm 형 + {-t'i} + {-gi} (suffix 형태첨가)
        > kumt'igi
```

마) kol(골) : 물 꾸덩(mul-*kudəŋ), 뚬뱅(tumbəŋ), 웅데이(uŋdei)

ㄱ. mul-ˀkudaŋ, tumbəŋ, uŋdei 를 분석해 본다면,

1. mul- kudəŋ : mul + kud + {-əŋ}] (첨가어미)

mul(stem)

kud(stem) : 1. 실사의 허사화에 의해서 mul -ˀkudəŋ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2. mul-ˀkudəŋ을 mul(명사) + kudəŋ(명사)의 합성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uŋdei : uŋ(stem) + {-dei}(첨가어미)

ㄴ. stem인 mul과 kud인 tum과 uŋ의 관계

1. kol : kud는 공통조어가 KVt형이며

2. kol : mul : tum : uŋ의 관계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同系語義를 가졌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면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kol : mul-ˀkudəŋ : tumbəŋ : uŋdei 이는 同系語義의 개연성이 큰 이형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좀 더 확고한 논증을 필요로 한다.

ㄷ. 결론적으로

kol, mul-ˀkudəŋ, tumbəŋ, uŋdei는 또 다른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데 아마도 초기언어에서 본다면 kol, mul-ˀkudəŋ, tumbəŋ, uŋdei는 서로 각각 상이한 부족어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독립된 방언으로만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 kol, kol의 방언에서의 변이형태

가) kol(골) : 구레(kure) : 고래(korɛ) : 구들목(kudul-muk) : 구들(kudil) : 구들짱(kudil-ˀtʃaŋ)

ㄱ. kure, korɛ, kudul-muk,kudil-ˀtʃaŋ을 분석하면,

1. kure : kur + {-e}(첨가어미)
2. korɛ : kor + {-ɛ}(첨가어미)
3. kudul-muk : kuk + ul(첨가어미) + muk(실사의 허사화된 어미)

   muk : mura(물)〈琉球語〉

   muyi(森)〈琉球語〉

   여기에서 muk : mura : muyi의 관계는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또한 공통조어를 재구해 본다면 mVc형일 것으로 추정이 되나 琉球語인 경우 mura, muyi는 mvc의 開音節化로 봄이 타당하여 이런 형상동은 섬(중세한국어). syum을 일본어에서는 sima, 神을 한국어에서는 kam(까)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일본어에서는 kamu, kami라고 하는 것과 동차원의 문제이다.따라서 '-muk'는 실사의 허사화된 어미이며, 실사였을 때의 형태의 조어형은 mVc였을 것이며,이 mVc형의 변천은 mVt)mVr)mVk인 muk로 변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의 의미도 '들' '森'의 뜻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4. kudil : kud + {-il}+(첨가어미)
5. kudil-ˀtʃaŋ : kud + {-il} + [ˀtʃaŋ]](첨가어미)

ㄴ. stem인 kur, kor, kud의 관계에서는

1. kur, kor, kud의 공통조어의 재구형은 KVt형이며, 이 형태를 *kud'에서 찾을 수 있고,이 'kud'형은 아마도 'KVt'형태의 유성음화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또한 kur, kor, kud의 형태에서 가장 古形態는 *kud'일 것이며 'kur'과 'kor'은 'KVr'이라는 형태의 각각 異形態로 봄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KVt의 유성음화형인 KVd형이 'kud'이며 여기에서 발달된 변이형이 'kur'이나 'kor'로 보인다.

ㄷ. 결론적으로 kor, kure, korɛ, kudul-muk, kudīl, kudīl-ʔtʃaŋ의 공통조어재구형은 KVt형이며 'kud-'형은 KVt형이며 유성음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들은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kvt > • kol인 경우 : kvt~kvr형으로

• kure 인 경우 ; kvt)kvl~kvr+e)kvre 형인 'kure'이며 이런 현상은 'kvt'형에서의 개음절화로 볼이 타당하다.

• korɛ인 경우 : kvt)kvl~kvr + ɛ> kvrɛ형인 'korɛ' 이며 이런 현상은 'KVt'형의 개음절화로 볼 수 있으며, 'kure'와의 관계는 각각 변이형태로 간주 될 수 있겠다.

• kudil 인 경우 : kvt)kvd(유성화) + il>kvdīl형인 'kudīl'이며 -t>-d는 어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학적인 현상이다.

• kudul-muk 경우 : kvt)kvd(유성음화) + ul)kvdul 형인 'kudul' 이며 여기에서 '-muk'은 'kvt'형의 同系的 의미인 琉球語 'mura' 'muyi'의 공통조어라고 볼 수 있는 'mvt'의 변천형인 'muk'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kudul-muk'은 합성어임이 타당한 견해이다.

• kudil-ʔtʃaŋ인 경우 : kvt)kvd(유성음화) + il)kvdil 형인 'kudil'이며 여기에서 '-ʔtʃaŋ'은 앞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만 남기고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나) kol(골) : 굴(kul) : 구레(kurɛ) : 구리이(kurii) : 꼬레(ˀkorɛ)

ㄱ. kul, kurɛ, kure, kurii, ˀkorɛ를 분석하면

1. kul : kulɛ + ʒ
2. kur + [-ɛ](첨가어미)
3. kurii : kur + [-ii](첨가어미)
4. kor : kor + [-ɛ](첨가어미) > korɛ의 결음화) ˀkorɛ

ㄴ. stem 인 kul, kur, kor의 관계에서는

1. kul, kur, kor 의 공통조어의 재구형은 역시 kvr형이며 이 kvt 형에서 kvr형으로 변천하였으며 위의 'kul-' 'kur-' 'kor-'의 형으로 異形態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아마도 'kul-' 'kur-' 'kor-'의 stem에서 선대의 어휘형태로서는 'kor'이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 이유로서는 kvt의 조어에서 'kol'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kor' 의 변이 형태가 'kul-' 'kur-'임이 분명하다고 보겠다.

ㄷ. 결론적으로

kol, kul, kurɛ, kurii, korɛ, ˀkorɛ의 공통조어재구형은 kvt 형이며, 위의 사항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kvt >
- kol : kvt > kvl~kvr 의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 kul : kvt > kvl~kvr 의 전형적인 형태에서의 이형태로 봄이 옳을 것이다.
- kurɛ : kvt > kvr + > kvr (開音節化) 형인 'kurɛ' 이다.
- kurii : kvt > kvr + ii > kvrii 형인 'kurii'이며 이것은 kvt형에서 본다면 장모음의 개음절화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ˈkorɛ : kvt>kvr>kvrɛ형인 'korɛ'인데 여기에다가 경음화현상이 첨가되어서 'ˈkorɛ'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 kol(골) : 나무창(namu-tʃˈaŋ) : 이닝기(iningi) : 허청게 (hətʃˈəŋ-gje)

ㄱ. namu-tʃˈaŋ, iningi, h t -gje 의 분석은

1. namu-tʃˈaŋ : nam + u + tʃˈaŋ, stem은 'nam-'
2. iningi : in + in + gi, stem 은 'in-'이다.
3. hetʃˈəŋ-gje : hət + əŋ + gje , stem은 'hət-'이다.

ㄴ. stem인 nam, in, h t의 어학적 관계에서는

1.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nam-''in-''hət-'의 공통적인 관계를 규명하기란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2. 아마도 이들 어휘인 'namu-tʃˈaŋ' 'iningi' 'hətʃˈəŋ-gje' 는 서로 상이한 異部族들의 언어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다른 형태들이 현재까지 반달되어 왔다고 하겠다.
3. 그러나 형태론적으로는 발생년대나 발생부족명칭이 각각 상이하다도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 의미가 '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고 추정 할 수 있겠으며 이 문제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겠다. 왜냐면 여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언어적 사실들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1)의 가) 나) 다) 라) 마)

(2)의 가) 나) 다) 라) 마)

(3)의 가) 나) 다)를 통해서 골(谷, kol)계의 방언을 포함하는 여러 어학적 사실들을 살펴 볼 수 있는 한 많은 부분들을 나열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사항별로 요약한다면,

첫째, 'kol'과 kol(古語), ko : l-ʔtʃagi, koraŋ, ʔkol-ʔtʃak, ʔkol-tʃ'agi, 'kol-tʃ'ak, toraŋ에서

ㄱ. 'kvl~kvr'형이 공통조어제구형이라는 공통점이며

ㄴ. 'kvl~kvr' 형은 아마도 'kvt'형에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예견해 준다는 점이며

ㄷ. '-tʃagi' '-aŋ' '-tʃak' 'tʃagi' '-tʃ'ak'은 아마도 'kvl~kvr'형에 첨가어미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ㄹ. 'ko:l' 'kor-' 'ʔkol-'은 'kol'의 장모음화와 경음화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ㅁ. 여기에서 'ʔtoraŋ'은 그 조어제구형이 'tvt'형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 tvt형이 tvr형으로 변천되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ㅂ. 바로 'tvt>tvr'형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tar'(고대 터어키어)이 있으며 그 의미는 '達' '高' '山' '谷' '城'이다.

둘째, 'kol'과 'kut(古語), kudəgi, kudək, kudəŋ, kudei, kuddʒgi, kudugi, kudi, kumən, kusi, kudək, kumt'igi, mul~ʔkudəŋ, tumbəŋ, uŋdei'에서

ㄱ. 'kol~kvr'형이 공통조어제구형이며

ㄴ. 아마도 위의 형은 kvt형에서 변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ㄷ. 이러한 형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형이 바로 'kut'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ㄹ. '-əgi' '-ək' '-əŋ' '-ei' '-dʒgi' '-ugi' '-i' '-əŋ' '-ək' '-t' 'igi' '-kudəŋ' '-bəŋ'을 아마도 'kvl~kvr' 형에 첨가어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ㅁ. 또한 'kum-'의 형태는 'kvt>kvw'에서 본다면 'kut>kum'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ㅂ. 또한 'mul-ʔkudəŋ'에서는 'mul'과 'ʔkudəŋ'의 합성어임을 말할 수도 있겠고 다른 면에서는 '-ʔkudəŋ'을 실사의 허사화로 본다면 당연히 '-ʔ

kudəŋ'의 조어재구형을 'kvt'형으로 보고서 '-əŋ'을 첨가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ㅅ. 'tumbəŋ' 'uŋdei'의 어학적인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tumbəŋ' 'uŋdei'라는 어휘와 kvt 계의 어휘와의 관계는 각각 상이한 부족어였을 가능성이 커보이면서 현재에 있어서는 독립된 방언으로서만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tumbəŋ' 'uŋdei'는 'kvt'계의 어휘들과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의미는 동일계 어휘이기 때문에 계어학적인 사실로 볼 때 개연성이 큰 이형태 들이며 또한 고대 제부족어들이 후대에 들어와서 각각 독립된 방언으로 존립할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kol'과 'kure, korɛ, kudul-muk, kudīl, kudīl-tʃaŋ, kul kurɛ, kurii, ? korɛ, namu-tʃ'aŋ, iningi, hətʃ'əŋ-gje에서

ㄱ. 'kvl~kvr'형이 공통조어재구형이며

ㄴ. 'kud-'는 kvt>kvd(유성음화)변화에서 'kvd'형인 'kud-'일 뿐이다.

ㄷ. 그러므로 'kud-'계의 어휘는 'kvr'계의 어휘인 'kor-'계이나 또는 'kur-'계 어휘보다도 선대의 언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ㄹ. '-e' '-ɛ' '-ul' '-muk' 'īl' '-ʔtʃaŋ' '-i' '-tʃ'aŋ' '-gi' '-gje' 은 첨가어미로 봄이 옳을 것이다.

ㅁ. 또한 'namu-tʃ'aŋ' '-u-, -tʃ'aŋ' 'iningi' 'hətʃ'əŋ-gje'에서는 namu-tʃ'aŋ 은 namu-t'a 은 nam-u-tʃ'aŋ이며 -u-, -tʃ'aŋ 역시 첨가어미로 볼 수 있으며 iningi에서는 inin-gi와 in-in-gi 중에서 어느 형태가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며, hətʃ'əŋ-gje로 분석하여 -gje는 첨가어미로 봄이 옳을 뜻하다.

ㅂ. 'namu-tʃ'əŋ' 'iningi' 'hətʃ'əŋ-gje'의 어학적인 문제는 'kvt'어계와 어떤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에

게 어떤 추론을 낳는다. 아마도 namu-tʃ'aŋ, iningi, hətʃ'aŋ-gje 는 서로 상이한 부족들이 언어일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각각 독립된 채 현재까지 변천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방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ㅅ.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서 생각하면 많은 현재의 방언들이 과거에 있어서는 異部族 간의 고유한 언어였을 것이며,이러한 어휘들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부 단어들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일부는 현재까지 그 생명력을 갖고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필자는 첫째의 ㄱ~ㅂ까지, 둘째의 ㄱ~ㅅ까지, 셋째의 ㄱ~ㅅ를 통해서 kvt계 어휘와 kvt계 어휘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의미가 동계 어휘인 몇몇 형태를 '한국방언사전'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kvt계의 조어에서 변천된 어휘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언들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어휘들은 아래와 같다.

1. kol (古語,訓蒙上 3)
2. kol-tʃ'ak (구례, 강진, 화순, 함평, 영암, 고흥지역)
3. ko:l-ㄱ tʃagi (고흥지역)
4. ˈkoraŋ (하동지역)
5. ˈkol-tʃak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6. ˈkol-tʃ'agi (구례(화계면)지역)
7. ˈkol-tʃ'ak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8. kut (古語訓蒙下 17, 釋譜九 14)
9. kudəgi (포항, 충무지역)
10. kudək (전주, 사천, 거제, 남해, 충무, 구례, …… 등)
11. kudəŋ (구례(외곡리), 하동지역)
12. kudei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영덕, 경주,…… 등)

13. kuddʒgi (창녕지역)
14. kudugi (사천지역)
15. kudi (진양, 영동지역)
16. kumən (여수지역)
17. kusi (남해지역)
18. ˀkoraŋ (이리지역)
19. ˀkrdək (하동지역)
20. kumtˀigi (청도지역)
21. mul-ˀkudəŋ (하동, 남해지역)
22. tumbəŋ (수천, 광양지역)
23. uŋdei (문천, 제천지역)
24. kure (月釋序 24)
25. korɛ (안동, 울진, 영양, 영덕, 포항, 경주, 문경 등)
26. kudul-muk (무주지역)
27. kudsil (청주, 연풍, 단양지역)
28. kudɪl-ˀtʃaŋ (청주지역)
29. kui (울산지역)
30. kurɛ (성주, 충무, 제천, 청양지역)
31. kurii (문경지역)
32. ˀkorɛ (문경지역)
33. namu-tʃˀaŋ (광양지역)
34. iningi (해관, 군위지역)
35. hatʃˀaŋ-gje (진도지역)

둘째, 1~35까지의 어휘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조어재구형이 kvt형이며

셋째, 그 밖의 몇몇 어휘들은 異形態的인 同義語이며

넷째, 위의 kvt 계 어휘들은 만주어의 hollo(谷)와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그러한 이유는 Altai 제어에서는 어두자음에 있어서 h:k:g는 대응관계가 있다는 점은 선대의 제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이런 점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hollo의 조어형태를 다음을 통해 밝혀볼 수 있겠다.

ㄱ. hollo는 hol + l + o 일 가능성이 더 커보이며

ㄴ. hol : stem이며

ㄷ. -l- : 첨가어미인데, 여기에서는 'hol'이 stem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모음 -o-사이에 '-l-'을 첨가시켜서 발음상의 확실성을 기하였고 '-lo'로 분절음화현상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ㄹ. 따라서 'hollo'의 조어재구형태는 stem인 'hol'에서 볼 때의 'hvt'계의 형태일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1. 어두의 자음은 그 형태대로 'h'일 것이며
2. 어중의 모음은 vowel의 약자인 'v'일 것이며
3. 'hol'의 어미인 '-l'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r'과 동계의 間隙의 度이기 때문에 -t)-r 또는 -l로 표시할 수 있어서
4. 'hollo'의 조어재구형은 'hvt'이다.

ㅁ. 때문에 'kvt'어계의 조어형태와 'hvt'어계의 조어형태를 비교하여 본다면

1. 어두자음 k:h는 Altai 제어에서는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2. 'kvt'와 'hvt'의 관계는 상호간의 동근어동의미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ㅂ. 따라서 우리는 본고에서 kol어계와 hollo어계의 쓰임을 대별할 수 있게 된 셈이 된다. 말하자면 'kvt'어계를 조어로 삼든 'kol'어계의 어휘와 방언들은 고구려어 계통의 어휘이 이 단어들은 첨가어미가 붙고 또 붙어서 새로운 어휘로 변했으며 오늘날은 전국적으로 널리 산재된 '山' '谷' 어휘의 대표적인 지칭이 된 셈이다.

또한 'hvt'어휘를 조어로 삼는 'hollo'어계의 어휘와 방언들은 오늘날 만주지방에서는 널리 산재될 수 있는 지칭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면에 field work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hollo'라는 어휘 자체가 만주어인 만큼 물론 만주지역의 곳곳에 는 '山' '谷' 어휘의 지칭에 많이 쓰일 것이다. 아마도 그 옛날 고대의 만주지역의 지명어 중에서는 고구려계어나 만주퉁구스계어와 뒤섞여서 동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ㅅ. 오늘날 위와 같이 '山' '谷' 어휘의 지명어 중에서 특히 'kol'과 'kol-'의 어휘는 북방적 요소인 고구려어와 만주퉁그스어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이며 이런 현상은 그 옛날 막강했던 북방적 요소들을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상에서처럼 '-골[kol]'에 대한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필자가 가능한 주의깊게 살펴 보려고 했던 점을 나열하면

1. 고구려어인 '골[kol]'은 만주어의 'hollo'와 비교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일게 공통 조어를 가졌다는 것을 규명했으며
2. 오늘날 '골짜기' '골짝' '골째기' '골짤' '…골짜기' '짤짝' '…구덩이' '구뎅이' '구더기' '구데기' '구데이' '…고래' '구들목' '구들짱' '굴' 등의 어휘들과 '골[kol]'과의 어학적 관계를 규명했으며
3. 따라서 성남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골' '-골 고개' '-고개 골' '-벌골' '-굴산' '-굴 고개' '-골산'의 형태들은 모두 1. 2와 관련되어 있음도 결국은 입증이 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어인 '골[kol]'은 현대에 와서는 수많은 형태로 다양화된 어형으로 변화된 채지명에서 쓰이고 있으며,이러한 양상이 성남지역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골'의 의미론적 성격

1) 고구려대에 있어서 '골[kol]'은 그 의미 '城'이었던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買忽(一云水城) — 水城郡(水原)'에서도 보면 '골[kol]'은 '忽'으로 표기되면서 뜻은 '城'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오늘날 성남지역에서의 '골'은 골(谷), 고개(谷), 굴고개(谷谷), 고개골(谷谷), 벌골(野谷), 굴산(谷山), 굴고개(谷谷)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고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1. 고구려어인 '忽'인 '골'이 오늘날 성남지역에서는 매우 규칙적으로 거의 원형이 가능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kol]에 대한

[kol-tʃ'ak][koːl-'tʃagi][ˇtʃagi][ˇkol-tʃak][ˇkol-tʃ'agi][ˇkol-tʃ'ak][kut][kudəgi][kudək][kudəŋ][kudei][kudəgi][kudugi][kudi][kumənŋ][kusi][ˇkoraŋ][ˇkudək][kumt'igi][tumbəŋ][kure][korɛ][kudul - muk][kudsil][kurɛ][ˇkorɛ]

등에서처럼 '-tʃ'ak' 'tʃagi' '-aŋ' '-tʃak' 'tʃ'agi' '-əgi' 'ək' '-ei' '-dʒgi' '-ugi' '-i' …… 등의 어미가 첨가되어서 다양하게 지명이 발달되었다고 본다면 성남지역에서는 원형인 '골[kol]'과 변이형태의 한 어형인 '굴[kul]'의 양형이 보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谷'으로 동일하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성남지역에서는 어미의 첨가현상이 거의 지명어에서는 보이지 않음이 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굴고개(谷谷)' '고개 골(谷谷)' '벌골(野谷)' '굴산(谷山)' '굴고개(谷谷)' '골산(谷山)'과 같은 중첩된 어휘들이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흔적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 고구려시대에 있어서 '忽[kol]'은 그 의미가 '城'이었지만 오늘날 성남지역에서는 '谷' '城'으로 쓰이고 있으며, '城'의 경우는 '山'과 합성되어서 '南漢山城'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특히 성남지역에 있어서는 '野'

'山' '谷' 과 어울려서 중첩된 의미로서의 '忽'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 언어의 경제성에 의한 의미 확대,또는
2. 언어의 보수성과 제약성,또는
3. 삼국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성남지역은 처음은 백제의 영역에 속해있었지만 후에는 고구려, 신라에 속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지명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고구려어적인 면에서도 '城'이 '谷'으로 쓰이면서 '山' '野'와도 합성되어 그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골'과 관련된 여러 사항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하면

가. kol(골) 은 고구려어이기 때문에 많은 기초어휘 중에서도 가장 선대 어휘라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kol'에 관계가 되는 수많은 어휘들이 'kol'이라는 stem에서 파생 및 음운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형태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나. 'kol'은 고구려어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는 어휘이다.그러한 이유는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溪·山·高·城·谷'인데 이 모두가 위에서도 밝혔듯이 북방계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형태론,의미론적으로 보았다. 또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파력은 국력과 비례한다고 볼 때 이 'kol'어계의 어휘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도 다양한 형태로 쓰임도 고구려의 국력과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고 특히 성남지역에는 '골'과 '제'가 동시에 쓰임은 이 지역이 고구려와 백제의 중요한 영토적 역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이 '골(kol)'은 Nicholaus poppe 의 저서에서도 밝혔듯이[9] 'kvt'

9) Nicholaus poppe, 상게서 참조.

(원시공통조어)형이 'kvl～kvr' 형으로 변천되었던 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남에서는 이와는 다른 형태가 발견되는데 '－곡(kok)'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야탑동(野塔洞)'의 소재인 '탑곡(塔谷)'이 바로 '－곡(kok)' 의 형태인데 이는 한자어인 '곡(谷)'을 차용한 음차가 아니고 'kvt'형과 'kvl～kvr' 사이에 중간 단계의 어형태일 가능성이 보다 크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부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에 접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아닌 'kvt'형 다음에 아마도 'kvk'형이 오고 그 다음 형으로 'kvl～kvr'형이 왔던가 아니면 'kvt'형 다음에는 'kvk'와 'kvl～kvr' 형태가 동시에 와서 '－k'와 '－l～－r'인 어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되었는지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단지 여기에 있어서는 'kok(谷)'의 형태가 이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명어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이 성남지역이 안고 있는 중요성도 재인식할 계기도 되었다고 보겠다. 말하자면 이 지역은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완충지역이라고 봄이 옳을 성 싶다. 따라서 '골(kol)' '곡(kok)' '재(cai)' 등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섞인 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의미상에 있어서도 '골(kol)'과 '곡(kok)' 그리고 '재(cai)'는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이들의 공통되는 의미는 '山' '고개' '들' 과 같은 '山,野'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라. 골(kol)과 고개(koke)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a. 골(kol)은 'kvt'가 공통조어임을 앞에서 언급하였고 이 'kvt'형이 변천하여서 그 다음 단계형인 'kvl～r'이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형이 'kvl'이다.

b. 고개(koke)는 'kvt' 가 변천하여 그 다음 단계라고 보았던 'kvl~r'형이 오기 전에

i. kvt > kvk > kvl~r 이었던가,혹은

ii. kvt > kvk

kvl~r 의 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그렇다면

iii. kvt > kvk > kvl~r 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고개 (koke)의 형태는 'kvk'형의 'kok+-e'에서 'kok'은 'kvk'형의 stem이며 '-e'는 첨가된 ending이며 여기에서는 '처소격 조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도 예견된다.

중세한국어 '아래(下)'는[10] 'al + e' 로 봄이 옳을 듯하다. 그래서 'al'은 stem 이며 '-e'는 첨가된 ending이며 여기에서는 '처소격 조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볼 수 있는데는 다음에서 더욱 그러한 예증을 찾을 수 있겠다.

아래(下) : evenki 어 (alas 脚)

mongo 어 (ala, 사타구니)

고대 터어키어 (al, 下面)

중세 터어키어 (altin, 아래)

에서 볼 때 '아래'는 'al + e'임을 알 수 있었으며 오늘날 '아래'는 그 어원이 'al'이었고 거기에다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e'가 첨가되었다면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개(koke)'의 경우도 'kvt' 의 변화형인 'kok'와 장소

10) 중세한국어에 있어서 '아래(下)'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ㄱ) 城 아래 닐흔살 쏘샤 (용 40)

ㄴ) 하늘우 하늘아래 나 뿐 尊호라 (석 六 17)

ㄷ) 나모 아래 안즈샤 (曲 117)

ㄹ) 아래 하(下) (類合上 2)

ㅁ) 부름 아래 서도다 (金 삼 三 54)

를 나타내는 조사 '-e'가 첨가되어서 'koke' 가 되었으니 이것도 그 어원을 'kvt'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 어형태는 'kol' 이다. 그리고 'kvt'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 어형태는 'kol'이다. 그리고 'kvt' 형인 'kut' 도 석보상절 (9:14) 에서 그 형태가 보인다. 따라서 골(kol) 과 고개(koke)는 고구려어이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형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모두 고구려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그 의미도 '山' '谷' '溪' '城' '재' '野' 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석보상절 九:14> 와 <古語訓蒙 下 17>에서 보이는 'kut' 형은 'kvt' 조어형에 가장 가까운 형인데 이러한 'kut' 형의 개음절화한 다음 단계의 변화된 어휘 형태들이 방언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면 '진양.영동지역'의 'kudi'와 '영주·봉화·울진·영양·영덕·경주 등'의 'kudei' 또한 '포항·충무지역'의 'kudəgi' 그리고 '청주·연풍·단양지역'의 'kudsil' 등이 'kut' 의 개음절화한 다음 단계의 변화형이거나 여기에 첨가된 어미를 합쳐서 복합적인 합성어가 되었을 뿐이다.

마. 또한 '골(kol)' 과 '재(cai)' 와 '들(til)' 과의 관계를 살펴 보자.

오늘날 성남지역에서는 '골(kol)'이 대체적으로 '곡(谷)' '고개(谷)' '골고개(谷谷)' '고개골(谷谷)' '골(野谷)' '골산(谷山)' '골고개(谷谷)' '골산(谷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벌 골(野 谷)은 오늘날 '야산(野山)' 내지 '下溪' 정도의 낮은 '산야(山野)'를 지칭할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들(til)' 과 뜻먹는 뜻으로 생각되며 '벌(野)'과 '들(野)' 은 동개념의 이형태의 어휘임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골(kol·谷) 과 들(til·野) 이 성남지역에서는 동개념적으로 쓰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tor(山)이 고대 터어키어이며 dar(山) 이

osman 어이며 따라서 이러한 어휘는 'ul(들·野)'와 상관성이 진하다 하겠다.

3. 결 어

이상에서 필자는 "성남 지명의 지명어 '-재- 연구"를 풀어 보았다. 여기에서 결론삼아 이 지역에서의 '-재' 는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려 본다.

첫째, free morpheme 인 '재'는 원래 백제어로서 고구려어로는 '谷·忽·城'과 비교되며 신라어에 있어서는 '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둘째, 성남지명에서는 '재'가 bound morpheme '-재' 로 사용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재'의 의미는 '山·고개·野·野谷·벌·들'로 사용된 듯하다.

셋째,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 볼 때 원래 '재(子兮)'는 '高山'이나 '高谷' 등의 보다 낮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남지역은 아마도 지역적으로 완충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요한 삼각지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들이 보다 넓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성남지역의 山·谷·野·溪 어계의 어휘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많은 비평과 조언을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金亨奎, 國語史槪要, 일조각, 1975.

朴相圭, 우랄알타이 언어민속학 논고, 민창문화사, 1993.

李基文, 國語史槪說, 민중서관, 1972.

崔鶴根, 國語方言辭典, 현문사, 1977.

_____, 國語方言學, 형설출판사,1973.

유창돈, 李朝語辭典, 유창돈, 연세대출판부.

Nicholaus poppe, Ural-Altaioche bibliothek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abstract

I intended to describe " A study of bound morpheme, '-čai' as a geographical designation in Seong Nam's Regions " . But I'm dark in subject since I have spent a short time on this theme. I'll try to do the more and write about names of geographical place in Seong Nam city in the future. Thank to the cultural office of Seong Nam.

Conclusion

Until now I have examine a regional word, 'čai' in Seong-Nam's area. Now I'm summerizing the meaning and the usage of 'čai' from these regions. It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ore points.

1. Free morpheme, 'čai' which originated in Pekje, is compared with Koguryo word, 'kok(谷)·bol(忽) . seong(域)' and Silla word 'Bul'.
2. '-čai' used as a bound morpheme in Seong Nam's regions is supposed to have been used as meaning of 'a mountain, a ridge, a field, a valley and

so forth' in those regions.

3. Through these designation of region, I knew that 'čai' had been used as meaning of 'a hill or a field' in lower significance in Seong Nam, although it originally meant a high mountain or a high peak'.
4. I conjecture Seong Nam's regions must have been local buffer zone. In other words, it means these regions have been an importanttriangular zone of three states Koguryo, Pekje, Silla.

I'll going to give that problem connected with vocabulary, san(山), kok(谷), ya(野), ky-e(溪) my best shot . I hope everybody who read this paper gives opinion and a piece of advice .

古代 南漢山考

白 南 郁
(大宥工業專門大學 敎授)

〔目 次〕

1. 序 論
2. 先史時代의 南漢山
3. 三韓時代의 南漢山
4. 漢城時代의 南漢山
5. 結 論

1. 序 論

현재의 城南市는 南漢山, 소위 南漢山城의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도시이다. 南漢山은 山城과 더불어 山城내에 수어장대를 비롯하여 유서 깊은 歷史遺蹟이 산재하여 있어 南漢山城은 사적 제57호로, 이와 더불어 그 수려한 산세에 기인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南漢山은 城南市民 뿐만 아니라 서울·河南·廣州 등의 지역주민들이 도시생활의 휴식처와 문화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南漢山에 대한 일반인의 認識은 南漢山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라기 보다는 丙子胡亂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仁祖 5년(1627)에 치른 丁卯胡亂 이후 後金 太祖는 1636년에 稱帝하고 國號를 淸이라 고치어, 명의 정벌에 필요한 군량과 병선을 요구하며 朝鮮에 군신관계를 강요하자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朝鮮 政府는 宣傳敎書를 내려 항전태세를 강화하였고, 마침내 淸 태종은 仁祖 14년(1636) 12월 1일 丙子胡亂을 일으켰다. 동년 12월14일에 적이 개성을 통과하자 朝鮮 政府와 仁祖는 강화도의 피난로가 막히자, 淸과의 항전과 피난처로 南漢山城으로 들어 갔다. 그러나 南漢山城의 사정은 淸의 山城 포위에 따라 고립되었고 여기에 식량 부족과 추위까지 겹쳤다. 나아가 강화도로 피신간 왕자와 비빈이 淸의 포로가 되어 더 이상 항전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에 仁祖는 주화파인 최명길의 주장에 따라 다음해 1월 30일에 山城의 西門으로 출성하여 南漢山의 서편 삼전도에서 城下 盟의 禮라는 朝鮮이 일찍이 당해 보지 못한 일대 굴욕을 겪은 끝에 11조에 이르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丙子胡亂이 끝났다. 이와같은 朝鮮 政府와 仁祖가 南漢山城에서 겪은 丙子胡亂에 연유하여 南漢山은 곧, 丙子胡亂이란 歷史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南漢山은 그 전

체가 丙子胡亂과 관계된 한정된 의미로써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南漢山城은 丙子胡亂이란 한정된 歷史認識은 國亂을 극복하는 歷史교훈의 장으로써 국민교육에 활용되어짐에 따라 완전히 고착화된 실정이다. 현재 城南市는 신도시의 조성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지역이다. 그 어느 때보다 歷史와 문화의식을 제고하여 미래의 城南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이룩해야 할 싯점이다. 이를 위하여 南漢山이 丙子胡亂에 국한된 歷史認識에서 벗어나 南漢山의 총체적인 歷史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南漢山일대는 新羅의 천년 고도인 경주의 南山 못지않게 百濟의 수도인 慰禮城과 인접한 곳으로 百濟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직접 연관된 지역적인 특성을 갖춘 곳이다. 南漢山은 溫祚王 13년(B.C. 6년)에 천도한 漢山이 곧 南漢山이라 한다. 그리고 文武王 12년(673년)에 漢山州에 4,360보에 이르는 晝長城(一名 日長山城)을 쌓았는데[1] 그 위치가 南漢山[2]이라고 한다. 南漢山은 丙子胡亂과 관계되는 한정된 시기의 歷史와 그 범주에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韓國 古代史의 출발단계에서부터 역사적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古代 南漢山의 歷史는 성남에 한정된 지역사이나 한편으로는 韓國古代史의 전개과정에서 丙子胡亂에 연유하여 갖게된 歷史的 비중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의 南漢山 지역의 歷史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丙子胡亂과 관계되는 내용[3]이며 학문적 관심 또한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古代 南漢山의 사

1) 金富式 『三國史記』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十二年條. 이후 『三國史記』의 관계기사에 대한 引用은 『三國史記』 ○○本紀 ○○王條로 표시하기로 한다.
2) 「輿地勝覽」卷六 廣州 古蹟條.
李丙燾 譯註『三國史記』 p. 119, 1977.
3) 『仁祖實錄』
『孝宗實錄』
『承政院日記』
『燕藜室記述』

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자료나 遺蹟·遺物에 대한 정리와 硏究 또한 극히 빈약한 실정이고 보면 古代 南漢山의 문화와 歷史를 정리하고 파악한다는 점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南漢山 일대와 이와 연해져 있는 漢江 주변에 대한 先史時代의 遺物遺蹟[4]과 더불어 三韓時代에는 이들 지역이 馬韓 50餘國의 一國이며 百濟의 모체가 된 百濟國[5] 지역범위의 중심에 놓여져[6]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 溫祚王 13[7], 近肖古王 26년에 천도 한 곳인 漢山[8]이라고 한 『三國史記』의 관계기사가 古代 南漢山에 대한 이해를 추구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漢山을 南漢山이라고 후대에 지칭한 점은 古代의 南漢山에 대한 지역범위는 그 산세가 미치는 지역일대를 포괄하여 南漢山 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南漢山의 산세가 연해지는 지역,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서울의 강남·강동지구가 古代 南漢山의 문화권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를 古代 南漢山의 지역범위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古代 南漢山의 지역범위를 이와같이 이해하고, 나아가 先史時代에서 百濟의 漢城時代까지의 시대적 범위를 설정하여 古代 南漢山에 관한 硏究를 진행

→ 石之珩, 『南韓日記』
『南韓解圍錄』
『南漢山城記』
金岡憲, 『南韓記略』
法弘, 『南韓倒藍誌』

4) 남한산과 연해지고 있는 서울과 광주에 지역에서 구,신석기시대에서 부터 백제의 한성시대에 이르는 유물 유적의 발굴조사가 1960년대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조사 연구된 지역으로는 미사리 암사동 가락동 석촌동 역삼동 등이며 최근에는 분당지구의 유물유적 표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들 지역의 고고학의 연구성과는 남한산의 선사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것이다.

5) 陳壽,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은 이하 '韓' 관계기사는 『三國志』韓傳으로 하고 高句麗 등의 관계기사 인용시 이에 준하도록 한다.

6) 白南福, 『三韓社會의 「國」에 관한 硏究』 建大博士學位論文 1989.

7)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十三年條.

8) 위의 책, 百濟本紀 近肖古王 二十六年條.

하고자 한다.

2. 先史時代의 南漢山

가) 舊石器時代

약 60~50만년전부터 1만년전 까지 이어지는 舊石器時代의 南漢山은 어떠 하였을까? 현재의 한정된 南漢山의 지역범위에서는 지표조사나 유물발굴에 따른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미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홍적세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1만년전 까지는 지금 보다 해수면이 110~120 m 정도 높아 황해가 육지로 중국과 연해져 있었다[9]. 이러한 韓半島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것 같으면 南漢山 역시 육지로 중국과 이어 지며 주변의 漢江을 비롯한 모든 하천은 모두 육지였을 것이다. 이와같이 南漢山의 자연환경은 舊石器人의 이동을 용이하게하여 舊石器文化가 보급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舊石器文化는 1935년에 두만강 유역의 함북 종성 동강진에서 홍적기의 동물 뼈화석과 타제석기류가 출토된[10]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 舊石器文化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1964년 공주군 장지면 굴포리에서 구석기 遺物에 대한 집중적인 發掘調査가 이루어 졌고[11] 제원(점말동굴)·淸原(두루

9) 李燦『한국사』1, pp. 49~ 51, 1977.

10) 直良信夫 「朝鮮滿蒙採發掘舊石器時代遺物」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 報告』6-3, 1940.

11) 孫寶基, 「層位을 이룬 石壯里 舊石器文化」 『歷史學報』35·36, 1967.
_____, 「石壯里의 전기·중기 구석기 文化層」 『韓國史研究』7, 1972.
_____,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집자리」 『韓國史研究』9, 1973.

동동굴)·濟州(빌레못동굴) 등 전국 각지에서 舊石器文化에 대한 이해가 촉구되었다. 그 결과 韓半島 전역에서 대개 50만년인 제 3간빙기를 전후해서 1만년 전까지 舊石器文化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12]. 南漢山의 산세가 연해진 서울의 역삼동·가락동·암사동과 같은 근접지역에서 後期 舊石器時代의 유물로 보이는 타제석기가 수습 보고되었고[13] 나아가 최근에는 본당지구의 지표조사에서도 이와같은 舊石器時代의 유물이 나타났다. 舊石器時代의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南漢山에서 근접한 지역에서의 구석기 遺物의 등장은 곧, 南漢山이 舊石器人들이 무리를 지어 활동한 생활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南漢山일대는 舊石器時代가 마감하는 약 1 만년 전까지 舊石器人들이 동굴과 움집에서 수렵과 어로 그리고, 채집을 통하여 식량을 조달한 생활무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南漢山일대의 舊石器人들은 기후의 온난화가 시작되고 후빙기가 끝나는 약 1만년 전부터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식물이 바뀌어 지고, 특히 그들의 주 식량원이었던 동물의 이동을 따라 북상하였을 것이다. 이에 南漢山 일대는 후빙기 초의 약 2~3000년 사이에는 무인지대가 되었을 것[14]으로 추정되는 바 舊石器人이 古代 南漢山의 文化와 歷史를 일구어낸 주인공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나) 新石器時代

紀元前 8000년경 구석시대가 끝나고 후빙기에 이르러 기온의 상승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에 점차 이어지면서 해면이 높아져 韓半島의 지형과 더불어 南漢山과 주변의 지형도 현재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舊石器人이 이동

12)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1, 1977.
金元龍·崔茂藏·鄭永和, 『韓國 舊石器文化硏究』, 1981.
13) 孫寶基, 「石壯里의 舊石器文化」 『韓國史論文選集』 先史篇 p.2, 1976.
14) 金元龍 『韓國考古學槪說』 p.22. 1988.

한 2~3000년 사이에는 南漢山일대는 인간이 살지 않는 공백기가 주어졌으나, 紀元前 4000년경에 이르러 新石器時代가 韓半島 전역에 도래되면서 南漢山일대도 新石器人의 활동무대로써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다. 南漢山 일대의 新石器文化에 대한 이해는 그 단서가 漢江유역에서부터 나타났다. 그 유명한 乙丑漢江대홍수(1925년) 때에 암사동일대의 강변이 유실되면서 土器파편이 각처로 흩어졌고 이들 지상채집한 결과 담수산패총이란 매우 모호한 지식을 얻게[15] 되었다. 1960~1970년대에 이르러 암사동지역의 신석기유적에 대한 發掘調査가 진행되어[16] 南漢山 일대의 新石器文化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었다. 암사동에서 채집된 土器는 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그 밖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沙質無紋土器와 흑도라고 부를 수 있는 토기도 나왔다. 이들 토기는 주변의 흙이 분명한 沙質土에 운모립이 섞인 것이 가장 많았다. 櫛文土器의 모양은 평이형이고 문양은 구연부에는 평행사단선문·침열문·사격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몸통의 문양은 漁網紋에서 발전되어 반어골문과 석대문이 있다. 그리고 식물섬유를 눌러 만든 문양이라고 볼 수 있는 방상문과 갈대와 새의 뼈를 시문구로 사용하여 만든 점열문이 몸통에 나타나는 櫛文土器가 있다. 한편 無紋沙質土器는 만든 흙과 환저는 앞서의 櫛文土器와 같다. 그리 단단하지 않은 흑도는 김해나 三國土器와 유사하면서 양식상 고식의 土器이다. 그리고 석기류는 석부·석도·전석류 등이다. 이와같은 암사동의 토기류는 북구·시베리아의 櫛文土器, 몽고의 櫛文土器와 유사한 형식이며, 서해안 즐문토기의 대표적인 형식인 강화도 옛 島의 하층에서 발견된 토기와 유사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서해안 지방으로 들어온 고아시아족의[17] 일단이 이루어낸 신석기문화라고 하겠다. 그리고 암사동의 新石器文化와 유사한 遺物이 광주군 미사리·선리 등에서도 발

15) 藤金花策, 「韓國古代文化」 「朝鮮古代文化」 p. 58. 1948.
16) 金元龍, 「岩寺里遺蹟의 土器·石器」 『歷史學報』 17·18, pp. 355~383. 1962.
金光洙, 「岩寺洞江岸遺蹟發掘報告」 『歷史敎育』 13輯 pp. 85~110, 1970.
17)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pp. 161~179, 1973.

견되었다[18].이는 南漢山의 산세가 미치는 漢江유역이 두만강하류·대동강하류·낙동강하류 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西中部 新石器文化의 대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암사동의 櫛紋土器의 문양이 농경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출토된 유구석부·반월형석도·전석 등은 이 지역에 農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유물은 서기전 2000년경으로 이해되며, 이 시기에 이르면 南漢山 일대의 신석기인들은 農耕하면서 움집으로된 취락을 형성하고 씨족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고 하겠다. 신석기시대의 農耕이 시작되자 점차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강안에 생활하였던 新石器人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갔을 것이다. 그 결과 암사동·미사리·선리 등의 漢江 강안에서 현재의 南漢山에 근접한 지역 까지 생활무대를 넓혀 갔을 것이다.

이는 新石器時代末에 이르러 비롯 農耕이 시작되었지만 그 들의 식량은 여전히 자연의 재생산에 의존하는 상태였기에 인구가 증가되어 감에 따라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범위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南漢山과 漢江에 연해지는 지역은 신석기인들의 생활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南漢山일대의 신석기인들은 青銅器人들에 흡수 동화 혹은 정복되면서 青銅器文化 속으로 수용되어 갔다.

다) 青銅器時代

韓國의 青銅器文化는 대략 기원전 10 세기 부터 시작[19]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처럼 韓國의 青銅器文化는 시베리아의 미니신스크 지방의 카라수크青銅器文化가 타가르 기마민족에 의해서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遼寧文化에서 그 모체가 형성되었고, 中國의 青銅器文化까지 포괄하면서 이룩

18) 서울大,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제 2, 1976.

19) 金貞培 「韓國青銅器文化의 史的 考察」 『韓國史研究』 6, 1971. 청동기 편년에 대하여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려 본다. 그러나 尹武炳 「韓國青銅 短劍의 形式分類」 『震檀學報』 29·30, 1966. 기원전 6 세기 쯤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青銅器文化를 이룩해 낸 주민은 남시베리아의 선주민이 만몽지대에서 지역화된 퉁구스족이며, 중국문헌에 나오는 濊貊族으로 이들은 즐문토기를 사용하는 先住民인 고아시아족을 흡수 동화시키면서 한민족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이와같은 한국의 青銅器文化는 전기(B.C. 10C~4C), 후기(B.C. 4C~0)로 나누어 지고 青銅器 후기는 다시 철기문화 전기와 중복된다. 전기에는 청동제품으로 비파형동검·조문식동경 등이 출토된다. 토기는 채도·홍도가 압록강일대에서, 그리고, 두만강일대에서 팽이토가 서북한 지역에 출토되고 나아가 이들은 지석묘와 석상분이란 묘제를 남겼다. 이와같은 전기 青銅器文化는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비슷한 문화를 남기나 漢江 이남에서는 팽이토기 보다는 無紋土器와 홍도가 그리고 지석묘도 지석이 없는 남방식지석묘가 유행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青銅器 후기에 들어와서는 요녕식동검은 세형동검으로 보다 세련된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조문식동경 또한 정문식 세문경으로 변화되어 괄목할만한 青銅器文化의 발전이 도모되었다. 이 시기의 漢江이남지역의 青銅器文化에서는 無紋土器뿐만 아니라 돌대토기·흑도 그리고, 본격적인 농경도구인 有樋石斧가 출현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청동제품이 儀器化 되면서 실용성이 문화되고 상징성을 띄게 된다. 이와같은 한국 青銅器文化의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南漢山 일대의 사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青銅器時代에 해당되는 南漢山 주변의 유물유적은 신석기시대에 비하여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南漢山과 漢江의 강안 사이인 방이동·문정동·가락동을 비롯하여 고덕동·명일동·논현동·역삼동 등지에서 青銅器時代의 유물이 다수 수습되기도 하고,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0]. 이들 유적지에서 발굴보고 내지 수습된 유물의 내용은 역삼동의 경

20) 이들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廷鶴, 「廣州명일리선사住居址發掘報告」 「古文化」1, 1962.
_____, 「廣州가락동住居址發掘報告」 「古文化」 1963.
_____, 「韓國無紋土器文化의 硏究」 「白山學報」 3, 1967.

우 12평의 면적을 갖는 주거지와 더불어 반월형석도·숫돌·갈돌·석부·석촉 등과 공열토기 등이 있었다. 가락동에서는 낫모양의 석도·삼각형석촉·원형 방추석·숫돌, 그리고 장경 및 경두의 壺와 이중구연의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명일동주거지에서는 검신과 자루에 흠이 패여진 석검과 삼각형석촉·평저無紋土器와 숫돌이 있다. 석검의 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세형동검 출현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정동·고덕동·암사동 등지에서 지표 채집하여 얻어진 유물은 석부·반월형석도 그리고 無紋土器파편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형적으로 南漢山의 산세가 미치는 근접지역이므로 南漢山 일대의 청동기문화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南漢山의 青銅器文化는 青銅器가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대구분은 어려우나 가락동화분형토기는 북한의 팽이형토기를 남한식으로 바꾼 특이한 초기 청동기시대 토기형식이며, 석기류에서 유구석부나 흠이 있는 석도는 세형동검의 형식이 나타나는 바 후기 청동기문화의 유물이라 하겠다. 한편 南漢山 일대와 한강의 남쪽 지역은 가락동 화분형토기와 기단식 지석묘의 북방경계선이기도 하다. 이는 南漢山과 漢江의 남쪽지역은 남·북청동기문화가 상호교차되는 지역이라도 하겠다. 南漢山 일대의 청동기문화가 진행되면서 주거지가 점차 내륙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가락동 주거지는 해발 40m야산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고, 역삼동 주거지는 해발 80m야산에 자리잡고 있다. 青銅器時代 후기에 해당되는 명일동의 주거지 위치는 앞서 가락동과 역삼동보다 漢江의 강안에서 직선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거지가 강안에서 점차 내륙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생산을 위하여 경작이 가능한 南漢山의 완만한 경사지로 青銅器人들이 진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청동기인의 경작지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지역분쟁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青銅器時代의 주거

→ 林炳泰, 「驛三洞住居址發掘報告」 『史學硏究』 20, 1968.
蠶室地區遺蹟調査團編, 「蠶室地區遺蹟調査報告」 第 3, 1976.

지인 함북 무산군 호곡동·평북 강계시 공귀리·경기도 파주군 옥석리등의 집자리가 화재를 입어 폐허화된 것[21] 경우가 많은 점이 주목 된다. 화덕이 2개로 증가된 青銅器時代 주거지의 변화가 불의 사용도를 높여 실화에 의한 소실로도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지역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힌 분쟁이라든지, 혹은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22] 이처럼 인구의 증가·경작지의 확대 등과 같은 要因으로 인해 지역집단 간의 분쟁과 전쟁은 南漢山 일대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동기시대의 타집단과의 분쟁과 전쟁은 한강이란 천혜의 방어선과 더불어 南漢山의 지형을 적극 활용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南漢山 일대는 팽화의 예에서 보듯 점차 족장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력집단이 배타적인 지역범위를 확정하여 갔을 것이다. 이는 곧 소위 部族國家·城邑國家·君長社會 등이라고 일컫어 지는 초기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지역기반

21) 尹武炳, 「坡州玉石里住居地」『韓國青銅器文化硏究』, p. 250, 1987.
22) 이기백·이기동, 『韓國史講座』 1 [古代篇], p. 36, 1982.
23) 金元龍, 『韓國考古學槪說』 pp. 128~129, 1986.
24) 金貞培, 「辰國과 韓에 대한 考察」『史叢』 20·21合, 1968.
_____,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韓國史硏究』 13, 1976.

이 형성되어 갔을 것을 의미한다. 이에 南漢山 일대는 후기 청동기시대가 진행되면서 三韓時代, 혹은 원삼국시대(Proto-Three Kingdoms)[25]라고 불리어 지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이어진다.

3. 三韓時代의 南漢山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약 3C 동안을 三韓時代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古朝鮮의 마지막 왕인 準王의 남래 이전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韓社會가 형성되어 있다[26]고 보는 견해와 더불어 삼한제국의 성립 시기를 지석묘의 조성과 소멸시기, 그리고 수준 높은 청동기문화의 전개내용 등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B.C. 2C경으로 주장[27]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三韓時代의 성격에 연유하여 百濟·新羅가 국가체제를 갖추기 이전의 시기와 중복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에 三韓時代의 南漢山대한 시기는 청동기문화가 소멸되면서 철기문화가 활발하게 수용되기 시작하는 B.C. 2C에서부터 溫祚집단이 남하하여 百濟를 건국한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한정하여 南漢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B.C. 2C부터 南漢山의 사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다. 그러나 百濟의 모체가 되는 馬韓 50餘 大·小국 中의 一國인 百濟國임을 고려하면 이와 관계된 삼한의 성립과정에서 이 시기의 南漢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삼한의 성립은 한결 같이 북방에서 남하한 流移民과 관련하여 파악하고[28]있다.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동

25) 李種旭, 『新羅國家形成史硏究』, 1982.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1984.

26) 安鼎福, 『東史綱目』附 卷下 三韓考.
丁若鏞, 『我邦疆域考』,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삼한정통론에 입각하여 기자조선의 준왕의 남래와 관련하여 마한의 성립을 파악한다.
申采浩, 『朝鮮上古史』, pp. 88－112. 1947.

검·지석묘·무문토기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가 중국의 전국시대 燕과 古朝鮮의 전쟁에 연유하여 남하한 流移民 집단에 의해 한반도 중남부지역이 청동기문화에서 철기문화로 대체되는 B.C. 2C경 부터 삼한이 성립 이해하고 있다.[27] 이처럼 북방의 정세변화에 연유한 流移民의 남하 이동이 한반도 중남지역에서 馬韓·辰韓·弁韓이라는 삼한을 성립시켰다 점은 流移民이 원거주지에서 경험했던 문화능력을 지니고 단계적으로 남하하여 선주한 토착사회에 자극을 주어 나타난 결과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삼한을 성립케한 流移民이 경험한 문화적내용을 이 시기의 南漢山과 그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세기 볼 수 있는 바탕으로 삼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流移民의 이동계기가 되는 요인을 원거주지의 상황과 관련지어 그들이 수용한 문화수준을 구명하는 것도 三韓時代의 南漢山의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발생하는 流移民은 여러 요인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계속되었을 것이나,[28] 유이민 파동의 원인과 그들이 경험한 문화를 이해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 옛 箕子위 후예인 朝鮮侯는 周가 쇠약해지자, 燕이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朝鮮侯도 역시 왕을 칭하고 燕을 역습하여 그 뒤에 (조선의)子孫이 점점 驕虛해지자, 燕은 장군 秦開를 보내어 (조선의)西쪽 地方을 공격하여 二千餘里의 땅을 빼앗아 滿潘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朝鮮이 弱하여 졌다.(『三國志』韓傳에 인용된 『魏略』)

→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史學硏究』26, pp. 1~66. 1975. 삼한의 시원을 북방에서 찾고 고조선 사회의 변화에서 북쪽의 삼한이 남하하였다고 한다.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pp. 275~279, 1959. 진한은 북조선에서 남하한 유이민이, 그리고 마한·변한은 북쪽 고마족이 남하하여 토착민과 결합하여 성립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선학들의 견해는 한결같이 그 내용은 달리하나 삼한의 성립을 북쪽의 유이민의 남하에서 찾고 있다.

27) 林炳泰, 「部族移動과 鐵器文化의 普及」『韓國史』고대 2, p. 101, 1978.

28)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앞의 책』, pp. 19~20.

위의 사료의 내용은 B.C.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燕과 古朝鮮과의 긴장관계가 첨예화되면서 古朝鮮이 점차로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삼한 성립기에 있어서 流移民 이동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古朝鮮의 사회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古朝鮮과 연과의 대립과 전쟁상황은 北方諸國과의 대외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되어 細型銅劍으로 대표되는 후기 青銅器文化의 독자적인 발전을 가져왔다.[29] 이와 같은 문헌적인 내용은 청천강 이남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大田 槐亭洞에서 古式의 세형동검이 출토[30]된 이래 제작형식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慶州 金海地域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은 古朝鮮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점차로 중 남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문화교류 및 古朝鮮지역 주민들의 남하이동에 따라 先進青銅器文化뿐만 아니라 諸文化的인 내용이 한반도 중남부지역으로 보급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한편 古朝鮮이 燕과 같이 稱王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곧 문화수준에 있어서 燕과 크게 격차가 없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中國의 문화상태를 통해서 古朝鮮의 문화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B.C. 4~3C경 燕의 철기문화는 鐵鑛石을 완전 용해하여 산출된 철을 鑄型에 부어 넣어 필요한 철기를 제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철의 이용과 제조기술이 향상되었다.[31] 그 결과 鐵製農具의 사용에 따라 牛耕과 대규모의 水利灌漑事業, 그리고 農田의 개발이 촉진되어 농업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燕은 邑制國家를 벗어나 稱王을 하며 領域國家로 성장하고[32]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의 燕과 古朝鮮이 稱王을 하고 互角의 형

29) 윤무병, 『韓國青銅器文化硏究』, pp. 117~120.
30) 金廷鶴, 「青銅器의 展開」, 『韓國史論』13, p. 296, 1983.
31) 藪內淸, 『中國文明の形成』, 岩波書店, pp. 81~83, 1974.
32) 濱龍夫, 「春秋戰國時代の社會と國家」, 『世界史』 4, pp. 181~182, 岩波書店, 1970.

세를 이루고 대립되어 있었다 함은, 青銅器文化를 기반으로 성립된 古朝鮮 사회가 燕과 대등한 수준으로 철기문화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3] 이는 B.C. 4C경에 燕將 秦開의 侵入은 古朝鮮地域에 生活環境을 不安하게 만들어 古朝鮮地域 住民들의 移動 南下를 刺戟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古朝鮮 주민의 남하는 그들이 원거주지에서 경험한 문화 즉, 성숙된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를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보급하였을 것이다. 이는 韓半島 中南部地域에 細形銅劍으로 대표되는 後期青銅器文化의 개시와 더불어 鐵器의 傳來가 B.C. 4~3C경에 시작되었다[34]는 점으로 볼 때, 古朝鮮地域 住民들의 남하이동에 따라 韓半島 中南部地域에서의 文化的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古朝鮮지역의 철기문화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료의 내용이 주목된다.

> 그 뒤 二十餘年이 지나 (중국에서)陳(勝)과項(羽)가 일어나 天下가 어지러워지자, 燕·齊·趙의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準에게 망명하므로…… 燕나라 사람 衛滿도 망명하여 오자 ……朝鮮의 藩境을 지키게 하였다.(『三國志』에 인용된 『魏略』)

위의 내용은 秦의 中國統一時나, 秦 漢 交替時와 같은 정치상황의 변화 과정 속에서 燕·齊·趙의 流移民, 위만집단이 古朝鮮으로 이동은 그들이 수용하고 있었던 鐵器文化가 시기의 선후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古朝鮮지역에 보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中國鐵器時代의 貨幣인 明刀錢이 출토되는 遺蹟이 平安北道에 偏重되어 있고 또한 平安南道의 일부에까지 걸쳐서 출토되고[35] 있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戰國期의 燕, 秦漢의 교체기뿐만 아니라 漢의 燕國에서도 그들 지역의 주민들이 古朝鮮 지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곧, 古朝鮮지역의 철기문화가 지속적으로

33) 金貞培, 『앞의 책』, p. 99.
34)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論』, p. 100.
35) 三上次男, 「朝鮮の古代文明外來文化」, 『古代史講座』3, pp. 176~177, 1972.

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三國志』 韓傳에 인용된 魏略에서 準王이 燕의 亡人 衛滿에게 쫓겨 左右宮人만을 거느리고 韓地에서 自號韓王하였다는 기사는 곧, 위에서 살펴본 古朝鮮지역의 철기문화가 南漢山을 비롯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古朝鮮의 準王이 '左右宮人'만을 거느리고 망명하여 韓王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이는 古朝鮮과 중 남부지역과 B.C. 4C 이래 남하한 古朝鮮 유민에 연유하여 古朝鮮과 중·남부지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B.C. 4C부터 古朝鮮지역의 유이민이 중·남부지역에 남하하여 토착사회의 철기문화 보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한 내용을 재삼 확인하는 의미가 주어진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準王은 북방에서 왕국을 이룩했었고, 철기문화를 수용한 경험이 있으며, 시기상으로 대동강유역에 철기문화가 시작된 이래 3C 이상을 경과한 뒤이므로,[36] 그 세력이 남하하여 韓地에서 韓王이 되었다는 점은 B.C. 3C말에는 중남부지역에 있어서 철기문화 보급이 확대되어 갔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의 철기문화 보급의 확대 양상은 B.C. 2C 중엽 이후의 사정을 서술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다.

> (衛滿의 손자 右渠왕 때에) 眞番주변의 衆國(或辰國)이 글을 올려 天子에게 謁見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史記』 朝鮮列傳)

위의 내용은 辰國이 직접 중국과의 교류를 추구하려 하나 위만조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즉 衛滿朝鮮이 북방에 있으면서 그 주위의 小邑을 아우르고 정복국가로 그 성격이 나타날 때다.[37] 한반도 중남부

36) 李丙燾, 『앞의 책』, p.117. 衛滿이 平壤을 점거하고 朝鮮을 세운 것은 漢 高惠帝時인데 이는 B.C. 194(惠帝卽位)~180(呂后 沒) 사이였다.

37) 金貞培, 「衛滿朝鮮의 國家的 性格」 『史叢』, 20·21合, 1977.

를 지칭하였던 辰國[38], 즉 古朝鮮의 流移民을 포함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가 漢과 독자적으로 通交하려고 한 의미는 선진 중국의 문화(鐵器文化)를 수용하려는 열의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중남부지역에 철기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생활도구면에서 철기가 등장되고, 石器의 사용이 소멸되는 金海式 土器의 文化時代[39]로 연결되는 辰國의 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準王勢力의 南來와 같은 북방流移民 이동남하에 따른 선진 철기문화의 보급에 의해 토착사회가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 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철기문화의 지속적인 보급에 의하여 중국과 직접 통교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辰國은 B.C. 2C 말엽 즉, 衛滿朝鮮이 망하기 직전 대규모의 유이민 집단이 남하하여 유입되는 사건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는 다음과 같다.

> 일찌기 右渠가 격파되기 전에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東쪽 辰國으로 갔다. 그 때에 백성으로 그를 따라가 그 곳에 산 사람이 二千餘戶라 되었다.(『三國志』 韓傳에 인용된 『魏略』)

---

38) 國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流行本』에서는 韓國으로 되어 있고,『禮記』에 인용된「宋本」에는 辰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考證』에서 「正義本」에 辰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通鑑』과 『漢書』는 箕韓·辰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辰國의 명칭에 대한 통일되지 않는 표기는 辰國을 파악하는데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나아가 辰國의 역사적인 실체 마저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諸家의 견해는 金貞培의 「辰國과 韓에 대한 考察」(『金成植博士華甲記念論叢』, pp. 344-372, 1968.)에서 정리되어 있고 辰國을 당시 著名 한 國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지역을 일정기간 지칭하였을 것이라는 丁仲煥의 견해(「辰國三韓及加羅의 名稱考」『蓮山大學校十周年記念論文集』)를 존중하고 아울러 辰國의 중심지는 古朝鮮 準王이 남래하여 韓王이라 하고 자리잡은 곳이 익산이라는 학계의 견해를 수용하고 본고의 論旨를 전개하고자 한다.

39) 金元龍, 「앞의 논문」, p. 123.

위의 기록은 朝鮮相 歷谿卿이 그가 諫한 것을 右渠王이 듣지 않자 2천여호 규모의 집단을 거느리고 위만조선을 이탈하여 동쪽의 辰國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처럼 2천여호에 이르는 대규모의 유이민집단을 역계경이 이끌고 진국으로 이동은 辰國의 철기문화를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나갔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진국사회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辰國의 변화는 『三國志』韓傳 三韓을 "古之辰國"이라고 하는 바 곧, 三韓의 성립을 의미한다. 즉 역계경집단의 남하, 곧 이어지는 위만조선의 붕괴와 漢郡縣의 설치는 진국의 해체와 삼한제국의 등장으로 나타났고, 특히 마한에서는 인구규모가 2천여호[40], 지역범위는 반경 약 50리 내외에 이르는 "國"의 성립[41]을 가져왔다.

이처럼 古朝鮮系 住民·準王 특히 歷谿卿이 거느린 대규모의 流移民集團 등과 같은 선진문화지역 주민의 來到에 연유하여 후기청동기문화가 B.C. 3~2C경부터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초기철기문화로 성숙발전되었음 알 수 있다. 이는 금강유역(대전·익산·예산·논산·부여·공주)과 영산강유역(화순·영암), 그리고 낙동강유역(경주·김해·대구)에서 세형동검·세문경·동과·동모 등과 같은 일괄 청동기유물들이 철제품과 함께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파악된 청동기의 발전된 형태는 古朝鮮지역과 문화적인 내용면에서 대등한 수준이라는 고고학적인 유물의 분석내용[42]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三韓時代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南漢山과 그 일대는 어떠하였을까? 이 시기에 南漢山 일대는 前章의 청동기시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문토기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는 김해식토기·세형동검을 모형으로한 석검과 농경석기류(유구석부·반월형석도·전석 등)을 제외하고는 청동기유물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인근지역에서 발견

40)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26, 1979.
41) 白南昭 「『三國志』 韓傳의 「國」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26, 1981.
42) 李賢惠 「앞의 책」, pp. 9~37.

된 유물과 고고학적인 연구성과가 이 시기에 南漢山일대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 철기문화 거주지로서, 그 연대의 상한이 B.C. 4~3세기 경이고, 하한이 B.C. 1세기 경으로 밝혀진 楊平郡 大心里 유적에서 鑄鐵의 증거가 되는 鐵滓가 10여점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곳에서 주철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鐵斧와 鐵刀子, 그리고 鐵鏃 및 鐵호미편 등은 부근의 砂鐵을 원료로 하는 초보적인 철기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판명[43]되었다. 그리고 비록 南漢山과는 원거리이지만 한강으로 연해져 있는 加平川의 강변 충적지인 가평 馬場里에서는 300~400m에 걸쳐서 광범한 金海 土器片을 포함한 문화층이 보고되었다. 이곳은 수십호 이상이 살던 취락지로서 연대는 대개 B.C. 2세기경에서 기원전후에 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유적지에서는 冶鐵에서 나오는 쇠찌꺼기인 鐵滓와 鐵片 및 쇠를 달구려고 불을 때면서 바람을 불어 넣었던 吹風用의 토관 파편도 출토되어 소규모의 노동력에 의한 冶鐵作業이 행해졌던 것[44]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南漢山과 한강으로 연해지는 지역의 예는 출토된 유물의 성격이 철기시대 초기로 알려진 江原道 春川市 의암호 가운데 있는 中島의 유적지[45]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三韓時代의 南漢山과 그 일대는 B.C. 4세기 경부터 남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古朝鮮의 유이민집단[46]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목지국의 辰王이 충청도 일원의 마

43) 金元龍 鄭永和 崔夢龍, 「楊平郡 大心里 遺蹟發掘報告」, 『八堂 昭陽堤 水没地區遺蹟發掘綜合調査報告』, pp. 226~227. 1974.

44) 金元龍, 「加平馬場里冶鐵住居址」 『歷史學報』 제50 51합집, p. 111~135. 1971.

45)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査報告』 제12책, p. 17; 『中島遺蹟報告』, p. 27. 1981.

46) 李丙燾 「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p. 253. 1976.
古朝鮮 準王의 남래지점을 평주의 경안으로 위치를 비정하나 이는 진한이 경기도 일원에 자리한다는 삼한 위치비정에 대한 신설의 성립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청동기)가 빈약하여 정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南漢山은 衛滿朝鮮과 근접한 변방의 외곽지대에 놓여 있어 辰王의 영향력이 느슨하게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南漢山과 그 일대는 선주집단이 지연성을 갖추고 세력성장한 지역범위가 설정되면서 선진문화지역과 교류 등을 통해 철기문화로 진전되어 가는 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을 것이다. 특히 衛滿朝鮮이 망하고, B.C. 108년에 漢郡縣이 설치됨에 따라 南漢山과 한강유역은 삼한의 여타 지역보다 漢郡縣과 근접지역에 위치한다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樂浪과 帶方이 변진의 철을 수입해 가고 각지역의 특산물에 관심[47]을 표명하는 漢郡縣은 삼한과의 관계를 상업활동에 비중[48]을 두고 전개시켜 나갔다. 뿐만아니라 漢郡縣은 상업활동을 원활이 하기위하여 韓의 신지들에게 官爵·印綬 등을 주었고 이를 받기 위하여 군현지역을 내왕한 사람이 천여인이 되었다[49]. 이와같은 漢郡縣과 삼한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분적지위와 일종의 무역권을 부여받은 신지들의 지역내의 권위는 향상되어 갔으나 한편으로는 漢郡縣이 삼한사회의 신지들을 개별화에 따라 지역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삼한사회의 제지역과 漢郡縣이 빈번한 교류와 왕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南漢山과 그 일대는 漢郡縣과 근접지역이란 특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마한을 주도해가는 목지국의 辰王은 南漢山과 그 일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高句麗에서 남하한 溫祚의 유이민집단으로 하여금 이 지역 백여리를 관장하게 하였다[50]고 하겠다. 이미 원거주지에서 山城의 축조를 경험한 溫祚집단은 相互制御 不能 상태인 삼한사회[51]에서 그들의 안전과 입지 확보를 위하여 주변의 지형에

47) 『三國志』東夷傳에서 각지역의 특산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史記』貨殖列傳에는 山西지방을 비롯한 여러지역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48) 全元龍 「樂浪文化의 歷史的位置」 『韓國史의 再照明』, 1975.

49) 『三國志』 韓傳.

50)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二十四年條.

51) 『三國志』韓傳.

대한 관찰과 이용을 도모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南漢山에 城이나 柵이든 방어적인 방비를 하였을 것이다.

4. 漢城時代의 南漢山

일반적으로 漢城시대라 함은 百濟의 시조인 溫祚王이 高句麗에서 남하하여 하남 慰禮城에 도읍을 정한 B.C.18년에서부터 475년에 장수왕이 남진하여 蓋鹵王이 전사하고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며 이는『三國史記에 기술된 百濟[52]의 기년에 의한 약 5세기 간을 의미한다.

B.C 1세기 말의 南漢山과 그 일대는 마한의 중심지역과는 원거리에 놓여

52) 『三國史記』의 조기기사에 대한 신빙성여부에 관한 연구자들의 태도는 다양하다. 특히 「百濟本紀」의 조기기사와 그 기년에 대한 諸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肯定的 論旨를 제시한 경우.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 7, 1967.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 3, 1976.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大邱史學」 11, 1976.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震檀學報」 60, 1985.

둘째 否定的 論旨를 제시하는 경우.

今西龍 「百濟略史」·「百濟史講話」「百濟史研究」, 1933.

稻葉岩吉「朝鮮滿洲史」「世界歷史大系」11, 1955.

白鳥庫吉 「百濟の起源こついて」「歷史」創刊號, 1947.

岡田英弘 「騎馬民族の時代」「儒國」, 1977.

近肖古王 以前의 『三國史記』조기기록을 불신한다.

셋째 初期記錄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肯定하는 경우

李丙燾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勢力의 變動」「韓國古代史研究」, 1976.

金哲俊 「百濟建國考」「百濟研究」 特輯號, 1982.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馬韓·百濟文化」 10, 1987.

이와같은 학자들의 諸見解에 대한 분석은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재검토」「한국고대국가의 형성」, pp.105~170, 1990. 본고에서는 조기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있고 B.C 82년 진번군이 폐지된 이후에는 樂浪郡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근접지역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南漢山과 그 일대의 지리적 특성은 삼한과 漢郡縣(樂浪)이 물자교류에 의한 경제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한편으로는 漢郡縣에 의한 한사회의 분열획동이 심화될 수록 그 지역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夫餘계의 溫祚집단이 남하하여 백제가 건국됨에 이르러 南漢山 일대에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百濟의 건국과 시조의 계보 그리고 정착지 및 도읍지의 지리적 형세에 대하여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百濟의 始祖 溫祚는 그에 父가 鄒牟, 혹은 朱蒙이라 한다. 朱蒙이 北夫餘에서 도망하여 卒本夫餘로 왔다. 夫餘의 왕은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朱蒙의 인물이 비범함을 알고 둘째 딸을 시집보내 마내를 삼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夫餘王이 죽자 朱蒙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沸流, 차자를 溫祚라 하였다. 朱蒙이 北夫餘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가 되었다. 沸流와 溫祚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烏干·馬黎 등 열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하하여 따라오는 백가 많았다. 漢山에 이르러 負兒岳에 올라 살곳을 찾아보니 沸流는 海변에 살기를 원하였다. 十臣인 말하기를 "생각컨대 이 河南의 땅은 북은 漢水를 띠고 동은 高岳을 의지하였으며 남은 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험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좋겠읍니다."라고 하였다. 沸流는 듣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溫祚는 하남의 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十臣으로 보익을 삼아 國號를 十濟라고 하니 이 때가 前漢 成帝의 鴻嘉 三年이다. 沸流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거할 수 없으므로 돌아와 慰禮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한지라 참회하여 죽고 백성이 오니 후에 百濟라 고쳤다. 그 世系가 高句麗와 함께 夫餘에서 나왔기 때문에 夫餘로 성씨를 삼았다.

위의 내용에서 百濟를 건국한 온조는 부여계의 일지족으로서 高句麗에서 남하하여 前漢 成帝 鴻嘉 三年(B.C. 18)에 하남의 慰禮城에 자리 잡고 십제를 건국하고 곧이어 미추홀에 자리잡은 비류가 죽자 그 지역을 합하여

국호를 百濟라고 고쳤다 한다. 百濟의 건국연대인 B.C. 18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그대로 인정하기는[53] 어렵다. 그러나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온조집단이 부여계인 주몽세력에서 분파되어 남하하여 慰禮城에 자리잡았다[54]함은 곧, 辰王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한사회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慰禮城을 중심지로 삼아 古代國家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처럼 온조집단이 남하하여 慰禮城을 중심으로 하여 百濟의 漢城시대가 시작될 때에 남漢山과 그 일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慰禮城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慰禮城은 13세기 말엽에 쓰여진 『三國遺事』에서 온조가 도읍한 곳이 慰禮城인데 이는 蛇川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稷山이라[55]고 하여 최초로 慰禮城의 위치를 직산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慰禮城은 직산이라는 고려시대의 인식은 조선까지 이어져 세종 11년(1429) 7월에 溫祚王묘가 세워졌고[56] 조선후기 이전까지의 지리지에서는 慰禮城의 위치를 직산현이라 하고 흙으로 축성된 城은 성거산 북쪽 오리쯤에 있다. 그리고 城의 둘레가 1,690척 높이는 8척 그리고 城內에는 우물이 있으며 지금은 반 이상이 무너져 있다고 하여 慰禮城의 절대위치와 규모 그리고 현존한 城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57]하고 있다. 이러한 慰禮城은 직산이라는 조선중기까지의 인식은 후기에 이르러 한강 북안인 三角山東麓의 한양동, 현재의 미아리고개 근처라고 수정[58]되었다. 이 후 근대사학에 의해 위례성의 위치를 한강 이북

53) 이병도, 김철준, 이기동, 「앞의 논문」에서는 백제의 건국과 국가형성을 3세기 중엽 즉, 고이왕대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54) 김원룡, 천관우, 이종욱 「앞의 論文」. 백제의 건국설화는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형성시기도 사실의 전행고 동시에 혹은 근접한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5) 一然, 『三國遺事』王曆, 第一, 百濟 溫祚王條.

56) 『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淸州牧, 稷山縣條.

57) 『東國輿地勝覽』忠淸道 稷山縣條. 기타 官撰地理書인 「輿地圖書」·「文獻備考」(地理門)에서도 慰禮城을 稷山縣에 비정하고 있다.

58) 丁若鏞 『與猶堂전書』 第六集 第三卷 疆域考 卷三 慰禮考(河北慰禮城은 廣州

으로 재삼 논증되면서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으로 구분하여 정설화되었다. 그러나 河北慰禮城의 절대위치에 대해서는 丁若鏞의 三角山 東麓과 더불어 洗劍洞 一帶[58]·江北 서울[59]·中浪川 一帶[60] 등으로 異見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그 절대위치에 대하여 諸家들이 異見을 보이고 있는 河北慰禮城은 百濟의 국도로서 어려움을 겪는다.

> 우리 나라의 동북에 樂浪이 있고 북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니 편안한 날이 없다. 그리고 불길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가 돌아가고 편안할 수 없는 형세이니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 하겠다. 어제 내가 한수의 남쪽을 巡觀하였는데 땅이 기름져서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久安의 할것을 도모할 것이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十三年條)

위의 내용처럼 百濟가 樂浪과 말갈의 침략 그리고 국모의 사망에 연유하여 하북慰禮城을 漢水 南으로 천도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溫祚王 14년에 정월에 천도[61]하였다. 이와 같이 百濟가 樂浪과 말갈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漢江을 건너 강남에 천도하게 되니 이를 강북의 慰禮城 즉, 하북慰禮城과 구분하여 하남慰禮城이라 한다. 이에 百濟의 하남慰禮城시대가 열리면서 南漢山과 그 일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하남慰禮城의 절대위치 또한 제가들은 광주고읍·광주의 춘궁리와 南漢山일대·몽촌토성·이성산이라 하여[62] 견해가 분분한 실정이나 한결같이 南漢山을

→ 古邑이라 한다).

全正浩 「大東地志」卷二 廣州府沿革條－－河南慰禮城.

59) 李丙燾 「慰禮考」「學術院論文集」 第13輯, 1974. (河北慰禮城은 廣州 春宮里 및 南漢山일대)

60)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3, 1976. (河南慰禮城은 廣州古邑)

61) 車勇杰. 「위례성과 한성에 대하여」I 「鄕土서울」 39, 1981. (河南慰禮城은 夢村～二城山사이)

崔夢龍·權五英. 「考古學的資料를 通해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河南慰禮城은 夢村土城)

62)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十四年條

63) 註 60) 61) 62) 63) 참조.

중심으로 하고 그 일대에서 하남慰禮城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慰禮城에 대한 여러 견해는 일견 개별적인 의미가 주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원을 전후한 한반도 중남부의 시대적 배경과 온조집단의 선험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였고 한편으로는 방위동 일대의 고분군, 풍납리 토성과 몽촌 토성 등과 같은 漢城시대의 유물유적에 대한 이해에 근거했기 때문에 논거의 바탕인 유물의 성격에 대하여 이견이 제시되고[64] 있다.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지역들〉

앞서 파악한 바 처럼 南漢山과 그 일대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문화적인 면에서는 철기문화의 수용에 따라 대략 반경 50리에 이르는 지역세력집단이 등장하였고, 이의 주체세력은 북에서 남하한 부여계가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지역은 辰王의 목지국(직산)이 마한을 주도

64) 李道學 「앞의 論文」 pp. 109～123.

해 나가고 있었으며, 한편 漢郡縣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南漢山과 그 일대는 漢郡縣과의 경제적인 교류에 있어 근접지역이라는 유리한 위치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漢郡縣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가장 근접지역이라는 이중적인 지역성격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南漢山과 그 일대의 지역적 특성이 辰王으로 하여금 百餘里의 땅을 북에서 남하한 온조집단에 安居[65] 토록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여계이며 高句麗지역에서 남하한 온조집단은 桓因의 五女山城·新賓의 黑溝山城貫·柳河의 龍通山城의 예에서 보듯 高句麗가 山城을 거점으로 삼고 漢郡縣과 부단없이 부딪치는 사정[66]을 직접 경험한 집단이다. 그렇다면 앞서 溫祚王이 樂浪과 말갈의 빈번한 침략(온조대에만 10번의 말갈의 침략이 있었다)에 연유하여 한수의 남쪽을 巡觀하고 천도를 결심했을 때에 南漢山과 그 일대의 지역적 특성과 그들이 高句麗지역에서의 역사경험을 반영하여 천도의 위치가 결정되었을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에 溫祚王이 한수의 남쪽에서 천도지의 위치를 구할 때 최우선적으로 樂浪과 말갈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을 南漢山의 지형이 절대적으로 고려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南漢山과 그 일대의 지역적 특성이 앞서의 천도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를 시사하는 듯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十三年 七月 漢山下에 柵을 세우고 慰禮城(하북)의 民戶를 옮겼다. 팔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를 고했다.
>
> 十四年 正月에 천도를 하였다. 七月에 한강 서북에 성을 쌓고 漢城의 백성을 분거케 하였다.
>
> 十五年 正月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아니하였다.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條)

---

65)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二十四年條.

66) 全榮來, 「古代山城의 發生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第十一輯, pp. 53~54, 1988.

위의 내용에서 百濟의 방어시설인 柵을 漢山 밑에 만들고 하북의 慰禮城의 민호를 옮겼다는 것은 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樂浪과 말갈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있었고, 高句麗가 山城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였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현재의 南漢山城일대가 가장 지형적으로 적합한 곳이며 漢山은 곧 南漢山[67] 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음해 7월에 천도를 단행한 다음 漢城의 민호를 강북으로 분산 이주시고 궁궐을 지었다는 점 또한, 南漢山을 수도로 갖추기 위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 본 바 처럼 청동기시대 이래 南漢山과 그 일대는 배경으로한 유력한 세력집단의 근거지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주민 반발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溫祚王은 천도를 마한에 고할 정도로 세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궁궐을 짓고 樂浪과 말갈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예세력을 분산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溫祚王 14년에 하남지역으로 천도한 곳은 漢山이며, 漢山은 漢城이라고 불리어 졌으며 그 위치는 南漢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百濟가 南漢山에 천도를 단행한 후에 인접한 한강유역의 지리적 이점 즉, 비옥한 평야지대·漢郡縣과 교류·수운을 이용한 물자집산 등을 바탕으로 하여 마한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영역이 확대되는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여 갔다. 이에 漢山을 都城으로 계속 삼기에는 방어적인 성격에 따른 山城이란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十七年 樂浪이 려침하여 慰禮城을 불질렀다.
> 四十二年 한수의 동북 靑郡落에 명하여 十五세 이상을 징발하여 慰禮城을 쌓았다.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위의 내용에서 樂浪의 침략에 의해 불타버린 慰禮城을 25년이 경과한 뒤에 한수의 동북의 모든 마을에서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성을 쌓았다고 할

67) 李丙燾 「慰禮考」『앞의 책』 p.492.

정도로 대규모의 役事를 일으켰다는 함은 慰禮城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는 高句麗가 한세력을 몰아내고 한의 평원토성을 수축하여 사용한 후부터 山城과 평원성을 두고 평상시와 유사시에 적절히 이용하는 이원적인 都城의 이용체제[68]와 같이 百濟도 山城인 漢山과 평원성인 慰禮城을 갖추어 갔다고 볼 수 있겠다. 百濟가 漢山 즉, 南漢山과 慰禮城을 山城과 평원성으로 나누어 이원적인 都城의 운영체제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慰禮城의 명칭이 온조왕 24년 이후는 보이지 않고 漢山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사가 己 王 24년, 그리고 그 다음 代의 왕인 蓋 王 4년[69]에 보이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에 왕이 사냥과 순수를 하는 이유가 정복지의 위무와 더불어 세력기반의 확대를 도모하는 행사[70]인 점에 미루어 보아 당시에 漢山은 왕이 거주하는 都城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近肖古王 26년에 高句麗의 공격을 염려하여 都城을 漢山으로 옮기었다는 기사[71]를 고려할 것 같으면 百濟가 온조왕 42년에 慰禮城을 쌓은 이후에 후 己婁王 24년 사이에 漢山과 慰禮城을 이원체제의 都城으로 삼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百濟가 漢山을 유사시의 山城, 漢城(慰禮城)은 일반적인 都城이란 운영체제는 蓋鹵王 21년에 高句麗의 장수왕이 남진에 하여 漢城이 함락되고 왕이 사살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百濟가 漢山을 유사시에 이용하는 한정된 범주에서만 운영하였을까? 枕流王 時에 들어서 온 胡僧 摩羅難陀를 왕은 궁내에 두고 禮敬하였고, 다음 해에 漢山에 불사를 짓고 10인의 僧侶를 두었다[72]. 이는 百濟가 漢山을 중심지로 삼아 佛敎문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近肖古王 時에 國事를 기

68) 『周書』 卷 四十九 第 四十一 異域上 高句麗傳.
69) 『三國史記』百濟本紀 己 王, 蓋 王條.
70) 金瑛河, 「新羅時代巡狩의 性格」『民族文化』14, 1979.
71) 『위의 책』 近肖古王 二十六年條.
72) 위의 책, 百濟本紀 沈流王 條

록하여 書記를 편찬한 고흥의 출신지를 南漢山이라한 기사[73]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조선후기의 기록이고 引用書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앞서 古代國家의 이데올로기인 佛敎를 왕실 중심으로 수용하고, 漢山에 불사를 지어 僧侶들을 활동케 한 내용은 왕실의 존엄성과 통치의 당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사를 편찬하는 목적과 일맥 상통하다고 하겠다. 古代社會의 지식인을 지배층과 僧侶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것 같으면 최초로 僧侶들이 활동하고 있는 漢山은 국사를 편찬할 수 있는 한자문화의 역량을 갖추는데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곧, 漢山이 유사시에 운영되는 都城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百濟의 佛敎와 한자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는 문화 중심지적인 성격도 갖춘 곳이라 하겠다. 漢山이 후대에 이르러 南漢山이라고 불리어 졌는가는 알 수 없으나 蓋盧王 21년에 장수왕의 침략을 받고 북성이 불타고 함락되자 남성으로 옮겨 최후를 맞이했다. 이때 漢山을 방위명을 사용하여 남성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高句麗의 첩자인 僧 道琳의 권유로 강변을 따라 蛇城 동쪽에서 崇山 북까지 이르는 둑을 쌓았는데[74] 이를 北城이라 하고 漢山을 南城이라 불리어졌다[75]고 하겠다. 그 후 新羅 文武王 8년에 高句麗를 평정하기 위하여 漢城을 출발하던 중에 당의 회군 소식을 접하고 漢城으로 돌아 온 후에 포상한 漢山州의 전공자 중에 北渠를 南漢山人이라고[76] 출신지를 밝히는데서 南漢山이란 지명이 처음 보인다. 그리고 新羅가 百濟를 멸망시킨 후 漢山州의 諸郡名중에 北漢山郡名이 보인다. 즉, 개로왕때에 蛇城에서 崇山까지 쌓은 新城을 北城, 그리고 漢山을 南城이라하여 한산이 방위명으로 불리어진 후에 北漢山과 대칭하여 漢山을 南漢山이라고 불리지기 시작하였

73)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牧 人物編.
74)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盧王 二十一年條.
75) 李丙燾 譯註, 國譯『三國史記』, p. 393, 1983.
76) 위의 책, 新羅本紀 文武王 八年條.

다. 그 후 고려시대 부터 漢山은 南漢山이라[77]고 불리어져 현재에 이른다고 하였다.

5. 結　　論

이상으로 남한산이 병자호란에 국한된 일반인의 제한된 역사인식을 불식하고 남한산의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키 위한 일환으로 고대 남한산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석기 시대의 남한산은 지금보다 110~120m 높았으며, 황해를 통해 중국가 연해져 있었다. 남한산 일대인 분당·역삼동 등지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남한산도 구석기인의 생활터전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구석기인이 북으로 이동한 만년 전후시기에 현재의 남한산의 지형이 갖추어 졌다. 그리고 대략 B.C.4000년 경에 서해안 지방에서 남하한 고아시아족에 의해 남한산의 신석기문화가 열리게 되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한강의 장안에서 살다가 대략 B.C.2000년 경부터 농경을 하면서 남한산의 근접지역까지 생활무대를 확대시켰다. 이들은 B.C.10c 경에 남하한 예맥족에 흡수되면서 남한산 일대의 토착사회를 구성하였다.

2. B.C.10 경에 한반도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면서 남한산 일대도 전·후기에 걸쳐 청동기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의 남한산 일대는 남·북의 청동기문화 중심지의 외곽지였고, 경계선을 이루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냈다.

청동기시대 진행되면서 남한산 일대에 정치세력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남한산을 중심으로한 지역범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7) 「高麗史」 卷五十六 志卷第十 地理一 廣州條.

3. B.C.4c 경부터 한반도 북반부지역의 정세변화(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고조선의 붕괴와 위만조선의 등장·漢郡縣의 설치운영)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남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북쪽지역에서 남하한 유이민은 한반도 중남부에 영향을 주어 삼한을 성립시켰고, 목지국(익산)의 진왕이 마한 연맹체를 이끌어 갔다. 남한산 일대는 진왕이 다스리는 목지국의 외곽지대였고, 한편으로는 漢郡縣과 韓사회의 교역에 유리한 위치였으나 漢郡縣과 경계를 이루게 되는 접경지라는 이중적인 지역성격을 갖게 되었다.

4.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부여계인 온조집단이 위례성을 도성으로 삼고 백제를 건국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건국한 남한산과 그 일대의 지역성격에 연유하여 낙랑·말갈의 공격에 따른 위협을 받았다. 그 결과 온조왕 14년에 한산으로 천도하였다. 한산은 곧, 남한산인 바 평원성인 위례성(한성)과 더불어 백제의 이원적인 도성운영체제의 도성이 되어 한성시대 전기간에 걸쳐 외환에 대응하는 기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남한산은 외환에 대응하는 산성 도성으로써 기능과 더불어 침류왕 때에 최초로 佛寺를 지어 고대국가의 이데올로기인 불교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되었다.

城南의 産業構造

蘇 鎭 光
(경원대학교 교수)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地方化 時代의 새로운 地域經濟論理
Ⅲ. 地域經濟成長과 地域産業의 構造變化
1. 地域産業의 構造 再調整
2. 産業技術發達과 製造業의 質的 構造變化
Ⅳ. 城南地域의 産業構造 分析
1. 分析 論理
2. 城南地域의 産業構造 分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의 經濟活動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活動으로 인해 만들어진 空間(space)에 의해 制約을 받고, 다른 한편 다른 사람들의 經濟活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立地與件 혹은 空間을 창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地域의 産業構造는 그 地域의 空間構造, 나아가서는 그 地域에서의 人間活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종래 産業構造라 하면 經濟活動의 對象이나 분야와 같이 結果만을 설명하는데 국한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느 地域의 産業構造 再調整이나 變化와 같이 動態的인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經濟活動의 手段, 즉 生産組織이나 生産體系와 관련되어 있는 技術概念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城南의 産業構造를 分析하는 작업도 經濟活動 結果로서의 '量的 概念'과 經濟活動 過程으로서의 '質的 概念'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産業構造의 質的인 측면을 分析하기 위한 論理를 産業技術의 사용주체인 産業組織과 사용방식인 生産體系 개념을 도입하여 시도하고 있고 城南地域의 量的인 産業構造 설명과 접목하려 하였다. 그러나 城南地域의 質的인 産業構造 특색은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도출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다. 특정 産業과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개별 企業間 投入·産出 및 技術水準 그리고, 生産組織과 生産體系의 變化過程을 分析하게 되면, 그러한 經濟活動과 맞물려 있는 '空間性'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곳에서의 '사람'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地方化 時代의 새로운 地域經濟倫理

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地方化 時代」에 대한 열망은 특히 經濟分野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종래의 經濟運用方式을 전환해야 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종래의 경제운용방식이란 計定單位로 전체적인 국가만을 상정하였지, 보다 작은 空間單位인 지역, 즉 市·道나 市·郡과 같은 국가의 하부체계는 고려하지 못했던 경우를 말한다.

경제활동이 어디서 전개되든지간에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總量成長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1] 또,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果實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이나 모두 평균적 풍요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에 흡족해야 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 전체적인 「成長몫」을 크게 하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였지 그 果實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지역,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거나, 조금은 덮어 두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렇게 조금 참고 기다리노라면 결국은 뒤처진 사람들이나 낙후된 지역 모두가 국가전체적인 「成長果實」을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가정하여, 分配問題는 操作적 政策의 대상이라기보다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 등한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比較優位에 의한 경제체계가 국가전체적인 總量經濟成長을 가장 능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경제활동여건 변화에 완전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역간 흐름 주체인 인구·자본·정보 및 의사결정 등은 나름대로

1) 소위 成長據點 理論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Benjamin Higgins & Donald J. Savoi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 Their Application(New Brunswick,London:Transaction Publishers,1995) pp.89~113

거리에 의해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先發中心 지역에는 發展果實이 과도하게 집적되고, 주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등 건전한 國民形成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정한 分配論理를 왜곡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空間次元에서의 分配正義가 실현되지 못하게된 원인에는 충분한 실증적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形式論理에 매료되어 新古典派 經濟理論을 그대로 현실정책에 반영한 탓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地方政府 次元의 計定體系를 약화시켰던 中央集權的 意思決定 行態의 탓도 포함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행태는 국가자본의 配分方式을 「能率性」에 기초하여 공당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능률성은 지역의 開放的 屬性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選別的 閉鎖」로 나타나는 領土的 屬性을 간과하게 되었던 것이다.[2] 전통적인 經濟問題라 하면 ①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②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③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와 같이 다분히 機能的 統合論理에 바탕을 둔 지역간 開放性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문제는 여기에 ④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 立地와[3] 관련한 경제활동의 領土性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문제는 生產要素의 지역간 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생산요소의 흐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또 어느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經濟의 지역간 격차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地域經濟 活性化論理는 생산요소의 動態的 과정에 기초하여야지 특정 시점에서

2) 選別的 閉鎖(selective closure)에 관해서는 아래문헌을 참조
John Friedmann and Clyde Weaver, Territory and Function :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 7

3) 따라서 전통경제학의 접근논리와 지역경제학의 접근논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경 제학의 관점은 아래 문헌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Paul A. Samuelson, Economics. (London : McGraw-Hill Book Company, 1948) pp. 15~16.

의 靜態的 수준에만 근거하여서는 안된다. 즉,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 지표에 의한 지역격차보다는 경제지표의 흐름 방향과 속도에 의한 지역간 격차가 보다 적실한 地域經濟 分析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포함한 모든 경제지표의 흐름 방향과 속도는 영토적 속성을 인정할 만한 공간적 범위를 얼마만한 크기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計定單位로서 지역의 규모를 市·郡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市·道 정도의 크기로 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경제문제의 정도는 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표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였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操作的 政策對象으로서의 가치,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地域經濟政策이 종래의 경제운용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몇가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經濟問題가 生産을 극대화하기 위한 資源配分 論理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효용을 감지할 수 있는 所得分配 論理와 상호 연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所得分配 論理는 사회계층간에 있어서는 社會正義觀에, 그리고 지역간에 있어서는 영토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地域主義에 기초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의는 衡平에 이르는 열쇠인데, 이러한 형평은 社會計劃의 主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基礎需要를 형성해 준다.[4] 지역주의는 또한 自助·自力開發, 그리고 각 지역단위가 보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自體資源 및 能力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主導權에 대한 철학과 기법을 나타내 준다. 특히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몇몇 지역에 대해 기회를 부여하는 경제, 즉 特化産業經

4) 권태준, "지역개발의 새로운 주제로서의 지역주의" 금호문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국가발전과 지역주의」자료집(1987. 5. 7~9) pp. 91~101

濟와 産業의 分散形態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분배논리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곧, 지역주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이고 自己認識過程으로 공통의 전통, 이익 및 열망에 근거한 地域社會感覺이 성숙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경제 및 정부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理性的 分析을 통해 발현될 수도 있게 된다. 中央集權的 下向式 資源配分 論理에 따라 수행되었던 지역개발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의야말로 지역별로 다양한 選好를 조화롭게 배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둘째는 그간 국가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던 「能率性」이라는 것도 자원배분의 동태적 과정에서 보면 「非能率」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소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공간구조에 의해 구속받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空間構造를 형성해 가는 측면도 있어서,[5] 단기적으로는 「非能率的」인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能率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地域資源 활용기회를 형평에 맞게 배분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미 生産基盤施設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은 또 다른 경제활동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음은 都市成長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셋째는 경제활동의 본질이 「나누어지는 過程」이라기보다는 「모아지는 過程」이라는 점이다. 경제활동은 본래 個體의 욕구에서 촉발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요에서 자극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작은 영토적 단위로부터 확장되는 과정에서 경제흐름이 파악되어야지 국가전체로부터 나누어지는 과정에 의해 경제흐름이 분석된다면 그것은 허구이기 쉽다. 되

5) J. Friedmann, "The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in N. Hansen (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New York : Free Press, 1972)

도록 地域住民의 意見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個體의 合이 全體가 되어야지 전체를 임의로 나누어 놓은 것이 개체일 수는 없다. 또한 지역경제는 인간의 활동이 「거리」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領土性」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 이전의 實體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경제는 「필요한 手段」이었지 본시 實體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下向式 資源配分論理는 수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급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모로 보나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은 궁극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과는 별도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종래의 경제운용방식이 추구해 오던 「發展」이라든가 「成長」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즉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성장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存在價値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環境問題의 심각성 대두, 社會構成 論理의 변화등이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地方自治制는 어떠한 이유에서 보다도 강력하게 종래 下向式 일변도의 中央執權的 資源配分論理를 거부하게 될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의 합이 국가 전체적인 국민경제로 수렴되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時代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제껏 地域經濟의 接近論理는 단지 전체를 임의로 나누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은 전체를 이루기 위한 부분품이었지 개체로서의 존재가치가 희박할 뿐이었다. 즉, 일부지역의 번영이 전체의 번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多數의 最低値가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이며, 少數의 最高値가 代表性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最高値에 의한 代表性」을 「실속있는 平均値」혹은 「最高値가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임의로 나누어 놓은 단순한 계층적 단위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存在價値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地域經濟의 活性化는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範圍內에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는 地域住民 스스로의 意思決定權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장치가 다름아닌 地方自治制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에 임하면서 우리의 地域經濟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政策具現이 절실히 요청된다.

첫째, 國民經濟를 地域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中央政府中心의 경제운용을 地方政府中心의 경제운용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관한 형식적인 기능만 가져서는 아니되고 실질적인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立地한 기업들마저도 生産果實의 토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本社機能도 생산활동과 함께 立地할 수 있도록 地域金融 등 각종 지원시설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급인력을 지방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과 양을 고르게 분산하는 등, 地方定住體系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業種을 선택,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特化産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대학의 관련학과를 키워나갈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공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차산업도 공업 못지 않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고, 3차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生産費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空間費用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자본·정보 및 의사결정 등은 각각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 지역의 與件에 따라 각각 그 흐름속도를 달리

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주체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지역의 經濟를 活性化하는 길이라면 그것들이 잘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接近度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경우 「삶의 質」이, 자본의 경우 「空間的 立地條件」이, 정보의 경우 「市場規模」가, 의사결정의 경우 「支援機能」이 각각 중요한 誘引要素라 할 때 이들 요소의 구비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

넷째, 市場圈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경제의 成敗는 市場性에 있는 바, 지방정부는 市場情報管理 및 支援은 물론, 지방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市場圈 확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단위에서 技術水準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特化產業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축적해 갈 수 있도록 지방대학·연구시설·기업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이나 기술도입이 불가피하겠으나 되도록 土着資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편 그 지역수준에 맞는 適正技術을 채택할 것이 요구된다. 자칫 지역주민의 수용능력을 능가하는 「최첨단」의 생산공정을 유치하다 보면 生產業體의 지역화는 어렵게 되고, 경제활동의 양적 성장이 「住民의 번영」과는 거리가 먼 「장소의 번영」에 그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해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어느모로 보나 地方化時代에 적실한 지역경제 운용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이제까지 열거한 대략적인 政策方向을 실현하기 위한 地域經濟運用戰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競爭力이 약한 인접지역들끼리 하나의 地域經濟圈을 형성하는 일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를 합하여 국민경제로 수렴하는 과정이 地方化 時代에 적실한 경제운용방식이라면 計定單位로서 지역은 주변지역과의 相補的 관계에 있게 된다.

즉, 전체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쟁적·배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영토적 속성은 空間機能分擔圈 형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생산요소의 축적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주변지역에 대해 「選別的 閉鎖」에 의한 地域經濟圈을 형성하는 것이 다소나마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하고 지역주의를 실현하는 경제운용방식인 것이다.

둘째, 生産業實의 지역화를 도모하기 위해 再投資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地方金融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생산기술을 適正化하여 地方立地企業과 지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낙후지역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고, 市場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大企業系列會社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듯싶다.

넷째, 교통·통신 등 社會間接資本 施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情報接近度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활동의 空間連繫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도를 제고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의사결정에 지배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당해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住民福利增進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地域開發計劃은 당해 지역경제내용과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여, 사회변동과정에 대해 지역경제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中央政府에 집중되어 있는 政策決定過程이 分權化 내지는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의 空間選好를 유발할 수 있도록 地方財政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무조건 「큰 것」이, 그리고 「最尖端」이 낫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잠재력과 여건에 맞는 규모와 적정기술수준을 택하여, 그에 맞는 업종을 키우고, 또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지방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본래 大都市指向的 속성을 지닌 高生産性의 경제활동을 지역에 유치하기가 어렵다. 地方自治制 실

시로 공간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害惡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렇다 할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역이 自救策의 일환으로 既成長지역으로부터 銅陽產業이나 公害排出產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원배분의 동태적 과정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世代의 空間利用權은 다음 세대에 대해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地域經濟成長과 地域產業의 構造變化

1. 地域產業의 構造再調整

地域經濟의 발전은 量的 成長과 構造改善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이제까지의 地域經濟는 量的 성장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운용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量的 成長에 대해 여러가지 공간적 제약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城南地域으로서는 한정된 資源의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構造的 再調整을 통한 地域經濟發展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와같이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실익은 경제변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데 있다. 이제까지 산업구조라 하면 국민경제차원에서 계획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량중심의 생산,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이해하여 오고 있었다. 즉, 產業構造는 국가차원, 국제비교의 수준에서나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며, 그것도 1년 혹은 2년의 단기가 아닌, 5년 혹은 10년과 같이 장기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본래 '構造'라는 말은 단기간에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적절치 못하여, 최소한 3년 혹은 5년간에 걸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이

상의 기간이 지나야만 변하는 '골격' 혹은 '유형'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다. 실제 경제활동의 흐름주체인 人口(노동력), 資本(재화), 情報, 意思決定 등에 대한 통제권한, 계획능력이 中央政府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대에는 산업구조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역경제행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구,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경제변동의 흐름방향과 속도가 中央政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능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도 산업구조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경제의 커다란 관심영역인 지역격차는 바로 지역산업의 구조적측면에서 접근 되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지역격차분석지표는 첫째, 經濟活動結果(지역소득), 둘째, 經濟活動過程(경제성장률등), 셋째, 經濟活動與件(입지인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經濟活動의 구조적성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적 현상을 지역에서 형성되어 온 산업구조의 변천과정에서 찾으려는 시도에서도 地域産業構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에 있어서 산업구조분석의 의의는

첫째,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낙후'라든가 '저개발' 혹은 '저발전'이라는 용어는 구조,특히 산업구조의 상대적 위상을 일컫는데 사용된다.

둘째, 地域經濟問題를 풀어 나가기 위한 처방을 가능케한다. 지역경제문제가 구조적으로 접근, 도출이 되면 이의 처방 또한 '구조의 개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셋째, 閉鎖體系에서의 靜的均衡(static equillibriun)이든 開放體系에서의 動的均衡(dynamic equillibrium)이든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 소비패턴, 생산구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산업구조의 분석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60년대, 70년대 소위 개발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식은 양적인 성장을 발전적 현상으로 이해하여 오고 있었다. 급박한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가 아닌 장기적으로(10년 혹은 20년 후의) 산업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그 구조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성장산업은 어떤 것이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어떤 것인가? 주변 지역과의 상대적인 위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야이다.

산업구조와 관련한 地域經濟의 성장이론은 장기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地域經濟의 성장은 ①지역내부로 부터의 내생적 결정인자와 ②외부로부터의 외생적 결정인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생적 결정인자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土地, 勞動力, 資本, 및 技術 등 생산요소의 배분을 들 수 있고 외생적 인자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외부로부터 당해 지역 상품에 대한 수요수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인자들은 각각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이론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문이론(sector theory)또는 단계이론(stage theory)에서는 地域經濟發展을 본질적으로 내생인자에 의한 산업구조변화과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출기반이론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외부수요를 강조하고 이러한 외부요인이 産業構造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구조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이들 내생인자를 촉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技術水準을 높이고 잠재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본축적과 투자능력을 개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 산업부문으로의 구조재조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문내에서도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셋째는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量의 측면에서 보면 인구구조와 상응하는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고, 質의 측면에서 보면 미래 産業構造를 예측하고 그에 적실한 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政策目標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구조를 주도하는 부문은 국제교역이 가능한 분야라야 하겠는데 이는 우리의 비교우위가 어떠한 生産要素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폭 또한 클 것이다.

특히, 製造業을 바탕으로 급격한 都市化 過程을 겪어온 城南地域은 제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地域經濟發展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진다.

2. 産業技術發達과 製造業의 質的 構造變化

技術의 발달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간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특히, 産業技術의 발달은 생산방식, 소비패턴 모두에 큰 영향을 주어 또 다른 변화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 생산방식은 크게 生産組織과 生産體系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地域經濟의 건전도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진단하여 가늠할 수 있다.

가. 産業技術發達과 生産組織의 變化

生産組織(production organization) 혹은 産業組織(industrial organization)은 산업구조의 표현인자로서 첫째, 하나의 공장(plant)을 원소로 하여

이들이 '투입－산출'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연계구조(linkage structure), 하도급(subcontracting)관계, 그리고 수직적 분리(vertical disintegration), 기업들의 空間集中現象과 같이 넓은 관점에서 정의될 수도 있고(A.J.Scott. 1983. pp.231－250.). 둘째, 기업자체의 유기적체계(organic system)에 관한 것으로 주로 기업목표를 결정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선택행위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보다 좁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즉, 生產組織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기업조직과 넓은 의미의 기업간 관계를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기업조직은 주식회사, 개인회사, 유한회사등 기업의 소유형태, 특정 활동전담부서의 유무와 위상들에 관한 조직특성, 단일공장기업, 다공장기업(모공장, 분공장등)과 같은 조직형태,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조직규모를 분석단위로 하여 접근되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產業技術의 사용자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좁은 의미의 生產組織槪念을 수용하고, 그와 관련한 조직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만 산업연계구조, 하도급관계, 수직적 분리현상과 공간 집중현상 등 넓은 의미의 생산조직개념도 산업기술의 혁신 및 채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차적인 분석단위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들 상당부분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하는 경제문제와 관련한 生產體系(production system)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의 發展現象을 설명하기 위한 立地論의 연구 체계에서 볼 때 이러한 기업조직에 관한 연구의 가치는 조직으로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수용과정과 조직으로서 기업의 입지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Scott(1983. p.235)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용과 외부거래비용을 비교하여 기능적 통합과 기능적 분리현상을 양극으로 하는 生產組織의 연속체를 상정한 바 있다. 즉, 기업의 내부거래비용이 증대되면 기업은 생산기능을 분리하여 생산 공정일부를 외부화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기업이 외부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능을 동일생산조직내에 통합하여 보다 많은 生產工程을 내부화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생산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지닌 소규모 勞動集約的 生産活動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과정(labour process)의 통합 및 재통합(resynthesis) 경향이 있는 대규모, 자본집약적 생산활동이 그것이다. 즉,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생산공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공장은 勞動集約的인 생산조직으로 운영되기 쉬워서 '자본/노동'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규모의 내부경제가 제한적이라서 기업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

따라서 공정통합에 따른 경제성이 미미하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生産工程의 수직적 분리현상(vertical disintegration)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제품이 표준화되게 되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生産工程도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될 것인데, 이 때 기업은 노동과정의 간소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자본 및 기술사용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로인해 '자본/노동' 비율이 증대되고 규모의 내부경제 및 통합경영의 경제가 발생하여 공장은 대형화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공정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자본투입이 한계를 지니고 있고 勞動集約的인 특성을 보이는 산업은 제품시장이 확대되더라고 공장규모가 대형화되기 어려워 공장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본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서는 생산공정의 수직적 통합에 따른 규모의 내부경제가 증대되어, 기업은 다공장, 다제품기업(multi-plant, multi-product firms)화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들 다공장,다제품기업들은 특정활동을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본사나 R&D부서 등은 생산활동과 떨어져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분공장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母)공장의 生産工程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생산 공정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H.D.Watts, 1987, p.5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産活動의 조직변화는 노동과정의 ①분리

(disintegration), ② 통합(integration), 그리고 ③ 새로운 기계가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모든 生産工程이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재통합(resynthesis)으로 구체화된다. 또 다른 한편 기술진전은 그간의 자본투입에 의해 형성되게된 특정 지리공간과의 연계가 기업이윤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공간성향을 지닌 資本投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기술의 발달은 生産組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해 산업에 고유한 空間構造를 재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산업기술의 사용자(생산조직)는 자체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유형을 채택하고, 혁신의 정도를 달리 하게 된다. 산업기술은 유동기(fluid pattern), 과도기(transitional pattern)를 거쳐 특정화기(specific pattern)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生産組織과 결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生産活動의 조직특성이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Galbraith(1967)는 계획체계의 기업(planning system firms)과 시장체계의 기업(market system firms)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체계의 기업이란 그 규모가 작아서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시장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기업을 말하며 시장변화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企業組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계획체계의 기업은 시장에서의 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조직으로 특징지워지며 다지역(multi-regional), 다공장(multi-plant)형태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새로운 生産 工程技術의 空間化는 주로 계획체계기업들의 공간분업으로 구체화되고, 이 때 혁신의 전파는 계획체계기업자체에 독특한 立地階層(혹은 자체의 공간계층구조)에 의한 확산에 의해 주도되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체계기업들에 의한 전염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산업기술은 도시화 경제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도시규모분포의 계층확산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착화경제의 관점에서 계획체계기업에 의해 형성된

산업별 입지계층에 따른 공간확산과정에 의해서 전파되게 된다. 생산조직과 입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도급(subcontracting)관계이다. 통상 하도급은 수직적 분리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내부 거래비용이 기업외부 거래비용 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統合經濟(economies of integration)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통합경제는 ① 공동생산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경제성(technical economies), ② 경영상 그리고 의사전달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제성(managerial and communications economies), ③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과정에서의 경제성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상호의존적인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관련 활동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대규모 企業組織은 관련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조직은 領土分割(territorial divisions), 機能結合(functional integration) 그리고, 생산제품이나 서어비스별 관장업무(product/service divisions)를 혼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구성 원리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케 해 준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생산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연적인 생산조직의 도입으로 전,후방연계기업들이 설계로 부터 최종조립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단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특정제품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면 혁신을 이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JIT체계의 도입 및 수직적 분리현상으로 인한 산업연계체계의 변화는 후방연계 기업들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즉, JIT체계가 능률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하도급업체가 시장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몇번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완성품 조립업체 가까이 입지하여야 한다.

Scott(1987)는 수직적 분리와 경제활동의 집적은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수직적 분리현상은 외부거래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집적지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부경제는 또 다시 수직적 분리현상을 자극하여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게 된다. 이와같이 수직적 분리현상이 증대되고 유연생산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産業空間(new industrial spaces)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적 생산방식과 수직적 분리현상은 공간집중 뿐만 아니라 공간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같은 상반된 주장은 기술변수의 주체, 즉 생산조직의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결국, 生産組織은 生産工程 關聯技術의 수용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입지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그 생산조직특성에 따라 산업기술을 수용, 채택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을 통해 독특한 生産空間(production space)을 형성하는 '기술-공간'화의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나. 産業技術 發達과 生産體系의 變化

生産組織이 産業技術의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生産體系(production system)는 産業技術의 사용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생산활동은 재화 및 서어비스 생산을 통한 효용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때 최소한의 투입비용으로 효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경제적으로 결합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산체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효용의 창출과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생산에 있다.

이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체계는 生産工程(production process)으로 구체화되는 변환기능과, 생산요소를 경제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자원의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

는 원자재, 노동력, 에너지, 생산서어비스, 자본재 등을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목적하는 재화 또는 서어비스를 산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모든 生産體系는 '투입－변환과정－산출'의 연계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변환과정은 공장 설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생산체계의 변화는 공장설비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생산요소투입의 계획 및 조직과 관련한 관리기능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생산활동의 공간입지와 관련하여 생산체계라 할 때에는 공장설비를 통한 투입요소의 변환과 관리일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투입요소인 원자재, 노동력, 기계설비, 정보 등은 모든 기술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는 통상 생산체계변화를 수반하고, 생산체계는 기술진전을 촉진하기도 혹은 억제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생산체계와 관련한 산업 입지연구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체로 기술진전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낳는다고 한다. 즉, 임금이 높고 근로조건(안정성, 승진 및 특별연수등)이 좋으며,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1차분야(primary sector)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불확실하며 승진 기회라든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2차분야(secondary sector)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생산체계와 공간입지성향을 연계시킨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이들 연구는 주로 기술진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촛점을 맞춰 오고 있다. 즉, 技術水準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가 노동의 공간분업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Massey, 1984). 뿐만 아니라, 본사 활동이나 연구개발활동이 핵심지역에 입지해 있는 반면, 大量生産體系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공장은 주변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대기업에 의한 부문내에서의 勞動分業(the intra sectoral division of labo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H.D.Watts, 1987. p.99). 이들 부문내부에서의 勞動分業現象은 계획체계 기업의 발달과 이들 대기업에 의한 입지계층(locational stratum)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대기업들이 대체로

비슷한 입지계층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부문내부의 노동공간분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본사나 연구개발 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하고, 사무활동 종사자와 생산직 근로자가 각기 다른 장소에 집중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Massey와 Meegan(1979)은 생산직 근로자중에서도 숙련공(skilled production workers)과 비숙련공(unskilled production workers)이 각각 다른 공간집중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生産技術과 관련하여 탈기능화(deskilling) 현상을 낳고, 이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자기 능력이나 자질에 비추어 하위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결국, 生産技術의 발달은 노동시장의 1차 분야와 2차 분야별로 각각 다른 양상의 생산체계와 상호작용하여 기존 집적지에서의 연구, 개발기능과 통제, 관리기능, 그리고 주변부지역에서의 단순생산기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업을 가능케 하고 있다. 통상 生産工程의 수직적 분리(vertical disintegration)현상은 이러한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와 맞물려 있다. 한편, 革新週期가 過渡期(transitional pattern)와 특정화기(specific pattern)에 접어들게 되면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리 및 재통합과 관련하여 산업연계구조(industrial linkage structure)가 더욱 복잡해져서 물류(物流)를 관리하는 기능이 보다 중요해진다. 곧, 기업이 경쟁기조를 비용절감(cost reduction)에 두게 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경제적 결합방식이 보다 중요해져서 생산체계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은 生産工程의 수직적 분리 및 재결합과 관련하여 산업연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하게 되면 산업연계와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생산체계의 공간적 속성은 투입요소의 경제적 조합과 관련한 비용최소화의 경향과 산출의 관리면에서 수입극대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인 입지이론에서 보면 수입극대화의 경향은 시장지향적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고 비용최소화의 경향은 그 밖의 모든 산업에서 두드러

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生産體系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품종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체계를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와 소품종 대량 生産體系로 나눌 때, 전자는 고객의 만족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공간성향을 보일 것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생산비용의 최소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반 생산요소의 구득가능성 및 결합방식에 따라 복잡한 空間性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생산규격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체계를 수주생산체계와 계획생산체계로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주 생산의 경우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가 기업의 수입을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인 空間性向을 띠게 할 것이고, 計劃生産의 경우에는 안정된 시장(혹은 상당기간 일정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투입－산출'의 변환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인자가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결정 인자인가에 따라 복잡한 공간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生産體系가 근본적으로 효용의 창출을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성(비용의 최소화)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양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성향은 기업의 전략에 따라 분명해 지리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변환기능에서의 공장설비 생산성향상과 연계되어 있지만, 管理機能 측면에서의 생산요소 배합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합리화전략은 생산투입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인자는 生産要素 중 가장 취약한 인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地域經濟의 성장은 '量的 擴大', 못지 않게 '質的 改善'

의 측면에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의 질적인 측면은 勞動生産性, 土地生産性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분석지표로 가늠될 수 있고 또 타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생산단위의 조직과 체계를 통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産業技術이 발달하면서 생산단위자체의 生産組織 및 生産體系가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은 기업합리화의 방향에서 이해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합리화의 과정은 전반적인 지역의 産業構造調整과 맞물려 있어서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정보기술의 배분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글은 기존통계자료를 분석하여 城南과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도시와 산업구조를 비교함으로써 城南 地域經濟의 量的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Ⅳ. 城南地域의 産業構造分析

1. 分析論理

量的 擴大의 측면에서 城南市 지역경제의 발전과 관련한 産業構造의 변천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저변에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회의 발전잠재력을 인간과 정부가 잘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도래할 국제관계, 국민적 여망, 지역여건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여망, 지역의 물리적 여건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경제활동의 질적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수렴해가는 '內部化 過程'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사회의 양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분야에서 제일 먼저 질적인 구조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사회는 製造業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수준과 임금수준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할 때 이들 요인의 관리능력에 따라서 製造業의 특성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까지 우리의 제조업은 생산현장기술의 우수성에 바탕을 둔 組立加工形産業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섬유, 전자, 자동차등 주요수출산업의 경쟁력은 수입한 원료와 부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 조립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이는 곧 완제품을 수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본재, 기술 등을 수입하는 垂直分業的 무역형태로 이루어져온 것이다. 게다가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능력이 부족하여 자체브랜드에 의한 세계시장 진출보다는 소위 국제하도급에 의한 생산·판매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조업 성장전략은 임금수준의 상대적인 상승, 기술축적 등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국내에 소재·부품·자본재산업이 고루 발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나친 輸入誘發的 産業構造를 가지고 있어서 극심한 일본엔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중한 대일 수입대금 부담이 늘고 있다하겠다. 대외 교역면에서도 소수의 상품에 대한 貿易集中度가 매우 높고, 교역상대국이 미국, 일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은 이제 지역의 産業構造變化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지방정부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관리면에서 앞선 지역은 소재, 부품, 기계류등 중간재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세계시장 진출면에서도 垂直的分業으로부터 점차 제품차별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간재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서 이들 산업이 발전하면 결국, 전반적인 地域經濟가 수입유발적이며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다. 産業技術이 발달하고 마케팅 능력이 향상되면, 국제하도급에 의한 생산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체상표에 의한 세계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종래 지역경제의 非基盤活動으로 간주되어 오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제까지 3차산업으로 크게 분류되어 오던 서비스 산업은 地域經濟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과 커서 소위 4차 산업으로

불리는 情報·知識産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基盤活動으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製造業보다도 입지제약이 덜하고, 지역환경에 대한 반대급부도 상대적으로 약하여 蔚南과 같은 도시에서는 그 成長潛在力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量的인 成長과 상응한 서비스부문의 生産性向上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 이상의 임금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이로써 제조업 부문에서의 임금상승, 노동력 유출문제를 파생시켜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표 1> 기술발달수준에 따른 산업분류

첨단산업	채택산업	
	중간기술산업	저급기술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석유정제 및 기타	섬유
전자부품	정밀화학(의약품 제외)	식품가공업
전기기계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일반기계	조립금속
	가정용전자기기	조선
	석유화학	기타
	스포츠·레저용품	(비금속광물, 종이,
	정밀기계	인쇄, 출판 등)

출처 : OECD, OECD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986.

이상의 문제인식에 근거할 때 地域經濟의 産業構造는 고기술 산업부문(high-technology industries)의 비중이 커지고 저기술(low technology)에 의한 단순 가공형태의 산업비중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하이테크 산업의 개념은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OECD분류방식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이 나누고자 한다. 물론, 첨단산업자체가 무조건 地域經濟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지역의 여러산업과의 연관성을 높

여 生産果實이 지역화되는 '내부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은 그 자체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지역경제의 동태적 변화과정이 산업구조변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1>은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2. 城南地域의 産業構造分析

城南의 최근 인구증가는 <표 2>와 같이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서도 급속한 편이다. 1993년말에는 73만명을 넘어서 수원시 인구규모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1994년말에는 인구규모가 80만을 넘어섰고, 1996년말 분당구의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게 되면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로서 인구 100만이 넘는 유일한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표 2> 주요도시별 최근 인구증가추세

(단위:백명,%)

도시명		'90		'91		'92		'93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수도권	성남	5,350	3.3	5,583	4.4	6,458	15.7	7,307	13.2
	수원	6,259	10.4	6,703	7.1	6,973	4.0	6,143	2.4
	부천	6,641	8.4	6,821	2.7	6,883	0.9	7,244	5.2
	안양	4,813	5.3	4,886	1.5	5,403	10.6	5,890	9.0
지방	울산	7,021	7.0	7,270	3.6	7,529	3.6	7,554	0.3
	전주	5,185	4.2	5,256	1.4	5,392	2.6	5,496	1.9
	청주	4,303	9.6	4,551	5.8	4,716	3.6	4,896	3.8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이와 함께 도시 편익시설도 타도시에 비해 나은 편이라서 또 다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즉, 1993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도시 평균 93.41

%를 상회하는 96.03%, 하수관거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도시 평균 55.72%를 크게 상회하는 96.09%로 서울의 95.90%, 수원의 76.47%, 부천의 78.88%, 안양의 93.16%, 울산의 76.43%, 청주의 74.57%, 전주의 64.46%를 크게 앞서고 있다. 주택보급률 역시 79.44%로 비슷한 여건에 있는 경기도 시급 도시평균 68.29%, 전국 시급 도시평균 71.15%를 상회하고 있고 도로율, 자동차 보유율, 전화보급률 역시, 타도시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즉, 城南市는 외형적으로는 인구성장과 상응한 地域經濟의 成長與件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반면 城南地域經濟의 양적인 측면을 비슷한 여건에 있는 수도권의 수원, 부천, 안양과 지방의 청주, 전주, 울산과 비교해 보면 <표 3> <표 4> 및 <표 5>와 같다. 이들 立地商(LQ)계수는 산업별 종업원수가 인구규모와 비교할 때, 전국평균값과 갖는 상대적인 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입지상계수가 1을 상회하면 상대적으로 당해 산업이 당해지역에서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城南의 地域經濟成長을 産業別 構成比로 분석하고자 할 때 成長誘引力이 큰 미래업종의 상대적 위상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실할 것 같다. <표 3>은 1986년말을, <표 4>는 1990년말을 그리고 <표 5>는 1993년말을 기준으로한 주요 도시의 산업별 입지상계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城南은 首都圈內에서 비슷한 위상의 다른 都市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큰 都市였음을 알 수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 및 용역업은 다른 都市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표 4>에서와 같이 1990년에는 제조업비중이 전국 시급도시 평균치(1.00)를 밑돌고 있고 건설업의 비중이 1986년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 및 용역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또한 1993년말 城南은 <표 5>와 같이 전국 시급 도시를 기준으로 단지 건설업분야가 특화되어 있을뿐, 여타산업의 입지상계수가 매우 낮은 편이

라서 지역경제의 양적인 충실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 창고, 통신업(0.43), 금융 및 보험업(0.30), 도소매 소비자 용품판매업(0.23) 등이 저조한 편이라서 이들 기능의 상당부분을 인접한 서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비슷한 인구규모 도시에서 이들 産業의 立地商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더구나 城南의 製造業 立地商이 0.65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원(1.16), 부천(1.62), 안양(1.01), 청주(1.21) 및 울산(2.42)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들 製造業의 量的인 成長에서도 城南은 비교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地域經濟發展의 構造的 측면은 제조업종별 종업원수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접근되어질 수 있다. 특히, 이들 地域經濟의 質的인 發展은 <표 1>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과 단순임 가공형태의 산업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되어질 수 있다.

즉, 첨단산업에 속하는 산업용 전자기기, 전자부품, 전기기계 및 의약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産業構造가 건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첨단산업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부응한 생산공정관련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地域環境에 대한 地域經濟活動의 반대급부도 크지 않고 地域의 成長潛在力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地域經濟를 질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업종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석유정제,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중간기술산업은 공간수요에 비해 환경적 반대급부도 클 뿐만 아니라, 産業技術의 발달과 함께 이들 비중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급기술산업 역시, 한정된 空間資源의 활용도를 제약하는 업종으로 단순가공형태를 띠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새로운 産業技術이 발전함에 따라 그 상대적 위상이 약화되는 것들이다.

<표 3>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종업원수 기준) '86말 기준

도시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용역업	기 타 서어비스업
성 남	1.30	0.87	0.26	0.58	0.25	0.93
수 원	1.03	0.46	0.51	0.98	0.65	1.21
부 천	2.04	0.27	0.16	0.33	0.25	0.64
안 양	1.25	0.69	0.31	0.88	0.57	1.04
청 주	1.29	0.41	0.50	1.32	0.56	1.24
전 주	0.47	0.86	0.83	1.21	0.85	1.45
울 산	2.00	0.56	0.56	0.98	0.80	0.70

* 시급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7.

<표 4>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종업원수 기준) '90년말 기준

도시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용역업	기 타 서어비스업
성 남	0.88	0.15	0.53	0.55	0.31	0.79
수 원	0.93	1.00	0.60	0.71	0.84	1.06
부 천	1.44	0.20	0.13	0.36	0.25	0.61
안 양	1.22	0.20	0.29	0.70	0.51	0.79
청 주	1.61	0.82	0.55	1.37	0.86	1.34
전 주	0.60	1.83	0.92	1.17	0.76	1.52
울 산	2.17	0.61	0.59	0.88	0.71	0.50

* 시급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1.

<표 5> 주요도시 산업별 입지상계수 (종업원수기준) '93년말 기준

도 시 명	인 구 수	제 조 업	건 설 업	도 소 매 소비자용품	숙 박, 음식점업	운수창구 통 신 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성 남	7,307	0.65	1.35	0.23	0.54	0.43	0.30	0.54
수 원	7,143	1.16	0.77	0.75	0.41	0.89	0.64	0.85
부 천	7,244	1.62	0.20	0.28	0.08	0.39	0.42	0.27
안 양	5,890	1.01	0.38	0.43	0.13	0.56	0.47	0.64
청 주	4,896	1.21	1.04	3.08	0.34	1.21	1.03	0.25
전 주	5,496	0.57	0.86	0.94	0.68	1.15	1.11	0.50
울 산	7,554	2.42	0.36	0.39	0.57	0.77	0.48	1.65

* 시급도시기준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1991, 198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 6>은 城南地域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즉 <표 6>에서와 같이 비슷한 여건,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수원, 부천, 안양과 인구규모면에서 견줄만한 청주, 전주, 울산등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발달된 産業技術을 잘 수용하고 있다고 기대되는 전기, 전자산업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재래산업으로 단순 노동력을 많이 활용해야 될 섬유(21.1%), 식품(13.6%)등의 제조업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城南의 製造業은 質的인 構造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수원의 경우 전기, 전자부문의 제조업비중이 67.1%로 매우 높고 섬유(5.1%), 식품(2.2%)등 재래산업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기반이 건전하고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도 수원과 비슷한 정도의 제조업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도권에 위치한 장소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주, 전주 등 지방의 도시들은 전반적인 제조업 구성이 재래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에 나타난 지수들이 그대로 地域經濟成長의 기여도라고 볼 수 없는 점도 있다. 섬유산업, 식품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가 낮고, 經濟活動의 果實이 地域化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으나마 이들 제조업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地域 토착자본의 참여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산업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면, 탄력성이 적어 地域이 가지고 있는 成長潛在力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可用土地 資源이 극히 제한적인 城南의 입장에서 보면 地域經濟 活動의 量的인 측면보다 質的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100만 인구에 걸맞는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표 3>, <표 4>, <표 5> 및 <표 6>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量的인 측면에서 열세인 城南의 經濟基盤이 質

的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과 인접해 있는 城南地域도 급격한 인구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시차적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급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 城南은 1986년, 1990년 및 1993년을 지나면서 서어비스 부문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들 상담부분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어비스 부문의 다양화로 城南의 空間構造에 알맞는 業種이 특화될 가능성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城南의 基盤産業은 제조업을 탈피하여 서어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표 6> 주요도시 제조업종별 종업원수 비중(%)

'93년말 기준 단위:명

도시명	총 계	섬 유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 품	기 타
성 남	28,769 (100.0)	6,079 (21.1)	2,348 (8.2)	3,156 (11.0)	4,838 (16.8)	3,926 (13.6)	8,422 (29.3)
수 원	48,400 (100.0)	2,487 (5.1)	5,390 (11.1)	769 (1.6)	32,473 (67.1)	1,082 (2.2)	6,199 (12.8)
부 천	91,156 (100.0)	3,729 (4.1)	8,844 (9.7)	34,634 (38.0)	31,002 (34.0)	1,926 (2.1)	11,021 (12.1)
안 양	47,290 (100.0)	9,309 (19.7)	5,222 (11.0)	10,266 (21.7)	11,332 (24.0)	5,612 (11.9)	5,549 (11.7)
청 주	34,190 (100.0)	8,054 (23.6)	4,343 (12.7)	1,744 (5.1)	13,472 (39.4)	3,698 (10.8)	2,879 (8.4)
전 주	18,031 (100.0)	9,803 (54.4)	2,285 (12.7)	1,002 (5.6)	— (0.0)	1,647 (9.1)	3,294 (18.3)
울 산	108,660 (100.0)	7,588 (7.0)	16,914 (15.6)	81,253 (74.8)	— (0.0)	797 (0.7)	2,108 (1.9)
시급도시 총 계	2,054,057 (100.0)	376,632 (18.3)	208,448 (10.2)	550,671 (26.8)	400,372 (19.5)	106,443 (5.2)	411,491 (20.2)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V. 맺는 말

이 글에서는 城南이 안고 있는 地域經濟 문제점을 주로 量的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성남의 산업구조 특색은 무엇보다도 초기 城南成長의 基盤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도 섬유산업, 식품가공업 등 저급기술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전기·전자산업과 같이 첨단산업의 비중이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미미하나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서어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커지고 있어서 空間機能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再調整은 城南의 급격한 인구증가, 주변 巨大都市 서울과의 상대적인 位相變化와 맞물려 있으며, 향후 교통 및 통신체계의 정비를 통해 주변 地域과 '결합'이 아닌 '補完的 空間機能 分擔'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構造變化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 地域의 경제활동은 質的인 측면에서 구조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成長潛在力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실한 경제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전적으로 이 지역주민과 城南 市政府 및 지역사회 유관단체의 의무이고 권리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地域經濟가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여건을 地域發展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내부화 과정'을 地域社會가 도출해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모든 여건을 지역발전으로 수렴하는 내부화 기능을 담당할 城南圈 綜合 硏究院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성남권에 대한 지역 정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집적량도 부족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初步 段階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대학에는 많은 고급 연구 인력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여 내부화할 수 있는 연계가 아직은 미흡하다. (가칭)성남권 종합 연구원은 성남시는 물론이고, 지역내 대학, 유관단체, 기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位相은 명실공히 성남권 정보센터의 역할과 성남 지역 사회의 求心點 役割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機構는 소수의 상임인력으로 地域의 모든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관리, 연계시켜 주는 성격으로 운영하여 경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이 지역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생산조직 및 생산체계를 합리화할 것이 요구된다. 計劃體系企業이 상대적으로 적은 城南地域은 시장변동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관리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전시관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안제, 1979, 환경과 국토 : 이론과 정책, 박영사

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박삼옥, 1983. 12, "한국 지리학에서 공업입지연구의 동향과 논점" 지리학논총, 제10호.

소진광, 1988, 대도시권 성장잠재력 분석시론, 탐구원

_____, 1989, 안양지역의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안양상의 연구총서

_____, 1991, 산업기술의 공간화 과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2, 지역경제성장의 주기적 특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_____, 1992,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편).

소진광, 1994, 기술변화가 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연구(교육부 연구 과제).

강광하, 1989, 산업연관분석론.

한국개발연구원, 1987, 미래에의 도전 :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Abernathy,W.J. and Utterback,J.M., 1978,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Abernathy,W.J., 1976, "Production Process Structure and Technological Change," Decision Sciences, Vol.7.

Armstrong,Harvey and Taylor, Jim, 1985,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Philip Allan

Scott,A.J., 1988,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l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2.

_____, 1988,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Lo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2, No.3.

_____, 1987,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Division of Labour,the Firm,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3.

_____,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I : 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Vol. 59.

_____,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II : A Case Study of the Printed Circuit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raphy, Vol.59.

_____, 1984,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II : A Case Study of the Women's Dres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

raphy, Vol.60.

_____, 1983, "Location and Linkage Systems : a Survey and Reassessment,"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17.

Utterback,J.M. and Abernathy,W.J., 1975, "A Dynamic Model of Process and Product Innova −tion," OMEG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3.No.6.

OECD., 1986, OECD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Massey,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London : Macmillan.

Watts, H.D., 1987, Industrial Geography,Harlow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Galbraith, J.K., 1967, The New Industrial State, London : Hamish Hamilton.

Friedmann,J and Weaver, Clyde., 1979, Territory and Function :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ggins,B. and Savoie,D.J., 1995,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 Their Application, London : Transaction Publishers.

金光洞 光山金氏에 關한 研究

張 三 鉉
(경원전문대학 교수)

〔目 次〕

一. 緖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範圍와 制限点
二. 金光洞과 光山金氏
1. 洞名의 由來
2. 金若時의 隱遁處
3. 光山金氏의 世居地
三. 金若時의 忠節과 孝道
1. 隱遁遺民하는 忠節
2. 杜門洞七十二賢과 遺民
3. 贈職과 贈諡
四. 光金이 輩出한 人物
1. 金率(공민왕~세종)
2. 金順誠(1429~1481)
3. 金 瑺(1470~1526)
4. 金彭齡(1500~1559)
5. 金止男(1559~1631)
6. 金緝男(1555~1617)
7. 金質幹(1564~1621)
8. 金 澤(1582~1619)
9. 金宇仁(1608~1659)
10. 金宇亨(1616~1694)
11. 金得男(1601~1637)
五. 結 論
參考文獻

一. 緖 論

1. 硏究의 目的

人間의 福祉를 향한 끊임 없는 노력은 人間社會의 變化를 가속화 하고 자연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나 국가사회나 한 지역사회나 가장 작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家庭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인의 思考와 行動도 같은 것이다. 변화가 없는 인간활동의 固定과 획일성은 進步나 向上 發展은 불가능한 것이요 冬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가 必然的임에도 불구하고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共同體가 유지 발전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共存共生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要素들이다. 그 요소들을 우리는 倫理道德이라고 한다. 인간의 衣食住 생활이나 一擧手一投足이 윤리도덕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 윤리 도덕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 지는 인간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것이요 共同體意識을 벗어난 행위이다. 그리하여 '人間은 萬物의 靈長이다.'라는 조건을 倫理道德의 존재에 두고 있는 것이다.[1]

開發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성남'이라는 향토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성남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변할 수 없는 전통사상으로서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윤리 도덕의 뿌리를 북돋는 일이 중요하다. 개발로 인하여 傳統文化나 遺産이 송두리채 사라져 버린 성남의 도심지나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각 지역에서 온 移住市民들이 애향심도 없이 삶에 급급하다 보면, 뿌리도 없고 精神도 없고 人物도 없고 文化遺産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삭막한 建物都市처럼 생각하기 쉽다.

---

1) 朴世茂, 童蒙先習, 1쪽

그러나 성남은 불모의 황무지가 아니다. 역사적 여건으로 보아도 그렇거니와 살펴보면 정신문화의 모범이 될 만한 문화적 자료가 많다. 변두리의 土着市民들의 생활은 다소 변화야 있지만 아직도 옛날의 문화유산을 엿볼 수 있다. 이미 후회스러우리 만큼 무계획적 開發 일변도의 획일화 속에 回生이 불가능 한 유형 무형의 것도 있거니와, 아직 남아 있는 수 백년 동안 성남지역을 이룩하여 온 開發以前의 정신적 물질적 유형 무형의 요소들은 오늘의 성남의 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뿌리들을 찾아내어 오늘의 성남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없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거니와 雪上加霜이란 말도 있으니까 남은 문화 유산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라진 것은 찾아 보고 새롭게 체계화 하는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광동은 高麗忠臣이요 光山金氏 城南派祖라 할 수 있는 金若時의 은둔처요 몸소 忠孝를 실천한 유적지이다. 그의 子孫들이 世居하면서 혹은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살면서 先祖 陰村 金若時의 忠孝와 義理를 본받아 충효의 모범을 보인 精神的 產室이다. 陰村을 비롯한 금광동 광산김씨는 사실상 금광동 향토사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향토의 집합체요, 향토는 인간이 이룩한 생활 공간이다. 또한 국사는 향토사에 근거하였고 향토사는 향촌인의 公的 私的 家史나 개인적 업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都市開發로 인하여 금광동에서 이미 陰村의 隱遁址와 무덤이나 그 자손들의 集姓 村落과 墓域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陰村의 孝行과 忠節과 그 자손들의 충절과 효도와 모범적인 삶은 오늘날 성남의 뿌리요 精神的 支柱로 본받을 바라 하겠다.

이 硏究는 變化하는 城南에서 첫째, 변해서는 안되며 또 변할 수 없는 성남 향토의 精神的 뿌리를 찾아 보고 둘째, 금광동의 향토사적 意義를 정립해 보며 셋째, 그래도 문헌상에 나타난 금광동 최고의 인물인 陰村의 충

直정신을 정리하고 넷째, 그 자손들로는 어떤 인물이 있으며 다섯째, 성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硏究의 範圍와 制限占

이 硏究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는 金光洞에 국한하고, 姓氏와 인물로는 金若時의 자손인 光山金氏가 그 대상이며, 時代的으로는 金若時의 生涯에 관계된 高麗末 부터 官職 人物硏究에 氏族的 譜學的 意味와 鄕土史的 의미를 부여할 만한 高麗 말기부터 朝鮮 말기로 한정하였다.

世人의 龜鑑이 되는 모범적 인물에 대하여는 금광동 지역을 벗어난 金若時의 後孫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官職의 高下보다는 윤리도덕적으로 龜鑑이 되는 忠節과 孝道와 善政이나 淸廉性, 善行 등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硏究의 對象 人物에 대한 개인별 深度 있는 연구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는 限界도 있다.

二. 金光洞과 光山金氏

1. 洞名의 由來

금광동에는 언제부터 어디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다. 金若時가 逗遛 할 당시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김약시를 이상하게 여겼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金光里"란 마을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되었을까? 금광동에 세거하여온 光山金氏의 遠祖는 金若時인데, 號가 隱村이다. 隱村이란 號로서 존재한 호칭인가? 아니면 지명을 취해서 호를 만들었는가도 밝힐 필

요가 있다. 금광리와 음촌은 지명으로서 어떤 관계에 있을까.

'金光里'란 명칭이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陶菴 李縡[2]가 지은 金若時의 墓表이다. 墓表에 보면 "그 후손 若時公께서 고려의 운수가 다함을 당하여 廣州 金光村에 隱遁하면서…"라는 기록이 있다.[3] 그러나 '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 金若時 條에 보면 "革世懸居廣州陰村里"라 기록하고 "墓廣州金光里麗增內不傳語洞癸坐"라고 표기하고 있다.[4] 여기서 李陶菴이 비문을 지은 것은 그의 생졸(1680~1746)로 보면 陰村이 1392년 금광동에 은거한 지 적어도 350년경 전이라 광산김씨의 집성촌이 이루어진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862년 重訂南漢誌에도 '金若時墓在細村面'으로 만 기록되고, 일제하에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1917년 4월에 발간된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表에는 현금광동 지역인 중부면에 '金光洞'이란 里名이나 洞名이 없다. 또 陰村이란 洞名도 보이지 않는다.

金若時의 호 '陰村'은 隱遁 후에 금광리의 음달말을 호칭하는 지명임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광리는 陰村의 자손이 출세하고 광산김씨 集姓 村落이 형성된 후에 漢字로 표기하면서 '金光村'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금광동 洞口를 光門이라 하였던점도 名門 광산김씨의 집성촌을 입증하는 말이다. 만약 금광동 마을이 鑛山과 관련이 있다면 '光' 字가 아닌 '鑛' 字를 사용하여 "金鑛村" 또는 "鑛山村" 이라 명기하였을 것이다. 또 일부 口傳되는 동명의 유래가 일제시대에 금정이초(담배) 재배와 관련이 있다는 설도 터무니 없는 말이다. 따라서 금광동 洞名의 由來는 光山金氏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李縡(1680-1746)는 조선조의 學者, 文臣, 호는 陶菴, 寒泉, 본관은 牛峰. 대제학, 이조참판역임, 洛論의 대표학자, 조선 후기 性理學의 大家. 저서로 陶菴集, 編書로 朱子語類 抄節, 近思錄輯, 五先生禮記, 檢身錄, 三官紀拾遺, 尊, 錄, 四禮便覽 等.

3) 李縡, 忠定公墓表

4) 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 卷之十六, 1쪽

2. 金若時의 隱遁處

금광동은 隱村 金若時(1335~1406)의 隱遁處였다. 고려 말기에 음촌은 나라가 망하고 太祖(李成桂)가 등극하자 開京을 등지고 부인과 함께 걸어서 지금의 성남시 금광동(옛 廣州 땅)에 이르러 隱遁生活에 들어갔다.[5]

隱村은 신라 王子 興光의 19세손으로 興光이 장차 나라가 어지러울 것을 예측하고 전남 光州에 피하여 은둔하였는데, 그곳이 貫鄕이 되었다. 음촌의 고조 士元은 삼중대광 첨의찬성사를 지냈고 시호는 貞景公이다. 증조진은 판정대부 정당문학과 대제학을 지냈는데 시호는 京榮公이고, 조 英利는 판군기감사를 지냈다. 부친 鼎은 보리공신으로 光城君에 봉해졌으며 모친은 전법사의 판서를 지낸 延安人 李 의 따님으로 壽僧宅主에 피봉되었다.[6] 若采, 若恒, 若時 삼형제인데, 맏이 若采는 朝鮮朝에서 관직이 충청도 관찰사에 이르렀고 둘째 若恒도 朝鮮朝에서 대사성에 이르고 光山君에 피봉되었다.[7]

막내인 隱村은 두 兄과는 다른 길을 택하였다. 隱村은 대소과를 대종과 나란히 합격하였고 太祖와는 同甲으로 비슷 길에 나가기 전부터 교분이 두터웠다. 그러나 太祖가 등극하자 亡國의 恨을 품고 부인과 함께 금광리에 은둔하여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음촌은 나무를 얽어 지붕으로 삼아 겨우 비바람을 피하고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衣冠을 괴이하게 여겨 이따금 와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혹 술과 음식을 가져와 대접해도 받지 않았으며 항상 하늘을 쳐다 보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隱村이 살고 있던 마을을 '不傳語洞'이라고 하였다.[8]

5) 李緯, 前揭墓表
6) 金光洞世世錄, 光山金氏忠定公派宗親會, 1978, 8쪽
7)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92, 132쪽
8)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8~9쪽

隱村은 세상에 나가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려 신하의 節操를 지켜 赤心으로 살다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3. 光山金氏의 世居地

1392년(太祖 元年) 隱村 金若時의 隱遁 생활로 시작된 光山金氏의 정착은 그 子孫들이 1972년 개발 이전까지 대대로 약 580여년간 살아왔다. 이들은 '金光詞世世錄'에 의하면 六派로 분파 되었으니, 隱村은 사실상 司馬公派<琚;若時 曾孫>, 左通禮公派<瑾;若時 曾孫>, 正郎公派<碼;若時 曾孫>, 吏參公派<珩;若時 曾孫>, 縣監公派<節;若時 次男>, 監武公派<元軸;若時 三男>의 派祖가 되는 셈이다. 各派가 금광리, 혹은 성남, 廣州 땅에 거주하고, 혹 다른 지방에 세거지를 잡았는데, 벼슬에 나가 현달한 이가 많다. 그 대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隱村의 長子 琚는 성주목사, 長孫 順誠은 平壤府庶尹을 지냈다.

사마공파의 하는 사마시에 합격하고 증좌통례, 世僖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증좌승지, 讓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三嘉縣監 증호조참판, 止男은 사마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경상도 관찰사, 漳은 宣務郎, 宇仁은 眞寶縣監, 萬翼은 宋同春門下로 司馬試에 합격하고 工曹佐郎, 萬成은 진사로 호조정랑, 恒壽는 사마시에 합격하고 長興庫 主簿, 台壽는 사마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侍講院 文學, 德相은 壽첨지중추부사, 得遇는 武科에 합격하고 營將 증좌승지, 洛敍는 증호조참판, 相善은 壽첨지중추부사, 相世는 武科에 합격하고 鎭城府使 嘉善大夫 壽동지중추부사, 在榮은 武科에 합격하고 僉正, 在聲은 무과에 합격하고 司果를 지냈다.

좌통례공파의 거는 聯壁生員 贈좌통례, 神童은 賢良科에 천거되어 홍문관 檢閱, 기는 생원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刑曹正郎, 暾이조참판, 鎭男은 문과에 급제하고 황해관찰사, 護는 宣務郎, 櫃匡는 武科에 合格하고 울진현령, 得男은 壬辰亂 때 강화에서 殉節하여 贈병조판서, 大童은 사헌부 감찰,

호는 副司果, 國男은 통정대부였다.

정랑공파의 석은 진사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禮曹正郎, 世愚는 진사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典籍, 彪는 永同縣監 贈좌승지, 李男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尙衣院判官, 偉男은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左通禮 증예조참판, 宇亨은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한성판윤, 규는 사마시와 文科式年試에 급제하고 掌樂院正을 역임하였다.

吏曹參判公派의 굉은 사마시와 式年 文科에 급제하고 이조참판 청백리에 錄選되고, 世默은 修義副尉, 愔는 사마시와 別試 文科에 급제하고 성균관 박사이고, 斗南은 積城현감, 倒은 사마시와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司憲府 持平, 斗一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다.

현감공파의 節은 사마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현감, 哲誠은 사헌부 감찰, 暐은 비인현감, 廷凰은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承文院 判校, 彭齡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상주목사 청백리로 녹선, 瑄은 武科에 합격하고 訓練副正, 潤은 壽동지중추부사였다.

감무공파의 元鮎는 사마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牙州監務, 緣은 殿直, 致璉은 寧海敎授 贈좌통례, 光弼은 통정대부 尙瑞院 直長, 光佑는 사마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공조정랑 贈도승지, 賢光은 光州관찰, 尙夏는 성균생원, 宗吉은 사마시에 합격 첨지중추부사, 賢幹은 사마시와 文科에 급제하고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금광동은 陰村의 무덤을 비롯하여 그 子孫들의 墓가 수 십기나 자리잡고 있었다. 陰村 先人의 무덤이 있었고, 陰村 역시 금광동에 장사지냈다. 음촌의 후손이 世居하면서 장사지내니, 현재 신구전문대학 校庭은 光山金氏의 墓域이었다. 뿐만 아니라 창곡동, 단대동, 보곡동, 광주군 등지에도 음촌 후손의 묘들이 여러 기가 있다.[9]

---

9) 광산김씨족제학공파보, 전게서, 1-14쪽

三. 金若時의 忠節과 孝道

1. 隱遁逸民하는 忠節

금광동에 은둔한 陰村을 찾아낸 太祖는 회유하기 위하여 陰村에게 원래의 관직을 주고 억지로 벼슬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음촌은 병을 앓아 앞을 보지 못한다며 끝내 나가지 않았다. 太祖는 陰村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太祖는 더욱 후하게 대접하여 御書로서 특별히 誠明坊의 집 한채를 하사하고 말비에 '松軒(태조의 號)' 두 글자를 써서 주었다.[10] 이는 옛날의 交分으로 대접한 것이다. 그러나 사양하고 끝내 받지 아니하였다.

陰村은 일찌기 가족들에게 "내가 좋지못한 시기에 태어나서 宗嘉社稷의 당함을 직접 보고도 죽지 못하고 또 속세를 벗어나 멀리 숨지도 못하는 것은 先人의 묘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지내되 봉분도 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다만 둥근 돌 두 개를 좌우에 놓아두어 亡國의 賤浮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으니, 충절과 효심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1406(태종 6)년 陰村이 他界하자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조선조의 顯宗(제18대왕)은 陰村의 8대손 承旨 宇亨이 夜對에서 조부의 遺事에 관한 말을 듣고 讚嘆하여 말하기를 "너의 할아버지의 節操는 가히 기이하다고 할만하다."고 하였다.[11]

尤菴 宋時烈(1607－1689)은 陰村을 일컬어 말하기를 "신라 고려시대에

---

10) 李穡, 전게묘표

11) 王이 밤에 신하를 불러 經筵을 베풀어 經史의 古今 治亂에 관하여 對讀하던 일.

12)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10쪽

微子 箕子와 견줄만 한 두 어진이가 있다."[13]하였는데 이는 김제의 시조와 음촌을 가리킨 말이다. 陶菴 李縡는 陰村의 墓表에서 "한결같은 적심은 金石을 꿰뚫기에 족하고 天地를 通할수있다."고 하였다.[14]

또한 廣州의 많은 선비들이 "忠定公 같은 고상한 節槪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현양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羞恥이다." 하고 일제히 輦路(임금의 행차길)에 서서 소리 높여 아뢰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褒職과 旌號를 받게 되었다.[15]

忠定公 음촌의 墓는 1972년 경기도 광주군 實村面 三合里 山 50번지 1호에 천묘하였는데, 南向하고 있는 이 산과 마주하는 산은 고려 공민왕이 避居한 산으로 '恭愍山'이라 하며 어수로 올렸던 '國井浦'가 있다고 한다. 공민산과 마주하는 이 幽宅地는 大吉地라 하는데 광중에서 '大吉地'라고 쓴 砂器表物이 나왔고 또한 금광리에서 청태가 끼던 비석이 玉石과 같이 광채를 빛내고 있다. 이것이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는가.

2. 杜門洞七十二賢과 逸民

1392년(壬申) 7월 太祖(이성계)가 즉위하고 고려의 운수가 다하자 고려의 많은 忠臣 烈士가 臣僕하지않고 松都의 東南峴에 일제히 올라가서 朝天冠을 벗어 걸고 삿갓을 눌러쓰고 나서는 각기 그 뜻을 말하고는 흩어졌다. 이들을 일컬어 '杜門洞七十二賢'[16] 이라고 한다. 음촌은 禹玄寶 趙胤(墓所; 성남시 麗水洞) 等과 같이 七十二人에 올라 있다.

---

13) 上揭書

14) 李縡, 전게서, 16쪽

15) 南公輪 撰, 金若時의 行狀(張三鉉, 人間과 倫理, 硏學社, 1994, 58~59)

16)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光德山 서쪽 기슭에 있는 지명. 1392년 李太祖가 朝鮮을 건국하자 고려의 遺臣 72人이 조선조를 섬기지 않고 개성 동남쪽 고개(不朝峴)에 朝服을 벗어 걸어 놓고 헌 갓을 바꿔쓰고 이곳 杜門洞으로 들어갔다.

孔子가 말하기를 "逸民[17]은 伯夷와 叔齊와 虞仲과 夷逸과 柳下惠와 少連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은 백이와 숙제이다." 하였고, "말이 義理에 맞으며 행동이 생각에 맞는 것은 유하혜와 소련이다."고 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遯世自潔한 이도 있고 殺身成仁한 이도 있으니 이것이 逸民이다. 陰村은 逸民傳에도 들어있다. 이는 태조가 창업할 즈음에 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순종하면 탈이 없고 거역하면 화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뜻을 굽히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홀로 우뚝 서서 夠節하였거나 自靖한 두문동 七十二賢과 이에 오르지 못한 逸民들은 남의 祿을 먹으면서 현실과 타협하여 머리를 굽히고 辱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다.

3. 贈職과 贈號

贈職과 贈號는 죽은 뒤에 그의 生前의 행적을 평가하여 나라에서 내리는 恩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영광은 물론 그 家門의 영광이기도 하다.

1819(순조19)년 봄에 廣州儒生 金억주 등이 御路에 엎드려 상언하기를 "善行을 찬양하여 風敎를 격려하고 忠誠을 포상하여 倫常(三綱五倫)을 扶持하는 것이 곧 아조의 치국하는 법도인데 前朝를 위해 節操를 지킨 志士에 있어서는 史家가 그 이름을 쓰지 못하여 세상에 그 일을 傳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節惠로 表章하기도 하고 祖豆로 은덕을 갚기도 하여 모두 정몽주, 길재등 제현과 이름이 전해지니 아! 훌륭한 일입니다. 臣이 사는 고을에 金若時라는 분이 있었으니 고려의 逸民입니다." 하고 文正公 陶菴 李縡가 지은 표표를 인용하여 陰村의 世閥과 宮諸과 節義를 충실하게 하였다.

또 하기를 "臣등은 이 사람의 옷과 신발을 소장하고 있는 고을에서 生長하여 그 절의가 우뚝함을 우러르는 반면에 그 節義가 泯沒됨을 슬퍼하는

17) 학식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는 사람을 말한다.

바이므로 삼가 沐浴齋戒하고 上奏하오니 贈爵과 賜謚하는 恩典을 베푸시와 聖德을 士論에 부응하여 주소서" 하였다.[18]

이에 이 일을 해당관서에서 議論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의정부의 영의정 徐龍輔 좌의정 金思穆 우의정 南公轍 등이 "若時의 忠節은 褒美하는 恩典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고 대신들의 의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1819년(순조 19 기묘) 5월 7일 除村에게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경연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의 重職이 내려졌다.

이어 다음 해(庚辰)에 '忠定'의 시호가 내려지게 되었으니, 즉 '事君盡節曰忠 純行不爽 曰定 忠道毅節.'이라 하였다.[19]

四. 光金이 輩出한 人物

금광동 除村 金若時의 後孫 중 忠孝와 氣節과 義理와 德行과 文章이 후세에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여명을 선정하였으니, 金萃, 金順誠, 金旺, 金彭齡, 金止男, 金繼男, 金賢齡, 金宇亨, 韓仁, 金珣, 金得男 등이다.

1. 金 萃(공민왕-세종)

萃는 총정공 金若時의 長男이니, 氣度가 奇偉하고 지려가 주밀하므로 세인이 유능한 인재로 여겨 名望이 세상에 높았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1426년(世宗 8)에 知禮原郡事가 되고, 星州牧使를 역임하였다. 당시 성주목은 아전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백성은 사나워서 관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18)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18쪽
19) 상게서, 22쪽

폐기하려 하였다. 임금의 특명으로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물을 선발하였는데 18세인 琴가 뽑히게 되었다. 왕이 年少한 琴에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물었을 때에 그는 질서확립을 위해 왕에게 生殺權을 요청하였다. 이에 왕의 허락을 받고 부임한지 7일만에 豪悍強梗한자 7명을 처치하고 아전을 다스릴 때에도 도끼로 갓끈을 만들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함으로 써 豫琴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惡悍이 유순하게 되고 頑愚가 良善으로 바뀌었으니 목사의 敎化의 공이다.[20]

2. 金順誠(1429－1481)

順誠의 자는 景純, 琴의 長男이요 金若時의 孫子이다. 1450(세종 32)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1459(世祖 5)년 에 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1462년 봉사시녹사, 1463년 승문원박사, 통례원 봉례, 1464년 사헌부감찰, 書狀官, 1467년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 훈련원 판관, 1469년(예종 元) 호조정랑, 1470년 병조정랑, 1472(성종 3)년 漢城庶尹, 1473년 평양庶尹을 역임하였다. 1481년 53세로 별세하였다.

順誠은 성품이 謹直하고 溫和하며 嚴正하고 簡易하고 細密하여 華飾과 섬색을 멀리하였다. 그리고 어버이를 恭敬하는데 篤實하여 生前時에는 효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精誠으로 祭祀를 받들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21]

3. 金 瑾(1470－1526)

瑾의 자는 堅中, 順誠의 4남이니, 金若時의 曾孫이다. 1496(燕山 2)년 생원, 1504년 式年 文科에 급제, 1507(중종 2)년 사간원 정언, 1510년 사헌부 지평, 1513년 暗行御史, 1516년 대사간, 부제학, 1517년 全羅右道水軍節

20) 상게서, 52쪽
21) 상게서, 61쪽

度使, 1523년 승정원 동부승지, 경상도 관찰사, 공조참판, 평안도 관찰사, 동지중추부사,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사간원 正言 재임시 중종 2년 10월 29일 왕이 참석한 朝講에서 趙舜등과 왕에 아뢰기를 "외방의 訓導 敎授를 제대로 뽑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 실로 이 때문이니, 해당 관아로 하여금 권려하는 절목을 만들도록 하옵소서"하니 왕이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암행어사로 재직시 중종 8년 6월 5일 함경도를 다녀와서 復命하기를 救荒策에 있어서 錄效元의 노력에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한 효원 같은 수령만 있다면 주린 백성을 모두 살릴 것 같다며 기민 구제에 근실하지 못한 수령등을 推問하라고 하였다.[22]

대사간으로 재임중 中宗 11년 8월에 대사헌 門에 활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만히 推 할 것을 청하였다.

그해 10월 22일 왕이 夕講에 나왔는데, 아뢰기를 "연산군은 宗社에 得罪하였으니 屬籍을 마땅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絶祀하게 되면 친친의 도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폐주(연산)에만 그칠뿐아니라 魯山(端宗) 역시 무후하오니 이 역시 奉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延訪할 때에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그러나 왕이 의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23]

中宗18년 夜對에서 人心과 道心에 관하여 進言하기를 도심으로 操存의 本方을 삼고 인심은 도심에 의존하여야 일이 바르게 되고 공효가 스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24]

國朝人物志에는 淸白吏에 뽑혔으며 "그는(광) 위풍이 준엄하고 모든일에 분명했으며, 강론하고 규간하는 곳에 번갈아 들어가 왕을 가까이 모셨으며,

22) 이조실록(118) 중종 8년 6월 5일조
23) 이조실록(122) 중종 11년 10월 22일조
24) 중종실록, 중종18년, 3월 5일조

진실하고 정당한 논의에 그 도움이 크고 많았으며 두 번씩이나 명나라에 사신 임무를 띠었고 항상 淸白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기록되었다.[25]

1526년(中宗 21)년 공릉 참봉 尹繼鄭 등 7인이 올린 祭文에 "세상을 울린 재주 시대에 맞추어 나왔도다. 높은 의리는 밖으로 준엄했고 순수한 정성 마음 속에 심었구나 三墳[26] 五典[27]을 배워 관철했고 시경 역경을 탐색하여 정통했네" 하였다.

4. 金彭齡(1500~1559)

彭齡의 자는 達수, 除村 차남 節의 증손이요 비인현감 장의 차남이니, 金若時의 玄孫이다. 1528(中宗 23)년에 사마시에 합격, 1550(明宗 5)년 상주목사로 廉謹(마음이 청렴하고 매사에 조심성이 많음)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명종 7년 11월 4일에 또 廉謹吏에 피선되어 옷감 한 벌(검.안감)을 하사받음, 명종조에 청백리로 錄選되었다.[28]

5. 金止男(1559~1631)

止男의 자는 子定, 호는 龍溪, 현감 彭의 아들로 讓의 系子가 되니, 金若時의 6代 嗣孫이다. 龍溪는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7세에 시를 지어 신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13세에는 鮮昌黎의 南山詩에 次韻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공부에 전력하였다.[29]

---

25)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214쪽

26) 三墳이란 山墳, 氣墳, 形墳의 三易을 말하는데, 山墳은 天皇 伏羲氏의 易으로서 連山易을, 氣墳은 人皇 神農氏의 易으로서 歸藏易을, 形墳은 地皇 軒轅氏의 易으로서 乾坤易을 말한다. 그 내용은 道家界統의 易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27) 五典이란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德目인 仁 義 禮 智 信을 가리킨다.

28) 明宗實錄, 明宗5年, 庚戌 10月 5日條.

29)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150쪽

경력을 대강 살펴 보면 1591(宣祖 24)년에 진사, 벌시 문과 병과로 급제, 1593년 의주 行在所에서 승문원 정자, 예문관 검열, 1597년 황주판관, 1599년 예조좌랑, 경기도사, 1603년 통훈대부 行예조정랑 지제교 겸춘추관 기주관으로 실록 再편찬에 참여, 1608년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1609년 암행어사, 世子侍講院 弼善, 1611(光海 2)년 사헌부 집의, 홍문관 부교리, 1616년 謝恩使, 1618년 병조참판, 1621년 경상도 관찰사, 1625(仁祖 3)년 병조참의, 1629년 칠풍군수를 역임하였다. 墓 銘은 鄭斗卿이 짓고, 저서로는 龍溪集 4冊이 있다.

龍溪의 행적을 살펴보면, 1613(광해 5)년에 司憲府執義로 있을 때에 간사한 朴應서[31]가 영창대군을 誣告하고 지평 丁好寬이 영창대군 죽이기를 首唱하자 그 면전에서 꾸었고 李爾瞻이 仁穆大妃를 폐위시키려 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直言으로 반대하여 이이첨의 凶計를 막아 母后를 보전케 하였다.[32]

慶尙道 觀察使로 있을 때에는 各道가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어서 토목공사를 돕는 것으로 아첨하였으나 龍溪는 견책을 당하면서까지 끝내 왕명에 순응하지 않았고 貪瘠하던 동래부사 尹훈을 내쫓았다.

司諫으로 있을 때에는 李德馨(1561－1613)이 永昌大君을 구제하려다가 삭발관직 되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왕이 복직시키도록 하였다. 兩司에서는

---

30) 박응서(?－1623)는 영의정 朴淳의 서자. 詩文에 능하고 학문이 깊은 文士였으나 서출이라 출세의 길이 막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名門의 庶子들인 金慶孫, 朴致毅, 徐羊甲, 沈友英, 李耕俊, 許弘仁 등과 江湖七友를 자처하며 여주의 강변에서 詩酒로 交遊했다.

1612년 조령에서 銀商을 죽이고 은 수 백냥을 약탈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에 대북파 李爾瞻이 화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꾐에 빠져,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군자금을 조달하고자 도둑질 한 것이라 허위로 진술하여 獄事가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小北派가 숙청을 당하고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유배되고, 김제남은 사형당 하였다. 광해군 14년에 관직에 올랐으나 仁祖反正 때에 주살되었다.

31) 國朝人物志, 3권 40쪽. 韓國人名大事典, 전게서,176쪽

분부를 거두도록 하였으나, 龍溪는 이를 따르지 않다가 공격을 당하였다.

判決事로 재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이 內需司[32]가 두려워서 投託(권력을 이용한 청탁)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시일을 미루고 판결하지 못하였는데, 부임하자마자 통쾌하게 판결하였다.

翰院에 있을 때에는 왕이 海州의 版役을 들아보고 오게 하였다. 당시 권신이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일에 虛張된 것들이 많았다. 이를 사실대로 임금에게 고하고 조금도 너그럽게 봐주는 일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한을 사고 자주 빈척을 당하게 되었다.[33]

1623(仁祖 1,癸亥)년에 反政이 되자 光海君 때에 부임한 외직은 모두 파직하였으나, 龍溪만은 特命으로 경상감사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

孝行에 대하여는 1585년에 부친 讓의 상을 당하고, 1588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모두 廬墓 살이를 하였다. 형제가 다섯인데 한 곳에 거처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왔다.[34] 著書로는 龍溪集이 있다.

6. 金穎男(1555~1617)

穎男의 자는 仲悟 호는 掃雪翁, 형조정랑 기의 장남이요 金若時의 6代孫이다. 7~8세에 글짓기에 능하고 독서를 좋아하여 어른들로부터 공부하라는 권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겨울이면 눈을 쓸면서 피곤함을 깨우쳤는데,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堂堂 앞의 눈은 奴僕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남몰래 해치웠다. 그리하여 집안 사람들이 掃雪翁이라 불렀는데 그런 연유로 그의 호가 掃雪翁이 되었다.[35]

1572(宣祖 5)년 18세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589년 익산군수, 1592년 경상우도사, 진양군수, 1593년 中衛將으로 전공세움, 1596년 水原都

32) 궁중에서 쓰는 밥, 포목, 잡화, 노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
33)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93쪽
34) 상게서, 95쪽
35) 상게서, 213쪽

護府使, 1598년 여주목사, 1603년 千秋使, 1605년형조참의, 1607(선조 24)년 공조참의, 1617년 인목대비 삭호의 大論이 일자 "위포의 유생들이 혈성을 쏟아 상소를 하였으니 대론이 이미 발하고 공의가 지극히 엄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다시 의논 드리겠습니까?" 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36] 저서로는 擷雪翁集이 있다.

7. 金質幹(1564~1621)

質幹의 자는 文吾, 호는 雙梧. 음촌의 삼남 元鈞의 6代孫 승문원 박사 應龜의 차남이니, 金若時의 七代孫이다. 쌍오는 어려서 부터 영민하고 文才가 남보다 뛰어났으며,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향시에도 우수하게 합격하였다. 月沙 李廷龜와 芝 閔馨男과 더불어 三甲으로 그 명예가 일시에 높아졌다. 1588(선조 21)년 사마시에 합격, 1601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전적, 1601년 병조좌랑, 1605년 경상·전라도사, 창원판관, 강진현감, 1608(광해 1)년 사헌부 지평, 1609년 선조실록 기주관, 사간원 헌납, 1613년 사헌부장령, 1617년 사헌부 집의, 1618년 승정원 좌부승지, 1620 우승지, 1621년 좌승지, 嘉善大夫 이조참판, 그해 卒하자 영의정에 추증 되었다. 폼해군을 받들면서 별주고 다스리는 일에 소견을 건의하였고 사퇴를 청하였으나 불참아 파직하거나 내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다.[37] 또한 孝誠이 지극하였으니, 어려서 부터 장성할 때까지 조금도 절차를 어기는 일이 없어 남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25세에 부친상을, 33세에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모두 墓에서 居喪을 마쳤다.

그의 6대손 彦澐이 지은 墓 銘에 하기를 "효를 옮겨 충을 행하였으되 뜻을 두고 이루지 못했도다." 하였으니 失德한 君主의 신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

36) 이조실록(221), 광해군일기, 1617년 11월 25일조

37) 상게서.

8. 金 灌(1582~1619)

필의 자는 澄甫 호는 易安堂, 止男의 弟子(生父 季男)이니, 金若時의 七代孫이다. 易安堂은 22세에 불행하게도 말에서 떨어져 왼쪽을 못쓰게 되어 벼슬길에 나가기를 포기하였다.

易安堂은 어려서 부터 英達하고 변론이 明暢하였다. 어렸을 때에 백부가 이 아이는 識見이 비상하니 조상의 유업을 계승할 것이요 성취한 바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종족의 큰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지는화를 당하자 평범한 사람으로 선행을 쌓았다.

집에 있어서는 孝友敦睦하고 處身함에 있어서는 忠信하며 남을 대할 때에는 진실 그대로 하고 矯飾이 없으며 老少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모하였다. 易安堂은 어느날 백부에게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돕거나 백성을 편안하게 못할 바에야 차라리 곡식을 모아서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옛 사람 중에도 義穀을 마련하던 자가 있었는데, 나라고 어찌 그렇게 못하겠습니까."하면서 타고 다니던 말을 팔아서 곡식 30섬을 사고 그것을 다시 10여년간 늘려서 2000여 석이 되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도 가져가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흉년이 들자, 병든 몸을 부축하여 노복의 집에가서 혹은 궁한 백성에게 擔穀을 주기도 하고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流民이 장꾼처럼 모였는데 사람들이 易安堂이 살린 백성이 천명뿐이 아니니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母親의 神主를 모심에 있어서는 正寢에 모시고 揮帳으로 가려서 살아계신 것 처럼하고 하고 朔望 때마다 꼭 친히 제사를 지내고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고유를 하였다. 그리고 忌日이 돌아오면 5일 전에 소복을 입고 별실에 거처하여 친한 사람이라도 응접하지 않았으며 제사날 하루 전에는 휘장 밖에 꿇어 엎드리고, 제사날에는 종일토록 통곡하였다.[38]

38)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165-166쪽

易安堂은 생부가 돌아가심에 슬픔이 극도에 달하여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나기도 하였으며 朝夕으로 喪食을 올리는 외에는 숙모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잠시도 잊지 않았다. 또 庶母에 대해서도 禮로써 대접하고 庶弟도 친제처럼 돌보아 주었다.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 입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누어 먹이고 잘못이 있으면 敎訓하였다.[39]

伯父를 親父처럼 섬겼으며 혹 좋은 음식을 만나면 갖추어 드리고 조석을 손수 갖춰 드렸고 昏定晨省하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부가 칭찬하기를 "너는 이미 네 어버이에게 孝道를 하고 또 그 孝道를 나에게 옮겼으니 너는 가위 孝順한 사람이구나" 하였다.[40]

9. 金宇仁(1608~1659)

宇仁의 자는 元文 호는 潭溪, 宣務郎 필의 長男이니, 金若時의 八代 嫡孫이다. 潭溪는 행실이 純美하여 어릴 때 아버지 喪을 당하였으나 예제대로 거상에 임하였고 偏母를 봉양하되 지성으로 효도하여 옛 사람에게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잠자리를 살피고 밥상을 살펴보는 절차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폐하지 아니하였다. 兄弟姊妹 사이에도 友愛가 독실하였으며 기름진 沃土는 모두 형제 자매에게 주었다. 그리고 和睦함이 始終 일관하였다.

1651(효종 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3년 동몽교관에 뽑혀 100여명을 길러 냈는데 文科 급제자 10여명, 사마시 합격자가 40여명이나 된다. 진보현감 재임시에는 勤儉節約으로 자신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으므로 그곳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리 전해졌다.[41] 潭溪同門錄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

39) 상게서, 168쪽
40) 상게서, 169쪽
41) 상게서, 176-178쪽

10. 金宇亨(1616～1694)

宇亨의 자는 道常, 호는 寄傲堂 順誠의 三男 錫의 장손자 彪의 6男인 偉男의 손자이니, 참찬 현의 아들이요 金若時의 8代孫이다. 어려서부터 器局이 남보다 뛰어나고 文行이 숙성하며 筆翰은 나는 것 같았다. 1650(효종 1)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그해 함평군수, 1657년 사헌부 지평, 1661(현종 2)년 書狀官, 1662년 홍문관교리, 사간원 司諫, 1663년 의주부윤, 1666년 승정원 좌승지 1670년 호조참의 1671년 공조참판, 1672년 경기감사, 1674년 한성판윤, 1680년 경기도 관찰사, 1684년 공조판서, 1687년 개성유수를 역임하였다.

함평의 원으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行裝이 초라하리만치 청백하게 다스려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고, 영관으로 피선되었을 때 주장이 되었던 宋尤菴이 말하기를 "오늘 선출된 김우형은 참으로 올바로 뽑혔다."고 하였다. 의주부윤 재임시에는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부윤의 信義는 한 세상에 으뜸이고 淸德은 古今에 드문 분이다."고 하였다.[42]

한성판윤으로 재직시에는 諫臣 대사헌 尹휴가 奴屬을 보내 수백주의 禁松을 착벌하자, 곧바로 상소하여 治罪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 사실을 듣는 이는 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위태롭게 여겼다. 경기도 관찰사 재직시에는 성삼문의 신주를 호송하여, 士林이 감동되어 端宗의 祠堂을 세웠다.[43] 1689(肅宗 19 己巳)년에 禍(己巳換局)가 일어나자 며칠 동안 단식하며 "내가 감히 말한마디도 못하고 후일 黃天에 가서 무슨 낯으로 선왕에게 뵙겠는가."하였다. 그리고 이 때부터 1694(甲戌)년 까지 祿을 받지 아니하였다.[44]

寄傲堂은 天性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는 지

42) 顯宗實錄, 顯宗 四年 癸卯 二月 二十九日條
43)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404쪽
44) 상게서

나치게 슬퍼하여 기절했다가 깨어나곤 하였다. 또한 老齡에도 불구하고 계모를 극진히 모셨다. 그리하여 송尤菴(宋時烈)은 賢孝라고 칭찬하였다.

글씨를 잘써서 記注官으로 있을 때에 近臣들은 김우형에게 "飛華注書"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하는데 隷書에 능하였다. 1788(正祖 12)년에 '貞惠'의 諡號가 추증 되었다.[45] 저서로는 玉山遺稿가 있고 글씨로는 대구 龍淵寺에 松坡 大師覺敏塔 碑文과 左通禮 金偉男 墓表가 있다.

11. 金得男(1601~1637)

得男의 자는 善遠 호는 梅竹軒, 贈 한성판윤 德昌의 아들이니, 金若時의 9대손이다. 어려서 부터 兵書와 武藝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金尙容의 문인이 되었다. 1620(光海 12)년 武科에 급제하고 선전관, 1623(仁祖 1)년 反正功臣으로 부호군, 1624년 李适의 난 때에 공을 세워 초계군수 벽랑진첨절제사, 1636년 胡亂시 鐵串僉使로 世子를 강화도로 호종, 1637년 계양산 하 掘浦戰에서 戰死하였다.

梅竹軒은 인조반정시 도끼로 敦化門을 부수고 反正軍을 환영하여 큰 공로를 세웠고, 먼저 御寶를 찾아 靖社原勳一等功臣이 되었다.

李适의 亂 때에는 公州까지 어가를 호종했으며 지략으로 적을 鞍峴에서 격파하고 특별히 白圃編을 지었다.[46]

병자호란 때에는 扈從臣으로서 鐵串鎭을 지키면서 行在所를 바라보고 난에 뛰어들어 죽고자 하였다. 그는 종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번 싸움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너는 마땅히 내 屍體를 거두어라" 하고 부탁하였다. 많은 戰功을 세우고 勝勢로 싸우다 부평 계양산 밑에서 생포되었다가 빠져나왔으나 화살에 맞아 殉節하였다.[47]

---

45) 正祖大王實錄, 正祖十二年戊申四月六日戊戌 贈左 工曹判書金宇亨 貞惠.

46) 梅谷書院遺墟碑記(金勳 述)

47) 금광동세세록, 전게서, 242~243쪽

純祖大王 御製祝文에 "千秋의 節義요 萬古의 忠臣이라" 하였고 松沙 奇宇萬이 지은 墓 銘에는 "祖上에 忠定이란 이가 있으니 고려 말년에 臣僕하지 않았도다. 이 祖上을 닮은 후손이 있으니 梅竹軒 이로세, 섬기는 바에 忠誠을 다하고 義理를 맡혀 적을 토벌하였구나. 한 번 죽음으로 말을 남겼고 만고에 綱常을 붙들었도다."하였다.[48]

梅竹軒이 出戰한 후에 부인은 집 뒤에다 壇을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는데, 국가의 安保가 소원이요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소원이라하였다. 昆身이 도착하자 부인 密陽金氏는 아들 邦寶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는 임금을 위해 돌아갔는데 너의 어미는 마땅히 남편을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斷食한지 9일만에 絶界하였다.

1893(高宗 30)년 대죽헌에게 兵曹判書를 증직하고 忠毅公이라 시호를 내렸다. 忠烈祠 表忠壇 景義堂에 祭祀하고 있다.[49]

그의 아들 邦寶, 방보의 현손 成흡, 방보의 5대손 增廷, 성흡의 손자 任汶과 在哲, 방보의 6대손 聲正, 재철의 아들 宗峴, 성정의 아들 哲峴이 모두 효자이다.[50]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五. 結　　論

忠節과 孝道는 아무리 사회가 급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철칙이다. 그래서 政變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도 忠節을 강조하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반대한 前朝의 忠臣을 높이 평가하여 이 나라에서 증직이나 賜號를 내려 褒賞하는 것

48) 純祖大王御製祝文(1832년 2월 15일, 知製敎 徐有賢) 및 墓 銘(奇愚萬撰)
49) 年譜(금광동세세록, 271쪽)
50) 三綱碑銘(金鍾洙 述)

이다. 忠이 아니면 사실상 王權(통치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지탱할 수 없고 세상은 집권을 노리는 반대세력에 의해 끊임 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반복되게 마련이다.

孝道는 百行의 근본이요 人間의 基本 倫理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孝道하는 사람은 어느 사회이건 쓸모 있는 존재일 것이다. 孝子의 家門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 祖上들은 항상 忠孝를 생활화하고 이로써 子孫들을 지도하고 百姓을 敎化하였다. 그러므로 陰村의 忠孝精神은 오늘의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要約 整理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陰村의 忠節에 대하여는 전해오는 具體的 기록이 미약한 편이나 다음 14개 항목에서 異論의 餘地가 없는 사실로 確信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松都에서 廣州(金光里)까지 걸어서 왔다는 것은 名門大家요 고려의 重職에 있어서 사용하던 馬가 있었을 것인데, 원거리를 馬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점에서 亡國의 衷情을 짐작케 한다.

둘째, 陰村의 衣食住 생활에서 好衣, 好食, 安住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忠節을 엿볼 수 있다.

셋째, 하늘을 쳐다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지 않아 不傳語洞이란 地名이 呼稱되었던 점에서도 忠節은 짐작 할 수 있다.

넷째, 스스로 亡國의 責무로 자처하고 죽은 뒤에도 무덤을 봉분도 없이 돌 두 개로 표시만 하라고 한 말에서도 忠節을 알 수 있다.

다섯째, 開國한 朝鮮朝에 협력하면 富貴榮華가 자신에게는 물론 子孫에까지 미칠 것이요, 不應하며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나 이를 두려워 하지 않고 太祖의 부름을 끝까지 거절한 점에서도 忠節을 알 수 있다.

여섯째, 李太祖가 그 志操를 가상히 여기고 옛날 交分을 생각해서 下賜하는 대점을 끝내 받지 않은 점에서도 忠節을 알 수 있다.

일곱째, 口傳에 의하면 陰村이 丹陸里 고개에서 松都를 바라보며 망해버

린 高麗의 宗廟와 社稷을 생각하곤 하였다는 赤心에서도 그 忠節을 짐작할 수 있다.

여덟째, 明淑이 승지 宇亨과의 夜對에서 "너의 할아버지의 節操는 가히 기이하다" 고 한 말이 음촌의 忠節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아홉째, 純祖가 吏曹判書를 贈職하고 忠定의 諡號를 내린 사실이 陰村의 忠節을 立證한 사실이다.

열째, 한국 역사상 道學과 義理로 제일가는 尤菴 宋文正公(時烈)이 "微子와 箕子와 견줄만한 어진이라" 칭찬하였으니, 여기에 陰村의 忠節을 높이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열한째, 陶菴 李文正公(縡)이 지은 墓表에 "한결같은 적심은 金石을 꿰뚫기에 족하고 天地를 통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도 忠節이 입증된다.

열두째, 思菴 南公徵이 그의 著書 高麗名臣傳 '逸民'에 列記하여 吉再, 趙狷, 南乙珍이나 鄭夢周, 曹義臣 등과 같이 기록하여 중국의 백이 숙제와 비유한점에서도 忠節은 드러난 것이다.

열셋째, 非故大方에 보면 開城 表節祠에 고려 杜門洞 七十二人을 향사하는데 馬玄寶 曹義生 등과 더불어 등재되어 있음도 忠節이 입증된 바라 하겠다.

열넷째, 廣州儒生이 연로에서 증직과 증시를 소청한 사실도 그 충절을 입증할만하다.

다음으로 陰村의 孝道에 관하여도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첫째, 不遠千里하고 陵遲처를 先人의 墓 근처로 택한 것도 효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太祖가 찾아내도 다른 곳으로 훌쩍 피나지 못하고 죽은 뒤에도 여기에 묻어달라고 한 말에서도 孝誠을 짐작 할 수 있다.

셋째, 以孝事君이라 하였고, 孝子의 家門에서 忠臣이 나온다고 하였으니 위의 일로 미루어 보아 어버이에게 孝子였음을 짐작케 한다.

넷째, 杜門洞書院 奉安文에 "아! 선생은 名家의 孝子이고 故國의 忠臣이네" 하였으니, 구체적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孝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끝으로 祖上이 德을 쌓으면 후손이 福을 입는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음촌의 子孫은 萃의 氣槪와 智略, 순성의 謹直과 孝誠, 평의 청렴과 의리, 평량의 廉謹, 지남의 文章과 孝行과 決斷, 영남의 正道, 질간의 孝誠과 忠諫, 원의 積德과 孝友, 우인의 孝友와 勤儉, 우형의 文行과 孝誠과 淸德, 득남의 忠誠과 義理와 그 자손의 방보, 성흡, 곽정, 임문, 재철, 성정, 종현, 철현의 孝行이 후세에 귀감이 되었으니, 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려가 망한후 隱村 金若時가 금광동에 隱遁하여 義理를 저버리지 않고 忠節과 孝道를 실천하였고 그 子孫이 비록 相臣은 적으나 隱村과 같은 忠節과 孝道와 德行을 실천하여 世人의 龜鑑이 되고 현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위에서 대강 살펴본 바와 같다. 비록 隱村의 隱遁地와 幽宅과 광산김씨 묘역이 사라진 오늘일지라도 隱村은 金光洞 역사상 가장 오랜 人物이요 가장 우뚝 솟은 忠孝의 標本이 아닐 수 없다. 또한 湖南의 人物로서도 당연히 앞에 두어야 할 賢人임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忠誠과 義理와 孝行과 淸廉과 德行을 기리고 빛내는 일은 隱村을 尊慕하고 그 정신을 본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高麗名臣傳, 南公轍

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 1987

國史大事典, 李弘稙, 1977

國朝人物考

金光洞世世錄, 光山金氏忠定公派宗親會, 1978
陶庵集, 李縡, 1854
童蒙先習, 朴世茂
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城南文化,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4
城南市史, 城南市, 1993
城南의 무리, 張三鉉, 曙圃學報社, 1988
松沙集, 奇宇萬, 1931
隱溪集, 金止男, 1697
李朝實錄(太祖,成宗,明宗,宣祖,光海,仁祖,孝宗,顯宗,肅宗,正祖,純祖)
人間과 倫理, 張三鉉, 硏學社, 1995
典故大方, 南公轍,
竹泉集, 金鎭圭, 1773
重訂南漢誌, 黃敬淵, 1862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92

京畿地域과 東九陵의 문화적 연관성

張 哲 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目 次〕

1. 머리말
2. 京畿의 뜻과 역사
3. 東九陵의 명칭과 조성과정
4. 陵地의 選定
5. 山陵의 형태와 위치
6. 山陵의 지세와 지형
7. 맺음말

1. 머리말

1948년 대한민국의 출발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갖게 되기 전까지,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조선시대까지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전제정치였었다. 그리고 그 왕은 수도에 있는 왕궁에서 모든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수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바로 정치적 최고 지배자인 왕을 포함하는 지배집단의 통치이념이 가장 잘 반영된 지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수도는 왕을 포함한 지배집단과 그들의 통치이념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함께 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도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산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경비는 전국에서 걷우어 들이는 조세와 물산을 통해서 조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는 경제적으로 일종의 소비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물산들을 모두 수도라는 좁은 지역에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도는 주위에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이러한 행정적 기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지역을 일반적으로 '京畿'라고 불렀던 것이다. 말하자면 경기지역은 수도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존재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수도를 감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갖는, 그러나 수도와 함께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과도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경기지역의 특성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하겠다.

1948년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경기도'는 수도인 서울을 감싸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경기지역이 갖고 있었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행정제도가 중앙집권적이었던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

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특성은 조선시대 이래로 별 다름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5년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다. 우선 행정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자치제도는 앞으로 경기지역의 특성이 이전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그 과거와 현재에 바탕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경기지역의 특성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도의 삶의 본질인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화적 전통을 찾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선 그 문화적 특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밝혀 보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가 바로 이 시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기지역과 왕실과의 관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는가?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지역에 있었던 왕실 및 왕궁의 직할지의 내용과 규모는 어떠했는가? 첫째의 의문은 한성부에 왕궁을 갖고 있다면, 경기지역에는 왕실과 연관되는 시설로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내용이며, 둘째의 의문은 첫번째의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배경을 갖고 유지될 수 있었는가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달하자면, 살아 있을 때에 한성부의 왕궁에 살았던 왕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처리를 위한 경제적 조건은 어떤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왕릉의 조영과 정과 함께 왕릉의 봉공을 위한 경제적 배경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조선왕조에 있어서 경기지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선왕조에 있어서 정치적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기

지역이 왕의 직할지라면 왕권이 강한, 따라서 왕이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왕권은 단지 의례적인, 따라서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5개국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경기도 내에 있었던 나라와 수도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제 : 河南慰禮城 → 漢山河 → 漢山

미추홀 : 예씨城[1]

마진(태봉) : 鐵原城

고려 : 開城, 江華城

조선 : 漢陽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 수도들의 경영시기와 기간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건국하여 하남위례성에 수도를 건설한 후 475년(문주왕 1)에 웅주로 옮기기까지 483년간을 한산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수도를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궁예는 마진을 건국한 901년부터 917년까지 17년간을 철원성을 수도로 삼았다. 이어서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여 개성에 수도를 정한 뒤 몽고의 2차 침입 직전인 1232년(고종 19) 강화로 수도를 옮겼다가, 1270년에 개성으로 환도하여 1393년에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전후 모두 475년간을 경기지역에 수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한 다음부터 현재 1995년까지 602년을 명실공히 수도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의 건국을 기원전 57년으로 보았을 때, 현재까지 2052년 동안의 확실한 역사 가운데에서 1577년간의 수도가 현재의 경기지역에 위치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3/4 이상의 기간동안 경기도는 역대의 수도지

1) 柳得恭 『二十一都懷古詩』

역이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京畿'라는 말 자체도 바로 수도라는 행정제도와 함께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다른 지역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기지역 문화의 특성을 알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먼저 京畿라는 말의 뜻과 함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京畿의 뜻과 역사

먼저 '京畿'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뜻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京畿'라는 단어는 '京'과 '畿'가 합쳐서 된 말이다.[2] 이 가운데에서 京畿의 경은 (4) 京師의 뜻을 따라, 수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사는 『公羊傳』[3]에 의하면, (2)의 크다는 뜻과 무리를 뜻하는 師가 합쳐서 된 말로서, 천자가 사는 곳은 반드시 많은 무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 그 후로 경사라는 말은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京畿의 畿[5]는 (2) 경도를 중심으로 한 500리 이내의 땅

2) 『중문대사전』에 의하면, 경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1) 高丘(높은 언덕) (2) 大(큼) (3) 高(높음) (4) 京師, 즉 도읍 (5) 倉 (6) 수의 단위로서, 10촌을 1京이라고 했음. (7) 絅(고대) (8) 지명으로서, 漢나라가 춘추시대의 鄭邑에 京縣을 설치하였음. (9) 성씨

3) 5세기 말경 公羊高가 편찬한 『春秋』의 해설책으로, 공양고는 공자의 제자인 子夏의 제자임.

4) 京師者何也 天子之居也 京者何也 大也 師者何也 衆也 天子之居 必以衆大 況之(『중문대사전』에서 재인용)

5) 『중문대사전』에 의하면, 畿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1) 京畿 (2) 경도를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 (3) 周代에 경도를 중심으로 한 500리 이외의 땅을 9등분하여 붙인 이름. (4) 境域 (5) 田野(밭) (6) 堆聚 (7) 분지방 (8) 門內(문안) (9) 圻, 土+畿와 통함. (10) 機와 통함 (11) 성씨

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같이 구체적으로 500리 이내라는 크기의 땅보다는 수도를 감싸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 말하자면 행정의 단위로 구분되는 일정한 크기의 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京畿라는 말은 수도와 함께 수도를 감싸고 있는 행적구역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문헌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京畿'라는 말은 『삼국사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1) 五年春二月 太祖率五十餘騎至京畿逋謁 王與百官郊迎(『삼국사기』 권 12. 경순왕 5년 2월)

그밖의 문헌에 보이는 京畿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明年戊子春三月[6] 太祖率五十餘騎巡到京畿 王與百官郊迎[7](『삼국유사』 권 2, 金傳大王)

(3) 神曰 黃龍寺護法龍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鎭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建塔之後 設八關會 赦罪人則外賊不能爲害 更爲我於京畿南岸 置一精廬 共資予福 予亦報之德矣 言已 遂奉玉而獻之 忽隱不現(寺中記云 於終南山圓香禪師處 受

6) 이 기록의 '明年戊子三月'은 문맥상으로 보아 경순왕 즉위 이듬해(928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나 『고려사』 또는 『고려사절요』의 기록으로 보아 이 내용은 경순왕 5년 신묘, 즉 고려 태조 14년(931)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7) 十四年春二月丁酉新羅王遣太守謙用復誘相見 辛亥王如新羅以五十餘騎至畿內先遣將軍善弼問起居 羅王命百官迎于郊(고려사 권 2. 세가, 태조 14년 2월)
辛卯 十四年(後唐長興二年 契丹天顯六年)春二月丁酉新羅王遣太守謙用來告歸順 辛亥王率五十餘騎如新羅新羅王命百官郊迎(고려사절요 권1.태조 14년 2월)

建塔因由)(『삼국유사』 권 3, 皇龍寺 九層塔)

연대로 보아 (1)은 931년의 일이며, (2)는 慈藏이 당나라에서 643년에 귀국하기 전에 太和池에서 신인을 만나 황룡사 9층탑을 세우라는 부탁을 받은 내용으로서, 말하자면 자장이 당에 간 636년과 643년 사이의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미 신라시대에도 7세기 중반에 '京畿'라는 말이 쓰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당시의 수도인 경주의 주위에 특정한 지역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행정제도로 성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京畿라는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京師, 畿田이라는 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京畿라는 말이 구체적인 행정제도로서 확실하게 등장한 것은 고려때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京畿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자세히 밝혀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김상기는 '京畿'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인용문의 주는 원문의 주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필자의 주가 섞여 있음)

> 수도 開京은 太祖 2년에 松岳의 남에 도읍을 정하고 예전 松岳郡과 開城郡에 걸쳐[9] 開州를 세워 궁궐을 창건하며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나누어 5部로 하였더니, 光宗 11년에 開京을 고쳐 皇都라 일컬었다. 成宗 6년에 다시 5部의 坊·里를 정하고, 同王 14년에는 開城府를 두고 5部의 行政을 맡게 하는 동시에 赤縣[10] 여섯과 畿縣 일곱을 관할케 하였는바, 이 赤縣과 畿縣의 制도 唐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11] 원래 赤縣은 京都所治의 縣이요(혹은 陵

8) 김용옥 편, 1992, 『삼국유사 인덕』(통나무) 참조.

9) 신라시대(말기)의 송악군의 治所는 송악산의 남록인 만월대를 중심으로 한 일대였던 듯하며, 개성현의 치소는 지금 개풍군 서면 개성리라 함.

10) 赤縣이 처음으로 史上에 나타난 것은 『舊唐書』 本紀 開元 17년 11월조에 "丙申 謁橋陵……制奉先縣同赤縣 以所管萬三百戶 供陵寢"으로 알려져 있다. (윤무병, 1956, 「所謂 赤縣에 對하여」 『이병도박사 화갑기념논총』 239쪽)

墓에 奉供키 위한 지역), 畿縣은 京都 旁邑의 縣인 것이니, 우선 唐의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唐의 수도 長安城은 朱雀大街에 의하여 東西로 나뉘었는데, 東便 54街는 萬年縣에 속하고 西便 54街는 長安縣에 속하는 것인바(萬年縣과 長安縣의 범위는 長安城內에 한한 것은 아닐 것임), 京兆府는 이 두 縣을 통할하여 都城內의 행정을 맡았던 것이니, 이 京都 所治의 두 縣이 곧 赤縣인 것이다. 이로보면 成宗 14년에 이르러 종래의 開州를 승격하여 開城府를 설치하고 松岳과 開城의 2郡(縣) 및 옛날 이 2郡에 속하였던 德水縣(縣治는 지금 開豊郡 進鳳面 興旺里), 貞州(治所는 開豊郡 大聖面 古郡里), 松林縣(治所는 長湍郡 津西面 景陵里), 臨津縣(治所는 長湍郡 郡內面 亭子里) 등을 赤縣이라 한 듯하며,[12] 畿縣은 필남(見下) 京畿 13縣에서 莊單 6개의 赤縣을 뺀 것에 해당한 것인 듯하니, 즉 長湍(治所는 長湍郡 江上面 臨江里), 麻田(治所는 漣川郡 嶺山面 麻田里), 積城(治所는 漣川郡 積城), 坡平(治所는 坡平面 金坡里), 兎山(治所는 金川郡 月城面 兎山), 牛峯(治所는 金川郡 縣內面 牛峯里)의 7개 縣이 아니었던가 한다.[13] 다시 顯宗 9년에 이르러 4都護 8牧 등 地方의 行政區域을 개편하는 한편, 開城府를 파하고 開城縣(開城縣의 治所는 開豊郡 西面 開城里)令으로 하여 貞州·德水·江陰(金川郡 古邑洞)의 3縣을 관할케 하고, 또 長湍縣令으로 하여금 松林·臨津·兎山·臨津·積城·坡平·麻田의 7縣을 관할케하여 모두 尙書都省에 직속시키고 이 지역을 京畿라 하였던 바, 이것이 京畿라는 명칭이 國史上에 나타난 시초인 것이다.[14] 그리고 顯宗은 丹宜를 완전히 격퇴한 뒤에 戰後의 경영으로 그의 15년에 또 京城의 5部 坊里를 更定하고, 그의 20년에는 京都의 羅城(外城)을 이룩하였다(제4장 제2절 顯宗의 治績 참조).

그뒤 文宗 16년에 이르러 다시 開城府를 두어 尙書都省이 管掌하던 11縣(貞州·德水·江陰·長湍·松林·臨津·兎山·臨津·積城·坡平·麻田)과 또 西海道

11) 赤縣은 『史記』 卷 74, 孟 荀列傳의 "騶衍所謂中國者 於天下 乃八十一分居其一分耳 中國名曰赤縣神州"라 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赤縣神州는 天下의 中央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인바 京都畿域의 별칭으로 화하였다. 『通志』 卷 33 職官 15州郡下 縣令條 "大唐 縣有赤一三府共有六縣一 畿八十二 云云"의 註에 "京都治所 爲赤縣 京之旁邑 爲畿縣"이라 하였다.

12) 홍무범, 1956, 위의 글 참조.

13) 『京畿道誌』 上卷 第2部 第3編 第1章 第3節 참조

14) 京畿라는 말은 위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에 관한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은 착오라고 하겠다. 아마도 왕경제도로서의 경기지역이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平州(平山) 管內의 牛峯郡을 관할케 하고, 다시 同王 23년에는 京畿의 지역을 확장하여 楊廣道로부터 漢陽(서울)·沙川(楊州 檜泉面)·交河(坡州郡 交河面)·高峯(高陽郡 碧蹄面)·豊壤(楊州郡 棒接面)·深岳(坡州郡 青石面)·幸州(高陽郡 幸州)·海等州(楊州地方?)·見州(楊州邑)·抱州(抱川邑)·峯城(坡州)·金浦(金浦郡 金浦)·陽川(金浦郡 陽川)·富平(富平郡 富平)·豊城(金浦郡 豊城面)·石泉(坡州郡 街洞面)·荒調(高陽郡 中面)·黃澗(富川郡 桂陽面)·富原(서울市 龍山)·果州(始興郡 果川)·仁州(富川郡 文鶴面)·安山(始興郡 安山)·衿州(始興郡 始興)·南陽(水原郡 南陽)·守安(金浦郡 大串面)과 交州道로부터 永興(抱川郡 永平)·兎山(金川郡 兎山)·安峽(伊川郡 安峽)·僧嶺(漣川郡 東面)·朔嶺(漣川郡 朔寧)·鐵原과 西海道로부터 延安(延白郡 延安)·白州(延白郡 白川)·平州(平山)·峽州(新溪郡 栗面)·新迴(新溪郡 外面)·安州(載寧)·鳳州(鳳山)·瑞興 등의 州縣을 떼어 京畿에 붙여 그것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開京을 중심으로 하여 成宗때에 赤·畿縣을 두고 顯宗 때에 京畿를 정한 것은 田制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科田法은 이미 景宗 때에 시행되었거니와, 文武 兩班의 田柴科·功臣田·別賜田 그리고 收租權이 개인에게 속한 것은 대개 畿外의 지방에 돌리고, 京畿에는 公廨田[15]·公 田[16]·宮院田 등의 公田을 두어 國家機關의 운영에 충당하였으니, 이는 公田을 國都 주위에 집중시킴으로써 먼 지방으로부터의 조세운반의 불편을 제거하려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던 것이다. 특히 文宗 때에 이르러 開城府가 다시 설치되고 京畿의 범위가 전에 비하여 4.5배나 넓어진 것은 이 시대에 中央의 機構가 확대·정비되어 公田의 수요가 증가된 데에서 생긴 조처라 할 것이니, 이는 위에서 (제4장 제5절 文宗의 治績) 든 바와 같이, 이 시대에 이르러 祿俸·量田·田稅 등의 제도가 이와 서로 전후하여 更定된 것과도 일련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김상기, 1986.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235~237쪽에서 인용)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적현과 기현을 합쳐서 '赤畿'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왜 '京畿'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15) 공수전은 公 田에 속하는 토지의 한 유형으로 주·부·군·현·향·부곡·관·역 등 지방관청의 운영경비와 지방관리들의 녹봉지급을 위해 마련된 토지.

16) 궁원전은 중앙 및 지방의 궁원, 즉 각급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를 말함.

……『唐六典』에 "무릇 王都의 縣중 城內에 있는 것을 京縣이라 하고 城外에 있는 것을 畿縣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通典』에는 "城內에 있는 것을 赤縣이라 한다"하여 京縣을 赤縣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京縣과 赤縣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唐六典』이 『通典』보다 먼저 편찬된 法典이니 만큼 당초에는 京縣이라 부르던 것을 뒤에 赤縣으로 개칭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京縣과 赤縣이 같은 것이므로 赤畿라 해도 무방하였을 것이다. 赤縣이란 원래 漢土(中國)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赤縣을 피하고 京縣을 취하여 京畿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박광성, 1986, 「京畿의 유래와 연혁」 『경기도지 제1권』 64~65쪽에서 인용)

위의 글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하겠다. 첫째, 특별 행정구역으로서의 '京畿'제도는 중국 당의 경현·적현과 기현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당의 적현은 京兆府에서 관할하였다. 셋째, 적현은 京都治所의 현으로서, 능묘에 봉공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려시대에는 성종 14년(995)에 적현과 기현제도를 두었다. 다섯째, 현종 9년(1018)에는 '京畿'제도를 설치하고, 尙書都省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여섯째, 문종 16년(1062)에는 늘어나

는 행정제도에 따라 경기지역을 확장하였다. 일곱째, 경기지역은 국가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전이 있는 지역이다. 여덟째, 경기지역은 조세운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셋째 능묘에 봉공키 위한 지역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일곱째 공전이 있는 지역으로서의 경기지역인 것이다. 이 2개의 특성은 경기지역의 문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 말하자면 앞의 것이 바로 왕릉의 수호와 여기서 치루어 지는 의례를 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면, 뒤의 것은 바로 수도에 있는 여러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경기지역의 특성을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능묘에 봉공키 위한 성격으로서, 고려시대의 적현도 당의 적현과 마찬가지로

"능묘의 소재로 말미암아 특히 소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이다.[17] 말하자면 경기지역은 왕릉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의 여러 경비를 조달하는 왕의 직할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왕궁이나 수도가 필요로 하는 물자와 경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지역의 성격은 고려 후기에 들어서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경기도는 그 영역을 넓혀 가더니 忠讓王 2년에 이르러 마침내 다시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左道와 右道로 나뉘고 그 각각에 都觀察黜陟使가 임명되었다. 이제 경기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의 道로 바뀐 것이다 그에 따라 개성부도 자연히 王都만을 다스리는 기구로 변신하여 都評議使司에 直報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王京의 행정을 맡은 특별구로서의 개성부와 일반 지방 행정구역으로서의 京畿左道와 右道가 확립을 보게 된 것이다.(박용운, 1988. 『고려시대사』 일지사. 122~123쪽에서 인용)

이러한 변화의 주체세력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관료들로서, 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제개혁의 일환으로 생긴 결과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경기지역이 갖는 경제적 역할이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왕의 직할지로서의 경기지역이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왕이나 왕궁 또는 수도에 있던 국가기관의 운영경비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조세행정에 의해 충당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왕을 포함한 지배집단의 세력이 약화되어, 직할구역인 경기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상실했다

17) 윤무병, 1956. 위의 글, 264쪽. 이 점에 대해서 윤무병은 "太祖의 順陵以下 陵名과 그 所在地가 상비한 王陵 및 王后陵 또는 追尊王陵을 비롯하여 陵名을 잃은 現存 陵墓 또는 記錄에서 그 位置를 짐작할 수 있는 諸王陵들은 그 중에서 江都時代에 江華에 遷葬된 敎陵과 王朝 最後의 恭讓王을 除하고는 그 모두가 現 開城市를 둘러 싼 開豊郡과 長湍郡의 一部 地域에 集中해서 經營되어 있는 事實이 顯著하게 눈에 띄운다"고 설명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가 1390년으로서, 그 2년 뒤에 이성계의 조선왕국이 새로 건국되고 있는 상황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경기지역의 성격의 변화는 바로 지배집단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조선왕조는 이미 이러한 변화로부터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지역은 조선왕조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태조 4년(1395)에는 한양과 거리가 먼 7개의 지역을 서해도로 돌려 보내고,[18] 한양과 가까운 廣州·水原·楊根·雙阜·龍駒·慮仁·利川·川寧·延平을 左道에 소속시키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을 右道에 소속시켰다. 이후 경기도가 현재의 관내지역과 유사한 구역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몇번의 작은 변화를 거쳤다. 그 가운데에서 태종 2년(1402)에 좌우도를 합쳤으며, 세종 16년(1434)에 비로소 현재의 경기지역과 일치하고 있는 구역을 경기도로 삼았다.[19] 조선시대의 생활일정에 의하면, 이 구역은 대체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여 2일 생활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0]

태종이 좌우도를 합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태종의 왕권강화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왕인 태조와의 극심한 불화에도 왕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태종으로서는 아마도 경기도를 고려의 적현이나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왕의 직할지로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기지역이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시대에도 경기지역은 제도상으로 왕이나 왕실의 직할지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최소한 경기지역을 직할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왕릉을 바로 경기지역에 조영하고 그 주위의

18) 平州, 遂安, 谷州, 載寧, 瑞興, 新恩, 俠溪의 그것들이다.

1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85, 『경기도사』 365쪽.

20) 방동인, 1979, 「조선시대의 생활일정」(고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증보·색인편』 475쪽)

일정한 땅을 왕릉에 봉공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의 능인 健元陵이 있는 東九陵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건원릉이 바로 거의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었던 태종대에 조영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건원릉의 위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3. 東九陵의 명칭과 조성과정[21]

東九陵이라는 명칭은 현재는 특정한 지역, 즉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구리시 동구동 산 2-1번지에 있는 조선 왕실의 산능[22] 9개가 함께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명칭은 『고종실록』의 1899년(고종 광무 3년 6월 5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3](도표 1. 참조) 따라서 東九陵이라는 명칭은 20세기에 들어서 널리 사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명칭은 능 9개와 함께 그 주위 1,915,891m²의 면적에 이르는 지역을 1970년 5월 26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사적 193호로 지정되어 보존된 이후로는[24] 특정한 사적을 지칭하는 용어로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

21) 이하의 내용은 『구리시지』에 게재한 내용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보완하였음.

22) 조선시대에는 능이란 황제·황후·황비 또는 왕·왕후·왕비 또는 이에 추존된 사람의 무덤을 말하며, 원이란 황세자·황세자비·황자·황자비 또는 같은 신계에 있는 왕이나 황제의 사친(생모인 빈궁)의 무덤을 말하며, 묘란 폐위된 왕 및 그 사친, 혼인하지 못한 공주 및 옹주, 왕의 후궁 및 왕의 친족 등의 무덤을 말한다. 따라서 원과 묘는 왕가의 근친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23) 『고종실록』 광무 3년 6월 5일조. 그 밖에 1894-9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규장각에 소장된 『기전읍지』에 실려 있는 지도에는 단지 '구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아세아문화사 편. 1985. 『읍지 10. 경기도 1』)

24) 문화재관리국. 1993. 『지정문화재목록』 159쪽에 의함.

그러나 본래 東九陵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東九陵이라는 말은, 東이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글자와 함께 九라는 수자를 나타내는 글자, 그리고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가리키는 陵이란 말이 합쳐서 된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명칭은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의 동쪽에 있는 능 9개를 합쳐서 부르던 이름으로서, 이 곳에 9개의 능이 조성된 뒤에 비로소 이루어져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조선왕국을 건설한 태조의 산능을 수도인 한성부의 동쪽에 마련한 것은 당시 수도건설의 배치원리의 하나인, 종묘를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건립한 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5]

그런 점에서 東九陵이란 말은 이 9개의 산능이 모두 조성된 뒤에, 더 이상 다른 산능이 들어서지 않은 다음의 시기, 즉 조선왕조가 종말을 고한 다음부터 널리 쓰여진 명칭이라고 하겠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실록』 1899년의 東九陵이라는 명칭의 사용례라고 하겠다.

따라서 東九陵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몇가지의 문헌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첫째, 176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동지도』에 실려 있는 「양주목」의 지도에는 "六陵內"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의 아래쪽에 "능침 건원릉 현능 목능 휘능 숭능 혜능"이 다른 능묘와 함께 적혀 있다. 둘째로는 『철종실록』의 1850년(철종 원년) 7월 무오일조

25) 이렇게 수도의 동쪽에 왕릉을 배치하는 예는 고구려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초기의 왕릉이나 무덤들은 주로 나라의 동쪽 언덕에 만든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이다. 동명왕릉에 대한 기록으로는 『광개토왕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황룡을 보내와서 왕을 맞이 하였다. 이때 왕은 홀본성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왕릉이 동쪽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시대의 상황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 나타나는 '東七陵'이라는 명칭을 들 수 있다.[26] 이러한 점들로 보아 이곳은 철종 이전에는 산능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 '육능'도(국사편찬위 편. 1973. 『여지도서』에서)
〈도표 2〉 '칠능'도(아세아문화사 편. 1985. 「경기지」(『읍지 10. 경기도 1』에서))
〈도표 3〉 '구릉'도(아세아문화사 편. 1985. 『경기읍지』(『읍지 10. 경기도 1』에서))

이렇게 산능의 수에 의해서 시기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이곳은 말하자면 산릉의 조성연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그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 명칭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각 산능의 조성 연대를 중심으로 여기에 모셔진 주인공들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몇몇 자료에 나타난 東九陵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도표 4. 참조)

〈도표 4〉 東九陵 일람표[27]

능 호	역대,묘호,시호	조 성 년 대	비 고
健元陵	1대 태조 고황제	1408년(태종 8) 9월 9일	
順 陵	5대 문종 현덕왕후 권씨	1452년(단종 즉위년) 9월 30일 1513년(중종 8) 4월 21일 천장	1441년(세종 23) 9월 초장(안산 소릉)

26) 『철종실록』 원년 경술 7월 무오일조. 그 밖에 동칠릉이란 명칭은 1842-43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규장각 소재 「경기지」에 수록된 「양주목읍지」의 지도에는 단지 '칠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7) 문화재관리국 편, 1991. 「한국문화재대관(사적편)」 「조선시대 왕릉 일람표」에서 발췌하였음. 이 자료는 고증의 문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점은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되거나 빠진 것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동구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서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 장씨에 관계되는 내용이 빠져 있으며, 또한 동구릉과 직접 직인 관계가 있는 내용 가운데 수릉에 관계되는 자료가 빠지거나 부정확하게 되어 있다. 위의 도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穆 陵	14대 선조 의인왕후 박씨 계비 인목 왕후 김씨	1630년(인조 8) 11월 21일 천장 1600년(선조 33) 12월 2일(초호 유릉) 1632년(인조 10) 10월 6일(초호 혜릉)	1608년(광해군 즉위년) 6월 초장(건원릉 서강)
徽 陵	16대 인조 계비 장렬 왕후 조씨	1688년(숙종 14) 12월 16일	
崇 陵	18대 현종 명성왕후 김씨	1674년(숙종 즉위년) 12월 13일 1684년(숙종 10) 4월 5일	
惠 陵	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1718년(숙종 14) 4월 19일	
元 陵	21대 영조 계비 정순 왕후 김씨	1776년(정조 즉위년) 7월 27일 1805년(순조 5) 6월 20일	
睿 陵	추존왕 익종 신정왕후 조씨	1855년(철종 6) 윤 5월 20일 천장 1890년(고종 27) 8월 30일	1830년(순조 30) 8월 4일 초장(양주 천장산 의릉 좌강, 초호 연경묘) 1835년(헌종 1년) 5월 19일 추존 익종(수릉) 1846년(헌종 12) 윤 5월 20일 천장(양주 용마봉)
景 陵	24대 헌종 효현왕후 김씨 계비 효정 왕후 홍씨	1849년(철종 즉위년) 10월 28일 1843년(헌종 9) 12월 2일 1904년(고종 광무 8) 1월 29일	

(도표 1)

(도표 2)

〈도표 3〉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東九陵에는 시대를 달리 하면서 17위의 왕과 왕비의 시신이 모셔져 있으며, 또한 모두 9개의 능호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처음에 조성된 산능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初葬地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외에도, 또한 몇 번의 遷葬을 통해서도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도표는 東九陵이 조성된 후의 상태, 즉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된 자료로서, 東九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東九陵은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보다는 역사적으로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성배경과 연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東九陵과 관계되는 능의 조성년대와 遷葬年代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08년 1대 태조의 건원릉을 조성함.
1452년 5대 문종의 현릉을 조성함.
1513년 안산에 있는 5대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의 소릉을 현릉 옆으로 천장함
(1441년 안산에 소릉을 조성함.)
1600년 14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을 조성함.
1608년 14대 선조의 목릉을 건원릉 서강에 조성함.
1630년 건원릉 서강에 있던 14대 선조의 목릉을 건원릉의 동강에 있는 왕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의 서쪽에 천장하고, 합해서 목릉으로 봉릉함.
1632년 14대 선조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혜릉을 목릉의 동쪽에 조성하였으나, 나중에 목릉으로 봉릉함.
1659년 17대 효종의 영릉을 조성함(처음에는 翼陵으로 정했으나, 곧 영릉으로 고침.)
1673년 17대 효종의 영릉을 여주로 천장함.
1674년 18대 현종의 숭릉을 조성함.
1684년 18대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를 숭릉 옆에 모심.
1688년 16대 인조 계비 장렬왕후의 휘릉을 조성함.
1718년 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의 혜릉을 조성함
1776년 21대 영조의 원릉을 조성함.

1805년 21대 영조 계비 정순왕후 김씨를 원릉의 옆에 모심.
1843년 24대 헌종릉의 자리에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의 경릉을 조성함.
1849년 24대 헌종을 효현왕후 김씨의 경릉 서쪽에 모심.
1855년 양주 용마봉에 있는 추존왕 익종[28]의 수릉을 천장함
(1830년 순조 세자의 면경묘를 양주 천장산의 의릉 좌감에 조성함.)
(1835년 순조의 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고, 면경묘를 수릉으로 봉릉함.)
(1846년 순조 세자의 수릉을 양주 용마봉으로 천장함.)
1890년 추존왕 익종 비인 신정왕후 조씨를 수릉에 합장하여 모심.
1904년 24대 헌종 계비 효정왕후 홍씨를 경릉의 동쪽에 모심.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한 '六陵內'라는 명칭은 1718년부터 1776년 사이에 쓰여졌던 명칭으로, 그리고 '東七陵'은 영조의 원릉 조성이 끝난 뒤인 1776년 이후부터 철종 때까지 불리어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뒤 1849년 24대 헌종의 경릉과 1855년 추존왕 익종의 수릉을 양주 용마봉에서 천장한 뒤부터 '東九陵'으로 불리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東九陵은 조선왕조를 건국한 최초의 지배자인 태조 이성계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당시의 수도인 한성부와 함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기록에 의하면 이곳이 태조의 건원릉지로 선정되는 시기는 태조 때라는 설과 태종 때라는 설로, 크게 다른 2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는 태조 때에 靑藏地로서 선정되었다는 설이며, 둘째는 태종 때에 선정되었다는 설이다. 그러나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여러 가지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태종 때의 선정설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태조의 수장지라는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속에는 바로 이

28) 조선 23대 순조의 세자로서, 이름은 영(昊)이다. 대리청정한지 4년만에 죽고, 그의 아들 헌종이 즉위한 뒤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지역의 중요성, 즉 경기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조선시대 초기부터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東九陵 산세의 평가는 당시의 조선 사람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 의해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8년(1408) 10월에 중국에서 태조의 시호를 갖고 온 사신인 都知監左少監 保와 禮部郎中 林觀에게 이곳을 안내하여 보여 주었을 때, 이들은 능의 산세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하늘이 만든 곳이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일부러 만든 산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29] 이들은 9월 25일에 한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 때에는 이미 9월 9일에 태조의 현궁을 봉분에 모신 뒤로서, 건원릉이 이미 완성된 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국에서 태조에게 내린 시호는 강헌이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서 이곳은 健元陵이 조영되므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사신들에게도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성한 곳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東九陵은 그 조성년대가 15세기 초엽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동안, 달하자면 조선왕조의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곳은 조선 왕조의 건설자인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최고 지배자들의 시신과 사후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선정된 다음 약 500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지형적 조건은 50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에 걸쳐서 최고의 정치적 권력자들의 산능을 조성할 수 있는 풍수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

29) 保等 見陵山勢曰 安有如此天作之區乎 必是造山也(태종실록 16권, 8년 무자 10월 경진) 이들은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太平의 예로 건원릉에 賜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신도비명 참조).

서 이 곳은 시대가 변천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풍수지리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지역은 조선왕조의 왕릉제도를 한정된 지역안에서 통시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넷째, 東九陵은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초장지로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장지로 이용했다가 또한 다른 지역으로 천장하기도 했으며, 또한 다른 지역에 있었던 능을 이곳으로 옮긴 천장지로서도 이용되었다. 초장지로서 조성된 봉분은 1대 태조의 건원릉, 5대 문종과 비 현덕왕후의 현릉, 14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나중에 선조의 목릉이 조성된 후에는 목릉으로 개칭되었음), 14대 선조의 목릉(목릉의 초장지는 현재의 경릉 자리로서, 나중에 현재의 목릉으로 천장하였음), 14대 선조 계비 인목왕후의 혜릉(나중에 목릉이 서쪽에 천장됨으로써, 목릉으로 통칭하였음), 17대 효종의 영릉(1673년 영릉을 여주로 천장하고, 나중에 21대 영조의 원릉을 조성하였음.), 18대 현종과 비 명성왕후의 숭릉, 20대 경종비 단의왕후의 혜릉(14대 선조 계비 인목왕후의 혜릉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혜릉이라고도 불렀음[30]),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원릉(17대 효종 영릉의 옛자리임.), 24대 헌종과 비 효현왕후·계비 명헌왕후의 경릉(14대 선조의 초장지인 옛 목릉의 자리임.) 등 모두 15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능을 이곳으로 천장한 예는 안산에 있었던 5대 문종비 현덕왕후의 소릉을 문종의 현릉의 동쪽에 천장한 것과 양주 용마산에 있던 익종과 비 신정왕후의 수릉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이곳을 초장지로 삼았다가 다른 곳으로 천장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東九陵의 다른 岡으로 천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천장한, 2종류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東九陵 내의 다른 강으로 천장한 경우로서, 14대 선조의 목릉을 예로 들을 수 있다. 목릉은 처음에는 건원릉의

30) 『목릉지』 화소 조.

西岡에 조성되었으나, 나중에 건원릉의 東岡으로 천장하였으며, 이곳은 나중에 24대 헌종과 비 효현왕후·계비 명헌왕후의 경릉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천장한 경우로서, 17대 효종의 寧陵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영릉은 나중에 여주로 천장하고, 이곳은 뒤에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원릉을 조성하였다.(〈도표 5〉 동구릉 지구 배치도 참조)

4. 陵地의 選定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東九陵은 조선왕조의 산능을 대표하는 능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곳이 언제, 어떻게 대표적인 능역으로 선정되었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문점이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기록에 의하면 이곳이 태조의 건원릉지로 선정되는 시기는 태조 때의 설과 태종 때의 설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는 태조 때에 壽藏地로서 선정되었다는 설이며, 둘째는 태종 때에 선정되었다는 설이다. 다음에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말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태조 시대설은 문헌 기록에 의하면 태조 3년(1394)에 신승 '무학'과 함께 직접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00년(선조 33년)의 『선조실록』에 의하면 11월 기유일에 당시의 영의정 李恒福, 좌의정 李憲國, 우의정 金命元이 건원릉에서 돌아 와 왕에게 올린 계장에 태종조의 재상 金敦叔이 『國宮六禮』을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하여, 태조 선정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곳은 "한양을 건립할 때에 명산을 두루 찾아 누대의 현궁을 모실 곳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속전에 이르기를 태조 3년에 신승 무학을 거느리고 친히 능침을 찾다가 산 하나를 얻어 누세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설명은

〈도표 5〉

대종조 때의 재상인 김경숙이 『주관육익』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상고해 보지는 않아 감히 믿을 만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고해 보건대 아마도 허무맹랑한 전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다.[31]

그 뿐만 아니라 『健元陵誌』 『燕巖集記述』 『東典考』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기재되어 있다. 『健元陵誌』에 의하면 "전해 오는 말에, 태조께서 도읍을 건설한 후에 지리를 아는 중을 대동하고 이 산 아래에 납시어, 앞으로 죽어서 묻힐 곳을 정하고, 다음날 돌아 오실 때 '내 이제야 근심을 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 따라서 동구밖의 고개를 忘憂라고 하고, 그 개울을 王宿이라고 이름하여,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2] 여기서 말하는 '지리를 아는 중'은 아마도 위에 나오는 '무학'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죽어 묻힐 곳'을 직접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卜壽藏'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健元陵의 자리는 태조의 생전에 손수 정해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李肯翊(1736~1806)의 『연려실기술』과 편자 미상의 『東典考』에는 車天輅(1556~1615)의 『五山說林』을 인용하여 "태조가 만세후에 묻힐 자리를 무학에게 물으니, 무학이 한 자리를 가려 주며 아뢰기를, '대대로 이 곳에 장사하여도 좋습니다'하였는데, 바로 健元陵이 이곳이다. 일설에는 '定鼎術 崔山이란 자가 대대로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집자리를 태조에게 바치며 아뢰기를, 신이 약간 지리술을 아옵는데, 이곳은 마땅히 임금의 인산터가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가 받고 곧 좋은 집을 다시 지어 주었는데, 지금 그 근처에 최장군

31) 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 到自健元陵 啓曰…… 國初建都之始 旁搜名山 以爲累代 玄宮之所 意蓋有在 俗傳太祖三年 車師僧無學 就審陵寢 得一山 可用累世云云 此說出於太宗朝 宰相金敬叔 問宮人舞之書云 而臣等 未及考見 雖未敢定以爲信說 而參以所見 似非良傳(선조실록 131권 33년 경자 11월 기유)

32) 諺傳 太祖定都後 車相地僧 牽于山下 卜壽藏 翌日回 而有吾今忘憂之歎 故洞口外號名忘憂 溪 名王宿 蓋有以云(건원릉지 능참조)

의 묘석이 있다고 한다.[33]

이와는 달리, 태종 때의 선정설은 『태종실록』의 당시의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태종 때의 선정설은 다른 기록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健元陵의 선정에 대한 기록은 2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그 『태종실록』 권 15, 8년(1408) 6월 기축일조의 기록과 또다른 하나는 권 16, 8년 7월 을사일조의 기록이 그것이다. 먼저 '6월 기축일' 기사의 의하면 劉旱沛와 李陽達이 장계를 올리기를 '원평의 옛날 봉성에[34]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기에, 하륜 등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였으나, 돌아와서 장계를 올리기를 '봉성의 땅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해풍과 쌍주에 지리설에 합당한 땅이 있다'고 하니, 왕이 다른 곳을 찾아 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35] 그리고 '7월 을사일'

33) 이긍익 저, 『연려실기술 별집』 제2권 紀象典考(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연려실기술 9권』 125쪽) 및 『동전고』 권 2, 산능조 참조. 이러한 태조 때의 선정설은 지면 관계로 일일히 들 수는 없지만, 건원릉에 대한 조선왕조 후기의 평가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가운데에서 일 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최근에도 은광준 편저, 1985. 『조선왕릉석물지 상권』(민속원) 25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陵址는 本是 相臣 南在之山 而太祖 親卒卜地하시고 葬日 回 하실 때 有吾今忘優之敎 故로 峴名을 忘憂라 하다"라는 내용이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그 곳이 태조 때의 상신인 南在의 산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의 변형까지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남재라는 인물이 이 천설에 등장하였는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건원릉의 묘는 남 57리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남재의 묘는 남쪽 40리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든 연관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떠한 배경이 이러한 내용의 변형까지도 나타나게 만들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출전의 확인과 함께 중요한 관심거리의 하나다.

34)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原平은 파주의 옛 군명이며, 또한 蓬城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이 蓬城은 蓬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5) 己丑 遣領議政府事河崙等 相視山陵 檢校判漢城府事劉旱沛 用書雲正李陽達等 啓曰 臣等卜相山 陵 至原平古蓬城 得吉地 乃遣崙等 相視 崙還啓曰 陽達等所相 蓬城之地 不可用 海豊牽州有地 稍合地理之法 上曰 更擇他處(태종 권 15, 8년 무자 6월)

기사에 의하면, 河齊·유한우·이양달 등으로 하여금 양주에서 땅을 가리도록 하였는데, 金責仁이 하륜에게 말하기를 '제가 검암에 살고 있는데, 길지가 있다'고 하기에 하륜 등이 가서 보니 과연 좋기에, 조묘도감제조인 박자청으로 하여금 장인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36] 이 2기록에 의하면 健元陵을 양주 검암산에 선정하기 전에 이미 原平, 海豐, 幸州 등이 후보지로 떠 올라 있다는 사실과 함께, 김인귀의 추천에 의해서 끝내는 양주의 검암산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일 태조 때에 선정하였다면, 그 곳을 태종 때에 보를 리 없을 뿐더러, 만일 그렇다면 능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근 1달이나 소비하지는 않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健元陵지는 태종 때에 선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7]

---

36) 乙巳 定山陵于楊州儉巖 初領議政府事河崙等 復申劉旱田李陽達李良等 相地于楊州 檢校參贊議 政府事金仁貴 見崙等告之 曰我所居儉巖有吉地 崙等相之果善 遣嘉都監提調朴子青 率工匠始役(태종 권16, 8년 무자 7월)

37) 참고로 건원능이 조영될 때까지의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8년 5월 24일 태조 서거
25일 소렴, 興德寺에서 懺經法席 거행
26일 대렴 및 성복
6월 2일 殯殿에서 筵奠法席을 거행
7일 13일째에 소상 거행
9일 藏義寺에서 공경법석 거행
16일 빈전에서 華嚴三昧懺 법석 거행
19일 25일째 대상 거행
21일 27일 담사 거행
23일 빈전에서 薦法席 거행
7월 1일 興天寺에서 圓覺法席 거행
3일 현금 이하 신하들이 觀事(나라의 정사를 보는 일)를 시작함
8일 빈전에서 法華三昧懺法席 거행
13일 檜巖寺에서 七齋 거행
8월 17일 빈전에서 화엄삼매참법석 거행
9월 5일 흥덕사에서 百日齋 거행
6일 啓殯祭 거행
7일 발인
9일 건원능에 장례, 초우제 거행

5. 山陵의 형태와 위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東九陵에는 모두 17위의 왕과 왕비가 9개의 능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봉분의 수는 16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왕과 왕비의 시신은 각각 독립적으로 매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렇게 모두 17위의 왕과 왕비를 모셨으면서도 그 봉분이 16개인 것은,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릉에 추존왕 익종과 그 비인 신정왕후 조씨를 합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합장한 수릉이 추존왕릉인 점과 함께 다른 곳에서 천장한 산능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은 왕과 왕비의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의 독립적인 봉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조선왕조의 능의 조성은 왕과 왕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봉분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개의 봉분은 모두 9개의 능호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능호에 몇 개의 봉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 산능들은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능호가 1개의 봉분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와는 달리 여러 개의 봉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의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 개의 봉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 능호라고 하더라도 또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또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 능호는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그 구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봉분의 뒤에 설치하는 曲墻에 의해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곡장은 또한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 능호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봉분들은 우선 그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곡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산능의 위치는 흔히 麓과 原, 그리고 岡으로 표현하고 있다. 록이란 특정한 산의 아래 부분을 말하며, 원이란 그 아래 부분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줄기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강이란 산의 아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산줄기에서 뻗어 나간 산 갈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세가 끊어지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강은 평지와 닿는 곳이거나 물줄기에 의해서 다른 산 갈래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풍수 지리학에 의하면 地氣가 뭉쳐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라고 보는 穴이 있는 곳도 강이기 때문에, 봉분은 강에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강이란 봉분의 위치를 표현하는 마지막 단위로서, 흔히 중심이 되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東이나 西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풍수 지리적으로 봉분은 남북으로 형성된 산줄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東九陵의 경우, 특히 健元陵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동강, 서강이란 위치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東九陵이 완성된 뒤에 편찬된 문헌에 보이는 능의 위치에 관한 기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현릉 : 在健元陵 東岡[38] 목릉 : 在健元陵 제2강
휘릉 : 在健元陵 西岡
숭릉 : 在健元陵 西南別岡
혜릉 : 在崇陵 左岡
원릉 : 在健元陵 右岡
수릉 : 在健元陵 左岡
경릉 : 在健元陵 西岡[39]

이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혜릉을 제외하고는 모두 健元陵을 중심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산능들은 모

38) 『新增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在健元陵東阜"라고 하여, 岡대신에 阜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39) 김정호 『대동지지』 권3. 양주 조

두 갈은 산줄기에서 나온 다른 갈래에 있지만, 그 기준은 健元陵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健元陵은 강을 이루는 원의 줄기에, 기리고 다른 산능들은 그 원으로부터 갈라진 강에 각각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東九陵의 여러 산능들은 모두 '동원이강'에 조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봉분 뒤에 설치하는 곡장은 이 강을 중심으로 설치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강에 위치한 봉분은 하나의 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강에 따라 하나의 봉분이 조성될 때에는 하나의 봉분을 둘러싸는 곡장이 설치되고, 하나의 강에 2개 이상의 봉분이 조성될 때에는 2개 이상의 봉분을 감싸는 하나의 곡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릉의 경우에는 제24대 헌종과 함에 2왕비의 봉분을 합한 3개의 봉분을 감싸는 곡장이 설치되고 있으며, 목릉의 경우는 제 14대 선조와 2왕비의 봉분이 각각 다른 강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봉분마다 각각 독립적인 곡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봉분과 곡장이 조성되고, 그에 따라 또한 다른 능호를 갖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준들에 의하면 東九陵에 있는 산능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합강 : 하나의 강에 조성된 독립적인 곡장을 가진 하나의 봉분에 2개 이상의 시신을 묻고, 능호를 가진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는 말하자면 同墳異室, 同墳異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40] : 수릉(19세기 말엽)

2) 단장 (1) 하나의 강에 독립적인 곡장을 가진 하나의 봉분이 단일 능호

40) 문화재관리국 편 『문화재대관(사적편)』에 실려 있는 「조선시대 왕릉 일람표」에 의하면 이러 한 합장을 "동릉이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동릉"이 아니라 "동분"이라 고 표현해야 옳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릉"의 릉은 능호를 가리키는,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인 반면에, 분은 봉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실제로 봉분의 속에 각각 실을 달리하여 묻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하나의 곡장안에 있는 "단릉" "쌍릉" "삼연릉"과 같은 용어도 같은 이유로서 모두 "단분" "쌍분" "삼연분"으로 불러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를 가진 것으로 同原 異岡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健元陵(15세기 초엽), 휘릉(17세기 말엽), 혜릉(18세기 초엽)

(2) 하나의 강에 설치된 2개 이상의 봉분이 하나의 곡장을 가진 채, 단일 능호를 가진 것으로서, 同岡異墳이라고 할 수 있다: 숭릉(쌍분, 17세기 말엽), 원릉(쌍분, 18세기 말엽~19세기 초엽), 경릉(삼연분,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3) 하나의 강에 독립적인 곡장을 가진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봉분이 단일 능호를 가 진 것으로서, 同原異岡이라고 할 수 있다.: 현릉(15세기 중엽~16세기 초엽), 목릉(17세기 초엽)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봉분의 위치와 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東九陵의 산능들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하나의 강에 단독장을 원칙으로 하여 봉분을 조성하고 곡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은 말하자면 원을 달리하던가, 또는 강을 달리 하여 능을 설치하는 것으로, "異原異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원칙은 15세기 초엽의 健元陵,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엽의 현릉, 17세기 초엽의 목릉, 17세기 말엽의 휘릉, 18세기 초엽의 혜릉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초엽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엽의 현릉과 17세기 초엽의 목릉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왕과 왕비라고 하더라도 강을 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봉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성원칙은 말하자면 같은 줄기인 동원에 다른 갈래인 이강으로서, "동원이강"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째원칙인 "이원이강"과 "동원이강"의 원칙은 같은 원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셋째, 그러나 17세기 말엽에 쌍분으로 조성된 숭릉이나 18세기~19세기

초엽에 쌍분으로 조성된 원릉, 그리고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에 三連墳으로 이루어진 경릉의 예에서 보듯이, 17세기 말엽부터는 하나의 곡장안에 2개 이상의 봉분을 조성하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같은 강에 여러 개의 봉분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의 형태는 한마디로 '동강이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강은 같되, 봉분은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능은 모두 같은 왕과 왕비의 것으로, 東九陵에서는 17세기 말엽부터 왕과 왕비를 같은 강에 봉분을 따로 하여 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41]

넷째, 19세기 말엽에 조성된 수릉에서 보듯이, 이 때에는 왕과 왕비를 같은 봉분에 모시는, 말하자면 '동분이실' '동분이광'이라는 합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같은 봉분의 아래에 각각 방·실·광을 달리하여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 왕조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산릉은 비록 원칙적으로는 단독장을 기본으로 한 독립적인 봉분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 능호도 독립적으로 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원칙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예로서 東九陵과 관계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5대 문종비 현덕왕후의 안산 소릉, 14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 14대 선조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혜릉(뒤의 혜릉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혜릉이라는 능호로 쓰여지기도 하였음), 16대 인조 계비 장렬왕후의 휘릉, 20대 경종비 단의왕후의 혜릉(앞의 혜릉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혜릉이라는 능호

41)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조선왕조의 왕릉의 조성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다른 왕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밝힐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릉의 자리를 선정할 때의 기준, 바로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릉의 선정 기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 지리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풍수지리학설사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로 쓰여지기도 하였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왕비의 능호가 일찍 부여되었을 지라도 나중에 조성된 왕의 능호로 대체되거나 또는 왕비능의 능호가 그대로 왕의 능호로 계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九陵의 자료를 예로 들어 왕비의 능호를 폐기하고 나중에 조성된 왕의 능호로 통칭하는 것을 보면, 5대 문종비 현덕왕후의 능호가 소릉이었으나 東九陵으로 천장된 뒤에 문종의 능호인 현릉으로 바뀌었으며, 14대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의 유릉과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혜릉(구혜릉)이 선조의 목릉이 조성된 뒤로는 모두 목릉으로 통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왕비의 능호가 그대로 왕의 능호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는 24대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의 경릉이 그대로 헌종의 능호로 계승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능가운데 동원이강에 의한 현릉·목릉이나 동강이분인 숭릉·원릉·경릉의 경우에서 보듯이,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함께 조성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없이 왕의 봉분을 왼쪽, 즉 서쪽에 두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왕비의 봉분은 동쪽에 두고 있는데, 이럴 때에 왕비 봉분의 위치는 항상 왕의 봉분을 기준으로 하여 左岡, 左罔 또는 左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능의 배치와 위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좌여우"라는 남녀유별 관념에 따른 방위관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주나 신위의 분면에 남자를 왼쪽에, 여자를 오른쪽에 쓰는 것과 함께 사당안에서 고조부모의 신주를 서쪽에 두고 대수를 내려 오면서 그 이하의 신주를 동쪽에 두는 배치방법, 그리고 종묘에서 태조와 그 이하의 왕들의 신주를 서쪽부터 배열하는 것 등과 같은 배치원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관념은 서쪽이 높다는 유교적 방위관념을 그대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각 릉과 봉분의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6〉 東九陵의 형식

능 호	건원릉	현능	목릉	휘릉	숭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
묘 호	*1대 태조	*5대 문종 *현덕 왕후	*14대 선조 *의인 왕후 *인목 왕후	*16대 인조 계비 장렬 왕후	*18대 현종 *명성 왕후	*21대 경종비 단의 왕후	*21대 영조 *계비 정순 왕후	*익종 *신정 왕후	*24대 헌종 *효현 왕후 *계비 효정 왕후
매장형식	단독장	단독장	단독장	단독장	단독장	단독장	단독장	합장	단독장
봉분수	1	2	3	1	2	1	2	1	3
곡장수	1	2	3	1	1	1	1	1	1
매장위치		동원이강	동원이강		동강이봉		동강이봉	동봉이실	동강이봉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東九陵의 지형이 몇 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健元陵을 비롯하여 단독장으로 독립적인 능호를 갖고 있는 휘릉·혜릉은 각각 하나씩의 강에 봉분이 조성되어 모두 3개의 강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숭릉을 비롯하여 동강이봉인 원릉·경릉은 각각 하나씩의 강에 조성되어, 모두 3개의 강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동원이강으로 2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현릉을 비롯하여 3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목릉은 모두 합해서 5개의 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봉이실로 조성된 수릉은 또 다른 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東九陵 안에는 모두 12개의 강이 있으며, 16개의 봉분과 9개의 능호는 모두 12개의 강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東九陵의 산능이 세기별로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졌는가를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도표 7〉 東九陵의 형성시기

	15세기			16.			17.			18.			19.			20.			예
이원이강, 동원이강										초									건원릉, 현릉, 목릉(유릉, 구혜릉) 휘릉, 신혜릉
동강이분									말							초			숭릉(쌍분), 원릉(상분), 경릉(삼연분)
동분이설															말	초			수릉

6. 山陵의 지세와 지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東九陵은 12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갖고 있는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東九陵에 조성된 9개의 능호는 모두 동원이강이라는 표현으로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그 중심은 물론 健元陵이라고 하겠다. 왜냐 하면 그 위치는 12강 가운데에서도 풍수적으로 우선 가장 먼저 길지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산능의 위치는 모두 健元陵을 기준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健元陵까지의 산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東九陵의 위치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東九陵은 우선 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치와 방위는 또한 수도건설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알려지고 있는 궁궐과 종묘와의 위치, 즉 종묘는 정궁의 동쪽에 둔다는 원칙과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종묘가 역대왕의 신주를 통해 영혼을 모시는 상징공간이라면, 東九陵은 시신을 모시는 상징공간으로

서, 역대왕의 영혼과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이 공통적으로 동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당시에 동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또다른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東九陵이 있는 양주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양주는 행정적으로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의 터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으로서, 고려 문종 때에는 남경이었다가 충렬왕 때에 한양부로 고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42] 그러다가 조선왕조 태조 3년에 이곳에 수도를 건설함에 따라 그 府所를 동촌 대동리에 옮기고, 강등하여 양주지사로 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다시 승격하여 부로 만들었다. 태조 6년에 또 부치를 見州[43] 옛터에 옮기고 양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태종 13년에 도호부로 고치고, 세조 12년에는 승격시켜 목으로 만들고, 진을 설치하였다.[44]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양주의 지세는 기본적으로 한성부의 지세와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선 뚝떨 지리지에 나타난 한양의 산세를 보기로 하겠다.

한양의 지세와 지맥에 대한 인식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도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도성을 벗어나 비교적 큰 범위, 즉 경기지역의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이 북쪽의 鎭山을 기준으로 동서남쪽의 지맥을 해석하고 있는 四山說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진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앞의 설과는 달리, 궁성의 주산이 되는 백악을 중앙으로 하고 동서남북의 지맥을 해석하고 있는 五山說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종류의 지맥인식은 모두 음양오행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지고 있다.

첫째 四山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鎭山說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42) 『동국여지지』 한성부 건치연혁조.

43)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초에 이곳을 見州라고 하였고, 현종 9년에는 양주에 예속시켰다.

44)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함.

진산이 있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그 좌우의 지맥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삼각산이 진산이 되고, 낙산이 그 왼쪽에 높이 서 있고, 목멱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으며, 목멱산이 앞에 공손히 서 있으며, 한강이 그 남쪽을 지나간다"[45]고 하여 지맥과 수맥을 아울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형세는 전해 오는 말로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므로 장자가 가볍게 되고 지자가 중하게 된다."[46]는 풍수설을 낳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경도를 건설할 때에 無學과 鄭道傳 사이에 진산에 대한 논의가 각각 달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한다. 즉 무학은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우의 용호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정도전이 옛날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앞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니, 동향으로 도읍지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47] 따라서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고 궁궐을 남향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삼각산까지의 지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삼각산[48]은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잇달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이 높고 낮음이 있다. 빙빙 둘러서 양주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니, 경성의 진산이다.[49] 이 삼각산은 백운·만경(일명 국망이라고 한다)·인수의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으로서, 만경봉이 동쪽으로 굽어 돌아서 석가·보현·문수 등의 여러 봉우리가 되었는데, 보현봉의 곁가지 산발이 곧 도성의 주맥이기 때문에 총융청에서부터 보토소를 설치하고 주관하여 보축하였다.[50] 그리고 백악을 주맥으로 하여 남쪽에 경복궁을 건설하였다.

45) 『신증 동국여지승람』 산천조.
46) 『동국여지비고』(서) 국도.
47) 『동국여지비고』(서) 국도.
48) 세조실록 권 3, 2년 3월 병신조에 있는 양성지의 상소문에 의하면, 삼각산을 5악의 하나로, 백악을 5진의 하나로, 한강을 남독으로, 목멱산을 명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온다.
49) 『신증 동국여지승람』 한성부 산천조
50) 『동국여지비고』(서울시사편찬위원회본) 권 2, 산천조.

이러한 지리인식은 진산과 한강이 백악－낙산－보악－남산을 잇는 도성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오산설은 五德丘說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진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진산설과는 달리 궁성의 주산인 백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맥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궁성을 중심으로 주위의 지맥이 오덕을 갖추었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 설은 權近이 『神誥經說』을 인용하여, 가운데 있는 匡嶽이 圓形이니 土德이요, 북쪽에 紺岳이 있어 曲形이니 水德이요, 남쪽에 冠岳이 있어 尖形이니 火德이요, 동쪽에 양주 南行山[51]이 있어 直形이니 木德이요, 서쪽에 樹州 北岳이 있어 方形이니 金德이니, 오덕을 갖춘 명당이라는 것이 그것이다.[52] 이 설은 앞의 진산설과는 달리 진산과 함께 한강이라는 수맥에 대한 인식이 배제 되어 있는 반면에 궁성이 있는 백악을 중심으로 지맥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근거를 『신지비설』에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설은 진산설보다는 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도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궁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백악을 중심으로 한 궁성을 경기지역, 즉 곡성 감악산－파천 관악산－양주 남행산－수주(부평) 북악이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설명으로 보아, 한양의 사산설은 양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두번째의 오덕구설은 양주와 깊은 연관이

51) 이 남행산은 특정한 산이 아니라 산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행산이라는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행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한양과 양주의 지맥으로 갈라지는 축석령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수락산－불암산－천보산－검암산－아차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양의 산줄기와 같이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줄기를 가리킨다고 하겠다.(<도표 5> 참조)

52) 『동국여지비고』(서), 권 2. 국도조.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말하자면 사산설로 설명되는 곳은 고려 때까지 양주의 부치가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의 수도로 내어 준 곳에 대한 설명인 반면에, 양주는 예전의 행정구역의 북쪽 변방으로 옮겨, 불곡산을 진산으로 하는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양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아차산 봉수가 직접 한양의 목멱산 봉수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53] 그런 점에서 오덕구설은 혹시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양주의 지세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잇달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이 높고 낮게 내려 오다가, 빙빙 돌리서 양주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분수령을 기점으로 하여 삼각산까지 이어지는 지맥에 대한 설명은 申景濬(1712~1781)의 『山經表』에 나타나 있는 '漢北正脈'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로 분수령에서부터 시작되어 한양까지 이어지는 지맥을 『산경표』의 '한북정맥'에 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8) 한양과 건원능의 지맥(김정호 『대동여지도』에서)

(도표 9) 한양과 양주의 지맥

(백두대간)분수령

백빙산 ┬ 쌍 령 ─ 전천산 ─ 수우산 ─ 여파산 ─ 오갑산 ─ 충현산 ─ 불정산 ─ 대설산
│ └ 백역산 ─ 경파산(금성)
└ 장일산 ─ 장망산 ─ 신성산 ─ 상 현 ─ 소이산 ─ 보개산 ─ 오봉산 ─ 금장산
└ 진명산
└ 풍천원
└ 을지산 ─ 말응산 ─ 백운산 ─ 만경산
└ 만경산 ─ 봉이산

53) 『신증 동국여지승람』 봉수조.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까지의 지맥은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시작하여 축석현에서 둘로 나뉘어 양주의 불곡산과 수락산으로 갈라져, 한양의 지맥은 불곡산에, 그리고 양주의 지맥은 수락산에 각각 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白頭大幹에서 한북정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인 분수령은 『증보 문헌비고』에 의하면 12개 종산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도표 8)

보아, 분수령은 지맥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4] 그리고 한북정맥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자 宗山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분수령이 속해 있는 '백두대간'은 李重煥(1690~?)의 『擇里志』에 의하면 중국의 곤륜산에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곤륜산의 한 가지가 대사막의 남쪽을 지나, 동쪽에 이르러 靈巫閭山이 되고, 이곳으로부터 크게 끊어지어 요동평야가 된다. 평야를 건너 다시 일어나서 백두산이 되는데, 곧 산해경에서 말하는 불함산이 이것이다. 산정기가 북으로 천리를 뻗치고, 두감을 사이에 끼고 남쪽으로 향한 것이 영고탑이 되고 배후의 일맥이 높이 뻗치어 조선 산맥의 首部가 된다.[55]

말하자면 한국의 지맥은 곤륜산으로부터 시작되어 백두산에 이르러 남북으로 갈리는데, 북은 만주의 지맥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남은 조선 지맥의 근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두산은 조선 지맥의 수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健元陵 神道碑陰記」에 의하면 健元陵의 지세를 "잠백에서 근거하여 2,000여리를 꾸불꾸불 내려와 철령에 이르러 서쪽으로 뻗어 수백리를 내려와 백운산이 되고, 또 남으로 백여리를 내려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검암산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56]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한양과 양

---

54) 『증보 문헌비고』 권지 십구, 여지고 7, 산천조. 여기서 12宗山으로 기록하고 있는 산은 삼각산, 백두산, 원산, 남렴산, 두류산, 분수령,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 지리산이다. 「산정표」에 의하면, 이 가운데에서 백두산은 백두대간의 시발점, 원산은 장백정간의 분기점, 태백산은 낙동정맥의 분기점, 남렴산은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의 분기점, 속리산은 한남금 북정맥의 분기점, 분수령은 한북정맥의 분기점, 지리산은 낙남정맥의 분기점, 태백산은 낙동 정맥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각산은 경도의 진산이기 때문에 각각 종산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밖의 두류산, 금강산, 오대산, 장안산을 종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55) 이중환, 「택리지」(노도양 역, 1983, 명지대출판부)

56) 山之來根於長白 二千餘里 至鐵嶺折而西數百里 停而峙焉 曰白雲 又南 百餘里 北構而面南 即檢巖也

주의 지세는 곤륜산==백두산==장백산==분수량==축석현을 거치기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맥의 인식은 한양과 양주의 지맥은 같다고 하는 인식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축석현에서 2개로 갈라지는 산 가운데 하나인 불곡산 줄기는 도봉 이하 삼각산을 통해서 한양의 지세를, 그리고 다른 하나인 수락산 줄기는 불암산==천보산==검암산==아차산으로 이어져 양주의 지세를 각각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健元陵지』에 의하면 健元陵까지에 이르는 내용, 즉 지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수락산으로부터 왼쪽으로 남행하여 불암산이 되고, 불암산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강릉과 태능을 조성하였다. 이 강릉의 청룡이 남쪽으로 뻗어 된 것이 사현이다. 이곳을 조금 지나 솟아 오른 것이 검암산인데, 검암산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져 능뒤에 이르러 머리를 이루고 있다. 그 머리는 감방향으로부터 들어 와 검암산을 주산으로 하고 있다. 능으로부터 약 삼리 떨어져 있다.[57]

또한 『목릉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수락산에서 남쪽으로 내려 오다가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德墓(선조의 사친인 덕흥대원군의 묘)를 만들고, 또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 가다가 크게 끊어졌다가 특별히 떨어나 하나의 돌봉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불암산이다. 또 다시 일어나 서쪽으로 떨어지는 곳의 서쪽에 태능을 만들고, 동쪽에 강릉을 만들었다. 그 청룡의 산맥이 꾸불꾸불하게 이어지다가 돌아 크게 끊어진 곳이 사현의 큰 길이 되었다. 또 동남쪽으로는 노원면과 구지면의 사이에 솟아 오른 것이 마당현인데, 이것을 이름하여 검암산이라고 한다. 마당현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바로 健元陵과 현릉이 있는 2개의 강이 되고, 목릉이 있는 3강이 되었으며, 이어서 휘릉의 강이 되었다. 마당현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곳에 구목릉(경릉), 구영릉(원릉), 그리고 숭릉과 신해릉을 만

57) 來龍 自水落山左落南行爲佛巖山 自佛巖左落爲康泰陵 自康陵青龍南轉爲沙峴 過陵突起爲曾巖山 自曾巖左落至陵後起穩處 入首曾巖爲主山 自陵所 西北距三里許

들었다.[58]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수락산에서 健元陵까지의 지세에는 그 밖에도 덕흥대원군묘, 태릉, 강릉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양주에 있는 릉·원·묘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는 편의상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따랐다.

〈도표 10〉 양주에 있는 능 일람

능호	묘호,시호	위 치	조성년대	비 고
貞陵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	양주 사하리. 정도 해화문밖	1409년(태종 9)에 천장	1397년(태조6) 도성내 황화방에 초장
思陵	단종비 정순왕후	진접면 굴장리	1521년(중종 16)	1698년(숙종24) 봉릉
光陵	세조비 정희왕후	주엽산 퇴동면 지동	1468년(예종 즉위) 1483년(성종 14)	
溫陵	중종비 단경왕후	장흥면 서산 수회동	1557년(명종 12)	1750년(영조15) 봉릉
泰陵	중종계비 문정왕후	노원면	1565년(명종 20)	
康陵	명종비 인순왕후	노원면 태능 동강	1567년(명종 22) 1575년(선조 8)	
懿陵	정종계비 선의왕후	원장산	1724년(영조 즉위) 1730년(영조 6)	
洪陵	고종비 명성왕후	미금면 금곡리	1919년 1919년 천장	1895년(고종22)초장
裕陵	순종비 순명왕후 순정왕후	미금면 금곡리	1926년 1926년 천장	1905년(광무9)초장 양주 용마산

58) 水落山南行左落爲德幕(卽大王私親德興大院君之墓 距本陵十里餘) 又起伏而南行 大斷而特起一石 峰 是爲佛岩山 又起伏而左落 西爲泰陵 東爲康陵 青龍山 自轉回大斷爲芬峴大路 又東南 玉蓋旗鼓皆兩面之間 突起爲馬堂峴 名曰俗離山 〔西距王京二十五里 北距楊州治五十五里〕 自峴而 左落則爲健元陵 顯陵二岡 及本陵三岡 及敬陵 自峴而右落則爲舊穆陵 舊寧陵 及崇陵 新恩陵

이 가운데에서 홍릉과 유릉은 황제의 산릉으로서 논외를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광릉, 사릉, 태릉, 강릉은 健元陵과 같은 산줄기에 조성되어 있으나, 그 밖의 정릉, 온릉, 희릉은 산줄기를 달리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희릉은 운악을 지나 금척에서 불곡산 줄기와 갈라져 남으로 내려 와 이루어진 천장산 아래에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릉과 온릉은 도봉에서 갈라져 온 곳에 각각 동과 서로 나뉘어져 조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온릉의 위치는 동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추존왕능을 합한 50개의 능 가운데에서 서쪽에 있는 온릉을 제외하면, 東九陵을 포함하여 모두 17개가 동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전체 능의 1/3을 넘는 수에 달하며, 이 가운데에서 함경도에 있는 태조의 4대조까지의 능, 즉 北道八陵 8개를 제외하면 40%가 넘는 능이 동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원을 살펴 보겠다.

(도표 11) 양주에 있는 원 일람

능호	묘호·시호	위 치	조성년대	비 고
순강원	원종사친 인빈 김씨	검동면 풍양	1613년(광해 5) 승하	
소녕원	영조사친 숙빈 최씨	고령산 백석면	1718년(숙종 44) 승하	
휘경원	순조사친 수빈 박씨	달마동	1822년(순조 22) 승하 1863년(철종14) 천장	배봉 초장
영 원	영친왕 이은	미금면 금곡리		
숭인원	영친왕 장자	청량리		

원의 경우는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5개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의 원의 수는 1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1/3을 넘고 있다.

다음에는 묘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도표 12) 양주에 있는 묘일람

능호	묘호시호	위 치	조성년대	비 고
덕릉대원군묘	선조 황고 황비 정세	수락산 끝야면 (별비폭면)		
흥선대원군묘	고종의 황고			
의소묘 원빈묘	의소대자	서십리면 동십리면		
화숙옹주묘		끝야면		
정순옹주묘		묵은면		
영용대군묘				
해경옹주묘				
임영대군묘		장흥면		
숙선옹주묘				
혼빈묘		백석면		
정빈묘				
인성군묘				
홍숙의묘				
효순공주묘				
시신공주묘		신월면		
정순옹주묘				
의녕공주묘				

정희공주묘				
능원대군묘				
숙신옹주묘				
화협옹주묘				
융성대군묘		점동면		
복성군묘		점동면		
신성군묘		점동면		
연산주묘	연산군	해동면 해동촌	1506년(중종 1년) 승하 중종7년 천장	광화군 초장
신씨묘	연산군 폐비	천장산 남지 회묘 국내	1512년(중종 7) 승하	
성묘	선조후궁 공빈 김씨 (광해군 사친)	군장리		1613년 (광해5)봉릉 1623년 (인조1)강묘
광해주묘	광해군	군장리	1641년(인조 19) 승하 1643년(인조21)천장	세주 초장
뫼빈묘	성종빈 김씨	구리면		
경빈묘	명종빈 이씨	진접면		
안빈묘	효종 후궁	진건면		
영빈묘	숙종빈 김씨	진접면		
귀인 김씨묘	숙종 후궁	구리면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한성부의 동쪽에는 왕가의 묘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릉이나 원 이외에도 이곳이 왕가의 묘지로서도 상

담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조선시대의 왕가의 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묘들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밝힐 수는 없지만, 참고로 이곳 이외에 묘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역을 검토하므로써, 그 의미의 개략이나마 밝혀 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산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北道八陵'을 제외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개릉·파주·양주·고양·김포·광주·여주·화성·영월 등의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개릉의 후릉, 여주의 영릉과 영릉, 그리고 영월의 장릉을 제외하면 한양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안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반경 40km 안에 장릉·융릉·건릉의 3개가, 반경 30km 안에 공릉·순릉·영릉·장릉·광릉·사릉의 6개가, 반경 20km 안에 東九陵·서삼릉·헌릉·인릉·대릉·강릉의 16개가, 그리고 반경 10km 안에 정릉·서오릉·의릉·선릉·정릉의 9개가 각각 위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59]

이들 지역 가운데에서 양주지역을 제외하고 릉·원·묘가 비교적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한성부 서쪽의 고양지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는 서삼능이나 서오능과 같이 동쪽 양주지역의 東九陵과 비교될 수 있는 집단 능지역이 있으며, 그밖에도 왕가의 가족이나 친척을 모신 원이나 묘가 또한 함께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양주와는 달리 서오릉과 서삼릉과 같은 집단 능지에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표 36개가 능과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고양지역에서만이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한성부 서쪽은 주로 능보다는 왕실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묘지로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위에서 밝힌 『산경표』에 의하여 고양지역의 지맥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

59) 김영빈, 1988.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상)」 (『한국전통문화 연구 4집』 효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3〉 고양의 지맥

축석현=불곡산=홍복산=도봉=삼각산=노고산=여현=건달산=고봉산=장영산=(파주)
(양주) (양주) (양주) (고양) (고양)
└ 문수산－백악－응봉－인왕산=====(생략)
├ 석굴현－천장산(양주)
└ 박석현－앵 봉－효경봉(고양)
(고양) (고양)
├ 해 현==차 현==설마산==감악(적성)
└ 일영봉==고령산==상운산
├ 쌍불산=월롱산(파주)=모두산(교하)
└ 혜음령=장령산(고양)=원곡령(파주)=
=봉화현(파주)
└ 수락산==불암산==천보산==검암산==아차산
(양주) (양주) (양주) (양주) (양주)

위의 지맥에서 보듯이, 고양의 지맥은 크게 3종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2지맥은 도봉산 줄기에서, 다른 하나는 일영봉 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도봉에서 나온 줄기는 삼각산==노고산==여현==건달산==고봉산으로 이어지는 지맥과 삼각산==문수산==박석현==앵봉==효경봉으로 이어지는 지맥으로 구분되며, 다른 하나는 홍복산에서 갈린 일영봉==고령산==혜음령==장령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이다.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의 장령산 지맥의 끝에 음치를 두고 있으며, 앵봉 줄기에 서오릉, 건달산 지맥에 서삼능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서삼능과 서오릉은 모두 삼각산 줄기에서 갈라진 곳에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양주지역의 지맥이 한양의 지맥과는 비교적 일찍 분기하여 수락산을 이루어 독립적인 지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의 지맥은 도봉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지맥에서 갈라 진 것이라는 지맥근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주지역이 주로 삼

정적인 권력자로서의 왕과 왕비의 능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서쪽은 주로 능보다는 왕실의 가족과 친족을 모시는 묘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성부 동쪽과 서쪽은 지맥의 성격에 따라 그 이용방법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왕궁에 이르는 지맥에서 갈라진 한성부 서쪽의 갈래는 일종의 왕궁지맥의 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와는 달리 왕궁에 이르는 지맥과 일찍기 분기되었으면서도, 한양에 이르는 지맥과 같이 남쪽으로 뻗은 동쪽의 별맥적인 지맥, 즉 양주의 남행산 줄기에는 상당히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성부 서쪽의 능원묘의 의미와 東九陵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능원묘의 의미는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경도의 지형적 특색과 함께 또한 백악을 주산으로 한 경복궁 이외에 또다시 응봉을 주산으로 하여 창덕궁을 건립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도의 지형적 특색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백호인 인왕산이 높고 좌청룡인 낙타산이 낮기 때문에,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므로 장자가 가멸게 되고 지자가 중하게 된다."[60]는 풍수설에 있다. 말하자면 서북쪽의 인왕산과 모악산이 높고 동북·동쪽의 낙타산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풍수론적 해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쪽의 독립적인 東九陵의 산줄기를 중요시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마찬가지의 이유로서 창덕궁도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최소한도 조선시대의 능지선택은 단순한 혈에 대한 풍수지리적 해석보다는 우선 왕궁이 있는 지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또한 조선시대에 왕궁과 릉의 운명은 같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왕궁터와 능터도 선

60) 주 40) 참조.

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갖는 양주지역에 건원능을 조영한 것은 왕실의 지할지로서의 경기지역을 확립하기 위한 배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풍수지리적인 보완지역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기지역일망정 상당한 정도의 경제권을 왕실에서 직할하기 위한 방안이나 전략의 하나로서 동구릉이 있는 양주지역을 선택했을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는 앞으로 양주지역의 행정적 위상이나 경기지역에 있었던 왕실직할지의 내용과 크기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뒤에야 제대로 밝혀지겠지만, 양주지역의 행정구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양주지역은 한양부를 포함하고 있던 넓은 지역으로서, 태조 때에는 '知楊州使'로 강등했다가, '府'로 승격했으며, 태종 때에는 '都護府'로, 그리고 세조 때에는 '牧'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산군 때에는 그 땅을 모두 사냥터로 만들고 있기도 하였던 것이다.[61]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구릉이 있던 양주지역과 경기지역의 성격은 앞으로 다른 내용, 즉 경제적 조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고려시대의 경기지역은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왕릉이 있었던 상징적, 의례적인 곳으로서, 왕의 직할지였었다. 따라서 당시의 경기지역의 경제권은 왕에게 예속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엽에 왕권의 약화를 위한 신진 유학자들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은 일반 행정구역으로 변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왕조가 건국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

61)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11. 양주목 건치연혁 참조.

그러한 상황은 조선왕조의 출발이 엄밀한 의미에서 왕이 실권을 갖는 '王權國家'라기 보다는 주자학적인 이념에 따른 '士林國家'였을 가능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지역은 대종에 의해 태조 건원릉의 조영을 통해서 강한 왕권의 직할지역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경기지역, 특히 양주지역에서의 왕실직할지, 즉 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건원릉의 조영은 양주지역, 더 나아가서는 경기지역의 행정적·경제적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기지역이 왕릉의 조영과 함께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仁祖大王實錄에 나타난 南漢山城의 位相 硏究

全 寶 三
(新丘專門大學 敎授)

〔目 次〕

Ⅰ. 머 리 말
Ⅱ. 仁祖大王實錄과 南漢山城
Ⅲ. 仁祖大王實錄 중 南漢山城 관련 記事의 特性
1.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
2. 丙子胡亂時 南漢山城
3. 丙子胡亂 이후의 南漢山城
4. 기 타
Ⅳ. 맺 는 말

Ⅰ. 머리말

남한산성의 연구에 있어서 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자료 중 조선왕조실록 만큼 그 비중이 큰 자료는 없다. 특히 선조대왕실록으로 부터 철종에 이르기 까지 약 350년간 남한산성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 자료로서 이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의 역사 속에서 남한산성의 축성과 수성을 위한 노력과 그 이후 산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외적인 역할 관계를 다시 조명함으로써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민족역사의 새로운 위상을 탐구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정신에서 산성의 호국정신과 성비정신을 조명하며 민족정신의 도량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소홀히 되어 왔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에 본 논고는 조선의 역대 임금 중 남한산성을 직접 쌓고 또 자신이 몸진하며 47일간 산성에 머물며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대왕시 남한산성의 기록을 일별하기 위하여 인조실록에 주안점을 두어 인조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그 중에서 특히 남한산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인조실록은 가장 비중이 큰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다. 인조실록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국난극복의 산 현지가 서려 있는 귀중한 역사기록물이다. 그러므로 인조대왕실록과 남한산성과의 관계를 밝혀 남한산성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Ⅱ. 인조대왕실록과 남한산성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이 실록은 1,893권 888책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필사본 및 인쇄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실록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춘추관시정기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들이 각각 작성해둔 사초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그러나 후세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 또한 중요자료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 만한 자료는 각 사관의 사초다. 실록 편찬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는데, 첫째 단계는 1, 2, 3의 각방에서 춘추관시정기 등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하여 초초를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를 작성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제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작성된 인조실록은 조선 제16대왕인 인조 재위 26년 2개월간의 사실을 적은 기록이다. 50권 50책으로 이루어졌으며 21책의 국역본이 있다. 원명은 인조대왕실록(仁祖大王實錄)이다. 조선왕조의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하여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인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1650년(효종 1) 8월 1일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라는 왕명에 따라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에 착수하여 1653년 6월에 완성하였다. 편찬에 관여한 전후의 실록청 총재관(摠裁官)과 도청당상, 낭청 및 각방(各房) 당상, 낭청으로 편성되어 있다. 인조는 세조, 중종과 같이 전왕을 폐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년법인 유년 칭원법(隆年稱元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위년 칭원법(踰元法)을 사용하였다. 이 실록은 인조가 재위한 1623년(인조대왕 1년) 3월 13일 부터 1649년 5월 8일 까지 26년 2개월간에 있었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연월일순에 의하여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집권에 따라 정계가 재편되고 국가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반후금정책을 취한 결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격동기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인조대의 사실(史實)은 물론,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자료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인조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를 위하여 논자는 인조대왕과 남한산성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먼저 인조대왕을 살펴보자.

인조대왕의 재위기간은 1623년 3월 13일에서 1649년 5월 8일 까지 26년 2개월간이었다. 인조대왕은 전왕을 폐하고 즉위한 관계로 반정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에 있어서는 도감대장 이수일을 내응의 공이 있다 하여 공조판서로 임명한 데 비하여, 이괄은 2등에 녹공하여 한성판윤, 이어 도원수 장만 휘하의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임명하자 이괄은 이에 불만을 품고 1624년(인조2)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세가 자못 강하여 서울이 점령되자, 인조는 공주까지 남천하였다가,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하여 격파된 뒤 환도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명나라, 금나라와의 관계를 병존시키는 중립정책을 써왔으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을 잡은 뒤 금나라에 대한 태도가 일변하여 친명배금정책으로 바꾸었다. 이에 1627년 후금이 군사 3만여명으로 침략하여 의주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평산까지 쳐들어오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최명길의 강화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회맹,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1636년 12월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나라의 제의를 거부하자, 10만여군으로 다시 침입하였다. 홍한속에 설풍같이 쳐들어온 청군을 막지 못하고, 봉림대군, 인평대군과 비빈을 강도로 보낸 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물러가 항거하였다. 그때 척화파, 주화파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주화파의 힘에 따라 성을 나와 삼

전도(지금의 송파)에서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 봉림대군을 볼모로 하자는 청나라 측의 요구를 수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청나라 태종은 두 왕자와 척화론자인 삼학사, 즉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데리고 철병하고 조정은 환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민족의 자존을 지켰던 곳이 남한산성이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민족역사의 새로운 정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요 민족의 도량이었다. 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에 주장성(일명 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로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믿어져 내려온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일장산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둘레가 3,993보이고, 성내에는 군자고가 있고 우물이 7개인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또한 성내에 논과 밭이 124결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본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대왕 2)이다. 인조대왕은 총융사 이서에게 축성할 것을 명하여 2년 뒤에 둘레 6,297보, 여장 1,897개, 옹성 3개, 성랑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우물 80개, 샘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읍의 치소를 산성내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각성을 도총섭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을 동원하였고, 승군의 사역과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망월사와 옥정사를 위시하여 새롭게 장경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흥국사, 동림사, 개원사)이 건립되었으나 장경사만이 명맥을 유지하더니 망월사, 국청사, 개원사가 차례로 복원되었다. 그 뒤 순조 때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시설이 정비되어,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1894년 산성 수번제의 폐지와 일제의 강점기 민족 정신 말살 정책에 의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민족정신사의 위상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각금의 산성을 찾는 많은 도시민이 있어 시금히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민족정신의 도량으로서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남한산성의 수어는 처음에 총융청이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면서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수어청에는 전, 좌, 중, 우, 후의 5관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은 남장대, 중영장은 북장대, 후영장은 동장대, 우영장은 서장대에 각각 진을 치게되었고, 좌영장은 동장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4장대 가운데 서장대만이 남아 있고 동·남·북의 장대는 주추들만이 남아 그 때의 자취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왕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때 수어사인 이시백은 서성를, 총융대장 이서는 북성, 호위대장 구굉은 남성, 도감대장 신경진은 동성 방어대, 원두표는 북문을 지켰다. 그러나 강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최명길 등 주화파의 주장에 의하여 인조대왕은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송파의 삼전도 수항단으로 나가 청나라의 화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후 인조대왕은 청나라와의 화의를 맺고서도 남한산성을 더욱 견고한 석성으로 수축하면서 그때 그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남다른 남한산성에 관한 애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하나 하나가 인조대왕실록에 확인되고 있다. 216여건의 남한산성의 관련기사 항목에서 남한산성의 중요성과 전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항목의 세부 목차를 새롭게 개발된 서울테스템(주)의 한국학 데이타베이스연구소의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의 내용중 인조실록 중에서 단어검색의 남한산성 | 남한산성의 항목과 사회과학원 출판사가 펴낸 이조실록의 내용중 몇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인조대왕 1년 (1623)〉

1. 인조대왕실록 제3권 (을)10월 16일(임인) / 주강에 (대학)을 강하다. 이귀가 군정에 관하여 아뢰다.
2. 인조대왕실록 제3권 (을)10월 20일(병오) / 비변사가 서쪽 변방, 강화도의 방비 등의 일을 아뢰다.

〈인조대왕 2년 (1624)〉

3. 인조대왕실록 제5권 3월 5일(기미) / 남한산성의 축조와 군량 및 기인의 가포 등에 대해 논의하다.
4. 인조대왕실록 제5권 3월 9일(계해) / 완풍군 이서가 전쟁에 쓰이는 말과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아뢰다.
5. 인조대왕실록 제5권 3월 16일(경오) / 수령의 출처과 장오법 및 남한산성의 축조에 대해 의논하다.
6. 인조대왕실록 제5권 3월 22일(병자) / 주강에서 숙위와 남한산성의 축조 등에 대해 의논하다.
7. 인조대왕실록 제6권 7월 28일(경진) / 특진관 이귀가 호패법의 시행과 남한산성의 축조에 대해 아뢰다.
8. 인조대왕실록 제7권 10월 16일(정유) / 정기의 선발, 군관의 폐단, 남한산성의 축조에 승려를 입역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9. 인조대왕실록 제7권 11월 3일(계축) / 이시발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다.
10. 인조대왕실록 제7권 11월 30일(경진) / 비변사가 축성하는 승려들에게 군향을 받고 도첩을 지급하는 것을 청하다.

〈인조대왕 3년 (1625)〉

11. 인조대왕실록 제8권 1월 22일(신미) / 우의정 신흠이 이귀, 장만, 이광정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다.
12. 인조대왕실록 제8권 2월 14일(계사) / 도체찰사 장만이 이서에게 남한산성의 수축 공사를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다.
13. 인조대왕실록 제8권 2월 18일(정유) / 호조가 승군을 사역하여 은광을 개발하게 할 것을 청하다.
14. 인조대왕실록 제8권 2월 23일(임인) / 장만이 총융사 이서를 남한산성에 보내 형편과 공역을 살피도록 하자고 청하다.

15. 인조대왕실록 제8권 2월 23일(임인) / 남한산성 공사에 승군 동원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
16. 인조대왕실록 제8권 3월 16일(갑자) / 상이 이서에게 남한산성의 역사 상황을 묻고, 시독관 엄성이 비에 관해 아뢰다.
17. 인조대왕실록 제9권 6월 22일(무술) / 간원이 유배 죄인 이광춘 등을 징계하도록 건의하다.
18. 인조대왕실록 제9권 6월 23일(기해) / 남한산성에 행궁을 짓도록 하다.
19. 인조대왕실록 제9권 7월 04일(무술) / 도체찰사 장만 등이 남한산성의 축성 형세 및 공역을 보고하다.
20. 인조대왕실록 제9권 8월 03일(기묘) / 특진관 이서가 군기 삼혈총,조총 등을 만들 것을 건의하다.
21. 인조대왕실록 제9권 8월 03일(기묘) / 선혜청에서 광주의 제해년조 미수천 미곡을 남한산성에 유치하지 말도록 청하다.
22. 인조대왕실록 제9권 8월 05일(신사) / 이서가 남한산성을 수호하고 양식을 저장할 대책을 강구하기를 청한데 대한 조치
23. 인조대왕실록 제9권 8월 16일(임진) / 병조 판서 서성이 서쌍에 부방할 군사의 보충책을 건의하다. 이서가 남한산성에 가서 검찰하기를 청하다.

〈인조대왕 4년 (1626)〉

24. 인조대왕실록 제11권 2월 20일(계사) / 비변사에서 남한산성 완성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건의하다.
25. 인조대왕실록 제13권 (윤)6월 12일(임자) / 대신, 비국,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모문룡의 모반 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다.
26. 인조대왕실록 제13권 7월 22일(임진) / 남한산성이 완공되어 논상하고 양향대책을 마련토록 하다.
27. 인조대왕실록 제14권 8월 13일(임자) / 비변사가 남한산성의 군량 조달책을 아뢰다.
28. 인조대왕실록 제14권 8월 19일(무오) / 주강 후 모문룡의 동태, 호패 어사 발송, 승군의 군량 징수 문제 등을 장만과 논하다.
29. 인조대왕실록 제14권 9월 09일(무인) / 간원이 장단 부사의 국문, 사헌부 관원의 파직, 이일원의 작상 환수 등을 아뢰다.
30. 인조대왕실록 제14권 10월 03일(임인) / 이귀가 대간의 체직, 강화도 군량 확보, 호패법과 군적 정리 등에 대해 아뢰다.
31. 인조대왕실록 제14권 10월 16일(을묘) / 비변사가 심기원을 남한산성 구관 당상 임명하도록 아뢰다.
32. 인조대왕실록 제14권 10월 28일(정묘) / 삼남 도원찰사 심기원이 남한산성의 둔전

설치를 위해 윤조원을 기용하자고 아뢰다.

〈인조대왕 5년 (1627)〉

33.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17일(을유) / 금나라가 침입하자 대책을 논의하다.
34.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17일(을유) / 장만이 군병을 보내줄 것을 청하고 이서가 개성부 등의 군병을 보내도록 아뢰다.
35.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18일(병술) / 대신 등을 인견하고 내전의 강도 대피와 임진강, 남한산성 수비에 대해 논하다.
36.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18일(병술) / 비국이 이서와 최원에게 임진강 수비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아뢰다.
37.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21일(기축) / 능한 산성이 함락되자 분조할 준비를 하다.
38.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24일(임진) / 분조에 대하여 논하고 세자가 떠나다.
39.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25일(계사) / 비국이 정충신을 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군을 강도에서 쓸 것을 청하다.
40. 인조대왕실록 제15권 1월 27일(을미) / 쌀의 운송, 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 논의
41. 인조대왕실록 제15권 2월 03일(경자) / 강 여울의 지키는 곳과 남한산성을 살피 보고하게 하다.
42. 인조대왕실록 제15권 2월 04일(신축) / 강도로 천도하였으니 더욱 분발하여 공을 세우라는 교서를 내리다.
43. 인조대왕실록 제15권 2월 06일(계묘) / 행 호군 정잠적이 남한산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화친의 잘못을 상소하다.
44. 인조대왕실록 제15권 2월 07일(갑진) / 비국 등이 장만, 조기 등을 시켜 임진강을 지키게 하기를 청하다.
45. 인조대왕실록 제17권 9월 24일(경해) / 우찬성 이귀가 안주성과 황주성 수축을 중지할 것과 청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건의하다.
46. 인조대왕실록 제17권 10월 01일(갑오) / 김류가 역모를 진압할 군대를 조발할 방법을 건의하다.

〈인조대왕 6년 (1628)〉

47. 인조대왕실록 제18권 2월 03일(을미) / 비로, 남한산성에 정배되어 있는 도망병들을 방면하다.
48. 인조대왕실록 제18권 3월 04일(을축) / 임지후가 역모를 고변하자 관련인을 국문하다.
49. 인조대왕실록 제19권 9월 27일(갑신) / 이서 등이 군적 및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50. 인조대왕실록 제19권 10월 17일(갑진) / 이서가 경기 내의 속오군의 진휼과 모문룡의 일을 아뢰다.

51. 인조대왕실록 제19권 11월 27일(갑신) / 광주 목사 이시방에게 남한산성 방어사를 겸직하게 하다.

〈인조대왕 8년 (1630)〉

52. 인조대왕실록 제22권 4월 00일(병인) / 산성 공사에 승군 동원 문제를 논하다.

〈인조대왕 9년 (1631)〉

53. 인조대왕실록 제25권 7월 02일(갑술) / 총융사 이서에게 남한산성을 수축한 공으로 노비와 안구마를 내리다.

54. 인조대왕실록 제25권 7월 04일(병자) / 이원익이 돌아가면서 상차하여 적이 물러간 뒤의 일을 아뢰다.

55. 인조대왕실록 제25권 7월 04일(병자) / 이서가 청대하여 안주를 지키는 일과 남한산성의 일을 아뢰다.

56. 인조대왕실록 제25권 7월 00일(기축) / 성과 성가퀴가 견고하고 관청의 건물이 웅장함을 알았다.

57. 인조대왕실록 제25권 9월 18일(기축) / 이귀가 추숭의 일을 논하고, 추숭의 일로 허목을 정거하다.

〈인조대왕 10년 (1632)〉

58. 인조대왕실록 제27권 11월 01일(을미) / 이귀가 북방의 방어책, 남한산성, 호차의 점대 등에 대해 상소하다.

59. 인조대왕실록 제27권 12월 10일(계유) / 이귀가 차자를 올려 남한산성과 강화도에 방어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다.

〈인조대왕 11년 (1633)〉

60. 인조대왕실록 제28권 1월 29일(신유) / 전 병사 문희성을 남한산성 별장으로 삼다.

〈인조대왕 13년 (1635)〉

61. 인조대왕실록 제31권 1월 08일(기미) / 가을에 남한산성 소속의 정기 다섯 고을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하다.

〈인조대왕 14년 (1636)〉

62. 인조대왕실록 제32권 1월 17일(계해) / 남한산성에 지난해 나눠 준 곡식을 갚지 않은 자를 적발하여 벌을 주게 하다.

63. 인조대왕실록 제32권 3월 26일(신미) / 이시백을 남한산성 호위대장에 겸직시키다.

64. 인조대왕실록 제33권 7월 15일(정사) / 수어사 이시백이 경기도 내 및 원주 등 3읍의 군사 체제에 관해 건의하다.

65. 인조대왕실록 제33권 9월 13일(갑인) / 대사간 이식이 정사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글을 올리다.

66.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4일(갑신) / 최명길에게 강화를 청하게 하고 상은 남한산성에 도착, 강도로 가기로 결정하다.

67.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00일(을유) / 임금의 행차가 강화도로 떠나려다 산성으로 도로 들어왔다.
68.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6일(병술)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69.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7일(정해)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0.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8일(무자)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1.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9일(기축)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2.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19일(기축) / 남서로 강도유수, 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빨리 구원하게 하다.
73.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0일(경인)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4.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1일(신묘)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5.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2일(임진)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6.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3일(계사)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7.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4일(갑오)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망궐례를 행하다.
78.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5일(을미)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79.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6일(병신)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80.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7일(정유)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81.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8일(무술)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82.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29일(기해)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83. 인조대왕실록 제33권 12월 30일(경자)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인조대왕 15년 (1637)〉

84.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01일(신축)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85.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02일(임인) / 완풍 부원군 이서의 졸기
86.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05일(을사) / 전라 병사 김준룡이 치계하여 승전 소식을 전하다.
87.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00일(경사) / 상이 남한산성에 있다. 오랑캐 사람이 남한산성의 서문밖에 와서 사신을 불렀다.
88.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22일(임술) / 김수현 등이 결전의 내용의 글을 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89.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22일(임술) / 강화도 함락시,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과 전 우승지 홍명형 등의 졸기
90. 인조대왕실록 제34권 1월 28일(무진) /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의 졸기
91. 인조대왕실록 제34권 2월 16일(병술) / 남한산성 장사들의 전공을 조사하여 자급을 더하여 주다.
92. 인조대왕실록 제34권 2월 20일(경인) / 남한산성에 오거나 오지 않은 수령 등을 비국에게 조사하게 하다.

93. 인조대왕실록 제34권 2월 00일(갑자) / 적들이 남격대의 망월봉 아래에서 포를 쏘았다.
94. 인조대왕실록 제34권 2월 00일(정오) / 오랑캐가 성 밖에 와서 임금이 성에서 나옴 것을 재촉하였다.
95. 인조대왕실록 제34권 2월 29일(기해) / 백성 구휼과 호종한 자의 포상에 대해 대신과 논하다.
96. 인조대왕실록 제34권 3월 07일(병오) / 광주 목사 허휘를 소견하고 백성의 구휼과 조세 면제에 대해 명하다.
97. 인조대왕실록 제34권 3월 00일(경신) / 강화도가 함락되므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다.
98. 인조대왕실록 제34권 3월 26일(을축) / 비국이 김준룡을 사면, 파발군, 산성 수비군의 구휼에 대해 아뢰다.
99. 인조대왕실록 제34권 4월 00일(무자) / 산성 내에 들어간 신하들에게 표창 문제를 논의하다.
100. 인조대왕실록 제34권 (윤)4월 16일(갑인) / 남한산성을 지키고 호종한 장사를 호궤하다.
101. 인조대왕실록 제34권 5월 15일(임오) / 최명길의 국가의 제건 상이 국가를 지키었다는 내용과 문제를 다룬 차자
102. 인조대왕실록 제34권 5월 00일(무진) / 변란 초기 관리들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방황하다.
103. 인조대왕실록 제34권 5월 00일(을유) / 무과시험을 군사들을 위로해 주는 조치로서 시행하다.
104. 인조대왕실록 제34권 5월 28일(을미) / 전 판서 김상헌이 호종한 일로 표창 받자 자신의 죄를 논한 상소문
105. 인조대왕실록 제35권 10월 09일(계묘) / (시권)을 강하다. 윤황 등의 석방과 남한산성의 수축 문제를 논의하다.

〈인조대왕 16년 (1638)〉

106.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01일(을축) / 무수한 운문기가 사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107.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04일(무진) / 호조판서 심열 등을 인견하며 남한산성과 강도에서의 수비에 대해 의논하다.
108.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05일(기사) / 이시백, 구굉, 윤명은, 목첨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09.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07일(신미) / 호조가 남한산성의 군량에 대해 계하다.
110.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12일(병자) / 서우신을 유배지에서 잡아다가 다시 국문하라 명하다.

111.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13일(정축) / 우의정 신경진이 남한산성 증축에 대해 계하다.
112.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15일(기묘) / 충청 감사 정태화가 전사한 군사에 대한 처리를 치계하다.
113.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17일(신사) / 주강을 마치고 각 읍의 원곡과 방답진의 배 등에 대해 논의하다.
114.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25일(기축) / 주강을 마치고 산성에서의 수비에 대해 논의하다.
115. 인조대왕실록 제36권 1월 26일(경인) / 대신과 당상을 인견하여 해구, 남한산성의 수축 등에 대해 논의하다.
116.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05일(기해) / 옥당의 전 영의정 김류, 병조추부사 윤방 등의 죄에 대한 상차
117.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07일(신축) / 비국이 남한산성 축조를 위해 중을 조발할 것을 계하다.
118.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08일(임인) / 장유와 이정석이 지어 청나라에 보낸 삼전도 비문
119.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09일(계묘) / 비국이 군량 운송에 대해 계하다.
120.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10일(갑진) / 심양에서 돌아 온 좌의정 최명길을 인견하다.
121. 인조대왕실록 제36권 2월 21일(을묘) / 신정원과 심연을 석방하고, 신경원을 총융사 중군으로 삼다.
122. 인조대왕실록 제36권 3월 5일(무진) / 동지 이경여가 문경의 어류 산성에 대해 계하다.
123. 인조대왕실록 제36권 3월 26일(기축) / 호조, 병조 판서를 불러 군량의 준비 상황과 피난할 곳을 묻다.
124. 인조대왕실록 제36권 4월 05일(무술) / 비국이 심기원을 환가하다.
125. 인조대왕실록 제36권 4월 08일(신축) / 이홍주와 최명길을 면대하여 남한 산성의 군량에 대해 의논하다.
126. 인조대왕실록 제36권 4월 26일(기미) / 전 현감 윤선도의 공초문
127. 인조대왕실록 제37권 7월 24일(을유) / 진주사 홍보가 심양에서 의주로 돌아와 보낸 한의 사찰 내용
128. 인조대왕실록 제37권 7월 29일(경인) / 장령 박계영과 유석이 김상헌의 논죄에 대해 계하다.
129.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1일(신묘) / 지평 이해창이 김상헌의 논죄에 대해 계하다.

130.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1일(신묘) / 부제학 이목, 응교 홍명일, 수찬 이행우가 김상헌의 일에 대해 계하다.
131.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1일(신묘) / 예조판서 이현영이 김상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132.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1일(신묘) / 대사헌 김영조가 김상헌의 논핵에 대해 상소하다.
133.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1일(신묘) / 우의정 신경진과 조빙에 대해 의논하다.
134.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03일(계사) / 좌의정 최명길이 조정에서 서로 공격하는 일에 대해 계하다.
135. 인조대왕실록 제37권 8월 19일(기유) / 주강을 마치고 조빙에 대해 의논하다.
136. 인조대왕실록 제37권 9월 03일(임술) / 병조참판 이경여가 김상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137. 인조대왕실록 제37권 10월 09일(무술) / 장령 이여익과 지평 이도장이 김상헌의 일에 대해 계하다.
138. 인조대왕실록 제37권 10월 29일(무오) / 대사헌 이행원, 지평 정대제 등이 김상헌과 정온 등의 일에 대해 계하다.
139. 인조대왕실록 제37권 12월 25일(계축) / 간원이 화공의 출입 등에 대해 상차하다.
140. 인조대왕실록 제37권 12월 30일(무오) / 전 예조판서 조익의 단핵을 변론한 병조판서 이시백의 상소문

〈인조대왕 17년 (1639)〉

141. 인조대왕실록 제38권 1월 07일(을축) / 주강을 마치고 세폐에 대해 의논하다.
142. 인조대왕실록 제38권 1월 25일(계미) / 비국이 백성의 굶주림의 구제에 대해 계하다.
143. 인조대왕실록 제38권 1월 28일(병술) / 좌의정 신경진, 우의정 심열, 호조판서 이명을 인견하여 세폐에 대해 의논하다.
144. 인조대왕실록 제38권 2월 02일(경인) / 남한산성에 사당을 세워 '백제 시조왕'이란 위판을 만들게 하다.
145. 인조대왕실록 제38권 2월 06일(갑오) / 심양의 세신 신확연, 박로 등이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에 대해 밀제하다.
146. 인조대왕실록 제38권 2월 07일(을미) / 정뇌경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147. 인조대왕실록 제38권 4월 04일(신묘) / 호조가 군관 역수 줄이기를 청하다.
148. 인조대왕실록 제38권 5월 14일(경오) / 충훈부가 거의한 사람과 남한산성에 호종한 사람 중 벼슬 없는 자 뽑기를 청하다.
149. 인조대왕실록 제38권 5월 15일(신미) / 옥당이 다섯 가지 조목으로 임금의 처신에 대해 상차하다.

150. 인조대왕실록 제38권 5월 19일(을해) / 대사간 이경의가 임금의 처신에 대해 상소하다.
151. 인조대왕실록 제38권 6월 00일(신해) / 삼전도 비문을 써서다.
152. 인조대왕실록 제39권 7월 14일(기사) / 청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비국 당상과 논의하다.
153. 인조대왕실록 제38권 7월 00일(정사) / 산성에서 나와 조회하러 들어가다.
154. 인조대왕실록 제39권 9월 05일(기미) / 간원이 김자점, 심기원 등의 방류를 철회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155. 인조대왕실록 제39권 12월 00일(정해) / 삼전도 비를 세우고 관리에게 상을 주었다.
156. 인조대왕실록 제39권 12월 06일(무자) / 개축한 남한산성을 허물라고 척사가 명하다.
157. 인조대왕실록 제39권 12월 09일(신묘) / 도망온 자 및 귀화인을 쇄환하는 일과 남한산성을 허무는 일에 관해 승지 구봉서 등이 청나라 사신에게 말하다.
158. 인조대왕실록 제39권 12월 09일(신묘) / 청나라 사신이 출발하다.
159. 인조대왕실록 제39권 12월 10일(임진) / 남한산성을 헐게하다.

〈인조대왕 18년 (1640)〉

160. 인조대왕실록 제40권 1월 17일(기사) / 용골대 등이 세자의 귀근을 허락하고 대신 원손을 보내게 했다고 심양의 재신들이 치계하다.
161. 인조대왕실록 제40권 1월 18일(경오) / 청나라에서 대군과 함께 원손을 보내라는 척서가 오다.
162. 인조대왕실록 제40권 (윤)1월 27일(기유) / 청나라에서 대적할 일에 관한 좌강 조한영의 상소
163. 인조대왕실록 제40권 2월 10일(신유) / 신하를 자주 인견하라는 간원의 차자
164. 인조대왕실록 제40권 2월 27일(무인) / 폐가 계속 난과되어 심양에 통보하게 하다.
165. 인조대왕실록 제40권 3월 01일(임오) / 산성 축조, 민력, 군영 등에 관한 이조판서 이식의 상소
166. 인조대왕실록 제40권 3월 25일(병오) / 청나라에서 원군에 관한 척서가 오다.
167. 인조대왕실록 제40권 4월 08일(기미) / 심기원을 남한산성 수어사로 삼다.
168. 인조대왕실록 제40권 5월 00일(계유) / 용교 조석윤 등이 차자를 올렸다.
169. 인조대왕실록 제40권 5월 09일(기축) / 청나라에 대적할 일에 관한 사간 조경의 10조 상소.
170. 인조대왕실록 제41권 9월 04일(임오) / 장오죄를 범한 관도를 파직하다.
171.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0월 15일(임술) / 용골대가 최근 일에 책임을 묻는다는 심양의 재신들의 치계.
172.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0월 24일(신미) / 용골대가 영의정, 도승지, 이조판서, 박황

등을 소환한 것에 대해 대책을 논하다.

173.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0월 25일(임신) / 정명수의 말에 대한 평안 감사 정대화의 치죄.

174.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0월 29일(병자) /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 칙서를 전하다.

175.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1월 00일(갑신) / 남한산성에서의 조약을 실행하라고 용골대가 말하다.

176.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1월 00일(을유) / 홍서봉 등이 급보를 올렸다.

177. 인조대왕실록 제41권 12월 27일(계유) / 정뢰경, 이원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일원, 문희성에게 가자하다.

〈인조대왕 19년 (1641)〉

178. 인조대왕실록 제42권 1월 02일(무인) / 왕이 세환의 일에 관해 팔도에 하교하여 유시하다.

179. 인조대왕실록 제42권 4월 16일(신유) / 죄수들을 심리하다.

180. 인조대왕실록 제42권 5월 04일(무인) / 가뭄에 대처해 억울한 옥사를 살피는 것에 대해 대사헌 이경석 등이 차자를 올리다.

181. 인조대왕실록 제42권 5월 10일(갑신) / 전라 감사 정세규를 인견하다.

182. 인조대왕실록 제42권 6월 21일(을축) / 전 이조참판 정온의 졸기.

〈인조대왕 20년 (1642)〉

183. 인조대왕실록 제43권 11월 03일(기사) / 능성 부우 가군 구재의 졸기.

〈인조대왕 22년 (1644)〉

184. 인조대왕실록 제45권 1월 09일(무술) /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여 나태하지 말 것에 관한 지평 하진의 상소문.

185. 인조대왕실록 제45권 2월 03일(임술) / 영중추부사 이성구의 졸기.

186. 인조대왕실록 제45권 7월 24일(기유) / 한형길, 심희세, 오정일, 유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87. 인조대왕실록 제45권 8월 18일(계유) / 역적을 토벌할 때의 공로로 김육, 이시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88. 인조대왕실록 제45권 10월 23일(정축) / 대신 및 비국 당상 등을 인견하여 인재 등용 방법 등에 대해 논하다.

〈인조대왕 23년 (1645)〉

189. 인조대왕실록 제46권 2월 23일(병자) / 전 영의정 최명길, 영중추부사 이경여, 전 판서 김상헌이 심양에서 돌아오다.

190. 인조대왕실록 제46권 4월 26일(무인) / 왕세자의 졸기.

191. 인조대왕실록 제46권 5월 28일(기유) / 이조판의 조석윤이 상소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직언하다.

192. 인조대왕실록 제46권 6월 10일(신유) / 대제학 이식이 지은 지문의 내용.
193. 인조대왕실록 제46권 6월 20일(신미) / 간원이 쌀을 반출하여 경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다.
194. 인조대왕실록 제46권 (윤)6월 02일(임오) / 정부의 당상, 육경 등을 인견하여 후사를 바꿀 일을 의논하다.
195. 인조대왕실록 제46권 8월 25일(갑진) / 대신 등을 인견하고 청나라에 쌀 운반하던 중 일어난 사건 등을 논하다.
196. 인조대왕실록 제46권 9월 21일(기사) / 수어사가 남한산성의 지급미에 대해서 3분의 1만을 질수할 것을 청하다.
197. 인조대왕실록 제46권 12월 11일(기축) / 이규로를 지평으로 삼고 특별으로 정제룡을 곤양 군수로 삼았다.

〈인조대왕 24년 (1646)〉

198. 인조대왕실록 제47권 4월 02일(무인) / 비국이 남한산성에 아병을 배속시켜 변란에 대비할 것을 청하다.
199. 인조대왕실록 제47권 4월 02일(무인) / 남한산성의 미곡과 강화의 미곡을 이시백의 군대에 운송하다.
200. 인조대왕실록 제47권 4월 05일(신사) / 남한산성의 파수군을 파하다.

〈인조대왕 25년 (1647)〉

201. 인조대왕실록 제48권 4월 06일(정축) / 수어사 이시방이 남한산성의 백성이 유망하는 이유를 아뢰고 금단을 청하다.
202. 인조대왕실록 제48권 4월 21일(임진) / 경기 감사 오준이 강도에 옮겨 놓은 쌀을 방출할 것을 치계하다.
203. 인조대왕실록 제48권 5월 17일(정사) / 완성 부원군 최명길의 졸기.
204. 인조대왕실록 제48권 7월 13일(임자) / 충청도, 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경기의 수재가 가장 심하다.
205. 인조대왕실록 제48권 7월 27일(병인) / 강도와 남한산성의 쌀 1천 석을 내어 경기 고을을 진대하다.
206. 인조대왕실록 제48권 11월 10일(병오) / 감주 50부를 남한산성에, 20부를 강도에 수송시키고 조보에는 내지 않다.

〈인조대왕 26년 (1648)〉

207. 인조대왕실록 제49권 1월 25일(신유) / 간원이 춘궁기에 오는 죄사에 대한 대책과 영변 부사 정처의 체차를 건의하다.
208. 인조대왕실록 제49권 3월 25일(경신) / 강도와 남한산성의 미곡을 방출, 경기의 기민을 구제하다.
209. 인조대왕실록 제49권 (윤)3월 07일(임신) / 남한산성의 쌀을 방출하여 역부들을

고용하여 성첩을 수축하다.

210. 인조대왕실록 제49권 (윤)3월 20일(을유) / 남선, 김홍, 유황, 심지원 등이 상의 부덕함과 정무 소홀에 대하여 간하다.

211. 인조대왕실록 제49권 5월 27일(신묘) / 우의정 남이웅이 상의 국정 소홀과 과오에 대해 차자 올리다.

212. 인조대왕실록 제49권 7월 18일(신사) / 이번 파거에 참방된 훈련도감 포수들의 행실이 나빠서, 식자들이 우려하다.

213. 인조대왕실록 제49권 7월 22일(을유) / 대사헌 조경 등이 찾은 재변과 상의 국정 소홀 등에 관하여 상소하다.

214. 인조대왕실록 제49권 11월 19일(기묘) / 전 광주 부윤 이해를 금부에 내리다.

(인조대왕 27년 (1649))

215. 인조대왕실록 제50권 부록 / 인조대왕 행장(行狀)

216. 인조대왕실록 제50권 부록 / 인조대왕 묘지문[誌文]

이상의 인조대왕 실록에서 남한산성 관련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및 병자호란시의 남한산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의 남산산성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상 속에서 존재하였는 지를 다음장에서 살펴보자.

Ⅲ. 인조대왕실록중 남한산성 관련 기사의 특성

본 논고의 제2장에서 인조대왕 실록과 남한산성과의 관련기사를 서울시스템(주)의 한국학 데이타베이스연구소의 CD-ROM의 자료 정권 항목을 요약 정리한 내용과 국역 이조실록의 몇 항목을 추가하여 남한산성 관련기사를 종합 확인하였다.

이 전체의 기사를 다시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의 논리와 병자호란시의 남한산성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 그리고 기타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조 재위 기간인 1923년 3월 13일 부터 1649년 5월 8일 까지인 26년 2개월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 첫번째가 인조대왕의 즉위년 부터 병자호란이 있기 전까지의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의 논리를 살펴보고, 두번째가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의 47일간의 항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번째가 병자호란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마지막 기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003은 실록의 권수 다음의 01은 재위년 /10은 월 #은 음력의 경우요 16은 일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임인)은 간지를 말한다.

1.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

《인조 003 01/10#16(임인) / 이귀가 남한산성의 형세에 관하여 아뢰다》

이귀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역시 미리 수축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보수(保守)할 수 있는 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격자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임회(林檜)는 재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회에게 모두 맡아준다면 명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회의 인품이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인가? 산성의 형세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도성을 꼭 버리지 않더라도 이 성을 함께 수리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하였다.

《인조 003 01/10#20(병오) / 비변사가 서북 변방·강화도의 방비 등의 일을 아뢰다》

남한 산성을 수축하는 일은 뒷날을 기다려 직접 가서 살펴본 다음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중로는 심력을 다하여 국사를 돌본 사람이므로 가벼이 체직시켜서는 안 된다. 이흥립은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도성에 두는 것이 좋겠다. 체찰사는 아직 차출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005 02/03/05(기미) / 남한 산성의 축조와 군량 및 기인의 가포 등에 대해 논의하다》

강도(江都)의 보장(保障)에 관한 대책은 이성구(李聖求)에게 전임시켰으나, 강도는 한 구석진 곳이므로 온 나라를 호령하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사변이 있을 경우 원자(元子)는 남한 산성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으면서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산성은 쉽게 축조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제 이서(李曙)를 광주로 정하여 성을 쌓는 일을 전담시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죽기 전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부체찰사(副體察使)와 처리하고 싶으니, 오늘 계책을 정하기 바랍니다." 하고, 좌상 윤방이 아뢰기를, "신이 경기 감사로 있을 때 강도의 보장과 남한 산성이 동서에서 서로 응하여 급할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강추어 강계하였으나 말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우상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큰 계책입니다. 옛날 백제(百濟)의 임금도 이 성에 있었으니 이제 수선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백성을 괴롭히고 대중을 동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류는 아뢰기를, "대중을 동원시키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먼저 그 공정(功程)을 헤아린 뒤에야 미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찬성 장만(張晩)은 아뢰기를, "영상의 생각은 도망했던 포수(砲手)들에게 속죄하는 것으로 성을 쌓게 하려 하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대개 포수들은 본시 놀고 먹는 사람인데 성을 쌓는 일을 전담시키면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이고, 또 큰 일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형편상 백성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랑캐를 피하는 방책은 강도를 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두 곳에 모두 일을 일으키면 힘이 나뉘어 쉽게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심열(沈悅)은 아뢰기를, "성을 쌓는 일은 매우 크므로 백성을 번거롭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을 쌓게 한다는 명령을 들으면 민심이 반드시 번

게 놀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서가 나가서 살펴보려 하는데 쉽지 그 공역을 해야될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하며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은 전에 경기 감사였으므로 남한의 형세를 잘 아는데, 그곳에 대가(大駕)가 멈추려면 영조(營造)하고 수선해야 할 일이 많을 뿐더러 공역이 커서 쉽게 성취하지 못할 형세이므로 산성의 일은 결코 할 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어 가보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조 005 02/03/09(계해) / 완풍군 이서가 전쟁에 쓰이는 말과 남한 산성의 형세에 대해 아뢰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의 형세가 어떠한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면의 둘레가 2천 3백 칸이고, 성안의 논은 10여 석의 곡식을 파종할 만한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은 반이 넘습니다. 남북은 가깝고 동서는 먼데 동서를 남북에 견주면 3,4배가 됩니다. 사면이 모두 높은 산과 험한 봉우리인데 성밖에는 들여다볼 만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는 좋으나, 어떻게 성을 쌓겠는가?"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3천 석의 쌀로 일꾼을 사고, 쌀을 주어야 할 포수(砲手)들을 아울러 쓰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의 말은, 도감(都監)의 포수는 본디 놀고 먹는 사람이므로 멸주기 위해 부방시키는 것은 괜찮으나 부역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인조 005 02/03/16(경오) / 수령의 출척과 장오법 및 남한 산성의 축조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또 묻기를, "남한(南漢)의 성을 쌓는 일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범받을 군사들을 아주 풀어줄 수는 없으니 성을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한에 성을 쌓고 나면 강도(江都)와 기각의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남한산에 있어서는 임시로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지키더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윤방은 아뢰기를, "거우 큰 변란을 겪었으므로 백성을 움직일 수 없으나, 형세로 말하면 강화·남한에 조치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고, 김상용은 아뢰기를, "남한은 형세가 매우 좋아서 만도시 훗날 급할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란을 이제 막 겪었으므로 인심과 물력이 성을 쌓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천천히 인심이 안정되고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시발(李時發)은 아뢰기를, "남한에 성을 쌓는 것이 매우 좋으나 쉽게 성취할 수 없을 듯합니다. 힘이 나뉘어져 강화도 조치하지 못하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남한은 지금 쌓을 수 없더라도 감사에게 복사를 겸임시켜 광주(廣州)에 유진(留鎭)하여서 날마다 점점 쌓게 하면 조금이라도 추진되어 공을 이루기 쉬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피차 미치지 못한다면 강화를 먼저하고 남한을 뒤에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각의 형세가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꺼번에 시작하기는 어려우니, 산성(山城)은 내년에 쌓고 지금은 우선 강화에 전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인조 005 02/03/22(병자) / 주강에서 숙위와 남한 산성의 축조 등에 대해 의논하다》

정엽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을 금년에 쌓지 못하더라도 수선하여 보장(保障)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기원(沈器遠)은 제주와 국량이 있으니, 이 사람을 원수 겸 광주 목사(元帥兼廣州牧使)로 삼고 그로 하여금 판관(判官)을 스스로 뽑게 하여 성을 쌓는 기계를 미리 마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심기원이 아뢰기를, "신은 고질병이 있는데다가 제주와 국량도 없으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정엽의 말은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런 뜻이 있으나, 금년에는 성을 쌓을 수 없을 것 하므로 우선 늦추었다." 하였다.

《인조 006 02/07/28(경진) / 특진관 이귀가 호패법의 시행과 남한 산성의 축조에 대해 아뢰다》

이귀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쌓는 일은 나라의 큰 계책인데 심기원(沈器遠)이 아비의 상을 당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맡아 성취하게 하고 부사(副使)를 더 차출하여 요리하게 하면 자연히 성취되리라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를 빨리 차출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007 02/10/16(정유) / 경기의 선발, 군관의 폐단, 남한 산성 축조에 승려를 입역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대사간 최현의 말인데 남한 산성을 쌓는 것이야말로 현재 나라의 대역사인데, 승려를 관군(官軍)과 함께 입역(立役)케 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 합니다. 요즈음 들건대 승려에게 총섭(摠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 마치 국가가 각도에 분부하듯 독자적으로 각처에 호령을 행하게 하고 있다 하는데, 어찌 국가가 직접 외방에 호령하지 못하고 일개 총섭의 손을 빌린단 말입니까.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람의 대소와 승려의 다과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게 한 뒤 차원(差員)에게 영솔(領率)하게 하도록 한다면 편리할 것입니다."하였다.

《인조 007 02/11/03(계축) / 이시발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다》

지중추부사 이시발(李時發)이 병을 이유로 자자를 올려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관장하는 소임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재차 사직하니 따랐다.

《인조 007 02/11/30(경진) / 비변사가 축성하는 승려들에게 군향을 받고 도첩을 지급하는 것을 청하다》

따라서 남한 산성을 쌓는 일에 어찌 전서의 승려를 조발하여 기내(畿內)에서 역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려들 중에 군향(軍餉)을 바치고 도첩(度帖)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대로 윤허한다. 그러나 승려를 축성하는 역사에 활용하고 나서 이제 또 쌀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듯 하니, 쌀을 받는 한 가지 조항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008 03/01/22(신미) / 우의정 신흠이 이귀·장만·이괄정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다》

장만은 팔도를 체찰(體察)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축성을 관장하는 등 대소의 군무(軍務)를 모두 좌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모두 하루라도 조정을 떠나 전하께서 심복으로 믿고 맡긴 부탁을 저버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인조 008 03/02/14(계사) / 도체찰사 장만이 이서에게 남한 산성의 수축 공사를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다》

도체찰사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총융사 이서(李曙)를 체찰부 총융사로 이름하여 남한 산성의 수축 공사를 겸하여 관장하게 하고, 신과 함께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인조 008 03/02/18(정유) / 호조가 승군을 사역하여 은광을 개발하게 할 것을 청하다》

지난번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부역하는 승군(僧軍)을 함경 감사가 장계하여 감해 주기를 청했는데, 비국이 단지 길주(吉州) 이북의 승군만 감해 주고 남도(南道)의 것은 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국이 복계(覆啓)하기를, "남한 산성의 역사를 정지한다면 모르지만 정지할 수 없다면 오히려 역군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니 함경도의 인원을 옮겨 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단천·이성(利城)·북청(北靑)·홍원(洪原)은 남한 산성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득이하다면 이 네 고을의 승군에 한하여 성의 부역을 면제해 주고 은을 채취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인조 008 03/02/23(임인) / 장만이 총융사 이서를 남한 산성에 보내 형편과 공역을 살피도록 하자고 청하다》

도체찰사 장만(張晩)이 먼저 총융사 이서(李曙)를 남한 산성에 보내 형편을 살펴 지휘하는 동시에 공역(功役)을 살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서가 남한 산성에 나가 많이 시설하였기 때문에 광주(廣州) 일대가 더욱 이서를 위망하였다. 심지어는 승도(僧徒)들이 산성 근방에 퍼져 있으면서 갖가지로 작폐하는 데다가 사대부들의 선산(先山)에서 수목을 벌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인조 008 03/03/16(갑자) / 상이 이서에게 남한 산성의 역사 상황을 묻고, 시독관 엄성이 비에 관해 아뢰다》

상이 특진관 이서(李曙)에게 남한 산성의 역사 상황을 묻자, 이서가 형세의 편리하고 좋음과 공역의 거창함을 갖추어 진달하였다.

《인조 009 03/06/22(무술) / 간원이 유배 죄인 이광춘 등을 징계하도록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인 이광춘(李光春)은 이공학(李季鶴)의 역당(逆黨)으로 선조 때 북도에 유배되었는데 전번에 제멋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별장(別將)이 그에게 감동(監董)의 임무를 맡겨 주었으니 매우 놀랄 일입니다.

《인조 009 03/06/23(기해) / 남한 산성에 행궁을 짓도록 하다》

행궁(行宮)을 남한 산성에 짓도록 명하였는데, 이서(李曙)의 계책을 따른 것이다.

《인조 009 03/07/04(경술) / 도체찰사 장만 등이 남한 산성의 축성 형세 및 공역을 보고하다》

도체찰사 장만(張晩), 종사관 이정여(李敬輿)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가서 축성의 형세 및 공역(功役)을 살피고서 서계하였다.

《인조 009 03/08/03(기묘) / 특진관 이서가 군기 삼혈총·조총 등을 만들 것을 건의하다》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군기 삼혈총(三穴銃) 1천 자루, 조총 1천 자루를 특별히 만들어 기내(畿內)의 군병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남한 산성에 저장해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09 03/08/03(기묘) / 선혜청에서 광주의 계해년조 미수된 미곡을 남한 산성에 유치하지 말도록 청하다》

선혜청(宣惠廳)이 아뢰기를, "비변사에서 도체찰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광주(廣州)의 계해년조 미수된 미곡을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남한 산성에 거두어 들이도록 할 것을 이미 계하받았습니다. 요즘 국가에 일이 많아서, 각 고을에서 제때에 독촉하여 보내지 않으므로 본청에서 수납하는 곡식도 미납된 수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앞으로 써야 할 자본에 관계되니 제때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까닭으로 다른 곳에 옮겨써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외(科外)의 용도가 날로 더해지고 달로 늘어나서 선혜청의 저축으로는 항상 이어대기에 어려움을 걱정합니다. 사세로 헤아려보면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세폐부의 계사에 따라 광주에서 거둔 미곡 3백 석을 이미 남한 산성에 유치하였는데, 지금 또 이 계청이 있습니다. 본청에 저축한 것으로는 현재 바닥이 나서 이어댈 계책이 없습니다. 결코 봉행하기 어려운 뜻으로 황공하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청에는 이 미곡이 없더라도 지탱해 나갈 수 있으니 전에 계하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인조 009 03/08/05(신사) / 이서가 남한 산성을 수호하고 양식을 저장할 대책을 강구하기를 청한 데 대한 조치》

이에 앞서, 이서(李曙)가 경연에서 장수를 정해 남한 산성을 수호하고 또 양식을 저장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본주의 목사(牧使)로 하여금 성내에 들어가 지키게 하였다.

《인조 009 03/08/16(임진) / 병조 판서 서성이 서방에 부방할 군사의 보충책을 건의하다. 이서가 남한 산성에 가서 검칙하기를 청하다》

이서(李曙)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형세를 진달하고 이어 포도 대장의 직을 사면하고 남한 산성에 가서 검칙(檢飭)하기를 청하였다.

《인조 011 04/02/20(계사) / 비변사에서 남한 산성 완성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역사(役事)에 있어 성의 수축을 마쳤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공장(工匠)과 장사(壯士)들의 요포(料布)가 당초에 준비한 것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물고기 한 마리 종이 한 장도 허망에 요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廣州)는 이곳의 본읍(本邑)이지만 여러 가지 공납(貢納)해야 할 물품들 가운데 한 가지도 산성을 위하여 감하(減下)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따랐다.

인조 013 04/06#12(임자) / 남한산성의 역사와 양향에 대하여 하문하다.》

상이 이어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역사(役事)와 양향(糧餉)의 비축 등의 일을 하문하고 파하였다.

《인조 013 04/07/22(임진) / 남한 산성이 완공되어 논상하고 양향대책을 마련토록 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남한성(南漢城)이 내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로 천험(天險)의 요새지인데,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니다. 다행히 일을 맡은 신하들이 힘껏 직무를 수행하고 승려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20리에 달하는 높은 성이 2년 만에 완공되었으니, 이렇게 빨리 이룬 공역은 전고에 예를 찾기 어렵다. 내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공사를 감독한 원역(員役)에게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논상하게 하여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보이라. 그리고 비국으로 하여금 양향을 비축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여 후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014 04/08/13(임자) / 비변사가 남한 산성의 군량 조달책을 아뢰다》

비국(備局)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남한(南漢)은 바로 온조(溫祚)가 수백년 동안 도읍으로 정하였던 곳으로서 지형의 험하기가 한 사람이 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그곳에 쌓은 성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합니다. 식량이 준비되면 반드시 수비해 낼 수 있는 곳이지만 식량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하고 험한 요새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강구해야 할 것은 다만 이 식량 한가지 문제 뿐입니다. 굳이 바란다면 본주(本州)의 전결(田結)이 겨우 2천여 결이지만 국가에서 차라리 이 한 고을의 세입(歲入)을 손해보더라도 산성(山城)에다 소속시켜서 모든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粮)과 모병량(募兵粮) 및 선혜청(宣惠廳)의 작미(作米)를 모두 본성에다 비축하도록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자연 얼마간의 모양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신들의 계책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인조 014 04/08/19(무오) / 주강 후 모문룡의 동태, 호패 어사 발송, 승군의 군량 징수 문제 등을 장만과 논하다》

장만이 또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역사에 부역하지 않은 승군(僧軍)에게 군량을 징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역사를 시키는 것이 옳으나 지금 역사가 완료된 뒤에 또 도첩(度牒)을 팔아 부역에 빠진 것을 징수하듯 한

다면 어찌 국가의 본의라 하겠는가." 하였다.

《인조 014 04/09/09(무인) / 간원이 장단 부사의 국문, 사헌부 관원의 파직, 이일원의 작살 함수 등을 아뢰다》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역사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비록 공사 진행의 노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한 품계를 가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인조 014 04/10/03(임인) / 이귀가 대간의 체직, 강화도 군량 확보, 호패법과 군적 정리 등에 대해 아뢰다》

특진관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형세는 참으로 하늘이 만든 요새입니다.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육지에서는 남한 산성이 제일이고, 섬으로는 강화가 제일입니다.

《인조 014 04/10/16(을묘) / 비변사가 심기원을 남한 산성 구관 당상 임명하도록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관장할 당상(堂上)을 심기원(沈器遠)으로 계하(啓下)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국가에서 본성을 수축하는 일은 쉽로 등한한 것이 아니니, 만일 체면을 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착실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일찍이 갑자년에 심기원을 삼남 도검찰사(三南都檢察使)에 차임하여 남한 산성의 역사를 검하여 관장하도록 했었는데, 불행히도 상(喪)을 당하였으므로 이시발(李時發)에게 그 직임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서 이시발도 병으로 체직되었기 때문에 남한 산성의 임무가 이서(李曙)에게 돌아갔고, 도검찰사의 명칭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성의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심기원도 마침 상을 마쳤으니, 전에 맡았던 일을 관장하게 한다면, 시종 서로 가부를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이 두 신하가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

《인조 014 04/10/28(정묘) / 삼남 도관찰사 심기원이 남한 산성의 둔전 설치를 위해 윤조원을 기용하자고 아뢰다》

삼남 도검찰사(三南都檢察使) 심기원(沈器遠)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수어(守禦)하는 일에는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런데 신이 직임을 받은 이후로 주야로 생각해도 적절한 계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경영이 있은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영이라는 것도 어염(魚鹽)과 무관(貿販), 그리고 둔전 설치 등 몇 가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둔전 설치가 더욱 절실한 것인데, 이는 적임자를 얻지 못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다면 이익보다 해가 더 많을 것이니, 서둘러 적임자를 잘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조 015 05/01/17(을유) / 금나라가 침입하자 대책을 논의하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를 속히 정하고 남한 산성을 이서로 하여금 관할도록 하소서."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 이외에도 긴급한 곳이 많은데 하필 남한

산성을 먼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을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나이는 늙고 몸은 쇠잔하여 결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 말고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적이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만일 난민(亂民)이 있게 되면 역시 난리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남한 산성에 주장(主將)이 있은 연후에야 백락이 하삼도에 통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이서에게 이르기를, "산성의 군량미를 어떻게 계속해서 마련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선혜청의 춘등미(春等米)를 산성에 들이고자 합니다." 하였다.

《인조 015 05/01/18(병술) / 대신 등을 인견하고 내전의 강도 대피와 임진강·남한 산성 수비에 대해 논하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이서가 이미 남한 산성에 들어갔으니 임진강을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외부의 의논이 모두 「신경진은 마땅히 임진강을 수비해야 한다.」 하고, 또 「도감의 군대는 불가불 호위를 해야 한다.」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오윤겸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남한 산성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서가 기권(機關)의 총융사로 있으니 물러나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임진강을 수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서가 남한 산성을 수축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피차가 미치지 못하는 논의를 할 것이 없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성상의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감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나 대가가 한번 강도로 들어가시고 나면 남한 산성의 형세는 촉한(蜀漢)만 못해집니다. 어찌 편리하고 가까운 독현을 버리고 남한 산성을 중요시하십니까." 하였다. 지금의 사세는 다만 강도와 남한 산성에 전력을 해야 할 뿐이다."하였다.

《인조 015 05/01/18(병술) / 비국이 이서와 최현에게 임진강 수비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 전력하여 강도를 응원하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서가 이미 같이 수비하지 않는다면 관동(關東)의 수천 명의 군병이 남아 있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조 015 05/01/21(기축) / 능한 산성이 함락되자 분조할 준비를 하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오직 강도(江都)만을 지키다가 병력이 통하지 못하게 되면 남한 산성 또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나 수령도 또한 지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분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종묘 사직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신흠이 아뢰기를, "이원익의 말이 옳습니다."하였다.

《인조 015 05/01/24(임진) / 분조에 대하여 논하고 세자가 떠나다》

이명준(李命俊)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 백성이 이에 견고한 뜻이 있는 것인데

이서(李曙)가 경에 부대를 모조리 이끌고 물러나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진실로 푸는 의도에서입니까. 이서 자신의 피난을 위한 계책으로서는 잘한 것인지 몰라도 국가를 위해 방어하는 방도로서는 잘못한 것입니다. 이서는 국가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단지 분조의 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인조 015 05/01/25(계사) / 비국이 정충신을 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군을 강도에서 쓸 것을 청하다》

김류의 장계에 「경기의 수변과 해서 연해의 각 고을 창고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강도에 수송해 보내도록 하고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풍덕(豐德)·인천(仁川)·부평(富平) 등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은 다 주읍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남한 산성에 쓰면 조련하지 않은 군병이 되지만 강도(江都)에 쓴다면 이만큼 정예화된 군졸도 없다.」 하였는데, 김류의 소견은 실로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인조 015 05/01/27(을미) / 쌀의 운송·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 논의》

김자점이 강도에서 와 배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형세는 어떠한가?"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산하(山河)는 비록 아름다우나 수비가 몹시 허술합니다. 통진(通津)·김포(金浦)·안산(安山)과 강화는 입술과 이처럼 서로 보온 관계에 있는데 그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잘 된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적들은 모두 요령(遼寧)·심양(瀋陽)에 오래 있던 병졸들이니 필시 수전(水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이정구는 아뢰기를, "임진년에 왜선들도 발을 붙이지 못했는데 더구나 이들 적이겠습니까." 하였다.

《인조 015 05/02/03(경자) / 강 어귀의 지키는 곳과 남한 산성을 살펴 보고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여 선전관을 선택하여 보내서 강단(江灘)의 방수(防守)하는 곳과 남한 산성을 적간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인조 015 05/02/04(신축) / 강도로 천도하였으니 더욱 분발하여 공을 세우라는 교서를 내리다》

이에 오늘날의 계책은 경기의 병졸들은 남한 산성에 주둔하여 웅거하고 삼남의 병사들은 한강을 차단하고 서북의 군사들은 적의 후방을 막게 하면, 강남을 예리하게 하여 기회를 보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인조 015 05/02/06(계묘) / 행 호군 정광적이 남한 산성을 지킬수 없다는 것과 화친의 잘못을 상소하다》

행 호군 정광적(鄭光績)이 상소하여 남한 산성을 지킬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하고, 또 이서(李曙)가 임금을 잊고 자신을 보위한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다 알았다. 경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남한 산성을 방어

하여 지키는 것이 긴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그런 대로 옳다 하겠으나 이서가 자신을 위하여 피했다고 한 것은 너무 불가하다. 이서가 듣는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정광적의 차자의 첫째는 남한 산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 산성의 군사와 군량을 철수하여 강도(江都)로 들어와 지키면서 협조하여 강탄(江灘)을 방어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인조 015 05/02/07(갑진) / 비국 등이 장만·조기 등을 시켜 임진강을 지키게 하기를 청하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남한 산성의 군사에게 이미 여울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양쪽의 군사들이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니, 이들을 이동시켜 임진강을 지키면 또한 충분히 형세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먼저 조기로 하여금 급히 임진강을 점거하여 요해처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서, 한강의 군사를 뽑아내어 형세를 배아려 증가하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한강은 뒤에 오는 남쪽 군사로 나누어 배정하여 파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제신으로 하여금 십분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인조 017 05/09/24(정해) / 우찬성 이귀가 안주성과 황주성 수축을 중지할 것과 청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건의하다》

우찬성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의 생각에는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굳게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기전(畿甸)에 있는 성들은 어떻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적이 여러 곳의 백성들을 멋대로 죽인다면 남한 산성을 보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강도(江都)도 보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남한 산성은 벌써 수축이 끝났으니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수어장(守禦將)으로 삼고 그 고을 백성들을 다 주어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한 고을의 병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면 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경상도 병사가 거느리고 있는 병졸들을 빼서 주는 한편, 병사를 수성 대장으로 삼아 험한 곳을 의거하여 굳게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강도를 응원하는 계책을 삼는다면 오히려 강탄(江灘)을 쓸모없이 지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인조 017 05/10/01(갑오) / 김류가 역모를 진압할 군대를 조발할 방법을 건의하다》

김류가 아뢰기를, "이일원은 여주(驪州)·이천(利川)·양근(楊根)·지평(砥平) 네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림은 양주(楊州)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게 하며, 이경용(李景容)은 광주(廣州)와 죽산(竹山)에 소속된 네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수원 방어사 이시백(李時白)은 본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호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영(右營)과 중영(中營)은 각기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제 위치에서 영을 기다리게 하고, 후영(後營)에 소속된 좌부(左部) 각 관병(官兵) 4백여 명도 들어와 호위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 총융사(摠戎使)와 정기 감사에게 전령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18 06/02/03(을미) / 덕포·남한 산성에 정배되어 있는 도망병들을 방면하다》

별조가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도망병으로서 정배(定配)되어 있는 자들을 사면령을 인하여 탈처시키게 했기 때문에 서로(西路)에 정배되어 있던 도망병들에게는 이미 석방하여 돌려 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덕포(德浦)·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정배되어 있는 도망병들도 일체 방면시켜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인조 018 06/03/04(을축) / 임지후가 역모를 고변하자 관련인을 국문하다》

남한 산성의 흉서(凶書)에 대해서는, 임성지(任性之)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인조 019 06/09/27(갑신) / 이서 등이 군적 및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수어 대장(守禦大將)을 비국이 이미 의논하여 천거하였으니, 대신에게 다시 하문하시어 속히 차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천거된 자에 대해서 모두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대신이 신에게 묻기에 신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으로는 광주 목사(廣州牧使) 이시방에게 방어사의 직위를 겸대시켜 그의 재변을 중하게 해 준 뒤에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온당하게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시방이 그 임무를 감당해낼 만한가?" 하자,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 임무를 감당해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다른 사람을 들어가 지키게 한다면 누가 합당한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람을 알아 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승지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무릇 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은 반드시 지형을 익히고 먼저 의거할 곳을 안 다음에야 어느 때 적이 침입해 오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리 길을 발을 싸매고 달려오는 형편이라서 난리를 당해서야 비로소 도착하게 되니,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대 이시방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10월 중순쯤에 감사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기보군(畿輔軍)을 이끌고 시흥상아 성 위에 늘어 세운 뒤 성가퀴를 계산하여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더라도 지켜야 할 위치를 알아 각자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인조 019 06/10/17(갑진) / 이서가 경기 내의 속오군의 진휼과 모문룡의 일을 아뢰다》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경기 내의 속오군이 1천 8백인데 이는 신이 거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됐으니 그 장수된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멀거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진휼할 수 있다면 그들도 사졸을 대우하는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남한 산성의 곡식을 내어 구제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은 계획이다. 진휼청에서도 옮겨 진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가엾은 백성인데 속오인 쪽 그 괴로움을 유달리 받고 있는데다 또 흉년을 만났으니 더욱 먼저 구원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인조 019 06/11/27(갑신) / 광주 목사 이시방에게 남한 산성 방어사를 겸직하게 하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이시방에게 남한 산성 방어사를 겸직하게 하였다. 당시 비국이 이서(李曙)의 건의로 인하여 광주 목사에게 남한 산성 방어사를 겸하게 할 것을 청하여 상이 따른 것이다.

인조 022 06/04/00(병인) / 산성 공사에 승군 동원 문제를 논하다.》

병조에서 제의하기를 〈산성의 공사는 연호군을 의례히 사용하였는데 인원수가 8,000~9,000명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원하면 농사철이 되어 해로울 것 같으므로 승군과 성에 머물러 지키는 군사들로만 먼저 진행할것을 청합니다. 승군은 마땅히 1,000명을 가지고 한달을 기한으로하여 일을 시킬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 의견을 따랐다.

《인조 025 09/07/02(갑술) / 총융사 이서에게 남한산성을 수축한 공으로 노비와 안구마를 내리다》

총융사 이서(李曙)에게 노비와 안구마(鞍具馬)를 내렸다.

이에 앞서 이서가 승려들을 사역시켜 남한산성을 쌓으면서 백성을 모아 둔전(屯田)을 설시하여 수만 석이나 곡식을 수확하였고 기계를 마련한 것도 많았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이서가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역사를 처음부터 담당하였는데, 양식과 기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련해 내었으니, 진실로 훌륭하다 하겠다. 각별히 논상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 하고, 마침내 노비 5인과 안구마 1필을 내렸다.

《인조 025 09/07/04(병자) / 이원익이 돌아가면서 상차하여 적이 물러간 뒤의 일의 아뢰다》

이에 앞서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이 변보(邊報)를 듣고 입조하였다가, 강도(江都)는 국가를 보위하여 적을 막을 수 있는 곳이니 병기를 수선하고 양식을 비축해야 할 것이며, 남한산성은 서울을 등진 요긴한 곳이니 장수를 앉고 곡식을 저축해야 합니다. 강도를 보장(保障)으로 삼고 남한산성을 보거(輔車)로 삼는 일은 조정에서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양서의 백성을 격려하는 일은 성조(聖朝)가 의당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조 025 09/07/04(병자) / 이서가 청대하여 안주를 지키는 일과 남한산성의 일을 아뢰다》

상이 또 이르기를, "남한산성에는 한 곳도 포루(砲樓)가 없으니, 이것이 결점이다."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포루는 성을 지키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장(牛馬墻)과 성 위의 좁은 곳에 흙을 메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기에 이수일(李守一)에게 그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겼다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025 09/07/00(기축) / 성과 성가퀴가 견고하고 관청의 건물이 웅장함을 알았다.》

신이 남한산성에 가보고서야 비로소 이서의 사람됨을 알았습니다. 그 성과 성가퀴가 견고하고 관청의 건물이 웅장하게 얽어졌으며 쌀과 장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저도 모르게 감탄하였습니다.

《인조 025 09/09/18(기축) / 이귀가 추숭의 일을 논하고, 추숭의 일로 허목을 징거하다》

지사 이귀(李貴)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남한산성에 가 보고서야 이서의 사람됨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견고한 성첩(城堞)과 웅장한 관사(官舍)와 양식의 저축 등을 어떻게 다 꾸려나갔는지 모르는 사이에 탄복하였습니다.

《인조 027 10/11/01(을미) / 이귀가 북방의 방어책, 남한 산성, 호차의 접대 등에 대해 상소하다》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남한 산성을 살펴보고 나서 조목조목 진계(陳啓)하니 묘당(廟堂)이 『체찰사(體察使)의 출사(出仕)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회계(回啓)하였는데, 출사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옳다 그르다 하는 말이 없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상께서 결단하시어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남한 산성을 방수(防守)하는 일은 먼저 잘 헤아려서 기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비국이 또 아뢰기를, "남한 산성은 강도(江都)와 서로 의지하는 형세가 있는데, 이서(李曙)의 빈틈없는 계책에 힘입어 성지(城池)와 군량이 팔도(八道)에서 으뜸이니 이귀가 체찰(體察)의 본영을 삼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계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찰사가 사도(四道)만 관장하고 있는 만큼 타도(他道)의 산성을 병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한 듯하니 잠시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구임(久任)시켜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면서 성을 지키는 중책을 맡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27 10/12/10(계유) / 이귀가 차자를 올려 남한 산성과 강화도에 방어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다》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려 남한 산성과 강도(江都)에 조치를 취하여 수륙(水陸)으로 기각의 형세를 이루게 하고 미리 강도로 옮겨 오랑캐에게 침범할 수 없다는 형세를 보일 것을 청하니, 상이 안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

《인조 028 11/01/29(신유) / 전 병사 문희성을 남한 산성 별장으로 삼다》

전 병사(兵使) 문희성(文熙聖)을 남한 산성 별장(南漢山城別將)으로 삼았는데,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인조 031 13/01/06(기미) / 가을에 남한 산성 소속의 경기 다섯 고을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하다》

수어사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환전히 쌓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소속된 경기 다섯 고을의 군병이 한번도 연습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산성의

방향과 지킬 곳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뒷날 만약 위급한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봄갈이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소속된 군병을 날짜별로 소집하여 성첩에 배치시켜서 수비하는 방도를 알게 하소서. 신도 나가서 사열을 하고 이어 호궤하겠습니다." 하니, 가을이 되거든 거행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032 14/01/17(계해) / 남한 산성에서 지난해 나눠 준 곡식을 갚지 않은 자를 적발하여 벌을 주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 지난해 각곡(各穀) 2만 5백 13석을 나누어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5천 1백여 석이라고 합니다. 남부하게 많은 중에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고 남부를 독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32 14/03/26(신미) / 이시백을 남한 산성 호위 대장에 겸직시키다》

이시백(李時白)을 남한 산성 수어사로 삼고 그대로 호위 대장을 겸하게 했다.

《인조 033 14/07/15(정사) / 수어사 이시백이 경기도 내 및 원주 등 3읍의 군사 체계에 관해 건의하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 입방(入防)한 군사는 1만 2천 7백명입니다. 경기(京畿)에 소속된 군은 신이 용당 산성으로 나가 수령과 장관(將官)을 초치하여 지킬 곳을 획정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33 14/09/13(갑인) / 대사간 이식이 정사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글을 올리다》

대사간 이식이 상소하기를, "남한 산성은 병기가 미비하고 군량의 저축이 충분치 아니하여 수어할 형편이 아직도 서로(西路)의 세성(諸城)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소속된 다섯 고을의 군사로 하여금 처자를 이끌고 가산을 운반하여 일제히 들어가게 하고, 또 초모(招募)에 응하는 자가 없으므로 수령으로 하여금 사민(士民)을 몰아서 명을 따르게 하니, 다른 고을의 군사에 비교하면 과연 치우치게 혹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본래 한강의 방어를 위한 것이니 당연히 한남(漢南)의 주현(州縣) 주민을 소속되게 해야 하는 것인데 한북(漢北)의 군읍(郡邑) 주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은 고르지 않은 중에도 크게 고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섯 고을의 벌사된 자가 어찌 원망하고 도망할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리가 무너져서 흩어질 조짐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사대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인심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니, 어찌 그리 생각이 깊지 못합니까.

2. 병자호란시 남한산성

《인조 033 14/12/14(갑신) / 최명길에게 강화를 청하게 하고 삼은 남한 산성에 도착, 강도로 가기로 결정하다》

저물 무렵에 대가(大駕)가 출발하려 할 제 대복인(大僕人)이 다 흩어졌는데, 내승

(內乘) 이성남(李星男)이 어마(御馬)를 끌고 왔다. 대가가 숭례문(崇禮門)에 도착했을 때 적이 이미 양철평(良鐵坪)까지 왔다는 소식을 접했으므로, 상이 남대문 루(樓)에 올라가 신경진(申景禛)에게 문 밖에 진을 치도록 명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노진(虜陣)으로 가서 변동하는 사태를 살피겠다고 청하니, 드디어 명길을 보내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게 하도록 하였다.

상이 돌아와 수구문(水溝門)을 통해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 향했다. 이때 변란이 창졸 간에 일어났으므로 시신(侍臣) 중에는 간혹 도보로 따르는 자도 있었으며, 성 안 백성은 부자·형제·부부가 서로 흩어져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초경이 지나서 대가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김류가 상에게 강도(江都)로 옮겨 피할 것을 권하였는데, 홍서봉(洪瑞鳳)과 이성구(李聖求)도 그 말에 찬동하였으며, 이홍주(李弘胄)는 형세로 보아 반드시 낭패하게 될 것이니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두 이런 의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병방 승지 이경증(李景曾)이 김희 제유후(祭酋後)에게 이 일을 은밀히 말하였다. 유후가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불가하다고 쟁집(爭執)하므로, 경증이 김류를 불러 물어볼 것을 청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고립된 성에 계시면 외부의 구원도 없게 되고 마초와 양식도 부족할 것입니다. 강도는 우리에게 편리하고 저들에게는 침범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 저 적은 뜻이 상국(上國)에 있으니, 반드시 우리를 상대로 지구전(持久戰)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강도로 가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어 김류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자, 아뢰기를, "파천(巴川)과 금천(衿川)을 경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도는 이 곳에서 무척 먼데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경기(輕騎)로 금천과 파천의 들을 가로질러 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삼사가 모두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어가를 출길 계획을 정하니, 하룻밤 사이에 성 안이 온통 들끓었다.

《인조 033 14/12/00(을유) / 임금의 행차가 강화도로 떠나려다 산성으로 도로 들어왔다.》

임금의 행차가 새벽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하였다. 이때 눈보라가 매우 세차게 불어 신길이 미끄러워서 말이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임금은 얼음이 미끄러워서 말이 뛰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가므로 끝까지 강화도에 도착해낼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마침내 산성으로 도로 들어왔다.

《인조 033 14/12/16(병술)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임금이 체찰사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각 고을의 원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람들을 죄다 적어 두었다가 뒷날에 표창하거나 처벌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조 033 14/12/17(정해)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임금이 대신들과 비변사의 당상관들을 불러 만나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라일이 이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비록 재능이 없고 덕이 박하기는 하지만 본의만은 좋지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오늘의 일이 결국 이지경이 되었다. 내 한몸이 죽는 것은 정말 아까울 것이 없지만 부형들과 모든 관리들, 온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나 때문에 다 함몰되게 되었으니 고금천하에 이렇게도 기막힌 일이 언제 어디에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인조 033 14/12/18(무자)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19(기축)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19(기축) / 남서로 강도유수·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빨리 구원하게 하다》

남서(檄書)로 강도 유수(江都留守) 장신(張紳), 검찰사 김경징(金慶徵), 부검찰사 이민구(李敏求)에게 유시하였다.

"적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벌써 엿새째 되었다. 군신 상하가 고립된 성에 의지하며 위태롭기가 한 가닥 머리카락과 같은데, 외부의 원병은 이르지 않고 통유(通諭)할 길도 끊어졌다. 경들은 이런 뜻으로 도원수·부원수 및 제도(諸道)의 감사와 병사에게 전유(傳諭)하여 빨리 달려와 구원하여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본부(本府)의 방비도 마땅히 견지해야 할 것이니, 나루를 건너는 자를 엄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결사대를 모집하여 기어코 회보(回報)하게 하라."

《인조 033 14/12/20(경인)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1(신묘)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초관 이신민이 수도에 남아있는 대장 심기원의 보고문을 가지고 왔다. 보고문 가운데는 관공을 과장하고 조정을 속이는 내용이 많아서 보는 사람들 치고 놀라고 분격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인조 033 14/12/22(임진)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3(계사)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4(갑오)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망궐례를 행하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절(聖節)을 기념하는 망궐례를 행하였다.

《인조 033 14/12/25(을미)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예조에서 제의하기를 〈온조왕이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있은 해수가 제일 오래니 틀림없이 신령이 있을것이고 옛 사람들은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를 주둔시킬 때에는 꼭 그 지대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 전하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황단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니 온조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 의견을 따랐다.

《인조 033 14/12/26(병신)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7(정유)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8(무술)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29(기해)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3 14/12/30(경자)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에 있었다.

《인조 034 15/01/01(신축) /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상이 남한 산성 행궁(行宮)에 있었다.

《인조 034 15/01/02(임인) / 완풍 부원군 이서의 졸기》

완풍 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상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띠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였으며, 도성에 들어온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이서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손이다. 무과로 진출하였는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지조가 있었다. 광해군 때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반정(反正) 때에는 장단 부사(長湍府使)로서 관군을 규합 통솔하여 상을 받들어 내란을 평정함으로써 상훈(上勳)에 기록되었다.

경기 감사·판의금부사·호조 판서·병조 판서·형조 판서·공조 판서를 역임하면서 장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는데, 까다롭고 관단 결함이 있어 이익을 늘이려 하다가 원망을 샀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 산성의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고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를 구비하지 않음이 없어 마침내는 대가가 머물면서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였다.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은왕묘(恩王廟)를 세워 이서를 배향(配享)하도록 명하였다.

《인조 034 15/01/05(을사) / 전라 병사 김준룡이 치계하여 승전 소식을 전하다》

전라 병사 김준룡(金俊龍)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와 광교산(光敎山)에[경기의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사이에 있다.] 주둔하며 관두에 머기고 전진하는 상황을 치계(馳啓)하였다. 당시 남한 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어 안팎이 막히고 단절되었는

데, 이때에 이르러 구원병의 소식이 잇따라 이르렀으므로 성 안에서 이를 맞고 안정을 되찾았다.

《인조 034 15/01/00(정사) / 오랑캐 사람이 남한산성의 서문 밖에 와서 사신을 불렀다.》

오랑캐 사람이 남한산성의 서문 밖에 와서 사신을 불렀다. 그래서 홍서봉,최명길, 윤휘 등을 오랑캐 군영에 보냈더니 홍서봉 등이 꿇어 앉아서 한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 편지는 이러하다.

"너그럽고 온화하며 어질고 현명한 청나라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조소를 보내어 타이른다. 황제는 말한다. 내가 아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귀국을 멸망시키고 귀국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옳고 그른 이치를 바로 잡으려 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늘땅의 도리란 착한 사람의 도리를 체현하여 진심으로 귀순하는 자는 잘 길러주고 위풍을 바라보고 항복하려는 자는 안전하게 해주고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하늘의 의사를 받들어 토벌하고 나쁜자를 괴롭혀서 대항하는 자는 처단하고 완악한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로잡겠다. 그리고 되도록 관강한 자에 대해서는 조심할 줄 알게 하고 교활한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겠다. 지금 너와 나는 적마간이 되었기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여기까지 온 것이다.만약 너의 나라가 다 나의 나라의 판도에 들어온다면 내가 어찌 마치 어린아이를 품어서 키우듯이 편안하게 살도록 돌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너는 살고 싶거든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 할 것이고 만약 싸우고 싶거든 역시 빨리 나와 한바탕 싸워 볼 것이다. 두 나라의 군사가 서로 붙으면 하늘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홍서봉 등이 들어와서 임금을 직접 만나 회답편지를 보낼 것을 제의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가서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조 034 15/01/22(임술) / 김수현 등이 결전의 내용의 글을 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김수현(金壽賢)·황일호(黃一皓)·임담등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신이라고 일컫은 뒤에도 포위를 풀고 떠나지 않으니, 이제 대신의 글을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보내어 「군상은 뜻을 굽히서 억지로 따르라고 하지만 부형과 백관은 모두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장차 먼저 노약자를 죽이고 다음은 필자 양식을 태워버리고 남은 장정을 뽑아 한 번 결사전을 벌이려 한다. 남한 산성 하나야 완전히 망한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아우는 형을 위하여 원수를 갚고,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이니, 부끄럽이 만대(萬代)의 원한만 맺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저들이 응답하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도 이런 의논이 있었다마는, 본래 그렇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노여움만 더하게 될 것이니, 무익할 듯하다." 하였다.

《인조 034 15/01/22(임술) / 강도 함락 시,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과 전 우승지 홍명형 등의 졸기》

전 사헌부 장령 이시직(李時稷)은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후손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신중했으며 공평하고 정직하였다. 적이 성에 들어오자 송시영(宋時榮)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인(古人)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날 구차스럽게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송시영이 먼저 죽자 스스로 가서 초빈한 뒤 두 개의 구덩이를 파서 그 중 하나를 비워두고 말하기를, "나를 묻어라."하였다. 이에 글을 지어 그의 아들 이정(李愼)에게 부치기를, "장강(長江)의 요새를 잘못 지켜 오랑캐 군사가 나는 듯 강을 건넜는데, 취한 장수가 겁을 먹고 나라를 배반한 채 욕되게 살려고 하니, 파수하는 일은 와해되고 만 백성은 도륙을 당하였다. 더구나 저 남한 산성마저 아침저녁으로 곧 함락될 운명인데, 의리상 구차하게 살 수는 없으니, 기쁘이 자결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함으로써 천지간에 부끄러움이 없고자 한다. 아, 내아들아, 조심하여 복숭을 상하지 말고 돌아가 유해(遺骸)를 장사지낸 뒤, 늙은 어미를 잘 봉양하며 고향에서 숨어 살고 나오지 말라. 구구하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네가 나의 뜻을 잘 잇는 데 있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전 사헌부 장령 정백형(鄭百亨)은 관찰사 정효성(鄭孝成)의 아들인데, 그의 고조(高祖) 이하 4세(世)가 모두 절의(節義)와 효도로 정려(旌閭)되었다. 정효성이 연로한데다 병까지 위독하여 강도에 피난하였는데, 적이 성에 침입하자 정백형이 그의 아비를 돌보며 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크게 노략질하자 면하지 못할 줄을 알고서 조복(朝服)을 갖추고 남한 산성을 바라보며 네 번 절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그의 두 첩도 함께 죽었다.

기타 유사(儒士)와 부녀(婦女)로서 변란을 듣고 자결한 자와 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인조 034 15/01/28(무진) /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의 졸기》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洪命耉)가 적과 금화(金化)에서 크게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처음에 홍명구가 적보(賊報)를 듣고 자모성(慈母城)에 들어가 지켰는데, 얼마 뒤에 오랑캐 기병(騎兵)이 곧바로 경성(京城)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의 별장 장훈(張勳) 등 2천 기(騎)를 보내어 들어가 구원하게 하였다. 그 뒤 거가(車駕)가 남한 산성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자신이 남겨 포병(砲兵) 3천 명을 조발(調發)하여 먼저 떠나는 한편, 남서(嶺書)로 병사(兵使) 유림(柳琳)에게 동참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유림이 뒤따라 오다가 강동(江東)에 이르러 조정의 명령이 없다는 것을 핑계대고 군대의 행진을 저지시키려고 하자, 홍명구가 꾸짖기를, "군부가 화란을 당했으니, 의분상 복숭을 바쳐야 마땅하다. 더구나 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와서 전투하게 함으로써 남한 산성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계책이다." 하고, 마침내 진격하니, 전로(前路)에 주둔한 적이 도망하였다. 금화(金化)에 이

르러 적을 만나 수백 명을 베고 사로잡힌 사람과 가축을 빼앗았는데 몇십 몇백을 헤아렸다. 군사를 백전산(柏田山)으로 옮겼을 때 적의 연합군 1만 기(騎)가 침범해 왔다. 홍명구가 이들을 맞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두 명의 장수를 죽였는데 시체가 즐비하였다. 조금 있다가 적의 한 진(陣)이 산 뒤편을 돌아 나왔는데, 말을 버리고 언덕에 올라 모포로 몸을 감싸고 일어부치며 일제히 용위하여 진격해 오니 그 형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홍명구가 급히 유령을 부르며 서로 구원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이 응하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휘하의 장사(將士)들이 많이 전사하였다. 이에 홍명구가 호상(胡床)에 걸터 앉아 부인(符印)을 가져다 소리(小吏)에게 주며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하다."하고, 활을 당겨 적을 사살하였는데, 몸에 세 개의 화살을 맞자 스스로 뽑아버리고 칼을 빼어 치고 찌르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그 일이 알려지자 상이 울면서 이르기를, "내가 평소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 이렇게 나라가 결딴난 때에 단지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고, 이조 판서에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또 상장(喪葬)의 비용을 관에서 마련하고, 그의 어미에게 늠료를 지급하며,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자손을 녹용(錄用)하도록 하였다. 홍명구의 자(字)는 원로(元老)로 사람됨이 명민하고 강직했으며 문행(文行)과 기식(器識)이 후진(後進) 가운데 첫째로 꼽혔다. 이른 나이에 갑과(甲科)의 장원으로 발탁되어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그 뒤 관서 관찰사의 명을 받자 방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방략(方略)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매우 기의(機宜)에 합당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화란이 점차 박두하자 오직 한 번 죽는 것으로 스스로 맹세하였는데, 행재소(行在所)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전투하고 공방 전전하면서 죽어도 후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3.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

《인조 034 15/02/16(병술) / 남한 산성 장사들의 전공을 조사하여 자급을 더하여 주다》

남한 산성 장사(將士)들의 전공(戰功)을 조사하도록 명하였는데, 서성(西城)에서 힘을 다해 싸운 자는 두 자급(資級)을 올리고, 전투를 도우며 계속 지원한 자는 한 자급을 올리도록 하였다.

《인조 034 15/02/20(경인) / 남한 산성에 오거나 오지 않은 수령 등을 비국에게 조사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남한 산성에 군사를 이끌고 온 수령, 주사(舟師)를 이끌고 먼저 달려 온 자, 때만하여 나중에 도착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지 않은 자를 모두 비국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인조 034 15/02/00(갑자) / 적들이 남격대의 망월봉 아래에서 포를 쏘았다》

적들이 남격대의 망월봉 아래에서 포를 쏘았는데 포탄이 행궁에 날아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달아났다. 적의 군사들이 쉽게 남쪽성에 접근해 오자 우리 군사들이 허물리었다. 적들이 서쪽 성 문밖에 와서 사신을 보낼것을 재촉하였다. 이홍주 등이 오랑캐 진영에 나가서 국서를 전하고 돌아왔다. 대사헌 김수현, 부제학 이경석, 참의 채유후, 정언 이시우 등이 차자를 올리었다. "교활한 오랑캐들이 온갖 간사한 꾀를 다 부리며 네 문제마다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지금 실사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에서 구치고 말리라는 것을 담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위급한 날에 실로 임금의 화를 구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 가운데는 자신의 몸을 바쳐 달아 나설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묶어보내는 조치까지야 어떻게 조정에서 차마 할수 있겠습니까. 결코 난국을 푸는데 도움이 없을 것인데가면저 스스로 손발을 떨라 버린다면 재앙을 촉진시키는 데나 알맞춤 할 것이니 그러고서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처음 오랑캐에게 대답할때에 이미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내쫓았다고 말한 이상 오늘 남의 의견에 추종해 나선 경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단 앞뒷말이 서로 다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랑캐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모자인데 남의 의견에 추종해 나선 경한 사람까지 다 보낸다는 것은 역시 관후한 일입니다. 빨리 묘당으로 하여금 그 의논을 고쳐 확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 의견을 따랐다.

《인조 034 15/02/00(경오) / 오랑캐가 성 밖에 와서 임금이 성에서 나올 것을 재촉 하였다》

용골대와 마부달 두 오랑캐가 성밖에 와서 임금이 성에서 나올 것을 재촉하였다. 임금이 남색 빛깔로 물들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외장행은 겨우 몰리치고는 시종관 50명을 거느리고 서쪽문으로 하여 성밖을 나갔는데 세자도 뒤따라 나갔다. 뒤에 떨어져 있는 여러 관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인조 034 15/02/29(기해) / 백성 구휼과 호종한 자의 포상에 대해 대신과 논하다》

상이 대신을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오늘날의 시급한 업무를 모두 이미 거행하였는가?" 하니, 영의정 김류가 아뢰기를, "감하여 덜어주는 일은 애초에 공안(貢案)이 없기 때문에 각도(各道)로 하여금 베껴서 보내도록 하였으니, 본안(本案)을 간찰한 뒤에 알맞게 감하여 반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을 진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인데 국가의 저축이 없으니, 각도의 곡식을 운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때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또 듣건대 청나라 군사가 장차 4월에 압록강을 건넜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 농사도 앞으로 시기를 잃을 듯하니 애처로운 우리 백성이 거의 씨가 마를 것이다." 하니, 좌의정 홍서봉이 아뢰기를, "듣건대 저들이 몽고(蒙古)의 군사를 제대로 먹이지 않아 조선을 공략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머물러 지체하는 목적은 필시 모두 마탑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꿈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에 호종(扈從)한 자들의 노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녹훈(錄勳)하고 싶은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김류·홍서봉이 아뢰기를, "신과 같은 무리야 죄만 있고 공은 없으니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 성첩을 지킨 대장(大將)들은 혹 녹훈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 호종했다고 하여 모두 녹훈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군이 돌아가지 않았으니 원컨대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상(賞)은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찌 꼭 그들이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리겠는가. 사대부도 모두들 성첩을 지켰는데 늙고 병든 신하가 온갖 고통을 겪은 그 공로는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류·홍서봉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할 일인데 어찌 감히 고통을 겪었다고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야 군신(君臣)의 분수와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 당연한 이치라 하겠지만, 군졸들의 경우는 매우 어리석고 식견이 없는데도 한 번도 해이되지 않았으니, 그 공로는 참으로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급복(給復)하고 급첩(給帖)하는 일을 다시 거듭 밝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034 15/03/07(병오) / 광주 목사 허휘를 소견하고 백성의 구휼과 조세 면제에 대해 명하다》

상이 광주 목사(廣州牧使) 허휘(許徽)를 소견하고 이르기를, "산성에 있을 때 한번 인견코자 했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 그러지를 못하여 마음 속으로 늘상 한스럽게 여겼다. 본 고을이 병란을 가장 혹심하게 입었는데 근래에 민생이 어떻게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가?" 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굶주림에 울고 있습니다. 신이 얼마간 남은 곡식으로 진휼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창(三倉)에 비축해 둔 미곡은 얼마나 되는가?"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비축해 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다른 고을로 이송하지 말고 전적으로 본 고을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하고, 또 이르기를, "남한 산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의 공로이다." 하였다. 허휘가 대사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 고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034 15/03/00(경신) / 강화도가 함락되므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산성에 있을 때에 나는 종묘와 자손들이 모두 강화도에 있는 조건에서 만약 강화도만 보존된다면 산성은 비록 함락되더라도 종묘, 사직은 위탁할 데가 있으리라고 여겼다. 어찌 사람들이 착실하지 못해서 천연요새를 지켜내지 못할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이로부터 다우기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래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보니 마음이 뒤숭숭해서 스스로 안정할 수 없을 뿐이다. 300년동안 전해 내려오던 옥새가 나한테 와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 군사를 출동시켜 가도를 치게 되었으니 천하에 이

와 같은 일이 어찌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다.

《인조 034 15/03/26(을축) / 비국이 김준룡을 사면·파발군·산성 수비군의 구휼에 대해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김준룡(金俊龍)이 전라 병사로서 비록 패군한 죄는 있으나 광교산(光敎山)의 싸움에서 한 차례 대승리를 하였는데 잡아다가 국문하고 유배보내는 것은 억울할 듯합니다. 연신이 죄를 용서해주라고 청한 것은 실로 공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사면하였다. 또 아뢰기를,"남한 산성을 수비하던 군병들이 모두 부모와 처자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풍설 속에서 야영하며 온갖 고생을 겪었는데, 끝내 그들의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더욱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진휼하여 병들고 굶주려 죽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경기 및 삼남의 감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34 15/04/00(무자) / 산성 내에 들어간 신하들에게 표창 문제를 논의하다.》

사헌부에서 계의하였다. "산성에 들어가 있는 장수와 군사 및 여러 신하들이 한때에 전하를 따라다니며 고생한 수고가 없지 않으니 표창을 해주는 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신대장에 올리기까지 하는 것은 실로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요즘 대간들이 표창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며 계하는 하지만 공신대장에 올리는 문제를 슬픈 글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년과 병묘년에 전하를 따라다닌 여러 신하들로 말하면 한때 임금을 호위한 수고가 있을 뿐더러 오늘날에 와서도 치욕을 당하게 한 일은 없지만 오히려 공신대장에 등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이런 지시를 내렸으니 어찌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으며 후세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신대장이 등록할 데 대한 지시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성을 지킨 장수와 군사들은 한때에 눈서리를 맞으면서 맹세한 마음을 굳게 지키며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흩어져 가지 않았고 온갖 고임에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였으니 그 공로야말로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서고럽게 굶지 말것이다."라고 하였다.

《인조 034 15/04#16(갑인) / 남한 산성을 지키고 호종한 장사를 호궤하다》

상이 친히 모화관에 임어하여 남한 산성을 지키고 호종한 장사를 호궤하고 포상하였다.

《인조 034 15/05/15(임오) / 최명길의 국가의 재건 상이 국가를 지키었다는 내용과 문제를 다룬 차자》

우의정 최명길이 차자를 올리기를, "남한 산성의 싸움에서는 고립된 성이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 만과 범이 통하지 못하여 명맥이 단절되어, 안으로는 성첩을 지키는 장사가 얼고 굶주려 죽어가고 밖에서는 팔도의 구원병이 서로 잇따라 무너졌으며, 성중에 있는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는데 강화도에서 패전 보고가 갑작스레 도착하자, 잠깐 사이에 군정(軍情)은 술렁거리고 불측한 변고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

러한 때를 당하여는 지혜 있는 이도 그 지혜를 쓸 곳이 없고 용맹한 자도 그 용맹을 시험할 곳이 없습니다. 가령 전하께서 융통성없이 원칙의 절개를 지키셨다라면 종묘 사직은 멸망했을 것이고 백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열어 단번에 깨닫게 하셔서 묘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백성들의 바람을 따르시니, 하루 안에 위기가 변하여 종묘 사직의 혈식(血食)을 연장하게 되고 생령이 어육(魚肉)됨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어짐과 큰 용맹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인조 034 15/05/00(무진) / 변란 초기 관리들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방황하다.》

비조에서 계의하였다. "듣건대 변란이 일어나던 초기에 늙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강화도로 가라고 한 지시가 있었던 만큼 나이가 많은 늙은이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행차가 숭례문에서 방향을 바꾸어 산성으로 갔다가 산성에서 또 강화도로 옮겨가려고 계획한 일이 비록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말은 이미 먼저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뒤를 따라나선 여러 관리들이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며 방황하다가 이어 적들의 군사에 의해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늙은 부모가 있었으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은 비록 뒤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으로 보아 용서해 줄만 하다고 봅니다."

《인조 034 15/05/00(을유) / 무과시험을 군사들을 위로해 주는 조치로서 시행하다.》

무과시험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비록 말세의 그릇된 규례이지만 군사들을 위로해 주는 조치로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과 과거시험은 원래 무과 과거시험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산성에서 과거시험을 실행하였을 것 같으면 그래도 옳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수도로 돌아온지 오래되었고 나라의 일도 점점 안정 되어 가는데 어찌 많은 선비들을 버리고 이런 구차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산성에 들어가 있던 선비는 5~6명에 불과한데야 더 말 할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더러는 자기 부형을 따라서 간 사람도 있고 더러는 갑지기 어디 갈데가 없으니 들어 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뜻은 전적으로 전하를 호위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조 034 15/05/28(을미) / 전 판서 김상헌이 호종한 일로 표창 받자 자신의 죄를 논한 상소문》

전 판서 김상헌(金尙憲)이 상소하기를, "아가가 산성에 계셨을 때 대신과 집정이 다투어 출성(出城)하기를 권하였으나 신은 감히 복술을 믿고 지켜야 한다는 의리로 망녕스레 당전에 진달하였으니, 신의 죄가 하나이며, 항복하는 문자를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초본을 찢어버리고 묘당에서 통곡하였으니, 신의 죄가 둘이며, 양궁(兩宮)이 환히 적의 진영에 나아갔는데, 신은 이미 말 앞에서 머리를 부수지도 못했고 절명으로 또한 수행하지도 못했으니, 신의 죄가 셋입니다. 신이 이 세 가지의 대죄를 지고도 아직 형

잠(利祿)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끝까지 수행한 세신과 함께 균등하게 은전을 받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권선 징악하는 도리를 밝히소서. 신처럼 외람한 자는 반드시 개정하라는 공론이 있을 것인데,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다 보니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질 못하므로 외람되게 번거롭게 구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소를 올렸는데 회답하지 않았다.

《인조 035 15/10/09(계묘) / 《시전》을 강하다. 윤황 등의 석방과 남한 산성의 수축 문제를 논의하다》

이시백이 나아가 아뢰기를, "남한(南漢)의 수축은 하루가 급하나, 농사철에 일을 일으키면 민심을 크게 잃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때를 거두는 패주한 군사 중에서 2천명을 뽑아 내어 반은 일을 시키고 반은 양식을 장만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할 듯한데, 묘당의 의논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때를 거두라고 각 도에 공문을 보내어 알렸는데 이제 또 고친다면, 국가의 호령이 어찌 이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성을 수축하는 일에 쓰도록 허가하시면 신에게 선처할 방도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꾼 2천 명은 일제히 일하러 나아갈 만한 수가 아니므로 시일을 배정하려면 일이 매우 불편하다. 다른 나라에서 듣더라도 반드시 웃을 것이다. 또 농사철에 이런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은 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패주한 군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사죄(死罪)에 처하지 않았으니, 또한 농민이 아니고 부잣이겠는가. 경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하였다.

《인조 036 16/01/01(을축) / 부수찬 윤문거가 사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부수찬 윤문거(尹文擧)가 상소하기를, "남한 산성에서 강화를 배척하던 신하들을 압송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던 때에, 신은 아비 때문에 망령되이 여러 사람들을 불측한 곳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는 신이 나라에는 불충한 것을 하고, 어버이에게는 나쁜 자식이 되며, 남들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되고, 피리에는 어긋나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받고 악명을 뒤집어 쓰고서 종신토록 스스로 폐치되어야 마땅하지, 외람되게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빨리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36 16/01/04(무진) / 호조 판서 심열 등을 인견하여 남한 산성과 강도에서의 수비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이시백에게 이르기를, "현재 남한 산성에 있는 식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아뢰기를, "4천여 석입니다."하였다. 또 심열에게 이르기를, "경창(京倉)에 저장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3만여 석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의 군량을 2만 석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하니, 아뢰기를, "경창의 쌀을 옮기고, 수상(水上)에 있는 여러 읍의 전세(田稅)를 운송하면 1만여 석은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빙할 때를 기다려 실어 들이라."하였다. 심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江都)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시백에게

이르기를, "강도와 남한 산성을 일시에 수습할 수 없다면 경의 생각으로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하자, 아뢰기를, "강도는 배가 드나들 수 있어 여러 도에 호령을 할 수 있지만, 남한 산성은 포위된 뒤에는 안팎이 단절된다는 것을 전에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말씀 드린다면 남한 산성이 강도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대장이 들어가 지키면 되지만, 강도는 지땅이 넓고 멀어 적을 막고 지키기가 쉽지 않다. 불행히 남쪽에서 경보가 있으면 서쪽으로 거동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교동(喬桐)의 형세는 어떠한가?" 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그 섬은 넓지 않고, 수세(水勢)가 배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대체로 작은 강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을 막는 기구로는 대포만한 것이 없다. 지난해 남한 산성에서도 대포를 조치하지 못한 것이 큰 흠이었다." 하니, 시랙이 아뢰기를, "현재 조치해 갖추어 놓으려 하고 있으나, 동철(銅鐵)이 부족하기 때문에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하였다.

《인조 036 16/01/05(기사) / 이시백·구굉·윤명은·목행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백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시백은 본디 충실한 사람이었다. 남한 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산성을 지키는 여러 군사들이 강화를 배척하는 신하들을 내쫓았는데, 유독 시백의 군사만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에 사론(士論)이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

《인조 036 16/01/07(신미) / 호조가 남한 산성의 군량에 대해 계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의 군량은 해빙하기를 기다려 수송해 들여서 2만 석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창에 저장된 것이 방료(放料) 후에 남은 것이 2만여 석이니 먼저 대미(大米) 9천 석과 소미(小米) 1천 석을 배를 빌려 산성 아래에다 운송해 놓고, 수상(水上)의 전세(田稅) 7천여 석을 곧바로 산성에 보낸다면 거의 그 숫자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1만 석만 보내면 모자랄 듯하니, 더 마련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036 16/01/12(병자) / 서우신을 유배지에서 잡아다가 다시 국문하라 명하다》

상이 서우신(徐佑申)을 유배지에서 잡아다가 다시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금부가 다시 유배지로 돌려 보내자고 청하니, 답하였다."무거운 죽으로 법을 적용하여 결장하고, 남한 산성에다 정배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세워 허물을 씻게 하라."하였다.

《인조 036 16/01/13(정축) / 우의정 신경진이 남한 산성 증축에 대해 계하다》

우의정 신경진(申景禛)이 아뢰기를, "신이 수어사(守禦使) 이시백과 함께 남한 산성에 가서 망월대(望月臺)와 동격대(東格臺)를 간심해 보니, 밖에 포루(砲樓)를 설치하는 일은 공력이 매우 크지만 일의 형세나 지력상 어렵다고 하여 마침내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기에 축조할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 올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인조 036 16/01/15(기묘) / 충청 감사 정태화가 전사한 군사에 대한 처리를 치계하다》

충청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기를, "남한 산성과 금화(金化)에서 전사한 군사들에게는 모두 급복(給復)하고 모조(耗租)를 주었습니다. 본도의 원천(陰川)·쌍령(雙嶺)·강도(江都)에서 전사한 자들이 도합 2천 6백여 명이니, 똑같이 휼전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또한 전사한 군사 중에 부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조정의 분부에 따라 모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합니다. 원곡(元穀)을 정가해 각각 2석씩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인조 036 16/01/17(신사) / 주강을 마치고 각 읍의 원곡과 방답진의 배 등에 대해 논의하다》

특진관 임광에게 이르기를, "어제 이시백이 남한산성을 수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현저히 있었다. 이미 수어하는 임무를 주었으니, 성제와 화복이 모두 이 성에 달려 있다. 일을 망친 뒤에 누가 그 허물을 지겠는가." 하였다.

《인조 036 16/01/25(기축) / 주강을 마치고 산성에서의 수비에 대해 논의하다》

특진관 조문수(曹文秀)가 아뢰기를, "묘당의 계책을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산성에서는 결코 왜구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강도는 천험(天險)의 요새지로서 나라의 보장(保障)입니다. 지난해 지키지 못하였던 것은 지형 탓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강도를 수습하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산성은 지킬 수 없단 말인가?"하자, 문수가 아뢰기를, "신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세가 참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감은 신하들이 한 사람도 난에 달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불러 온 것입니다. 이점이 신이 한밤중에 비분해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을 지킬 수 없다면 또 어찌 강도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하니, 문수가 아뢰기를, "긴 강과 천험의 방호는 산성에 비해 지키기가 쉬울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천험의 방호라고 하지만 사람을 얻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성을 지킬 수 없고 또 들에서 싸울 수도 없다면 장차 나라를 들어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임진년 난리 때 왜인들이 성을 함락시킨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성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한다. 그 당시에는 성곽이 견고하지 못하였으니, 형세상 지키며 방어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남한 산성은 지형이 험하고 성 또한 완전하고 두터워 남원(南原)이나 진주(晉州)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였다.

《인조 036 16/01/26(경인) / 대신과 당상을 인견하여 왜구·남한 산성의 수축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흩어졌던 군사 1천 명이 금명간 들어온다고 하니, 오래지 않아 남한 산성을 수축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디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누가 감독하는가?"하자, 대답하기를, "망월대(望月臺)에서 시작하고, 종사관 홍전이 이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합니다." 하였다.

《인조 036 16/02/05(기해) / 옥당의 전 영의정 김류·영중추부사 윤방 등의 죄에 대한 상차》

옥당이 상차하기를, "지난해의 변란 때 적을 놓아두고 임금을 버린 원수(元帥)가 아직까지 목숨을 보전하고 이 세상에서 버젓이 숨을 쉬고 있으니, 만약 제도(諸道)의 하급 장관(將官)이 혹 군율을 받았을 경우 죽은 자가 도리어 구천에서 원통해 할 것입니다. 아, 옛날 군율은 대장부터 시행했는데, 오늘날 군율은 한결같이 어찌 그리도 이긋난단 말입니까. 삼군(三軍)의 명(命)을 받고 서문(西門)을 막는 것이 이 어떤 책임인데 당초 적의 기병 수백 기가 성 아래를 지나갔는데도 그들의 동태를 살펴서 먼저 대응하지 못하였고, 대병이 미구 쳐들어 와 남한 산성에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깊은 골짜기를 경유해 달이 바뀐 뒤에야 와서는 외로운 성을 지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도 간담이 저절로 찢어지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살점을 씹고자 합니다.

《인조 036 16/02/07(신축) / 비국이 남한 산성 축조를 위해 중을 조발할 것을 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하삼도와 영동(嶺東)의 중들을 조발하여, 거느리는 장수를 뽑아 남한 산성을 축조하는 일을 돕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인조 036 16/02/08(임인) / 잠유와 이경석이 지어 청나라에 보낸 삼전도 비문》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중 일구절을 살펴보면 그 때 우리 임금은 남한 산성에 피신하여 있으면서 봄날 얼음을 밟듯이, 밤에 엷은 대낭을 기다리듯이 두려워한 지 50일이나 되었다. 동남 여러 도의 군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서북의 군사들은 산골짜기에서 어슷거리면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으며,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지려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대병이 성에 이르니, 시뢰바람이 가을 낙엽을 몰아치는 듯, 화로 불이 기러기 털을 사르는 듯하였다. 황제가 대병으로 남한 산성을 포위하고, 또 한쪽 군사에게 명하여 강도(江都)를 먼저 함락하였다. 궁빈·왕자 및 경사(卿士)의 처자식들이 모두 포로로 잡혔다. 황제가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종관(從官) 및 내시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였다.

《인조 036 16/02/09(계묘) / 비국이 군량 운송에 대해 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기전(畿甸)의 형세는 다른 도에 비해 가장 심한데 또 회사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왔으니, 휴식시켜 동요되지 않게 하는 정사를 펴서 봄농사에 전념하게 해야 하는데, 남한 산성으로 군량을 수송하는 일이 마침 이 때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비 무환의 계책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지만, 백성들의 사세가 매우 급박합니다. 경창(京倉)에서 운송한 것이 이미 1만 석이나 되는데, 수상(水上)에서 운송해야 할 것도 이 정도가 됩니다. 산성으로 운송해 들일 적에 인력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정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닥쳐올 환난에 대비하기에 급하여 이 군량을 운송하는 거조가 있게 되었는데, 민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미안하

게 생각하였다. 수상의 군량을 이미 실어왔더라도 이미 운송해 들인 각읍은 그 일을 다시 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인조 036 16/02/10(갑진) / 심양에서 돌아 온 좌의정 최명길을 인견하다》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명길이 아뢰기를, "차왜(差倭)가 갑자기 7조목의 일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였으니, 그 정형이 이상하다고 할 만합니다. 남한 산성을 물려 수축하는 거조는 늦출 수 없을 듯하나, 청나라에서 듣는다면 힐문할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은 단지 무너진 곳만 수축하게 하고 흩어져 달아났던 군사들의 명호(名戶)를 성 안에다 운송해 두고서 서서히 사세를 보아가면서 하더라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남의 산성은 수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승군(僧軍)을 모두 남한 산성을 수축하는 역사에 보낼 경우 영남의 산성을 수축할 때에는 누구를 써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은 적의 침입을 만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거조가 있게 된 것인데, 공역이 너무 커서 나 또한 걱정이다. 수어사(守禦使)가 이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니, 경은 그와 함께 서로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심기원(沈器遠)을 남한 산성으로 이배(移配)하는 일은, 상께서 그 죄의 경중을 잘 알고 계시니 폐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다.

《인조 036 16/02/21(을묘) / 신경원과 심연을 석방하고, 신경원을 총융사 중군으로 삼다》

심연은 영남의 방백으로서 남한 산성이 피급할 때 즉시 난에 달려오지 않고 여주(呂州)에 이르렀다가 병사의 군대가 패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군병을 조발한다고 정계하고서 되돌아 조령(鳥嶺)을 넘어갔다. 다 군율을 면하였으니 이미 모두 실형(失刑)한 것인데, 유배되자마자 다시 옮기고 또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다. 나라의 군율이 한결같이 아이들의 장난이 되었으니, 뭇으로 통탄할 만하다.

《인조 036 16/03/05(무진) / 동지 이경여가 문경의 어류 산성에 대해 계하다》

동지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문경(聞慶) 북쪽 조령(鳥嶺) 남쪽에 산성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어류(御留)라고 합니다. 그 성 안의 넓이는 남한 산성의 십분의 구나 되며, 형세의 험하고 견고함은 남한 산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 산성의 가장 험한 곳에 비해 볼 때 더 험하고 크고 작은 암석이 흙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공역을 매우 적게 들이고도 또한 방비하기 어려운 형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조 036 16/03/26(기축) / 호조·병조 관서를 불러 군량의 준비 상황과 피난할 곳을 묻다》

호조 판서 심열(沈悅)과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을 인견하였다. 심열이 아뢰기를, "군량 2백여 석을 이미 남한 산성으로 운송해 들였습니다. 그 나머지 이송할 서량(西粮)은 지금 수로로 운송하려고 합니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만약 갑 만한 점대로 안전한 곳이 있다면 반드시 강도로 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도를 버린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성은 한때 방어할 곳이지, 결대로 오랫동안 머물며 방비할 곳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오랑캐를 방어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괜찮지만, 왜적을 방어하는 경우라면 옳지 않다." 하자, 심열이 아뢰기를, "강도가 남한 산성보다 오히려 낫습니다."하였다.

《인조 036 16/04/05(무술) / 비국이 심기원을 천거하다》

심기원은 병자년 변란 때 팔로의 병사를 거느리고서 산골짜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물러나 움추린 채 관망만 하고 있었다. 이에 남한 산성을 지척에 두고서도 끝내 한 발자욱도 나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지 않았다. 나라에 기율이 있다면, 기원이 어찌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인조 036 16/04/08(신축) / 이홍주와 최명길을 면대하여 남한 산성의 군량에 대해 의논하다》

홍주가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수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상(水上)의 세미(稅米) 6, 7천 석을 남한 산성으로 수송할 군사가 없습니다. 만약 때로 강도에다 운송해 들인다면 일이 매우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남한 산성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하자, 홍주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는 군량을 일찍이 이미 수송해 들였습니다." 하였다. 혹시라도 변란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반드시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강도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명길이 아뢰기를, "영남에 정인홍(鄭仁弘)의 남은 무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처음에 남한 산성에서 나온 거조를 듣고서 소를 잡아 놓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축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악을 고치고 않고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하니, 남방에 변란이 있을 경우 적에게 붙을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은 악역의 무리들이니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조 036 16/04/26(기미) / 전 현감 윤선도의 공초문》

이에 앞서 대관이, 전 현감 윤선도(尹善道)가 애초 임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강도에서 내려갈 적에 처자(處子)를 잡아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몰래 들어갔다는 이유로,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였었다. 이에 선도가 공초하기를, "지난해 병란이 창졸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다가 중도에서 막혀 단절되기보다는 바닷길을 통해 강도로 가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간신히 안흥진(安興鎭)에 도착하였는데,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배를 돌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해남(海南)에 도착하였을 때 비로소 남한 산성에서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관이 논계하면서 말한 것은, 강도에 있을 때 도성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달려와 문안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였으니, 어찌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천 리나 먼 바닷길

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 넘기는 것을 꺼리지 않고 먼저 강도로 달려갔는데, 어찌 경성을 지척에 두고서 달려가 문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인조 037 16/07/24(을유) / 진주사 홍보가 심양에서 의주로 돌아와 보낸 한의 서찰 내용》

진주사(陳奏使) 홍보가 심양(瀋陽)에서 의주(義州)로 돌아와 한(汗)의 서찰을 등초하여 보냈는데, 그 서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청국(大淸國) 관온 인성 황제(寬溫仁聖皇帝)는 조선 국왕에게 칙서로 유시한다. 처음 왕이 피하여 남한 산성에 있을 때 짐이 칙서로 이르기를 「만약 명(明)나라를 정벌하게 되면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보병·기병·수군 등 수만 명을 동원시킬 터이니 혹 시간과 장소를 실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는데, 그때 왕이 일찍이 군사를 모집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는가? 지금에 이르러 정벌하라는 유서가 있어도 왕은 끝내 군사를 동원시켜 은혜를 갚았다는 말은 없고, 이에 형편상 군사를 모집할 수 없으며 끝내는 점차 와해되고 말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문(奏聞)하여, 마치 거절하는 듯하니, 어찌 참으로 천일의 조서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만약 짐이 동원시킨 5천 명이 너무 많다고 여긴다면 왕과 짐이 서로 원한을 맺었을 때 남한 산성을 구원한 신·구(新舊) 군사도 또한 적지 않았었고, 만약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고통스러운 일로 여긴다면 옛날 군사를 일으킨 단서는 그대가 즐거운 일로 여겼었는가? 행병(行兵)의 고통은 사람마다 똑같은 바이고 내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또한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였다.

《인조 037 16/07/29(경인) / 장령 박계영과 유석이 김상헌의 논죄에 대해 계하다》

장령 박계영(朴啓榮)과 유석(柳碩)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서 굴복하던 날 임금은 해아리지 못할 위험에 빠졌고 신민은 망극한 심정이 모두 같았으니, 자신을 우선하고 임금을 뒤로 하는 것은 의리상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인조 037 16/08/01(신묘) / 지평 이해창이 김상헌의 논죄에 대해 계하다》

지평 이해창(李海昌)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서 굴복하던 때를 당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변치 않은 자는 김상헌과 정온입니다. 두 사람의 정상은 실로 똑같은데, 만약 칼로 협박하느냐 쳐르지 않았느냐로 한 사람은 죄주고 한 사람은 죄주지 않는다면 매우 근거 없는 의리입니다.

《인조 037 16/08/01(신묘) / 부제학 이목·응교 홍명일·수찬 이행우가 김상헌의 일에 대해 계하다》

부제학 이목, 응교 홍명일(洪命一), 수찬 이행우(李行遇)가 상차하기를, "삼가 듣건대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은 고금의 통의(通誼)입니다. 남한 산성에서 나온 조치는 종사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이니,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김상헌과 정온이 남보다 앞장서서 충성심을 발휘하고 기꺼이 자결하려고 한 것은 차마 임금께서 치욕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기 때문이었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조 037 16/08/01(신묘) / 예조 판서 이현영이 김상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예조 판서 이현영(李顯英)이 상소하기를, "신이 호종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며 남한 산성에서의 의논과 사정은 하나도 모르지만 남에게 들은 바로 말하면, 김상헌은 고집 센 성품으로서 죽기를 작정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옳다 하고, 종사와 백성을 위하는 계획을 세워서 권도(權道)를 써 구제하는 것이 중도를 얻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 편협함은 고칠 수 없습니다. 남한 산성에서 굴복할 때의 광경을 실로 차마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 통곡하고 물러나오되 마음이 말끔하여 홀쭉 도망나온 것은 반드시 부지 불과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처럼 근거 없는 상소는 후일 만약 들리지 말아 국가의 체통을 높이라." 하였다.

《인조 037 16/08/01(신묘) / 대사헌 김영조가 김상헌의 논핵에 대해 상소하다》

대사헌 김영조(金榮祖)가 상소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상헌이 남한 산성에서 나오던 날 적에 벌어진 것은 비록 잘못이 있지만 당초 적의 군대가 왔을 때 그가 60리 밖에 있다가 변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성으로 되따라 들어왔으니 이 어찌 왕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겠는가라고 여겼습니다. 난리를 당하여 배반하여 도망치고 원래 성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벌이 이에 이르지 않았으니, 대관이 착용시킨 법은 적당치 않은 듯하므로 신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조 037 16/08/01(신묘) / 우의정 신경진과 조병에 대해 의논하다》

우의정 신경진이 정대(請對)하니, 상이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에 있을 때 성이 함락되면서 따라 죽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종사(宗社)가 소중하므로 참아서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 또 망극한 일이 있으니, 산성에서 죽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럽다." 하니, 경진이 아뢰기를, "금일의 일은 참으로 망극하다고 하겠으나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필부(匹夫)의 절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인조 037 16/08/03(계사) / 좌의정 최명길이 조정에서 서로 공격하는 일에 대해 계하다》

김상헌은 문장과 조행이 당시에 존중을 받았고 남한 산성이 포위당했을 때에 서둘러 달려왔고 문서를 찢으며 통곡하였으니, 정의는 참으로 숭상할 만합니다. 일이 급하게 된 뒤에 미쳐서는 조그마한 신의를 위해 죽지도 못하고 이에 종묘 사직을 받든 임금에게 폐방하려고 하여 발끈 성을 내고 성(城)을 나와 돌아보지 않고 갔으니, 근거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번연히 생각을 고쳐 궁궐 아래에 나와 사죄했다면 오히려 허물을 잘 수습한 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찌 그리도 혼미하게 매달을 줄 모르고 갈수록 더욱 폐색되었단 말입니까.

《인조 037 16/08/19(기유) / 주강을 마치고 조병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에 있을 때 군신이 만약 모두 앉아서 죽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좌우가 눈물을 감추며 감히 쳐

다보지 못하였다.

김상헌이 당초 이미 변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에 들어왔고, 그의 말이 시행되지 않자 가버렸으니 진퇴(進退)하는 절의에 부합됩니다. 실로 마땅히 선양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는데, 어찌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인조 037 16/09/03(임술) / 병조 참판 이경여가 김상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병조 참판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남한 산성에 있을 때, 전 판서 김상헌과 전 참판 정온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행히 살아나 죽으려 하다가 이루지 못한 정상을 목격하고는 마음으로 항상 애처롭게 여겼는데, 상헌을 배척하여 마치 편협한 소인을 공격하듯 하여 귀양보내자고 청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상헌의 입은 갈갈못을 논할 것도 없이, 2백년 예의지방에 살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천조(天朝)를 위하여 의리를 지킨 자는 오직 이 두 신하 뿐인데, 또 잇따라 혹심하게 다스리면 무엇을 가지고 천하 후세에 변명하겠습니까. 금일 부득이한 조치는 종사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이니, 다만 마땅히 뒷처리를 잘해야 할 뿐입니다. 두 신하의 일은 또한 각자의 의지일 뿐이고 국가의 영광으로 여겨야 할 만한 것인데, 무슨 임금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 있겠습니까.

《인조 037 16/10/09(무술) / 장령 이여익과 지평 이도장이 김상헌의 일에 대해 계하다》

장령 이여익과 지평 이도장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서 나올 때 적의 실정을 헤아리기 어려워 일의 기미를 예측할 수 없었고 몹시 경박하고 위태로워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판서 김상헌은 병을 핑계하고 억지로 누워서 끝내 호종하지 않고 북문(北門)을 뛰어 나오면서도 터럭만큼도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호종한 공로로 상을 주자 본 즉시 봉한 채 그대로 돌려보내 더러운 물건 보듯 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역(異域)으로 행차하는 것이 이미 성(城)에 있을 때 결정되었고 빈객(賓客)의 직책에 있었으니 분수와 의리가 더욱 중한데, 당초부터 따라갈 뜻이 없었고 끝내는 배웅(拜送)하는 예의까지 하지 않았으니 따라가기를 청한 송나라 사람 손부(孫傅)와 어쩌면 그리도 상반됩니까. 이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후세에 시비를 밝힐 방법이 없으니, 중도 부처(中道付處)하소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가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야지, 떠나가는 의리는 없습니다. 전 참판 정온은 자신을 칼로 찔렀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비록 성을 나올 때에 호종하지는 못했더라도 병이 나은 뒤에는 피당 찾아와 문안을 해야 하는데, 곧장 귀향하여 이미 임금을 잊지 못하는 뜻이 없었고 그 마음을 헤엿이 하려고 분수와 의리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니, 굳이 벌을 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자,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인조 037 16/10/29(무오) / 대사헌 이행원·지평 정태제 등이 김상헌과 정온 등의 일에 대해 계하다》

대사헌 이행원(李行遠)이 아뢰기를, "이 두 신하는 남한 산성에 있을 때부터 죽으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는데, 서울로 돌아온 뒤에 미쳐서는 치화(痴禍)를 배척하는 의논이 날로 더욱 성하였습니다. 그 본심을 헤아려 보건대, 감히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용납되지 못해서였던 것이니, 그 정상이 참으로 애처로워 성낼 수 없습니다.

《인조 037 16/12/25(계축) / 간원이 화공의 출입 등에 대해 상차하다》

간원이 상차하기를, "아, 작년 남한 산성의 일을 전하께서 이미 잊으셨습니까. 사방에서 소문을 듣는 자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신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란 마음에 반신반의하여 단정치 못하였습니다. 상소에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은 바가 있어 짧은 차자를 올려 생각한 바를 전달하오니, 삼가 전하께서는 남한 산성의 일을 잊지 말아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고 연못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날마다 조심하며, 완물(玩物)을 끊어버려 각고(刻苦)의 뜻을 더욱 더하고 신하를 접견하여 위급한 때의 업무를 문의하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다 살펴보니 매우 가상하다. 차자로 전달한 일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 하였다.

《인조 037 16/12/30(무오) / 전 예조 판서 조익의 탄핵을 변론한 병조 판서 이시백의 상소문》

대저 그가 나갈 때에 신발대는 이미 출동했는데 별안간 남문(南門)으로 회가(回駕)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며 다만 적의 침입이 다소 누그러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비로소 임금께서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80세인 늙은 아비를 잃어, 허둥지둥하는 때에 자식의 지극한 심정은 다른 것을 생각치 못하고 다만 그 아비를 찾은 다음 행재소(行在所)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양천(陽川)·김포(金浦)·풍진(通津) 등 세 고을 사이에서 분주히 찾아 며칠 후에 비로소 그 아비가 있는 곳을 알았는데, 행재소는 이미 멀리 떨어져 들어가 보실 길이 없었으니, 그 낭패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조익은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상경(上卿)에 올랐으나 서울에 두서너 칸의 집도 없어 임시 집을 빌어서 살았고 봉급으로 먹고 살았으며, 피난할 때 집에는 말 한 마리도 없어서 부녀(婦女)들이 걸어갔습니다. 멀리 피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신에게 부탁하여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겨우 성 밑에 도착하자 적을 만나 도망쳐 바다 섬으로 들어갔고, 조익은 여러 사람들과 분주히 군사를 모집하느라 그 가족과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 어느 겨를에 돌보았겠습니까.

《인조 038 17/01/07(을축) / 주강을 마치고 세폐에 대해 의논하다》

승지 이경여가 아뢰기를, "정치에 힘쓰는 실상을 반정한 초기처럼 하기를 생각하시고, 부흥하는 정치를 남한산성에 계시는 날처럼 하기를 생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말이 참으로 좋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일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하

였다.

《인조 038 17/01/25(계미) / 비국이 백성의 굶주림의 구제에 대해 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요즈음 도성 백성의 굶주리는 근심이 매우 급한데, 조정에서도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극히 근심스럽습니다. 남한 산성의 쌓 수천 석을 내어 무명을 무역하되, 시장 가격보다 쌀의 수량을 조금 더 많게 하면 곤궁에 허덕이는 위급한 상황을 다소나마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또 쌀을 바꾸어 새워 갈게 하면 반드시 남는 바가 있을 것이고 남한 산성에서도 손해가 없게 되어 양쪽이 다 편리할 듯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수어사(守禦使)에게 물어서 처리하라."하였다.

《인조 038 17/01/28(병술) / 좌의정 신경진·우의정 심열·호조 판서 이명을 인견하여 세폐에 대해 의논하다》

심열이 아뢰기를, "경기의 백성이 현재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서 대동미(大同米)를 바련하기 어려우니, 남한 산성의 미곡으로 선혜청에 옮겨 지급하고 가을에 백성에게 거두어서 곧바로 산성으로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인조 038 17/02/02(경인) / 남한 산성에 사당을 세워 「백제 시조왕」이란 위판을 만들게 하다》

남한 산성에 사당을 세워 온조왕(溫祚王)을 제사하고 위판(位版)을 고쳐 써서 「백제 시조왕(百濟始祖王)」이라 칭하였다.

예조에서 「우리 나라의 사서(史書) 및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모두 온조왕(溫祚王)으로 썼는데, 세대가 멀어져서 명호 및 시호를 분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의 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거하여 위판에 쓰자고 했는데, 상이 답하기를, "온조는 이름인 듯한데, 위판에 바로 쓰는 것이 어떠할지?" 했다. 예조가 「백제 시조(百濟始祖)」라고 쓰기를 청하니, 상이 「왕(王)」자를 더 써 넣도록 명하였다.

《인조 038 17/02/06(갑오) / 심양의 재신 신득연·박로 등이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에 대해 밀계하다》

세자가 명을 내리기를 「정뇌경은 시강(侍講)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산성을 나와 용감하게 배종(陪從)한 이래로 갖은 고난을 겪으며 공로가 매우 많았는데,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니 몹시 불쌍하다. 몸소 궐하에 나아가서 대죄하고 변명하고자 한다.」 하므로 신들이 상의하고 들어가 아뢰기를 「이 나라의 습속은 죄인을 신구(伸救)하면 문득 동관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저들이 현재 본국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결코 가벼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그만두었습니다.

《인조 038 17/02/07(을미) / 정뇌경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이르기를, "정뇌경이 어찌하여 정명수가 용장(龍將) 무리와 서로 심복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하였단 말인가. 그의 사정을 따져 보면 통분한 정상을 적잖이 보고 나라를 위해 해독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빠졌으니 피통한 심정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뇌경이 남한 산성에서 곧바로 저들 지역으로 갔으므로 그가 교체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노고를 보답하려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알았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만일 사신을 보낸다면 방물(方物)이 있어야 하는가?" 하였다.

《인조 038 17/04/04(신묘) / 호조가 군관 액수 줄이기를 청하다》

호위청(扈衛廳)이 아뢰기를, "대장은 군관이 1백 40명인데 급료를 받는 사람은 60명이고, 당상은 군관이 80명인데 급료를 받는 사람은 30명으로 돌려가며 입직한 지 지금 이미 17년입니다. 그리고 호종(扈從)하고 남한 산성에 들어가서 부모와 처자를 잃어서 의지할 바가 없어 몇 말의 급료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정이 불쌍한 듯합니다. 갑자기 재감(裁減)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호종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헤아려 감하라."하였다.

《인조 038 17/05/14(경오) / 총훈부가 거의한 사람과 남한 산성에 호종한 사람 중 벼슬 없는 자 돕기를 청하다》

총훈부가, 거의(擧義)한 사람 및 남한 산성에 호종한 사람 중 벼슬이 없으면서 서울에 있는 자에게 우선 요미를 주어 살아가는 바탕으로 삼게 하기를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38 17/05/15(신미) / 옥당이 다섯 가지 조목으로 임금의 처신에 대해 상차하다》

아, 남한 산성의 포위가 겨우 풀려 국운이 아직 위급한데도 군신 상하가 이미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때의 마음이 없고 한두 해 사이에 모두 잊어버려 조금도 아픔을 참고 원통함을 품으며 박부득이한 뜻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숨기고 말하지 않으니 충의의 기운이 없어지고, 일시의 안일을 탐내어 스스로 포기하니 나약한 습성이 고질화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큰 뜻을 먼저 세워 부지런히 힘쓰시되, 항상 남한 산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처럼 하신다면, 향하는 대로 나아가더라도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인조 038 17/05/19(을해) / 대사간 이경의가 임금의 처신에 대해 상소하다》

대사간 이경의가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남한 산성에 계시던 날에 각고 면려하는 뜻이 극진하셨는데, 환도하신 지 오래지 아니하여 환관에 처하였을 때 품었던 마음을 잊으셨으니, 전하의 본받아야 할 성의가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인조 038 17/07/00(정사) / 산성에서 나와 조회하러 들어가다.》

이성구가 말하였다.

"당초에 산성에서 나온 것은 만 번중 한번의 요행이라도 있을 것을 바라서였는데 이제 보니 전혀 견디어낼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비록 한번 조회하러 들어가는 것도 다른 우려는 없겠지만 매년 조회하러 들어오게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인조 039 17/07/14(기사) / 청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비국 당상과 논의하다》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가 아뢰기를, "군사 원조에 관한 허락 여부를 모름지기 속히 결정해야 되지만, 상께서 여부를 곧은 남한 산성과 강도 중 한 곳으로 결정하여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하였다.

《인조 039 17/09/05(기미) / 간원이 김자점-심기원 등의 방유를 철회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간원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서 위급함을 당했던 때에 김자점(金自點)과 심기원(沈器遠)은 모두 사명(司命)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적이 쳐들어 와도 조처하지 않은 채 후 퇴진 산속에서 머뭇거리는 등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모른 체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끝내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인조 039 17/12/00(정해) / 삼전도 비를 세우고 관리에게 상을 주었다》

삼전도에 비를 세우는 공사가 끝났다. 감역관이하 관리에게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상고하건대 상을 받은 사람에게 만일 사대부다운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인조 039 17/12/06(무자) / 개축한 남한 산성을 허물라고 획사가 말하다》

청사(淸使)가 삼전도 비(三田渡碑)를 가서 보고는 시냥한다는 핑계로 남한 산성에 들어가 성첩(城堞)을 두루 살피본 다음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그리고 승지(承旨)와 중사(中使)를 관소로 불러 도환인(逃還人)·세삼인(採蔘人)·할화인(割化人) 등에 관한 일을 제기하면서 수없이 꾸짖고, 또 소리를 높여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당초의 약조(約條) 중에 산성(山城)과 해도(海島)를 다시 수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뒤로 왜적을 방비한다는 거짓 구실로 산성을 수리하려 하고 있다. 왜병이 만약 남한산성까지 들어온다면 그 동안에 우리들이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임씨이 절대 수축하지 말라는 뜻으로 간곡히 말했는데, 오늘 산성을 두루 보니 산성 안에 네 곳이나 곡식을 쌓아 두었고 또 추초도 저장하였으며 성기(城基)를 풀려 쌓고 포루(砲樓)도 개설하였으니, 너희 나라가 어떤 간계(奸計)를 가지고 있기에 감히 이런 짓을 하는가.

《인조 039 17/12/09(신묘) / 도망온 자 및 귀화인을 쇄환하는 일과 남한 산성을 허무는 일에 관해 승지 구봉서 등이 청나라 사신에게 말하다》

청사(淸使)가 출발하려고 하자, 상이 승지 구봉서 및 중사를 보내 질병 때문에 대면하여 이별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유(傳諭)하게 하니, 마부달(馬夫達) 이 말하기를, "국왕의 질병이 고질화되어 심각한 상태를 심양에 돌아가 보고하겠다." 하였다. 봉서가 말하기를,"대국의 모든 명령은 아무리 어리운 일일지라도 곡진하게 따라야 할 것인데, 더구나 이 산성을 허무는 일을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소방의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왜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현저히 근심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이미 한수(漢水) 남쪽의 성지(城池)를 수축하였다는 뜻으로 아문(衙門)에 보고하였고 그 후로 남한 산성을 약간 수리하여 왜구를 방비하였던 것이니 어찌

별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산성 내에 곡식을 모아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광주(廣州)에서 기둥들이는 곡식으로 가을에 수합하여 보관하였다가 봄에 나누어 주는 것이며, 마초(馬草)를 쌓아 놓은 것은 실로 군읍(郡邑)의 상규(常規)일 뿐인데 하필 여기에 의심을 가지십니까?" 하니, 마부달이 말하기를, "이 산성을 수축해서 무슨 공을 이루려고 그렇게 급급히 더 수축하였는가?" 하였다. 봉서가 말하기를, "소방의 뜻이 왜구를 방비하는 데에 있으니 대국에서도 수축하도록 권해야 할 일인데, 어째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을 의심하십니까. 산성이 깊고 외진 곳에 있지 않고 비(諱)를 세운 곳과 매우 가까워 대국의 사신이 오래 머 있는 곳에 이르러 산성 근처를 왕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째 대국이 알지 못하고 사신이 보지 못한다 하여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명조(明朝)를 섬겨 온 지 오래 되었는데, 갑자 하나가 막혀 있을 뿐인 의주(義州)에 성보(城堡)를 크게 설치하고 병갑(兵甲)을 많이 배치했어도 명조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정의(情義)에 간격이 없는 부모의 나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니, 마부달이 말하기를, "의주의 설치는 변성(邊城)인 까닭에 헐어 버리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들이 금단하는 것은 변성이 아니고 내지(內地)에 수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 등지에는 이미 수축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지금의 남한 산성은 쌓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봉서가 말하기를, "대국의 뜻을 어찌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헐어버리는 것도 수축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우니, 다시 헤아려 주시어 새로 설치한 포루(砲樓)만 헐어버리게 해 준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마부달이 이에 허락하였다.

《인조 039 17/12/09(신묘) / 청나라 사신이 출발하다》

봉사가 출발하여 모화관(慕華官)에 이르렀을 때에 배관들이 길에 늘어 서서 상의 건강이 좋지 못하니 돌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세 사신이 말을 세우고 한참 있다가 서로 쳐다보며 의논한 다음 정명수(鄭命壽)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대 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남한 산성에서 국왕을 보좌하여 오늘에 있게 되었다. 당초 약조하였던 제반 일들을 모두 수행하고 위반하지 않는다면, 세자와 대군이 어찌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겠는가. 약조를 수행하는 것은 힘쓰지 않고 속히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인조 039 17/12/10(임진) / 남한 산성을 헐게 하다》

비국이 남한 산성에 새로 수축한 곳을 헐어 버려 봉보할 수 있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40 18/01/17(기사) / 용골대 등이 세자의 귀근을 허락하고 대신 원손을 보내게 했다고 심양의 재신들이 치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들이 치계하기를, "용골대(龍骨大)와 범문정(范文程) 등이 함께 관소(館所)로 와서 남한 산성을 증축한 일과 귀화한 도주자를 곧바로 추쇄(推刷)하여 송환하지 않은 일 등을 힐문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한결같이 처음

의 약속대로만 한다면 세자나 대군이 자신들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초한 결과 아닌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번에 온 신문(申文)은 국왕이 알지 못하는 일로서 조정에서 임의대로 한 일이다. 세자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하자, 세자가 남한 산성 등에 관한 일을 반복해서 논변하고, 또 말하기를 「신문에 관한 일은 그 곡절을 알지 못하였으나, 국왕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필시 병세가 점차 위독하여 그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인조 040 18/01/18(경오) / 청나라에서 대군과 함께 원손을 보내라는 칙서가 오다》

청나라 칙서가 심양으로부터 왔는데, 그 대략에, "원래 그대 나라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반복하기에 두 왕자를 인질로 삼았다.

그런데 지금은 또 지난번의 지시를 어기고 남한 산성과 평양성을 마음대로 수축하여 말 먹이와 식량을 저축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의 성지(城池)들도 이와 같이 수선하고 있다. 이는 내가 응당 그대를 의심해야 할 일인데 그대가 오히려 나를 의심하니, 이것은 무슨 심사인가. 왕의 토지를 내가 이미 얻었고, 왕의 군사를 내가 이미 패배시켰으며, 왕 자신과 왕의 처자 및 여러 신하의 처자들을 내가 이미 모두 거두었다가 다시 놔두었다. 지금 또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다시 전쟁의 실마리를 일으키려고 하는가.

《인조 040 18/01/27(기유) / 청나라에 대적할 일에 관한 직강 조한영의 상소》

직강 조한영(曺漢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는 세자가 이제 막 도착하고 원손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이 때에, 팔도에 애통해 하는 조서를 내리고 5천 주사(舟師)의 먹을 파한 뒤 군신(君臣) 상하가 먼저 강화에 들어가고 연해의 백성들을 모두 섬으로 옮기며 산골 백성들은 전부 산성으로 대피시켜 각도의 방백으로 하여금 요해처를 굳게 지키게 하는 동시에 별도로 대장을 선발하여 남한 산성과 강도에 주둔케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게 하고 삼남 지방과 영동과 영북 지방을 제압하여 성세(聲勢)를 삼는 한편 여러 장수들을 파견하여 각기 형편대로 정기하고 대처하게 하소서.

《인조 040 18/02/10(신유) / 신하를 자주 인견하라는 간원의 차자》

간원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 남한 산성에 계셨을 때에는 흉금을 터놓고 간언을 받아들여 부지런히 자문을 구하시었으므로 미관 말직도 모두 나아가 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도한 뒤부터는 당폐(堂陛)가 저절로 높아져 신하를 만남이 드물어졌습니다.

《인조 040 18/02/27(무인) / 배가 계속 난파되어 심양에 통보하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한질과 최덕인은 모두 남한 산성에서 힘을 다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모와 처자에게는 특별히 후한 휼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전일에 풍에 빠져 죽은 우후와 마찬가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인조 040 18/03/01(임오) / 산성 축조·빈객·군영 등에 관한 이조 판서 이식의 상소》

이조 참판 이식(李植)이 상소하였다. 남한 산성을 더 축조하는 것은 청나라의 의심을 산 데다가 지금 이미 불화가 생겨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산(架山)의 역사에 온 도가 완전히 고갈되었는데, 이것으로 해적을 방비하고자 한다면 왜병이 공격하는 말에는 견고한 성이 쓸모가 없으며, 또 몰래 보내는 세세한 적들은 또한 깊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랑캐를 방비하고자 한다면, 오랑캐가 어찌 수천리를 넘어와서 오로지 이 성만을 공격하겠습니까.

성 안의 이른바 국출신(鞫出身)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리를 끌어모아 작당하는데, 날이 갈수록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조 040 18/03/25(병오) / 청나라에서 원군에 관한 칙서가 오다》

짐 역시 용서하면서 스스로 뒷날에 보답하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를 속이고자 하다니, 이것으로 보면 남한 산성과 평양성을 수리하는 것은 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으로 알 수가 있다. 사람의 은혜를 보답함에 있어서 여러 세대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3년 사이에 은혜를 완전히 잊었단 말인가.

《인조 040 18/04/08(기미) / 심기원을 남한 산성 수어사로 삼다》

청원군(靑原君) 심기원(沈器遠)을 남한 산성 수어사(南漢山城守禦使)로 삼았다.

《인조 040 18/05/00(계유) / 윤교 조석윤 등이 차자를 올렸다.》

윤교 조석윤 등이 차자를 올렸다. "강화로 피난가는 일이야말로 차마 할 수 없는 중에서도 더 차마 할 수 없는 일로서 애통하고 절박한 전하의 마음은 남한산성에서 나오던 때 보다도 더 할 것입니다.

백성이 있은 이후에야 나라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은 이후에야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하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였을 때 어떻게 개인재산과 토지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까. 변란이 있은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달지 못합니까. 신 등은 통분하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조 040 18/05/09(기축) / 청나라에 대적할 일에 관한 사간 조경의 10조 상소》

사간 조경이 보원의 병으로 인해 불러도 오지 않고 10조(條)의 상소를 올려 시사(時事)를 극언하였다. 그 대략에, "첫째는, 남한 산성의 치욕을 잊지 말고 자강(自强)하는 근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 남한 산성의 치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봉천(奉天)이 포위되어 어상(御床)에 화살이 날아들고 한단이 위급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함락되게 되었으며 종묘사직이 몹시 위태롭게 되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밤낮이 좋았겠으며 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전하께서 몸소 누추한 데 거처하시고 수위에 머시는 것을 생각할 거를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몸소 장사들을 위무하고 한 그릇의 밥과 반찬이라도 하졸(下卒)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셨으니, 그때는 참으로 월나라 구천(句踐)이 회계산(會稽山)에 머물러 있던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설하

(城下)의 맹약(盟約)은 춘추 시대(春秋時代) 조(曹)·위(衛)와 같은 작은 나라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상에서 몸소 걸어서 오랑캐 진영으로 나아갔으니, 2백 년간 전해 내려온 임금의 존엄함이 여기에서 모두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대군(大君)과 빈궁(嬪宮)이 오랑캐에게 포로가 되었고 세자가 인질로 끌려가 호랑이 굴에 갇혀 있으니, 이는 구원도 당하지 않았던 곤욕을 전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남한 산성의 치욕을 잊지 않으신다면 심양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전하의 몸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고 속이 타지 않을 수 없으며 화신 상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신하들만이 그러할 뿐 아니라 전하의 마음도 역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예전에 오랑캐가 우리 나라에 세사(世使)를 보낸 경우, 사신이 나오면 백성들의 고혈을 빼내어 떠받들고 사신이 떠나면 1년 동안 부사한 것만 다행으로 여겼는데, 전년에도 이와 같이 하여 지금 이미 5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래로 공경(公卿)과 재상들에 이르기까지 눈에 익어 심상한 일로 생각하여 다시는 우리가 오랑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누가 남한 산성의 치욕을 알겠으며, 그 누가 개돼지가 우리 군신(君臣)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에 자강할 수 있겠으며 치욕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군기(軍器)를 마련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하고 군사를 보충하는 것은 자강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탕고를 풀고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하며 좌우에 있는 시녀들을 줄여, 모든 기쳐와 의복을 임금답게 하지 말아 아랫사람들을 격려시키며 항상 오랑(吳王)의 뒤를 쫓아가 함께 죽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강하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남한 산성의 치욕을 잊지 말고 자강하는 근본으로 삼으시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섯째는, 근습(近習)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날마다 유신(儒臣)들을 접하여서 조섭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전하께서 어떻게 병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슬과 서리는 병을 옮기는 법인데 남한 산성의 이슬과 서리가 어떠하였으며, 근심과 걱정은 병이 되는 법인데 전하의 근심과 걱정이 어떠했습니까. 온갖 병은 마음에서 말미암는 것인데, 전하의 마음이 하루라도 화평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금 비록 조금 낫게 되었다는 전교를 내리셨으나 아직도 하루 시조(視朝)하시는 것조차 아끼시니, 병근(病根)이 다 없어지지 않아 저절로 침전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나서가 아니겠습니까.

《인조 041 18/09/04(임오) / 잠오죄를 범한 권도를 파직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 병자년에 남한 산성이 위급해지고 나랏일이 더없이 위태하던 때에 당초 임금에게 달려가 문안드릴 일로 문경(聞慶)까지 왔다가 감사의 진중(陣中)을 드나들면서 사천현(泗川縣)에 부서진 병선(兵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배에 대한 문서를 받아내기 위해 얼마 후에 진흙 어사로 내려가서 끝내 스스로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재산이므로, 그 행위가 잠오죄에 해당하니, 사관(仕版)에서 그

의 성명을 막아버리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누차 아뢰자 상이 따랐다. 이는 시랑 이시만(李時萬)이 논한 것이다.

《인조 041 18/10/24(신미) / 용골대가 영의정·도승지·이조 판서·박황 등을 소환한 것에 대해 대책을 논하다》

신은 남한 산성에서 강화를 의논할 때 좋시도록 왕대하였었는데 현재 세상의 적에 있습니다. 저들이 부른 것은 필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맞다."하였다. 서봉이 아뢰기를, "용골은 산과 산성에서부터 구면이니 혹 같은 말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끝내 들어주지 않는다면 비록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어찌 경을 죽이겠는가."하자, 서봉이 아뢰기를, "비록 신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심양으로 묶어서 보내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김영조(金榮祖)가 아뢰기를, "저들의 군사가 용만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조정에서 선처하는 데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신이 죽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한숨을 쉬면서 이르기를, "내가 병자년의 난 때 산성에서 죽었더라면 어찌 다시 오늘날의 일을 보았겠는가. 종사와 생령을 위해서 치욕을 참고 성에서 나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였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죽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한숨만 쉬고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인조 041 18/10/25(임신) / 정명수의 말에 대한 평안 감사 정태화의 치계》

평안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였다.

"역관 정명수가 은밀히 말하기를 「영상은 남한 산성에서 약조할 때의 대신으로서 현재 영상의 자리에 있고, 이조 판서는 한때의 전형을 주관하여 인물을 진퇴시키고, 도승지는 임금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이들과 큰일을 논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속히 오면 일이 매우 순조로울 것이다. 그리고 박황은 일찍이 관소(館所)에 있으면서 범한 바가 있었고, 그 뒤에도 관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묻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인조 041 18/10/29(병자) /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 칙서를 전하다》

청사가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병환으로 교외에 나가 영접하지 못하고 양화당(養和堂)에서 접견하고 이어 칙서를 받았다. 그 칙서에, "왕이 남한 산성에 있을 적에 「성은(聖恩)을 입어 살아나서 나라가 보전되고 종사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된다면, 신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들까지 천지와 같이 큰 황상의 공덕을 우러러 받들 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감히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자자손손 오직 공경히 지킬 것입니다.」고 하였고, 짐도, 왕이 살려주고 보전케 해준 은덕을 생각해서 반드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을 실천할 것이라 여겨서, 나의 덕을 베풀어 그대의 국가를 보전하게 하여 대대로 지켜온 종사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짐이 보기에 명을 어기고 일을 그르치는가 하면 우리의 사기(師期)를 그르치는 것도 많았다. 그리고 사

전에 미리 교묘하게 꾸며댈 바탕을 마련해 놓고는 뒷날 거짓말을 하면서 일서의 말에 배맞추었다. 소행이 이와 같으니, 이는 당초의 생각이 아니며 전날의 말과도 다르다. 때문에 대신 영아아대[용골대이다.] 등에게 특별히 명하여 의주에 도착해서 모든 일을 왕에게 말하고 그 결과를 회주(回奏)토록 하였다. 특별히 유시한다." 하였다. 이때 정사가 상의 명분의 정중을 엄탐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상이 환관에게 부축하도록 해서 쌍례하였는데, 이불과 베개를 치우지 않고 접견하였다.

《인조 041 18/11/00(갑신) / 남한산성에서의 조약을 실행하라고 용골대가 말하다.》

홍서봉과 이현영 등이 급보를 올렸다. "신 등이 의주에 도착하자 용골대가 각각 다른곳에 있게 하였으므로 서로 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후에 용골대가 말사와 함께 앉아서 신 등으로 하여금 원접사 윤휘, 승지 이덕수, 감사 정태화, 병사 이현달, 민적 이행원, 보덕 정치화 등과 함께 들어와 앉게 하였습니다. 용골대가 말하기를 "남한산성에서 조약을 맺을 때 홍정승과 윤판서가 다 참가하였으나 멸해도 되지 않았는데 조약을 지키지 않는것은 무슨 도리인가? 명나라와 연계를 맺지 않겠다고 조약에 써 놓고도 문서를 주어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다. 도망쳐 온 사람을 붙잡아 보내고 귀순한 사람을 찾아서 돌려보내며 도망친 한인을 적발하며 보내는 것도 조약과 관련된 일인데도 전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인조 041 18/11/00(을유) / 홍서봉 등이 급보를 올렸다.》

홍서봉 등이 급보를 올렸다. 용골대가 또 묻기를 "이 사람(김시양)이 함께 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임금의 행차를 따르지 않고 그 길로 시골에 갔으며 벼슬을 주어도 전혀 받지 않았다. 지어 세자가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 사대부들 치고 영접하고 배례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그 만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이 젊은 무리들을 사촉해서 망녕되게 상소를 올리게 한 사람이 과연 없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지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는 기색을 나타내자 용골대가 계속 독촉하였습니다. 신이 끝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대답하기를 "김시양이 병 때문에 산성에 들어가지 못했고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성에 들어갔으나 병 때문에 임금을 모시고 성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인조 041 18/12/27(계유) / 정광경·이천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일원·문희성에게 가자하다》

정광경(鄭廣敬)을 이조 참판으로, 이천기(李天基)를 경연으로 삼았다. 이일원(李一元)을 자헌(資憲)에 문희성(文希聖)을 가의(嘉義)에 가자하였는데, 이는 남한 산성의 성을 쌓은 공을 상준 것이었다. 살펴보건대 일원과 희성은 모두 무오년에 오랑캐에게 항복한 사람들인데 불량하게 금관 옥대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모두가 놀라고 분개하였다. 간원이 환수할 것을 계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042 19/01/02(무인) / 왕이 쇄환의 일에 관해 팔도에 하교하여 유시하다》

내가 그 당시에 정의를 다하여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것은 실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허겁지겁 성을 나와 항복하여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구차하게 자신만 온전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고 사실은 온 나라 민생들을 다시 살리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상처는 더욱 심해졌고 백성들은 거듭 화를 당하고 있는데, 이번 패술의 일로 인해 또 온 나라가 놀라움에 떨고 있다.

슬프다.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이역 땅에 잡혀가서 곤욕을 그리워한 나머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여 돌아오기를 마치 그물을 벗어난 토끼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듯 하였다. 그러나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조약이 엄중하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빠 이미 본업도 잃었는데, 일제히 쫓아 내어 결박하여 보내기를 도적들을 대하듯 하여,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이별하고 있다. 서로가 헤어질 때에 정리가 극도에 달하여 스스로 목메어 죽기도 하고, 혹은 일부러 굶어 죽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족을 잘라 이별을 보류하려는 자도 있다.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괴로움을 당하며, 가는 도중이나 옥중에서 죽는 자도 많이 있다. 게다가 관리들이 엄한 독촉에 쫓기고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인족을 침노하는 등, 그 해독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여행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 그의 족속을 대신하여 보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기한이 급박하여 일일이 판별할 수도 없어서 원통함을 안은 채 함께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조 042 19/04/16(신유) / 죄수들을 심리하다》

서풍이 대답하기를, "남한 산성에서 함부로 쏘은 것은 죄가 더 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다른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하자, 정전이 아뢰기를, "우신이 오늘까지 살아 남은 것은 실로 군율이 엄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석기는 아뢰기를, "현재 화란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군율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인조 042 19/05/04(무인) / 가뭄에 대처해 억울한 옥사를 살피는 것에 대해 대사헌 이경석 등이 차자를 올리다》

아, 전하께서는 남한 산성에서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그때 전하께서는 큰눈이 내리는데도 노천에서 기도하면서 사졸들과 괴로움을 같이 하셨는데, 아무리 사나운 사졸이라도 감읍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항오(行伍)의 천한 병졸들이 모두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남한 산성에 있을 때와 같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대부들이 외방에서 듣고 전한 말인데, 오늘 신들이 감히 전하를 위해 외워드립니다." 하니, 상이 가납(嘉納)하였다.

《인조 042 19/05/10(갑신) / 전라 감사 정세규를 인견하다》

전라 감사 정세규(鄭世規)가 사조(辭朝)하니, 상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오늘은 국기일(國忌日)이라서 인견할 수 없는 날이나 일찍이 남한 산성에 있을 때 경이 치민(治民)에 매우 익숙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보려고 생각한 것이다. 호남은 땅이 넓고 일이 많은 곳인데 요즈음 재이가 거듭 나타나니 경은 일

에 따라 선처하라." 하였다. 대답하기를, "흉년이 들면 백성이 궁핍하고 백성들이 궁핍하면 도적이 되지 않는 자가 드무니, 좌도와 우도에 토포사(討捕使)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인조 042 19/06/21(을축) / 전 이조 참판 정온의 졸기》

전 이조 판관 정온(鄭蘊)이 죽었다. 온은 안음(安陰) 사람으로 자(子)는 휘원(輝遠)이고 호(號)는 동계(東溪)이다. 남한 산성에 있을 때는 강화(講和)하자는 의논을 극력 배격하였다. 성을 나가 항복한다는 말을 듣고는 찬사(贊辭)를 지어 허대(玄帶)에 묶은 뒤,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배를 찔러 유혈이 자리에 낭자하였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구제하여 죽지 않았다. 또 상소를 올려 국세(國勢)를 바치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그 사기(辭氣)가 격렬하였으며, 성을 나온 뒤에 고향 집에 돌아가 있다가 죽었다.

《인조 043 20/11/03(기사) / 능성 부원군 구굉의 졸기》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이 죽었는데 관재(棺材)를 하사할 것을 명하였다. 굉은 무인(武人)이다. 일찍이 남한 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은밀히 신경진과 그의 조카인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구인후 및 홍진도(洪振道) 부리와 도김 및 수원 군졸을 협박 유도하여 척화신(斥和臣)을 몰아냈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였으나 상당히 청렴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굉은 오랜 동안 훈련 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죽자 인후로 대신하였다.

《인조 045 22/01/09(무술) /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여 나태하지 말 것에 관한 지평 하진의 상소문》

지평 하진(河珍)이 상소하기를, "남한 산성에서 대의를 주장한 신하가 말직에 정체되어 있고 양서(兩西)의 출신·의사들이 수용되지 않았으니, 어찌 장차 절의를 위하여 죽는 일의 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조 045 22/02/03(임술) / 영중추부사 이성구의 졸기》

영중추부사 이성구(李聖求)가 죽었다. 병자 호란 때는 호가(扈駕)하여 남한 산성에 들어갔고 마침내 대배(大拜)에 이르렀으나 본디 식견이 없는데다 당론에 치우쳤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병통으로 여겼다.

《인조 045 22/07/24(기유) / 한형길·심희세·오정일·류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류계는 일찍이 설서(說書)로 있으면서 남한 산성에 임금을 호종하였을 때, 소를 올려 김류·최명길 등이 나라를 그르친 죄를 극력 배척하였으므로, 정축년 봄에 화친을 배척했다는 죄로 임천군(林川郡)에 유배되었다가 이윽고 탈리로 방축되었다.

《인조 045 22/08/18(계유) / 역적을 토벌할 때의 공로로 김육·이시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특별으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정세규(鄭世規)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세규는 처음에 음보로 벼슬하여 여러 군현을 역임하였는데, 병자년에 여러 신하들이 그가 재능이 있다고 서로 천거함으로써, 상이 특별히 중정 감사를 제수했었다. 당시 청나라 군

대가 남한 산성을 포위하여 핍박해 올 적에 다른 도(道)는 모두 군대를 억누르고 진군하지 않았는데, 세규는 곧 군대를 이끌고 전진하여 광주(廣州)의 험천(險川)에 진을 쳤다가, 적을 만나 군대가 다 패하여 흩어져 버리고, 세규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이로 인하여 정축년 봄에 사헌부에서 그를 패군(敗軍)의 율로 다스릴 것을 논하였는데, 상은 세규가 남의 앞장을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위급해진 군부(君父)에게로 먼저 달려왔다 하여, 마침내 그를 발탁해서 등용하고 인하여 이 명이 있었다.

《인조 045 22/10/23(정축) / 대신 및 비국 당상 등을 인견하여 인재 등용 방법 등에 대해 논하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신이 김류를 참으로 노기와 같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상께서 당한 남한 산성에서의 모욕은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서 당한 액운보다 심했으니, 이것으로 논한다면 비록 김류를 노기에 비유하더라도 참으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대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과감하게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의 나쁜 풍습입니다."하였다.

《인조 046 23/02/23(병자) / 전 영의정 최명길, 영중추부사 이경여, 전 판서 김상헌이 심양에서 돌아오다》

최명길은 남한 산성의 난을 당하여 끝까지 화의를 주장해서 마침내 성(城)을 나가서 항복하자는 의논을 결정하였고, 간사한 무리들을 이끌어 등용하여 김상헌을 모함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사류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는 후일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들고 기성(箕城)을 지날 때에 제문을 지어가지고 기자(箕子)의 사당에 제사지내서 스스로 변명하는 뜻을 폈다.

《인조 046 23/04/26(무인) / 왕세자의 졸기》

왕세자가 창경궁(昌慶宮) 환경당(歡慶堂)에서 죽었다.

세자는 자질이 영민하고 총명하였으나 기국과 도량은 넓지 못했다. 일찍이 정묘 호란 때 호남에서 군사를 무군(撫軍)할 적에 대궐에 진상하는 물품을 절감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썼다. 또 병자 호란 때에는 부왕을 모시고 남한 산성에 들어갔는데, 도적 청인(淸人)들이 우리에게 세자를 인질로 삼겠다고 협박하자, 삼사가 극력 반대하였고 상도 차마 허락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세자가 즉시 자청하기를, "진실로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군부(君父)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신이 어찌 그곳에 가기를 꺼리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에게 체포되어 서쪽으로 갈 적에는 몹시 황급한 때였지만 말과 얼굴빛이 조금도 변함 없었고, 모시고 따르던 신하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도 은혜와 예의가 모두 지극하였으며, 무릇 질병이 있거나 곤액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힘을 다하여 구제하였다.

《인조 046 23/05/28(기유) / 이조 참의 조석윤이 상소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직언하다》

이조 참의 조석윤이 상소하기를, "유계 등 3인에 이르러서는 자기 당을 비호했다 하

여 희망도 못하게 하시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종원은 병자 호란 때 비록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전설로 달리 죄지은 것은 없음을 알 수 있고, 훌쳐 량은 언관의 자리에 있은 때가 적었으므로 자기 당을 비호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유계는 일찍이 남한 산성에 있을 때에 그 당시 묘당의 과실을 말하였으니 그가 자기 당을 비호한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무슨 연유로 이런 하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말세에는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해서 다 쓰더라도 오히려 일을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설정 밖의 억지 말로 견책을 가하여 한번 폐치해 버린 뒤에는 용서하는 은전을 아끼십니까.

《인조 046 23/06/10(신유) / 대제학 이식이 지은 지문의 내용》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금상(今上) 15년에 남한 산성의 액환을 당하여 왕세자가 청나라에 인질로 들어갔다가, 9년 뒤인 을유년 2월에야 비로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4월 26일(무인)에 왕세자의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창경궁(昌慶宮)의 환경전(歡慶殿)에서 졸하였다. 그러자 상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중이었으나 친히 상제(喪制)에 임어하시었다. 아, 천운(天運)이 사납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통해 하는 상하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날짜를 가려 6월 15일(병인)에 재궁(梓宮)을 발인하고, 19일(경오)에 효릉(孝陵) 우동(右洞)의 을좌 신향(乙坐辛向)의 언덕에 장례지내기로 하였는데, 신 이식(李植)에게 지문을 짓도록 명하셨다.

돌아년 겨울에는 인열 왕후(仁烈王后)가 승하하자 예를 집행하며 기상(朞喪)하던 중, 갑자기 병자 호란을 만나 남한 산성으로 행행하는 부왕을 따라갔다. 정축년 2월에는 인질이 되어 서쪽으로 심양(瀋陽)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에는 귀국하여 모후(母后)의 대상제(大祥祭)를 행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경진년 봄에야 비로소 청을 얻어 귀국하여 부왕을 뵈었고, 갑신년 봄에 다시 귀국하여 부왕을 뵈었으나, 모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갑신년 가을에는 연경(燕京)으로 옮겨 들어갔는데, 청나라가 이미 하북(河北) 지방을 평정하고는 즉시 세자에게 절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재촉하니, 세자가 빈어(擯御) 및 여러 궁정(公卿)과 질자(質子)와 함께 다시 귀국하였다. 그러자 상께서는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고 죄인들의 사면령을 반포하였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하였다.

상께서 처음 남한 산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못 신하들이 정묘년의 고사(故事)와 같이 속히 세자를 다른 지방으로 내보낼 것을 청하자, 세자가 슬피 통곡하며 위난(危難)을 피해 부왕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지 않았다.

《인조 046 23/06/20(신미) / 간원이 쌀을 반출하여 경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해조로 하여금 정축년의 옛 규정에 따라 남한 산성과 강도의 쌀을 반출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죄사 접대하는 뒷받침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

니, 상이 호조로 하여금 품처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그 후에 정기 감사 윤순지(尹順之)도 이 일로 조정에 계문(啓聞)하자, 비국이 강도의 쌀 4백 석을 나누어 주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인조 046 23/06#02(임오) / 정부의 당상·육경 등을 인견하여 후사를 바꿀 일을 의논하다》

김류가 아뢰기를, "계해년 반정(反正)의 거사와 남한 산성 출성(出城)의 일이야말로 어찌 비상한 조처로서 모두가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성상을 받들고 의심없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민들의 기대가 모두 원손에게 이미 붙여졌는데도 전하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이는 필시 궁중(宮中)의 일로서 바깥 사람이 미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만일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가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뜻이 나와 부합된다. 대군이 비록 둘이 있어도 모두 취할 만한 것은 없으니,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한 것이다." 하였다.

《인조 046 23/08/25(갑진) / 대신 등을 인견하고 청나라에 쌀 운반하던 중 일어난 사건 등을 논하다》

상이 또 김류에게 이르기를, "말하는 자들이 모두 강도와 남한 산성에 있는 곡식을 가져다가 국가의 경비에 보충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실제 숫자를 살펴보면 역시 매우 작은 양인데, 지금 그것을 다 가져다 써버릴 경우, 급한 때를 당해서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강도와 남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선 목전의 일이 시급해서 어쩐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윤허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인조 046 23/09/21(기사) / 수어사가 남한 산성의 지급미에 대해서 3분의 1만을 징수할 것을 청하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방이 치계하기를, "남한 산성에서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쌀로 백성들에게 지급한 것이 1만여 석에 이르는데, 금년은 근고에 없었던 흉년이기에 여러 고을이 모두 기근(飢饉) 때문에 쌀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강도로 옮겨간 곡식에 대해서는 이미 3분의 1만을 징수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남한 산성에서 지급한 쌀에 대해서도 여기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다. 비국이 이시방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46 23/12/11(기축) / 이귀로를 지평으로 삼고 특명으로 정제룡을 곤양 군수로 삼았다》

이귀로(李貴孝)를 지평으로 삼고, 특명으로 정제룡을 곤양 군수(昆陽郡守)로 삼았다. 제룡은 무인이다. 상소를 올려 경상도의 폐단과 고충을 진술하고, 또 월곡 산성(月谷山城)의 형세는 남한 산성(南漢山城)보다 백 배나 좋고 진주(晉州) 역시 영남의 중지이니, 미리 방어의 기구를 갖추어 두었다가 뒷날 위급할 때에 지킬 계책을 삼기를 청하

였다.

《인조 047 24/04/02(무인) / 비국이 남한 산성에 아병을 배속시켜 변란에 대비할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은 동로(東路)의 요충에 해당하는 곳인 동시에 병장기와 군량을 저장해 둔 곳입니다. 남한 수어사(南漢守禦使) 이시방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보내 소속 아병(牙兵)을 나누어 배속시키고 본주 방어사 홍진문(洪振文)과 함께 연합하여 변란에 대비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47 24/04/02(무인) / 남한 산성의 미곡과 강화의 미곡을 이시백의 군대에 운송하다》

남한 산성의 미곡 2백 석과 강화의 미곡 5백 석을 이시백(李時白)의 군대에 운송하였다.

《인조 047 24/04/05(신사) / 남한 산성의 파수군을 파하다》

남한 산성의 파수군(把守軍)을 파하였다.

《인조 048 25/04/06(정축) / 수어사 이시방이 남한 산성의 백성이 유망하는 이유를 아뢰고 금단을 청하다》

수어사 이시방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설치할 당시에 조정에서는 모집해 들인 백성들의 살아갈 밑천이 되는 농토가 없는 것을 염려하여 성밖 산 아래 노는 땅을 개간하도록 허락하며 지금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궁가에서 입안(立案)했다고 칭하며 빼앗으려 하고 사용원 또한 시장(柴場)이라 핑계대고 해마다 숯을 징수하기 때문에 새로 이사한 사람들이 흩어질 형편입니다. 비국으로 하여금 금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048 25/04/21(임진) / 경기 감사 오준이 강도에 옮겨 놓은 쌀을 방출할 것을 치계하다》

경기 감사 오준(吳竣)이 치계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한재(旱災)가 매우 참혹하여 밭보리는 다 마르고 들판은 불에 탄 것 같아서 가난한 백성들은 목숨이 끊어질 듯합니다. 각 고을의 원곡(元穀)은 벌써 다 나누어 주어 다시 진구할 방도가 없으니, 강도(江都)에 옮겨 놓은 쌀을 방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강도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비축한 양곡을 나누어 방출하여 구제하도록 명하였다.

《인조 048 25/05/17(정사) / 완성 부원군 최명길의 졸기》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이 졸하였다. 반정할 때에 대계(大計)를 협찬하였는데 명길의 공이 많아 드디어 정사 원훈(靖社元勳)에 녹훈되었고, 몇 년이 안되어 차서를 뛰어 넘어 경상(卿相)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추숭(追崇)과 화의론을 힘써 주장함으로써 청의(淸議)에 비방을 받았다. 남한 산성의 변란 때에는 척화(斥和)를 주장한 대신을 협박하여 보냄으로써 사감(私憾)을 풀었고 환도한 뒤에는 그른 사람들을 등용하여 사류와 알력이 생겼는데 모두들 소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일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

《인조 048 25/07/13(임자) / 충청도·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경기의 수재가 가장 심하다》

충청도에 큰물이 져 금강이 크게 넘쳐 읍 수십에 재가 침수되었다. 임천(林川)·충원(忠原)·청풍(淸風)·단양(丹陽)·영춘(永春) 등 고을에서는 침수된 민가가 1백 40여 채였고, 진천현(鎭川縣)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자가 4인이었으며, 평택현(平澤縣)에서는 들판의 어염집이 거의 다 침수되었다. 강원도 또한 큰물이 졌다. 두 도의 감사가 아뢰었다. 이 때에 경기의 수재가 팔도에서 가장 심하여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의 쌀을 내어 진휼토록 명하였다.

《인조 048 25/07/27(병인) / 강도와 남한 산성의 쌀 1천 석을 내어 경기 고을을 진대하다》 강도와 남한 산성의 쌀 1천 석을 내어 경기 고을을 진대하고 각 읍의 지용(支用)에 제공했는데, 간원의 아뢰을 따른 것이다.

《인조 048 25/11/10(병오) / 갑주 50부를 남한 산성에, 20부를 강도에 수송시키고 조보에는 내지 않다》 갑주(甲冑) 50부를 남한 산성에, 20부를 강도(江都)에 수송토록 명하고 조보(朝報)에는 내지 말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나라 사람이 알까 두려워해서였다.

《인조 049 26/01/25(신유) / 간원이 춘궁기에 오는 흉사에 대한 대책과 영변 부사 정책의 체차를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난해 두 번의 흉행(凶行)에 공사(公私)가 모두 탕갈되어 지난 가을 흉사가 나왔을 때에는 조정에서 강도(江都)·남한 산성과 양서(兩西)의 감영·병영에 저축한 관향(官餉)을 각읍에 나누어 주어 가까스로 지공에 대비케 했었습니다.

《인조 049 26/03/25(경신) / 강도와 남한 산성의 미곡을 방출, 경기의 기민을 구제하다》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의 미곡을 방출하여 경기의 기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인조 049 26/03≠07(임신) / 남한 산성의 쌀을 방출하여 역부들을 고용하여 성첩을 수축하다》

남한 산성의 쌀 4백 석을 방출하여 역부(役夫)들을 고용해서 성첩(城堞)을 수축했다.

《인조 049 26/03≠20(을유) / 남선·김홍·유황·심지원 등이 상의 부덕함과 정무 소홀에 대하여 간하다》

전하께서는 공산(公山)과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에서 곤액을 당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당시에 거처하던 곳의 누추함이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미 환난에 처하였던 때의 어려움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인조 049 26/05/27(신묘) / 우의정 남이웅이 상의 국정 소홀과 과오에 대해 차자 올리다》

우의정 남이웅(南以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전하의

오늘날 잘못은 모두 이 열 가지 생각해야 할 것 속에 빠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설사 위정이 다시 태어나 전하를 위하여 계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처음 시작을 잘한 것은 전하와 같은 이가 없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걱정은 남한 산성에 있을 때와 같은 경우가 없었으니,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에게 극진히 해야 하는 도리를 알을 수 있겠습니까.

《인조 049 26/07/18(신사) / 이번 과거에 참방된 훈련 도감 포수들의 행실이 나빠서, 식자들이 우려하다》

이에 앞서 남한 산성에 호종한 공 때문에 과거를 실행하여 사람을 뽑았는데, 훈련 도감의 포수 가운데 참방(參榜)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에 이를 7국(局)으로 나누고 각국에 국장(局將)을 두어 거느리게 하고서 이를 국출신(局出身)이라고 호칭하였다.

《인조 049 26/07/22(을유) / 대사헌 조경 등이 잦은 재변과 상의 국정 소홀 등에 관하여 상소하다》

대사헌 조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을 가장 큰 핵으로 양서(兩西)의 성지가 거의 다 무너져 폐기되었고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에는 그저 부질없이 군량만 저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후주(後周)의 세종(世宗)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중국의 주인이 된다면 성곽을 완전히 수축하고 갑병을 잘 수선하고 요해처를 잘 지켜 후손을 위한 계책을 세우라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 충고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우리 나라가 보장(保障)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단지 강도와 남한 산성인데, 남한 산성의 경우는 바깥에서의 송원이 쉽게 끊길 지역이며, 강도의 경우는 배를 타면 삼남(三南) 어디든지 모두 통하는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진로(津路)도 험고하니, 참으로 이른바 천험입니다.

《인조 049 26/11/19(기묘) / 전 광주 부윤 이래를 금부에 내리다》

전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래(李萊)를 금부에 내렸다. 남한 산성의 군량에 포흠(逋欠)된 것이 3만여 석이었는데, 수어사(守禦使) 이시방이 부윤 이래로 하여금 복징(徵)하도록 계청하자 이래가 어버이의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비국이 조정의 명을 어기고 멋대로 관소를 떠났다는 것으로 잡아다가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른 것이다.

4. 기 타

《인조 050 부록 / 인조 대왕 행장(行狀)》

병자년 봄에 다시 사자를 보내어 왔다. 뭇사람의 의논이 분분히 일어나 사자를 베어 죽이기를 일다투어 청하였는데 사자가 몸래 듣고 놀라 달아났다. 사기(事機)가 이미 변하자 황언(王言)이 여러 번 내려졌는데 뜻은 더욱 격렬하였다. 12월에 적병이 갑자기 이르렀으므로 왕이 강도로 향하려다가 일이 급해져서 방향을 돌려 남한 산성(南

漢山城)으로 들어가셨는데 적이 군사를 더하여 에워싸니 왕이 친히 성을 순행하며 삼군(三軍)을 위로해 주셨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는데 왕이 행궁(行宮) 밖에 나와 기도하셨다. 향을 피우고 네 번 절한 다음 지적을 향고 빌기를 「고립된 이 성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늘인데 이처럼 눈이 내려 갑자 얼어 죽을 형세이니, 내 한 몸은 아까울 것도 못 되나 백관(百官)·만민(萬民)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 개게하여 우리 군사와 백성을 살리소서.」 하고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지극이 되어도 그치지 않으셨다. 빗물이 어의에 스며드로 군사가 일어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대신이 다시 청하여도 따르지 않다가 옷자락을 끌고 울며 청한지 한참 만에야 비로소 일어나 네 번 절하고 물러나시는데 눈물이 턱으로 흘러내리니, 장사(將士)가 듣고 모두 느껴 울었다. 왕이 쓰던 휘구(揮具)·모금을 내어 성 위의 군사들에게 조각조각 나누어 주고 호종(扈從)한 신하들이 앞다투어 의금을 보내니, 군사들이 추위를 잊었다. 적이 화의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밤을 타서 성을 세 번 쳐왔으나 세 번 모두 격퇴하였으므로 사기가 더욱 떨쳤다. 그러나 40여 일 동안 포위되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강도의 패보(敗報)가 또 이르렀으므로, 김류·최명길(崔鳴吉)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피폐(皮幣)·주옥(珠玉)을 바치는 일은 탕왕(湯王)·문왕(文王)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에서 나가기를 굳이 청하고 세자도 스스로 가서 인질이 되겠다고 청하니, 왕이 종사(宗社)와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르셨다. 정축년 정월 29일에 적영(敵營)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시니, 묘모(廟貌)가 퇴폐하지 않고 유민(遺民)이 온전히 돌아왔다.

《인조 050 부록 / 인조 대왕 묘지문[誌文]②》

3월에 금인(金人)이 황제를 자칭하고 국호를 고쳐 청(淸)이라 한 다음 사신을 보내어 와서 고하였다. 이에 앞서 금이 폐물(幣物)을 늘리고 군사를 조발하라고 우리를 협박하였으나, 왕이 대의(大義)로 물리치고 맹약을 어겼다고 꾸짖으셨다. 이번에 사신이 나오자 백성이 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분하게 여겨 금의 사신을 베어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사신이 탈지하여 알고서 달아났다. 국중(國中)이 비로소 피구하였으나, 왕은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

12월에 금인이 성을 내어 갑자기 침범하니, 대가(大駕)가 광주(廣州)의 남한 산성으로 피하였다. 적병이 날로 불어 우리를 두어 겹으로 에워쌌는데 때마침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장사(將士)가 혈색이 없었다. 왕이 한데에 서서 향을 사르고 하늘에 빌기를 「하찮은 제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천하에 큰 의리를 알리려다가 이 큰 적을 만났으므로 스스로 구제되기는 바라지 않으나, 이 백관·만민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어서 죄다 얼어 죽은 귀신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바라건대 한위(寒威)를 조금 풀어 적의 침학을 늦지 마소서.」 하고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닦으시어 어의가 다 젖으니, 삼군(三軍)이 모두 감격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 하였다. 왕이 또 입던 갑옷과 휘의(揮衣)를 벗어 조각조각 갈라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졸에게 나누어 주셨다.

고립된 성이 40여 일 동안 포위되어 원병은 밖에서 패배하고 양식은 안에서 떨어졌으나 끝내 뜻을 돌리지 않았다. 적이 여러 번 화해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자, 그 정예를 다하여 사닥다리를 많이 세우고 줄줄이 올라와 한 군대를 돕으려 하였으나 우리 군사가 잇따라 쳐서 물리치고 더욱 명을 받들었다. 뜻밖에 강도(江都)의 패보(敗報)가 갑자기 이르러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일이 어쩔 수 없게 되었으므로, 영의정 김류,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예전에 한 고조(漢高祖)는 홍문(鴻門)에서 몸을 굽히고 당 태종(唐太宗)은 마수(馬首)에서 회흘(回紇)에게 친히 절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으로서는 국가의 만세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부가 제 몸 만에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고, 세자도 눈물을 흘리며 청하기를 「임금의 재앙을 풀 수 있다면 죽는 것도 피하지 않을 것인데, 나가서 인질이 되는 정도야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종사와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르셨다.

사대(事大)하는 정성으로 말하면 한결같이 선조(宣祖)를 모범 삼아 귀복(歸服)하는 일념은 잠시 위급한 때라도 바꾸지 않았다. 포위된 성 안에서도 망궐례를 행하고 환도한 뒤에도 대궐 안에서 홀로 행하여 외인이 모르게 하셨다.

불행히 병자년·정축년의 험난을 당하셨으나, 비유하면 문왕(文王)의 명이(明夷) 및 공성(孔聖)의 화산(火山)과 같은데, 저 두 성인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대행 대왕에게 무슨 흠이겠는가.

Ⅳ. 맺 는 말

인조대왕실록 중의 남한산성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았다. 참으로 방대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먼저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의 논리를 중심으로 다루어 지는 인조 실록 1권 즉 1623년 3월 13일 부터 인조실록 33권 14년 12월 13일 까지가 해당되고 있으며, 병자호란시의 남한산성은 인조실록 33권 14년 12월 14일 부터 인조실록 34권 15년 2월 28일 까지며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은 인조실록 34권 15년 2월 29일 부터 인조실록 49권 26년 11월 19일 까지며 기타는 인조대왕 행장과 인조대왕 묘지문 등이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조 실록 1권 즉 1623년 3월 13일 부터 인조실록 33권 14년 12월 13일 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산성의 형세와 방비에 대하여 논하고 남한산성의 축조와 군량 그리고 산성 축조에 승려를 입역시키는 문제 등을 총융사 미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조대왕 3년(1625) 6월 23일에는 남한산성에 행궁을 짓는 역사를 시작하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때를 중심으로 군기 삼청총, 조총 등을 만들어 보관하고 양식을 저장할 대책을

세우며, 군사의 보충책을 세우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산성 구축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된다. 특히, 인조대왕 4년(1626년) 7월 22일에는 남한산성이 완공되어 논상을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 인조대왕 5년(1627년) 금나라의 침입의 대책을 논하면서 강화도 대피와 남한산성 수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인조대왕 13년(1635년) 가을에는 남한산성 소속의 경기 다섯 고을 군사를 훈련시키고 이시백을 남한산성 호위대장에 임명하는 등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의 논리가 인조실록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병자호란시의 남한산성은 인조실록 33권 14년 12월 14일 부터 인조실록 34권 15년 2월 28일 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조대왕으로서는 가장 긴 겨울을 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애 중 가장 긴 시간을 47일 동안 보냈던 시기이다. 왕세자와 인비는 강화도로 보내고 자신은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던 처절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적의 군사들이 산성을 둘러싸니 왕이 친히 승첩하며 삼군(三軍)을 위로하니 모두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 하였다. 그리고 행궁 뜰에 나와 활을 피우고 기도하기도 하였다. 왕은 또 입던 갑옷과 쥐피를 벗어 조각조각 갈라 성첩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 병자호란시의 남한산성의 실록의 기록은 군신 상하가 고립된 성에 의지하고 있으나 외부의 원병은 도착하지 않고 통유(通諭)의 길도 끊어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사대를 모집하며 기어코 회보(回報)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임금은 남한산성의 행궁에 머무르면서 성첩을 거닐하는 방권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남한산성의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한 완풍 부원군 이서의 군중에서의 죽음은 임금의 통곡과 곡성이 밖에 까지 들리는 애통함이 크기도 하였다. 이서를 위하여 임금은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은왕표를 세워 이서를 배향하기도 하였다. 적병이 여러 차례의 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내쳐서 물리치고 더욱 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강화도의 패보가 갑자기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종사와 백성을 위하여 성문을 열고 적진에 나가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 기록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은 인조실록 34권 15년 2월 29일 부터 인조실록 49권 26년 11월 19일 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란 직후 부터 임금은 남한산성에 호종(扈從)한 자들의 노고를 포상하는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하였다. 남한산성의 보수와 수축 그리고, 수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군량의 비축을 논하고 있다. 전란을 겪으면서 대신들의 논죄, 논핵 그리고, 상소를 통하여 신하들간의 조정에서의 공격과 공격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인조 17년(1639) 2월 2일에는 남한산성에 사당을 세워 '백제 시조왕'이란 위판을 설치케 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처신에 대하여 항상 남한산성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하였다. 남한산성의 개축 문제를 이때 청나라 사신이 힐어 내라고 다시 위협하니 끝내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기록이 시선을 끈다. 특히 인조 23년(1645) 이후 남한산성의 군량미로 보관하던 쌀을 반출하여 주위의 어려운 백성, 수재민, 기민에게 나누어 주는 국가의 풍고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 기타는 인조대왕 행장과 인조대왕 묘지문 중 남한산성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인조대왕 실록과 남한산성의 관계를 밝혀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았다. 물론, 인조대왕 이전의 선조대왕으로 부터 철종에 이르기 까지 약 400여 항목의 실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위상은 더욱 확고하여 지리라 믿는다. 그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조대왕실록 만의 자료를 1차적으로 정리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그 민족정신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城南지역 義兵史 연구

韓 春 燮
(시조시인)

〔目 次〕

1. 서 론
2. 본 론
1) 義兵 활동의 개요
2) 제1차 義兵 항전과 성남 지역의 운동 지속
3) 제2차 義兵 항전과 성남 지역의 운동 지속
(가) 남상목 義兵將의 功勳記 조사
(나) 윤치장 義兵將의 功勳記 조사
4) 제3차 義兵 항전과 성남 지역의 운동 활약
3. 결 론

1. 서 론

어느 시대를 살펴 보아도 역사라는 것이 순탄하게만 꾸며진 때는 많지 않다. 통치 계층의 內紛과 무능력에 의한 國力 쇠잔기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주변국가들의 침략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國運 난맥상을 과거사 속에서 흔하게 보게 된다. 때로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건해결이 옳지 못하므로 인하여 우리 先代의 생활 현장은 삶, 그 자체가 폭풍우 몰아치는 불행을 겪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外侵에 의한 역사의 굴절현상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 안에 너무 엄청나서 국민이라는 존재가 한낱 풀나무 잎사귀이거나 아니면 파리 벌레 만도 못한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우리의 근대사가 아닌가? 이에 필자는 근대사 가운데 국방력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향토사의 재발견이라는 견지에 입각한 성남 지역 항일 義兵 활동을 검토하는 한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내 나라를 지키려고 단 한번뿐의 목숨까지 아깝다 생각지 않았던 先祖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드러내어 밝히려는 일이야말로 위급한 시대를 모면한 후손된 우리들의 責務라 이해하게 된다.

한국근대사는 실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동북아大陸의 一角에 은둔, 조용히 살아온 韓民族이 별안간 세계열강에 접하게 된 이후 걸어온 지난 100년의 歷史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한편 開港 이후 8·15 光復에 이르는 우리의 近代史는 自主獨立을 위해 몸부림친 忍苦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국제정세,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갈등 등, 開港 당시와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오늘날 더구나 광복 반 세기요, 分斷 반 세기의 오늘 이 싯점에서 舊韓末 의병활동을 한 몸에 품었던 이 고장 城南지역 항일 義兵활동을 연구하는 첫 論考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 반성하는 새 시대의 한

몫이 될 것이다.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생긴 이래 外侵과 內亂의 횟수는 무려 930여 회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 가까운 우리의 이웃 日本이 우리 땅을 침입한 일이 적어도 7백여 회나 된다고 하니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先代가 일본으로 하여금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는 결코 망각할 일이 아니며, 저들의 侵略 행위는 한국인 대대로 큰 교훈의 뼈대로 삼아 민족 自存權 유지에 힘줄이 되어야 할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제국말 일본의 한국 침략사는 그 참상이나 간교함이 차마 筆舌로 말하기 조차 힘겨운 대참상이었다. 연면하게 이어온 긴 한국의 역사 갈피마다 핏자욱을 남긴 저들의 끔직한 약탈 만행이 전국토 전국민 문전마다 자행되므로써 수백만의 우리 先代 조상들이 국내외 고토에서 억울한 憤으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갔다. 더욱 분통스러운 일은 그들의 餘毒에 기인하여 우리 강토가 아직껏 南分되어 동족간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이 나라가 분단상황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義兵 활약상의 전체를 취급할 수 없이 우리 고장 城南을 중심으로 전국 의병의 연계에 따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당시의 抗日 무쟁 전개상을 간추려 보고자 함이다. 필자의 천공 외에 일들이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단지, 내 고장의 애향심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판단으로 이 한 편의 글을 써 나갈 따름이다.

2. 본 론

1) 義兵 활동의 개요

이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함을 당했을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뜻있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외적에 대항한 싸움을 義兵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外勢에 많은 침략을 받아 왔다. 멀리는 고구려와 백제 遺民들이 국가 부흥을 위한 항병 투쟁에서 부터 가까이는 무대를 중국 해외까지 옮겨가며 투쟁했던 抗日 義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다. 특히 16세기의 임진왜란(1592년)때의 의병 항일 운동이 대단하였으며, 19세기말 경부터 벌어졌던 구한말(1895~1910년) 항일 義兵은 가장 처절했던 일대 변고로서 그 애국심은 눈부신 투쟁 자취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가지에서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의 의병을 근간으로 한 성남지역 일원의 항일 의병 활동을 정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고장의 先烈임을 생각한다면 실로 추앙해야 할 향토보존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전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므로 더러는 인멸되었고 또 몇 가지는 사소한 듯 몇 구절 口傳으로 전해지는 중에 최근, 城南 인근의 이천·양평·용인·여주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義兵史 자취를 검토하며 이 고장에서도 적지 않은 애국 선조들이 그쪽의 의병 집단에 가세하여 싸웠고 또 殉國하며 나라를 지켰던 자취를 南漢山城 20여일 抗戰에서 역력히 알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의 功勳 추서 偉人을 입수한 오늘에 와서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애국인 추모사업은 그 어떤 형태로든 성남지역에서도 추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舊 韓末에 전개된 항일 민족운동은 청·일 戰爭을 전후한 1890년대 후반

과, 1904~5년의 러·일 전쟁과 을사조약 이후 5년간 전개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일제 침략이 1875년의 강화도 포격과 이듬해의 강제 개항으로 시작되었으므로 1881년의 嶺南萬人疏나 다음해에 일어난 임오군란 그리고 민란들도 항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러나, 韓末 항일 민족운동이 민중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1894년 동학운동 이후였다. 이해에 일제가 청·일 전쟁을 도발하고 그 뒤 민비를 시해하고 단발령(1895)을 강행하자 제1차 의병항전이 일어났고 뒤이어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부터 농촌에서는 제2차 의병전쟁이 일어나고 도시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을 비롯한 각종 항일 운동이 벌어졌다. 이 시기에 항일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은 한층 고조되었고, 일제하 35년 간에 항일운동의 터전이 잡히었다.」[1]

대한제국말의 의병 抗爭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일어났다. 그 첫번째가 1895년의 乙未사변과 1896년의 단발령을 계기로 하였으며, 그 두번째는 1905년에 乙巳 5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어났고, 세번째가 1907년의 우리의 군대해산과 함께 하나의 전쟁 규모로 일어났다. 이 세 차례의 義兵항쟁 속에 크고 작은 투쟁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祖國 守護정신, 民族 自主性의 애국정신이라고 하겠다.

의병 활동의 주도 세력은 성리학적인 전통사회에서 그 異端인 외래문물의 邪學을 배격하고 바른 학문으로서의 儒學을 지켜나간다고 李恒老선생의 斥邪衛正 사상을 계승한 그의 제자들이었다. 물론, 이에 가세한 수많은 의병군은 정확 각지의 각계각층 유생 및 농민·승려·상인·양반과 常人을 망라하였다.

『왕비의 謀殺과 단발령은 일본인의 조선 국권침해의 두 가지 극단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도의 개편은 비록

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 현대사」, 탐구당, 1982. 6; pp.51~2

그것이 "제도상의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순순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인들의 침략의 야망과 이해타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895년 10월 국모 왕비가 일본인 흉도에 의하여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일본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격화되었다. 그 위에 단발의 강제는 다시 한 번 민심을 자극하였다. 일찌기 일본과의 수호 통상을 반대하고 일본 침략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알장선 대표적 유학자 崔益鉉은 "나의 목을 자를 수는 있으나, 나의 두발은 자를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여 강제 삭발에 응할 것을 거부하였다.

전국 각처의 유학자들은 내정 개혁에 따른 몰락의 운명속에서 국모 모살에 대한 복수와 강제 단발에 대한 반대를 표방하고 일본인과 친일 정권에 대한 무력항쟁에 봉기하였다. 그들은 이 난국이 일제의 침략야욕과 흉계에서 초래된 것임을 통감하고 무력으로 저항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나, 경기·강원도에서 충청·경상, 전라도와 황해·평안도에까지 확대되어 갔다. 정부는 이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친위대의 대반을 지방으로 파견시켰다. 그리하여 1896년 1월에서 4월에 걸친 이 의병의 봉기로 말미암아 국내는 다시 한번 동란 속에 잠기게 되었다. 이들 의병장은 衛正斥邪論을 계승한 유학자들로서, 을미사변 직후의 文錫奉(충청도 보은), 단발령 공포 후의 柳麟錫(충청도 제천), 李昭應(강원도 춘천), 朴準英(경기도 이천·여주)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2]

이 숨가쁜 국가 위기속에서 나라를 지켜야하리라는 애국심은 끼질 줄 모르는 불길과 같았다. 주권이 완전 상실된 상황하에서 국민의 저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나라 안과 밖으로 퍼져가는 애국자의 발길이야말로 타오르는 불길 속에 피웃는 휘발유와도 같았다. 여러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해 삼소, 시위자결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알게 모르게 도시밖의 농어촌 유생들에게 까지 이 애국적인 불길은 번져었다.

2) 韓沽劤 ;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89. 4(4판) ; pp. 473~4

『이른바 을사조약이 맺어져서 모든 국민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던 중에 감연히 무기를 들고 봉기한 자는 각 지방의 儒生들이었다. 실제로 개항 당초부터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하여 가장 민감했던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유교적인 윤리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해서도 깊은 위구심을 품었던 것이다.(중략)』

1905년 이래 재연되기 시작한 의병의 항전은 이들 해산병과 그들의 무기를 얻어 보다 더 완강한 항전을 벌일 수가 있었다. 의병의 군소 부대는 각기 산악지대를 근거로 하여 각처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고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절단하였다.

의병부대는 유생과 농민, 砲軍을 포함한 사병, 그리고 광부들을 주로하여 의병장의 지휘하에 움직였다. 그들이 설사 어느 정도의 조직과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신 장비와 훈련을 받은 일본군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906년 민종식, 최익현의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정면으로 대결해서 패배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패배의 경험에서 대부분의 의병은 점차로 게릴라화되어 갔다. 그렇지만 의병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사기를 돋굴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군은 무차별 살상과 초토작전을 감행하였다. 양군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전투는 없이 의병의 항전은 장기화되었으나, 1908년을 절정으로 점차 약화되어 갔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1908년에 의병과 일본군과의 교전 횟수는 1,796회이고 교전 의병수는 82,767명에 이르던 것이, 다음 해인 1909년에는 1,738회에 38,593명으로 나타나 그 수가 격감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던 의병들의 항전중에서도 치열했던 것은 '경기·충청·전라·경상 諸道에서 일어난 항전이었다. 의병의 기세가 1909년부터 꺾이면서 그 일부는 국경을 넘어 만주로 대일 항쟁의 무대를 바꾸었다.』[3]

3) 전게서 ; pp. 498~500

「1895년 10월의 사건과 11월의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하여 개항 이후 누적되어 온 반일감정이 반일 의병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 의병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은 강원도 지역으로 이곳에서 1895년 2월까지 왜적에 의해 처단 내지 살해된 관료가 20여명 이상이며, 1895년 겨울에서 96년 1월까지 官報에 나타난 살해된 고관은 관찰사 6, 군수 10, 부윤 1, 경무관 3, 주사 2, 총순 2, 참서관 2, 세무시찰 1명 등이다. (중략)이러한 의병운동이 대중적 기반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殺倭를 기치로 한 의병운동이 경향 각지에서 일어났다. 제2기 의병운동의 발원지가 되는 곳은 강원도 지역으로서 이 곳은 종래 〈화적〉〈활빈당〉 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들이 의병운동으로 합류함에 따라 1905년 4월부터 제기의 단서를 열어 충북·경기·경상북도로 파급되었다. (중략)제2차 의병운동의 특징은 반침략적, 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호남과 충청도 지방의 의병장이 유생출신으로서 대중적인 봉기와 굳게 결합될 수 없는 요인을 지녔음에 비해, 영남지방은 평민의병장이었기 때문에 농민대중을 의병부대로 규합하여 이들과 밀착된 가운데 투쟁이 완강하고 기동성을 띰으로써 과감하게 지속할 수 있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일제에 의해 수탈되는 丁未 7조약의 체결과 한국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는 것 등에 자극이 되어 제3기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이때의 의병운동은 해산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하고 의병대장으로 평민출신이 가담함으로써 국민대중 속으로 파급되었으며, 의병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4]

이상의 의병항전 개황을 요약해 볼때 전 국토 산과 강을 누볐던 先代의 피흘림이야말로 민족정신의 주춧돌이요, 민족사의 전통으로 맥맥히 살아

4) 동아출판사 편 ; 원색 세계대백과 사전.(23권) 1983. 10, pp. 26~7

숨쉬는 우리의 업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보겠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에도 나라 구석진 곳에서 또는 나라 밖에서 까지 피나는 구국항쟁이 멈추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국민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민족 정기는 항시 꿈틀거려 누대로 이어질 것이다.

무수한 우리 애국 혼의 불사신이 국난기 마다 일어났고, 대한제국말 15년 사이의 義兵 항전 또난 '정의' 하나에 매달려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이라도 능히 그를 헌신짝처럼 던지고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쳤던 이들의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1차 義兵 항전과 성남지역의 운동 전개

대한제국말 부터 15년간 일제 침략행위에 항거한 전국 의병운동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 시기로 나눈다. 제1차 의병 항전 또는 初期 義兵이라 하는 시기는 1895년 10월부터 1896년 5월 까지다. 당시 관·민 일체로 싸웠던 애국 활동상은 그야말로 처참·치욕, 울분의 외침이 아닐 수 없다. 몰아치는 폭풍우 外勢 앞에서 무기력할 도리 밖엔 없던 그 시절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생업과 가정을 버린 채 밤낮없는 간난 속에 투쟁의지 하나만은 실로 한국역사 위에 구국혼령이 되어, 전통사회의 이념과 민족정신의 굳건함으로 일관하였다. 경향 각지의 儒生들과 官民들이 무력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의병들의 창끝과 육혈포만, 친일파 세력에게 던진 돌팔매질과 불지르고 목조여 암살하기 등에 게릴라戰 투쟁 방법들이 日軍警에겐 아주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義兵 애국혼은 언제나 나라를 이끄는 힘이었으며, 역사의 책갈피 속에서 아직도 용솟음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초기 의병의 시기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역사의 자취를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1895. 3. 동학당 全琫準 처형, 포천 민란발생, 지방제도 23부 331군 공포

7. 제3차 김홍집 내각 성립
8. 日 浪人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시해(乙未사변)

1896. 11. 단발령 내림.

1. 建陽 연호 사용.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 봉기
2. 아관파천 및 러시아軍 입경. 김홍집 피살
7. 독립협회 결성
8. 전국 지방을 13도로 제도 개혁

위의 역사적인 사건 외에 2년간 경제·군사·사법·행정면의 수많은 법규가 개정되었거나 철폐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내정간섭 또한 특기할만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동학운동을 기점으로 일어난 民亂이 각처에서 연쇄적 율 분으로 터져 국내의 어두운 그림자는 가실 날이 없었다. 당시의 활거 모습은 이 땅을 장차 만신창이 신세로 만들 기미가 역력하여 생각이 깊은 民草까지 온갖 수단을 다하면서 애국심 지닐 일에 함심이었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생활고는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동학란 진압을 구실삼아 내정간섭의 호기를 잡은 일제는 1895년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로 부터 淸國勢를 몰아내는 한편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일제의 國母 암살과 친일각료의 단발령 시행은 守舊 儒生들의 무장봉기를 유발하였다. 이것이 곧, 초기 乙未 유생의병이다.

1895년말 원주·제천·단양(안승우, 이춘영, 김백선), 춘천(이소응), 영월(유인석, 민용호), 보은(문석봉), 안동(권세연, 김도현), 홍천(김복한) 등지에서 일어난 초기 의병은 이듬해 경기도·전라남도 그리고 황해·평안도 까지 확대되었다.

춘천 관찰사 조인승을 비롯한 많은 지방관리들이 처형되어 한때 지방행정이 마비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친일내각이 倒壞, 새로이 親露정권이 들어서는 정변을 겪기 까지 했다. 그러나 신내각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雨期가 다가서자 의병의 銳氣는 차츰 가시고 말았다.

9개월 남짓 계속된 초기 의병은 여러가지 면에서 고전성을 보여 주었다.

그 주도세력은 보수적인 지방 유생층이었고, 추종자인 하층 농민의 반일의식은 뚜렷하지 못하였다. 전술적으로 미숙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투력도 아주 연약하였다. 이 때문에 비록 천일대각이 도괴되어 삭발의 화가 가셨다고는 하나 본시 의도했던 守舊致强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천로과의 동잘이라는 정국 변동이 초래되었을 뿐이다.

초기 의병의 전투력은 신식 소총으로 무장된 관군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비가 오면 쏘지 못하고 낮에는 交戰을 피해야 하는 화승총이 의병의 주무기였던 것이다. 이나마 장만하기 어려워 의병 10명이면 1~2이 화승총을 들고 있을 뿐 모두 빈 주먹이 아니면 창칼을 든 군사들이었다. 충주 공격시의 유인석 부대는 무려 3,500명에 달했으나 持砲者는 불과 400인이었다.』[5]

무력은 보잘것 없으나 그들의 정신 하나만에 대동단결하고 활동한 셈이다. 기대할 만한 지도자도 흔치 않았고, 식량이나 무기 조차 약탈 수단이 아니면 댈주먹일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기울어지는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자기 목숨과 사랑하는 처자식도 모두 외면하면서 쟁기 대신 창칼을 들고 밤중의 산속 무법자로서 白兵戰 투지를 생의 마지막 용기로 버틴 셈이다.

병력수도 부족이요 무기 조차 태부족인 가운데 '외로운 절신'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 영남 지역 항일 義兵 활동은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어 뜻있는 젊은이가 이 부락 저 부락에서 한두 명 가세되어 인근 지역의 집단에 합세하지 않았나 한다.

『한편 남한산성은 한말 의병의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한말의 의병운동은 대개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의 乙未의병, 제2단계의 丙午의병, 제3단계의 丁未의병 등 세 시기로 나누는데 廣州지방의 의병운동은 특히 제1단계

5) 朴成壽 : 의병전쟁의 의의 :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1988. 2.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pp. 91~2

에 속하는 의병운동이었다. 한말 초기 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의 비보와 단발령의 강제시행을 도화선으로 斥邪衛正 사상을 갖고 있던 전국의 유림 중진들이 의병부대를 편성, 곳곳에서 정부군,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는데, 남한산성은 광주·이천 등 경기지방 의병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경기의병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병한 것은 1896년 1월이었다. 당시 광주 의병을 이끌던 중심 인물은 金河洛, 具然英, 申龍熙, 沈鎭元 등으로서, 집결된 총 병력은 2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남한산성이 의병의 거점으로 되었던 것은 전략적으로 요새지인데다 산성 修築은 물론, 군사 및 군량 무기 등이 비축되어 있어 장기 항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6]

이처럼 우리 성남지역의 義兵 항전이 타 지역에 앞서 기초부터 거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한갑 가까운 고장이었던 점과 아울러 선조 대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애국정신의 鄕匯이 끊어지지 않음이라고 본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의 임진·병자 두 난리에 마지막 보루로 이용되었던 남한산성 성내가 가까운 1세기 이전 의병 투쟁기에 까지 격전지로 이용되었음은 모두 의미있는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성남시 일원이 되고 있는 청계산 주위의 낙생면과 대왕면 그리고, 분당구 주변의 돌마면 각 고을마다 남한산성 항전 이야기를 모를 리 없다. 소문으로만 듣고 지나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국란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용기있게 전투대열에 직접 참여한 선조 또한 綿, 없었으랴! 그러므로 당시 의병 지휘관들과 직간접 통솔을 받으며 의병대열 일원으로 합세한 이가 다소 있었을 법 하다. 더구나, 신망과 통솔력을 겸비한 지휘자 또한 몇명쯤은 있었지 않았나 한다. 남한산성 남편 계곡으로 이어진 靈長山 양지쪽 상대원리·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청장년층 농민들 역시 1차 義兵 항전 勇士로서 산성전투에 가담했을 법 하다.

6) 李完寧, 「한국사에 비친 '城南地域'의 歷史」, 민족문화사, 1993. 10, pp. 118~9

『1896년 2월 利川에서 편성된 의병연합부대의 지휘 부서는 이래와 같다.

참의대장 閔承天	도지휘 金河洛	도 총 趙成學
좌 군 장 金鑾性	좌군장 申龍熙	소모관 全貴錫
중 군 장 具然英	후군장 朴準英	
유 격 장 金敬誠	돌격장 沈鍾萬	

광주의병이 첫 戰果를 올린 것은 1896년 1월 18일, 조성학, 심진원, 구연영, 신용희 등이 주도한 柏峴전투에서였다. 즉 17일 방부터 백현고개에 매복해 있다가 접근하는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물리치고, 패주하는 적을 다시 노루목 장터까지 추격, 전과를 올렸으며, 여세를 몰아 2월 23일에는 심 진원이 통솔하는 광주의병 부대가 최초로 남한산성에 입성하였다. (중략)산성수비 병력의 저항도 완강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중에, 25일에는 구연영 등이 광주군수 朴基仁을 처단하고 여주에서 거병해 온 沈相禧와 연합, 26일에는 소모군 격문을 지어 여러지역에 돌리는 등 대오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월 28일에는 이천 의병부대와 합세, 격전 끝에 완전 점거하는데 성공하였다.[7]

그 후 산성 안 4대 문별로 수비 책임을 맡아 5명의 의병장이 주축이 된 광주군 의병 투쟁은 단기간이나마 막강하였던 것 같다. 일본군대와 친위대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좌군장 金鑾性이 피체되고, 그를 통해 화해의 제의가 거짓으로 전달되자 이에 회답을 다음과 같이 써 보낸 것이 전해 온다.

김귀성 군 앞

지금 우리의 의거는 倭를 토벌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히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즉시 그칠 것이니 어찌 갑히 官軍에 항거하겠는가. (중략)의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즉 우리 東國의 만백성들이다. 만일 백성들을 모두 없애려 한다면, 나라에서는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도지휘사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때를

7) 상게서, p.119

토벌한다면 이는 관군이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의병을 토벌한다면 이는 왜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거는 왜적의 토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그리 알아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는 바이다.

丙申(1896년) 2월 2일 辰時

산성부대장 書

이와 같이 의지가 결연하고, 사기충천하므로 관군측에서는 奸計를 써서 김귀성, 박준영을 술과 고기로 회유하여 의병들을 취하게 한 후, 3월 20일 일제 공격하니 20여 일만에 城은 함락당하고 말았다. (중략)

즉, 관군과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가 벌였던 최후의 전투는 의병부대 측에서 士馬 500여가 희생되었고, 관군 측에서는 300여 명이 전사했던, 前期 의병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던 것이다.』[8]

한말 의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차의병의 남한산성 항전이므로 이를 상세하게 인용 소개해 두고자 한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남한산성은 근세 조선 이래, 국방상 重地로 인정되어 오던 곳이며 특히 인조조 이후에는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배치하며 많은 양곡·무기 등을 저장하여 오던 곳인데, 을미년에 있는 지방제도, 군사개혁에 의하여 성의 수비를 위한 군병, 이속들의 대폭 감소는 있었지만 아직도 무기·양곡 등의 저장품이 있었으며, 또 거의 완전한 성벽과 주위의 험준한 지리가 군사를 留陣하고 적과의 한판 싸움을 하며 불만도 한 곳이었다. 더구나 그 위치는 수도 서울의 근거리에서 서울을 한눈 아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니 경기의병진의 남한산성 입성은 전략적으로 볼때 큰 得策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남한산성의 전략적인 가치·성중의 풍부한 군물자·양곡이 경기 의병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 가는 京畿 義兵陣을 이끌었던 金河洛의 진중일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방 산이 갈아지른 듯이 솟고

8) 상게서 ; p. 120~1

성첩이 견고하여 참으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이라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을 두로 살펴보니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식염이 수백석에 달하고 무기도 구비하여 대포기가 수십 자루, 비랑기가 수십자루, 천황포·지자포도 역시 수십 자루, 천보총이 수백 자루였고, 그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탄약·철환이 산더미 같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 데다 진철 곳마저 있고 무기와 군량도 충분한 성을 차지한 경기 의병진은 城 守御의 책임부서를 정하고 성 수비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 근거리의 요새지에 이와같이 의병이 포진하게 된 것은 京中에도 상당한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이러한 의병활동에 대하여 金允植은 그의 『續陰晴史』에서 "들은 즉, 楊根·廣州의 비도들이 남한으로 모여 들어 백성들의 전곡을 거두어 들이며 굳게 지킬 계획을 한다"고 하였으며, "또 京中의 군사들이 공격하다가 패퇴하였는데 대포 1문을 잃었으며 적의 세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고 하고, "산성의 적이 성을 차지하고 굳게 지키고 있는데 京兵 수백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하여 경기 의병의 남한산성에서의 동태와 전황을 전해주고 있거니와, 의병진에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포진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서울의 친위대와 강화도 주둔병을 출동하여 산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때 성중의 병력 약 2천 명에 대하여 친위대와 강화병은 합 3중대와 2소대였는데 그들은 본진을 남문밖 梅着洞에 설치하고 1중대를 본진에 머무르게 한 다음, 동문밖 불당곡과 북문밖 鄕校里에 각 1중대씩, 서문밖 石會堂과 동문밖 암현리에 각 1소대씩을 배치하고 교통을 차단하며 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성중에서도 서슴치 않고 대응책을 취하여 혹은 여기저기로 왕래하며 산발적으로 총을 놓아 京軍을 의혹, 당황하게 하며 혹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戰勢는 언제나 지리적 요새지를 차지한 의병진에게 유리하였으며 관군부대는 감히 성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먼 곳에서

총이나 놓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중 북문 부근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던 경군부대가 의병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급히 퇴각하느라고 대포 1문을 버리고 달아 났는데 파수장 申龍熙는 급히 군사들을 호령하여 나가 싸우게 해서 경군 수십 명을 꺼꾸러 뜨리고 대포를 끌고 들어 오니 의병진의 기세는 대단하였으며 의병들은 보잘것 없이 물러나는 경군들을 조롱하면서 멀리 보이는 서울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다.』[9]

그러나 전세는 계속하여 우세하지만은 않았다. 제1차 의병 전투가 남한산성에서 장기전으로 지속됨을 우려한 관군과 일본군들은 포로로 붙잡힌 김귀성을 회유하여 성안에 있는 박준영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만나 꾀이도록 한 것이다. 즉 자진 귀화만 한다면 박준영을 廣州留守, 김귀성은 水原留守로 임명할 것이니 산성의 의병들에게 관군 침공의 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라는 은밀한 내통 권유를 받아 들인 셈이다.

『이렇게 하여 김귀성은 물론 의병대장 박준영도 마음이 변해갔다. 김귀성과 박준영이 관군과 내통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장수들은 각기 직무에 분주하여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마침내 3월 20일 박준영은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하여 크게 군사들에게 먹이니, 각 문의 파수를 맡은 장병들도 모두 취하여 잠이 들고 말았다.

난공불락의 자연조건도 싸우는 병사의 인화만은 못한 것, 결국 3월 21일 새벽 4시, 서문과 북문을 활짝 열어 놓으니, 기다리고 있던 관군들이 함성을 울리며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5시가 지나서야 깊이 잠들었던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 성 중에는 관군만이 가득하여, 박준영 세 부자는 잡혀 총살당하고, 의병은 뿔뿔이 흩어지니, 남한산성은 입성 20일 만에 천추의 한을 남긴 채 함락당하고 말았다.

---

9) 인천교대 鄕土문화연구소 편 ; 『경기도향토교육자료. 1(역사편)』, 1974. 12. pp. 256~7

불의의 실패를 당한 경기 의병진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신용희, 김태원, 구연영 등은 다시 군사를 모아 27일 총 병력 9대를 인솔하여 錦南으로 옮겨갔다.』[10]

결국, 우리 고장의 의병 항전은 큰 뜻으로 뭉쳐 20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사기충천하게 戰功을 세워 나가다가 중도 변절자의 오판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휘부의 의병장 한두 명 졸렬함이 화근이 된 채 패퇴의 참혹한 지경을 자초한 셈이다.

한편, 경기지방의 의병활동은 산성 전투를 전후하여 각지에서 크게 일어났다. 여주 의병(심상희)은 이천과 제천지방 의병들과 연락하며 크게 기세를 올리기도 하면서 친일관리에 대한 테러와 살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몇몇 의병을 데리고 여주·제천·안동으로 분산한 심상희, 김하락, 구연영, 김순삼 등의 의병장은 심상희 외에 모두 제천 유인석 진영으로 합세하였다.

乙未의병 항전이 전국 23府 대부분 지역에서 종결된 시기는 1896년 10월의 일이다. 약 10개월 동안 항전 중에 남한산성과 진주성, 홍주성 세 곳의 와해는 내부의 반란으로 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김하락 부대는 항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유인석은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강년, 정운경, 김태원 등은 힘의 한계에 부딪쳐 후일을 위해 잠적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몇몇 필사항쟁 부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황제의 조칙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아 해산된 예도 적지 않았다. 1차 의병 부대가 독자적인 민중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지도이념은 강했다 하나 儒生들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결부에 끝까지 항거한다는 데에 명분이 뚜렷하질 못했던 것이며, 그 당시 친일내각이 잠시나마 퇴각하면서 단발령 철폐로 인한 시대 사정에 따라 의병의 조직성은 해산의 길로 빠져든 셈이었다.

10) 경기도교육위원회 편 ; 「충절로 지킨 내고장」(사건편), 1984. 8, p. 102

이강년 부대 또한 3월, 제천에 모였다가 수안보의 일본군을 격퇴시킨 戰果를 올렸으면서도 평안도 지방을 거쳐 이동 중에 끝내는 자진 해산, 잠적하여 휘하의 수많은 의병들이 각기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끝으로 지적할 것은 남한산성의 의병은 서울 청년을 중심한 참모조직이었고, 서울 진격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金河洛, 趙性學, 金泰元, 具然昊, 申龍熙와 함께 단발령이 발표된 이튿날(1895. 12. 31) 서울을 탈출하여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승천과 합류하여 남한산성에 입성하고 또 관군과 격전을 벌일 때까지 세 차례의 참모진영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위의 5명은 참모요직을 번갈아 맡았다.

단지 처음에 민승천을 대장으로 했다가 후에 박준영을 추대했던 것은 형식상 고령자에 대한 예우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남한산성의 진영은 5명의 대표였던 김하락의 진영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이 진영은 유일한 서울의병 진영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을미의병이 거의 지방 유생을 중심한 의병이었는데 남한산성 진영은 서울 유생을 중심하여 지방유생과 연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을미의병은 거의 지방의 친일 또는 개화관리를 표적한 것이었고, 서울에 대하여는 압력적 위치 이상을 넘지 못하였는데 남한산성과 춘천 진영의 경우는 서울에 대한 직접적 압력을 가하면서 진격도 구상하고 있던 진영으로 특수한 경우라 하겠다.』[11]

3) 제2차 義兵 항전과 성남지역의 운동 지속

乙未의병이 쇠잔된 이후의 儒生 의병장들의 해산은 곧바로 모든 의병들이 잠적되었다고 여러 역사책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재봉기의 기회를 위한 잠정적인 후퇴였던 것 같다. 본격적인 제

11) 민족문화협회 편 ;『의병들의 항쟁』(민족운동총서, 1), 1980. 1. pp. 62~3

2차 항전기가 올때 까지 8년 동안에도 日帝의 침략 행위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되어, 이 나라를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든 셈이었다. 각 지방의 항전이 잠적한 동안의 역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887. 3. 경인철도 기공
8. 光武 연호로 고침
19. '대한제국'이라 국호를 고침
1898. 3. 제주도 民亂 발생
12. 일체의 민중 집회 저지
1899. 2. 전라도 흥덕군 의 7개 군에서 민란 발생
9. 인천~노량진 간 최초의 철도 개통
1900. 3. 三南지방 활빈당 활동
8. 吉州 민란 발생
9. 白銅貨 주조 시작
1901. 5. 제주도 민란 발생
8. 서울 최초 전등 시점식
1902. 2. 성진 민란 발생
12. 하와이 移民 121명 출발
1903. 3. 의병장 180명 특별 사면
10. YMCA 창립
1904. 2. 한일의정서 조인, 러·일戰爭 발발
4. 일본 駐劄 사령부 설치
7. 민중운동 전개(보안회)
8. 일본 고문정치 시작
9. 시흥 민란 발생

위 몇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각 지방 民亂은 간헐적이나마 지속되었다. 갈수록 우리 나라의 운명을 스러지게 하려는 일제 앞에서 많은 애국자들은 좌시만 하고 있지 않았다. 수년간 청·러·영·벨기에·독·덴마크 등과 修交를 묵인하였지만 마침내 일본은 淸·露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독점적인 우월권을 각 분야에 걸쳐 행사하면서 한국의 외교권 마저 박탈하고, 보호정치란 명분아래 統監府 설치, 高宗 양위 등 內政에 깊이 관

여하는 단계에 오른다.

中期 義兵이라 하는 1905년 4월부터 1907년 7월까지에 나타나는 年代表의 사건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둔다.

1905. 1. 고등경찰제 실시
3. 최익현 일헌법에 체포, 각지에서 一進會 배척 소요
4. 통신권 박탈
10. 보호정치 방침 결정
11. 乙巳조약(한일신협약) 조인, 장지연 『황성신문』 논설 '是日也放聲大哭' 발표, 민영환 자결
1906. 3. 초대統監 이등박문 부임, 三南지방 의병 항전, 신돌석 영해 봉기
6. 義兵 진압 일본군 총器에 20명씩 파견
12. 최익현 단식 사망
1907. 3. 5賊 大臣 기습
5. 이완용 친일내각 성립
6. 이준 열사 密使로 파견
7. 광무황제 입금 양위, 한일신협약(丁未 7조약) 조인

당시의 國運은 풍전등화 격이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국력의 쇠퇴로 인하여 '조선의 힘'이란게 도무지 起死回生 불능 지경이었다. 일제는 최소한 조선만이라도 그들의 식민지로 할 것이라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므로써 半島의 각 지방 義兵 부대는 잠시 소강상태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2차 丙午 義兵의 발원지는 강원도 지역이 되었다. 이곳은 종래 〈화적〉, 〈활빈당〉 등의 활동이 심하다가 이들이 의병과 합세함에 따라 1905년 4월부터 再起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하여 충북·경기·경북 등 전국권으로 항전 세력이 파급되기에 이른 것이다.

1906년 예산·해미 지역의 최익현을 위시하여 홍산의 민종식, 순천 김락구, 김해 김영현, 영양 김순현, 안동 이하현, 보은 노병태, 공주의 이세영과 김택진, 임실 강재천, 장성 기우만, 영해의 신돌석, 영덕 정환식, 울진 김현규, 안동의 권세연, 류시현 등이 擧兵하였다.

이같은 각 지방 의병장의 항전태세는 서로 연계되어 이춘영, 유인석, 이소응, 허위, 노응규 같은 선봉장들과 일치된 이념으로 싸웠다. 일본군대를 공격하고 친일파 관리를 저격, 사살하면서 헌병주재소도 기습공격 파괴하는 유격전을 일삼았다. 순식간에 救國의 항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7~8년 전에 한 차례 이상 거센 抗戰을 경험한 이들로서 골수에 맺힌 배타적 反日 감정이 멈추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겠다.

더망 높은 儒學者를 주축으로 군인, 어부, 포수, 농민, 광부, 상인 등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백설다운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의병 대열에 동참할 지경에 다다른 때였다. 제2차 中期 의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의병 항전이 한층 民衆 운동으로 발전된 점이다. 이는 다름 아닌 위정척사의 한계를 벗어난 국권수호를 위한 민족 자주성의 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경기도 의병과 늘 가까이서 직간접 영향을 서로 미친 제천 진영의 의병장들도 1905년 가을부터 중군장 원용팔이 박정수와 함께 영월에서 크게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유인석의 제자인 이들은 제천 일원의 선봉적 활동을 하므로써 소백산 일대의 수십명 씩 유격대 방식의 의병부대가 끊임없이 활약하게 되었다. 그 소문은 더 널리 퍼져 황해도, 평안도 까지 이들의 항전이 큰 교훈으로 살아 뜻을 같이 하는 경기도 지방의 젊은 의병들에게 더 한층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덧붙일 이야기는 제1차 의병 당시의 제천 의병장이었던 이정규 같은 이들이 제2차 의병 때는 더 멀리 전라도 대인 지역의 최익현 진영에 까지 따라가 재봉기를 하였다는 일이 특이하다.

최근 성남지역 출신의 李完宰 史學者가 쓴 『城南지역의 歷史』속에서 지역 의병 활동을 소개하는 중에는 성남은 中期 丙午 의병 항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南相穆(1876~1908) 항일 의병장과 尹致欽(1876~1971) 의병장의 활동을 그들 후손과 대담 및 관련문 자료에 의해서 이 두 의병장의 항전이 어느날 갑짜기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제1

차 前期 乙未 의병때 부터 두 의병장은 인근 의병진에 가담하다가 李康秊 도창의군부 진영에 가담, 義兵전쟁의 맥을 이어 받아, 지역 의병장으로서 경기, 용인, 광주지역에서 일정과 격전을 벌인 발자취가 뚜렷하다.

성남 지역의 옛 고장이었던 경기도 광주 땅이 양평, 이천, 여주와 연접한 때문으로 보아서도 강원도 접경지역과 내륙의 충청도권 까지도 서로 긴밀히 내통하여 격전을 곳곳에서 벌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城南지역 의병 항전은 크게 전국권을 능가하는 거센 격전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겠으나, 타 지역으로 부터 알게 모르게 연계된 위대한 의병장들의 영향을 받아 소규모의 게릴라 전법 활동은 곳에 따라 있었다고 하겠다. 제1차 의병전에는 같은 지역 남한산성 20일 항전 당시의 김하락, 민승천, 신용희, 대장들에게서 직접 면대를 통해 義旗를 들었거나 아니면 또다른 의병장 장거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충정의 발로에 의하여 스스로 용맹성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본다. 멀리 이 항로의 위정척사 사상에 심취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익현, 유인석, 허위, 이강년, 민긍호, 이춘영, 안승우, 서상렬, 신돌석, 이필희 같은 인근 지역의 의병장 활동상을 듣고 구국적 결심으로 성남 인근 지역 抗戰에 선두자로 나섰던 것이다. 특히, 허위, 이강년 의병장과는 직접 그의 휘하에서 여러 형태의 전술을 받았던 것으로 성남 지역 두 의병장 후손과의 대담 중에 드러나고 있다. 하므로 제2차 의병 당시의 성남지역 운동 역시, 타 지역같이 잠적 상태로 있으면서 인근 지방 의병진들과 손을 잡고 의병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믿어진다.

하여간, 제2차 義兵 항전은 1차 의병과 꼭 소규모적인 활동으로 양상을 달리하였다. 전국 곳곳에서의 치열했던 유격전 전술을 따른 산악 지대에서의 투쟁으로 인하여 우리 고장 城南 義兵 역시 청계산, 검단산, 영장산 계곡을 온신처로 마을 단위의 청년 의병활동은 있어 왔다. 수많은 無名의 義兵들 호응으로 굳게 뭉친 지역 義兵將은 가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활약했던 전투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청춘의 열기를 애국 혼으로 불태운 것이다.

나라를 구해야 살 수 있다는 신념에서 붓고 가사하고 풍찬노숙하며 일본 군과의 도처 전투에서 장렬한 순국을 한 이, 또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제의 그 어떤 유혹까지 뿌리친 義兵 精神은 만고에 빛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잠시 방향을 바꾸어 전국민 앞으로 의병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 독려한 草西 이항로(1792~1868)의 門下人 義菴 유인석 외 한두 사람의 檄文 일부를 소개해 둔다.

八道에 고하는 檄文

아! 슬프다. 우리 팔도의 창생이 남에게 맡겨져, 한판에 다 죽게 됨을 차마 볼 수 있겠는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5백년 유인일진대 어찌 나라를 위한, 집을 위한 한 두 사람의 의사가 없는가. 참혹한 일이다. 슬픈 일이다. 운이냐, 명이냐, 아! 우리 本朝는 國初로 부터 모든 제도를 하나하나 옛 성왕들의 법도를 따라서 만들고 준수해 감으로써 전 세계가 모두 문화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다.(중략)

무릇 우리 각도의 충의의 군사들은 고루 聖朝가 배양한 사람들이니 환란을 피한다는 것은 국가보다 어려운 일이다.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일어나 그것을 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으랴. 비록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어도 사람이 능히 백배의 힘을 더한다면 원수와 같이 살 수 없는 와신상담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

이러한 때에 무엇이 위태하고 어려우랴. 魚肉의 禍를 면할 것이니 나는 모랑캐에게 변화된 자가 세상에 산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금사간에 온전히 살 수 있는 희망은 없고 회복간에 죽을 사자의 信符를 지킬 수 밖에 없다.

말의 피를 마시며 동맹을 하노니 成敗利鈍에 있어서는 내가 逆睹할 바가 못된다. 생이냐? 의냐? 양자 택일의 경우에 생을 버리고 의를 택함으로써 경중대소가 이에 분명하게 갈리진다. 대중의 마음이 다 따르니 어찌 百靈의 도움이 없겠으며 국운이 다시 열리니 사해가 길이 맑음을 볼 것이다. 어진 자의 대적이 없는 것을 의심치 말며 의로운 군사가 불의를 무찌르는 것을 다른데서 구하랴. 이에 감히 일으키는 지지를 위하여 이로써 사람사람에게 촉告하노니 위로는 공경대부로 부터 아래로는 공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애통절박한 마음이 없겠는가.

진실로 위급존망의 때라. 각자가 다 거적자리를 깔고 방패를 베개해서 몸불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 어렵고 위태한 굿이라도 뛰어들어 기어코 망해가는 나라와 천하의 도의를 다시 만들어 天日이 다시 밝도록 하라. 이렇게 되

면 어찌 다만 한 나라에만 공이 되겠느냐. 실제로 천하만세에 전할 수 있는 功이요. 업적인 것이다. 이와같이 글을 보내어 깨우치노니 뒤에 혹 속을 어기고 포만한 사람이 있게 되면 즉시 열당의 무리로 같이 규정하여 단연코 군대를 옮겨 먼저 칠 터이니 의당히 心肺에 새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로 大義를 펴보자.[12]

乙未 12월, 충청도 제천 의병장 柳麟錫 삼가 씀

(전략) 민비가 시해되고 주상이 욕을 당한 乙丙의 화란을 차마 말하겠는가. 그때에 하늘과 신이 함께 노하고 인심이 들끓었던 바 다행히 儒宗의 倡義에 힘입어 잠시 수화의 塗炭을 늦추고, 설치복수하여 반도의 탄식을 마음껏 달랬고 동근 소매와 상투머리로 다행히 옛날의 몸가짐을 보존하였다. (중략)이제야 치마를 찢어 旗를 만들어 내거할 때 많은 초야의 義士들이 분기하여 일어나니 어찌 左海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진실로 관중이 아니었다면 오랑캐가 됨을 알거늘 요치를 주벌함을 찬성하는데 생하겠는가.

비록 농부가 초부라 하더라도 모두 一除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짚신발이, 벙어리, 귀먹어리도 또한 백배의 기운을 더하니 반드시 천지의 희태가 있을 것이다. 어찌 요사스런 기운이 개이지 않으리요. 장안의 父老는 漢官의 威儀를 기꺼이 보았고, 순창의 旌旗는 宋朝의 基業을 중흥하였다.

무릇 八路의 충성스러운 선비로 누가 열성의 함후한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 神明이 옆에 있으니 감히 두 마음이 없으며 호월이 동주하면 오히려 힘을 합한다고 이르는데, 역도수이를 모두 섬멸하여 이 豊功盛烈을 이룰 것이다.

아! 재능은 異代에서 빌리지 못하니 스스로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 각기 당연한 것으로 보고 어려움을 공제할 것을 명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을 다해 포고한 후에도 의를 어둡게 하고, 의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黨與를 먼저 주벌하여 결단코 털끝만큼의 容私도 없을 것이니, 위로는 고위고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각각 척념할 것이며 후회하지 말지어다.[13]

召 募 檄

아! 난적은 霜氷에 이르게 되니 왕법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가 없다. 장사가 비구를 같이 모여들어 대의는 피하지 아니하여도 같이하니 마땅히 삼

12) 제천문화원 편 ; 『원용팔 씀, 湖西 義兵史讀』(이구영 편) 1994. 10. pp.34~36)

13) 상게서 ; pp.647~9

군을 징솔하여 사해를 永淸할 것이다.

아름다워라! 일역에 우뚝함이여! 멀리 기자가 조선에 봉하여 8조를 베풀고, 성인의 책을 읽을 때부터 원래 해외의 추로라고 일컬었다. 중원과는 땅이 가까워 언덕으로 연제에 접했으니 사방에 전쟁의 소리가 없었으며, 대조에서 혹질을 내리었으니 어찌 준동을 말하랴.

이에 鯨鯨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방자하니 옛날 임진에는 편초의 치욕을 참고 당하였으며, 지금 병자에는 숲이 愚宋을 순치한 꾀로 안으로는 10명의 진회가 농권하여 점차 동창의 간계를 팔고 있으며, (중략)마땅히 소매를 던지고 분발하여 급히 창을 들에 미치고 신은 문에 미치면, 어찌 옷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나의 두루마기를 같이 입겠고, 당신과 속옷을 나누어 입겠고, 함께 會盟하여 약속의 글을 올리고, 약속의 희생을 내리며 받들어 주선하여 왼손으로 채찍을 잡고 오른 손으로 칼집을 잡을 것이다.

삼가 원하건대 보일을 잘 택하여 곧바로 忠原으로 달려가 황천에서 만나기를 맹세하면 어찌 結髮한 사람만이겠는가. 원수위에서 천하의 장상으로 하여금 회맹하여 예사로 친을 굳히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한 마래서 호범을 쫓아 초를 칠 것을 원하며, 不書의 땅을 결단하여 씻고, 곤대의 하늘을 보게 할 것이다. 감히 좁은 소견을 진술하노니 갑찰을 統촉하노라.[14]

나라의 變亂이 있을 때에 官軍이 앞장 섬이 당연한 일이거니와, 인용문을 살피면 오히려 초야에 묻힌 儒生 그리고, 농민이 먼저 앞장 섰음을 살피게 된다. 바로 의병활동이란 역사적 애국운동이었으며, 충심의 발로로 자진 총칼을 잡은 이들의 꺼지지 않는 힘이었던 것이다.

"진실로 위급존망의 때라. 각자가 다 거적자리를 깔고 방패를 베개해서 풀풀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위태한 곳이라도 뛰어들어 기어코 망해가는 나라와 천하의 도의를 다시 만들어 天日이 다시 밝도록 하라"

이 얼마나 간절한 호소문인가. 잠시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같은 민족을 밀고하거나 죽이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팔아 먹으며 일신상의 영달을 꾀한 역사속의 매국적 인간들에 비할 수 없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저 의병들의 忠魂들 아니겠는가? 온갖 정성으로 大義를 뒤좇으며 살다

14) 상게서 ; pp. 562~3

이 산속 나무 아래이거나 저 냇가 돌옆에서 피를 흘린 우리들의 선조 큰 인물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야말로 열번 스무번 거듭되어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1차 의병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친일 관료를 격퇴시키고 서구풍의 개화세력을 물리침이 표적이었던 데 반하여 제2차 성남의병은 어디 한 곳을 눈앞에 닥친 국권상실과 일제강압 통치를 물리치려는 저항 유격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전국 의병장들의 활약상을 샅샅 알고 있는 우리 고장 성남의병장 또한, 그들의 방식에 따라 행동을 함께할 동지규합에 힘썼을 것이고, 다음은 친일단체, 일본 헌병초소의 무기탈취와 기습작전으로 일제들의 침략수탈을 중도 포기시켜 보려는 결의심으로 抗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끝내는 전공을 세우지 못한 사례로 멈추고 말았지만, 결국 지역의 몇백명 단위 義擧라도 침략국 일제들에게는 간담을 서늘케 만든 의병정신의 힘의 과시였으며, 장차 조선총독부를 향한 서울 진격의 전초전 활약으로 그 준비 단계에 속하는 성남지역 아니, 광주군 지역의 의병 항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본다.

성남의 두 義兵將인 윤치장, 남상목의 활동은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두 유공자 외에도 李命夏(1878~1921) 또한, 광주군 대왕면 출신의 義兵 활동사가 눈에 띈다. 그러므로 아직껏 성남지역에서의 義兵 연구라던가 의병 추모사업이 전혀 없는 게 타 지역에 비하여 너무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 하므로 이제라도 더 늦출 수 없는 우리 성남의 의병 추모사업은 광복 50년의 해를 맞이하여 서둘러서 추진해야 할 향토위인 추모사업과제라고 생각한다.

성남의병사 중에서 제1차 때의 남한산성 20일 항전도 매우 중요하나 이는 광주군에서 관장할 몫이며, 우리 성남에서의 추모사업은 의병장 두세 분에 대한 추모 순국비 건립이 그 첫번째의 할 일이라고 보며, 두세 분 의

병장의 출생과 성장, 활동지역에서 후손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데에 마땅히 향토사 발굴과 현양사업은 우리에 의해 하루 속히 이룩해 나갈 일이라고 하겠다.

제2차 丙午 義兵은 끝나지 않았다. 일제의 치밀한 침탈계획에 의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겨만 가는 시기에 의병에 대한 만행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의 크고 작은 항전은 계속되어 나갔다. 그러기에 1차 乙未 의병처럼 얼마간 투쟁하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지 않고, 제2차와 이어지는 제3차 丁未 義兵 항전이야말로 갈수록 전국 각지에서 불타 올랐다. 통솔 의병장이 붙잡히면 다음으로 연속되어 장소를 이동하며 주력부대 항전이 멈추지 않은 채, 참모진 구성은 재차 교체되면서 계속하여 의병 봉기와 투쟁은 강렬하기만 했던 것이다. 도처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애국 의병들, 또 유배되거나 투옥된 의병장들의 살아있는 의병정신이 흔들림없이 확산되어 나갔다. 짐과 생명을 아깝다 여기지 않은 이들의 정신유산을 지표로 삼아 오늘에 되새겨 나가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후손된 우리들의 응답해 나갈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올바른 역사라는 게 몇 백 명 간신배 도적들의 큰 비술, 웅장한 비각보다 正義스런 애국자의 초가 한두 채를 옳게 보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가) 남상목 義兵將의 功勳記 조사

앞에서 거명했던 우리 고장 城南의 의병들은 많지 않으나 그 行蹟이 분명하여 정부로 부터 훈장을 추서 받은 이는 현재까지 3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南相穆과 尹致章 두 의병장만이 근거가 확실할 뿐 李命夏 의사는 후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세한 그의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南·尹 두 의병장에 대한 공훈기 공적을 밝히려 한다.

南相穆은 1876년 고종 13, 丙子 4월 12일에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하산운리 81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南晋熙와 어머니 함평 李氏 사이에서 둘

째 아들로 태어난 南 창일의병장은 호 東泉, 자 文一이며 의령南氏 집안 족보상 '목(穆)' 字가 호적엔 '睦'字로 등재되어 있다. 東泉 南 의병장에 대한 절친했던 친구들의 通告文 기록에 의하면 ;

어릴때 부터 儒家風 가정에서 성장하며 언제나 천성이 총명하고 인품이 강직·출중하므로써 남들에게 칭송을 얻었다. 漢學에 몰두하던 유년기에 다른 아이와 더불어 소학·효경·논어는 물론, 고문·주역 특히 易學과 兵書類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충과 효의 실행에 깊이 관심을 보였었다. 그리하여 용맹과 지덕을 쌓으며 부모에게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감케 하였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나라가 일제에 강탈을 당하므로 하여 자신의 한 몸을 두렵게 생각지 않은 채, 합전의 대열에 끼어 들기 시작하여 28세 전에 이미 인근지역 청·장년과 어울리어 生業인 농업을 포기하고 배워 익힌 대로 구국충정을 몸소 실천코자 분발했다.

왜적 침략이 노골화 되자 그는 곧바로 일제의 포악성을 규탄할 기개를 품고, 마을에서의 만행을 직접 보게되자 분기탱천하여 항거하므로써 한 차례 구속되는 수모를 갖 28세에 경험한다. 여러 날 고문끝에 가까스로 석방된 청년 남상목 義兵將은 나라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擧兵 조직을 앞장서서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가까운 이웃의 同志를 모아 고향마을인 낙성을 위시하여 대월면·물마면·언주면 그리고, 용인군에 이르러 의병 수백 명을 소집한 후, 안성-죽산 등지로 옮탈 중에 七亭寺 절에서 왜적과 한판 격전을 벌여 승리한 후 뒤이어 광주 일대의 의병 동지인 金東善, 宋柱祥, 金泰東, 姜春善 등 50여 명과 합세하여 1906년 2월 단양 의병대장 雲岩 李康秊(1858~1908) 휘하에 들어 그 부대안에서 참모관 임명을 받아 큰 전승을 나타냈다. 얼마 후 東泉 南의병장은 鳥嶺 계곡 전투를 큰 성과로 남기고 잠시 고향 집을 들러 은밀한 행보를 재촉하던 귀가 중에 광주의 光岳山 부근에 이르자 미리 잠복으로 남의사 행방을 뒤쫓던 일본 헌병대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온갖 고초를 당할 지언정 대장부의 굳은 節義를 굽히지 않아 끝내는 옥중 殉節하였다.

(순한문의 통고문을 필자가 풀이)

1908년(융희 2) 戊申 11. 4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등

이상의 생애기록으로 南의사 생애는 대강 짐작이 간다. 어린 시절에 병서와 역학 등에 관심이 많았고, 총명하여 의로움이 남달랐다는 人物評만으로도 남상목 한 생애의 인품을 추측케 한다. 그가 청년시절 농민 후예된 처지에 비겨 출중한 인품이 있던 그는 조국이 위태롭고, 시대가 침략자에 의한 온갖 수탈을 당하는 당대의 현실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칠 리 만무하였을 법하다. 28세경 일제 수탈에 항거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구속된 적이 있음은 南의사 孫子 南基炯(1939—광복회 의전부장)후손 증언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남상목 의병장)

저의 조부께서는 평생동안 일제의 탄압을 가장 증오한 항일 의병장이셨습니다. 청계산 기슭 아래의 마을 뒤쪽 '드물골'이란 곳이 원래 수백년 자란 울창한 원시림 수풀이었다고 하는데, 그 좋은 거목을 軍木으로 쓰고자 일본군과 헌병들 감독 아래 마을 주민들이 혹사 당하면서 마구 잘라내는 작업이 여러 달 계속되었답니다. 그같은 벌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일본 작업대 군관 사이에 감정 대립이 생겨 쌍방이 팽팽하게 맞서던 때에 그 사건의 주동자로 저의 할아버지가 앞장서신 것 같아요. 욕설과 매질을 당하면서 억울한 고문을 받고 얼마후에 가출옥되신거죠. 이 사건 연루를 계기로 하여 의협심이 특출나셨던 제 조부는 가사를 제쳐 두고, 오로지 항일 의병 대열에 한 몸을 하신겁니다. 그때 나이가 28세였지요.

인근 용인과 부락 청년들이 합세하여 의병 수백 명을 인솔하고는 大田지방으로 가서 그 지역 의병과 은밀한 계획하에 서울 침공을 위한 進軍도 하시면서 몇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강원도 단양 지방의 의병진영에 찾아가시어 이강년 대장 휘하에서 참모관으로서 더 많은 戰功을 세우셨죠. 흩어진 의기를 모아 여러 곳의 전투에 참가하신 것이 재판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음성, 안성, 황감전투에서도 왜적 수십 명을 격퇴하고 영춘, 조령전투에서 까지 큰 성과를 거두신 후 잠시 고향 집에 오시다가 낙생면 판교리(俗名 '너더리') 부근에서 반역자의 밀고로 뒤따라 오던 일헌병에게 체포 구금되어 서대문 형무소 생활이 시작되셨어요. 혹독한 고문에 의해 장파열 단계까지 이르자 당신께서는 옥사 순국하신 최후를 마치셨고, 해방 후 저의 선친이 온갖 방법을 찾아 제 조부님 원혼을 위로해 보고자 각 방면으로 탄원까지 하였으나 제1공화국 이후 상당 기간 의병장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외면에 의해 겨우 1983년에 이르러서야 건국포장을 추서 받기에 이른 셈입니다. 1990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면서 성남시 하산운동 마을 뒤 先山에 묘역이 초라하게 있다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뒤 분당신도시 도로가 만들어지는 이유로 조부님의 묘소는 大田 국립묘지 애국지자 묘역에 이장되어 永眠하고 계십니다.[15]

『독립운동사 자료집』 別集 1권(국가보훈처, 1974, 933면)에 의하면 "남상목은 1907년 7월에 용인군 龍泉읍을 중심으로 의병 50명을 그 휘하에 두고 구식총 40여 자루와 서양총 10여 자루를 무기로 하여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김경화, 이시영 등과 부대의 지휘 통솔권을 조직하면서 음성에서

15) 남기형(남상목 의병장 손자의 자료), 1994.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담 및 관련문 복사 자료를 근거로 함.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중략)죽산 칠장사에 도착하여 전봉규 휘하의 1백여 명 의병과 같이 안성을 진격하였다."라고 기록이 있다.

한편, 건국포장 추서의 공적조서 중에는,

> (전략)1908. 11월 판교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다 밀고로 인하여 '느릿골'에 잠복 중인 日寇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 의하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장파열로 1908. 11. 4일 33세로 殉國함.

이라고 근거 자료가 남아 있다. 이로써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사사로움을 외면한 채 청년기의 東泉 南 의병장 자신은 忠誠 외길을 걸었다. 대대로 이어온 자신에의 고향 마을을 위하고 더 넓게는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사른 南 의병장의 헌성은 영구히 이 땅의 초석이 된 셈이다.

28세에 그 자신은 이미 妻子를 거느린 처지였으며 한 가계의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情理를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의 애국적인 의병으로서의 고뇌를 스스로 감내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 누구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락하게 살며 개인의 행복에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도 이를 버리고, 일제 강압을 도처에서 바라만 보지 않은 그 자신의 인간적 고뇌를 후대의 우리들은 두고두고 추앙해야 마땅할 밖에 없다.

손자인 南基炯 증언에 따르면, 東泉 의병장은 체구가 건장하였고, 20세 전에 집밖의 원근 청년들과 항상 어울려 反日 감정을 키웠던 것 같다. 생활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며 흰말을 타고 여러 곳을 나다닌 모습이 南 의병장 후손 기억에 남아 있다. 의병 항전에 한 생애를 바친 삶이란게 그리 순탄할 수 없으므로 하여 집안 식구가 잠든 깊은 밤중에 잠시 집안을 다녀가길 수없이 거듭하며 고통스럽고, 인간적 갈등을 다 잊은 채 정의가 충일한 사람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南 의병장의 略史 중에는, "당시 국내 사정은 노·일전쟁에 전승한 일제

가 무력으로 5賊을 앞세워 소위 5조약을 강제 체결한 가운데 우리 나라 외교권을 악탈한 후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국의 수많은 義兵들이 앞다투어 맨손이나 다름없는 단결력 하나로 항전하던 시기, 1904년 5월 낙생면 하산운리 俗稱 〈드물골〉에 울창한 樹木을 일제가 무기자재로 가져가기 위하여 낙생, 언주, 돌마면 등 3개면 농민을 총동원, 벌목하는 과정에서 倭적의 탄압이 너무 비인간적이었으므로 이에 東泉 義將이 항거하다가 일본 헌병에 구속당하여 호된 恥辱을 당하고 풀려 나왔다.

이때부터 東泉 의병장은 의병에 가담키로 결심하고 인근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 수백명을 취합하여 東泉 義兵大將이 되었다. 의병 봉기를 목적으로 大田으로 가, 그곳에서 수백명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로 향하여 진군하는 중 안성, 죽산 칠정사에서 倭적과 크게 전투를 전개하면서, 쌍방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남은 동지들을 재규합하여 용인군 능곡리 龍川골에 은신 중 그 고을에 의병장 鄭哲和와 규합하여 있던 중 죽산출신 許達 召集

(남상목 묘비)

將이 와서 전하기를 강원도에의 雲崗 李康秊 선생이 왜적을 크게 물리쳐서 원근 각지에서 의병이 모여든다 하여 그곳으로 갈 것을 청하였다.

여러 동지들과 상의하고 許蓮 소모장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였다. 1905년 2월 강원도로 출발하던 중 남한산성에서 烽火를 올려 광주군 일대에 봉기할 것을 촉구하니 청계산 용천골에 포진하고 있던 義兵 金在善, 宋柱祥, 金泰東, 姜春善 등 50여 명이 召募되었다.

1906년 2월 강원도 단양에 이르렀다. 곧 東泉 南相穆 의병장은 雲崗 李康秊 선생을 배알하고 參謀官의 직책을 받았으며 단양, 제천, 연풍, 영월, 강릉, 영주, 봉화 등지를 전전하면서 대소 數十戰을 전개하며 수많은 왜적을 토벌하였다. 이로 인한 戰果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義兵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東泉 南의병장 손자에 의해 구속후 판결문 기록을 세세히 찾아내어 늦게나마 정부로 부터 훈장을 추서받기에 이른다. 이 고장 성남지역에서만의 의병활동이 아니고 충청도, 강원도 지역까지 옮겨 다닌 항전의 역사를 통해 실로 남자답고 한국인다운 기개를 새삼 느껴보게 된다. 南 의병장의 묘소는 현재 대전 국립묘소에 이장되었으나 殉國 당시엔 청계산 아래 〈후청골〉에 가매장되었으며, 해방 후에 〈뒷내골〉 선산 주위에 안장되다가 대전의 애국지사 묘역에 李順伊 여사와 합장되어 永眠하게 되었다.

南의병장의 의병 항전은 제2차 丙午 의병 전후와 관련된다. 물론 그의 나이 20세 전후인 1895~6년경의 국내 사건이 유발되던 시기에도 알게 모르게 그의 정신은 일제에 대항하려는 義氣 충천함으로 파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몸소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집밖의 여러 지방 의병진들과 합류하여 출전수범으로 깃발을 앞세운 시기는 제2차 시기에 해당한다.

손자 남기형 후손 말에 의하면 "제 할아버지가 의병때 늘 지니고 다니셨던 화살 한 개가 저희 집의 보물처럼 전해 왔습니다. 그 화살이 50년대의 6·25전쟁 중에 어디론가 없어져 늘 아쉽게 생각하지요. 단지, 지금 그분의

유풍이 이 通告文 한 장 뿐입니다."

(나) 윤치장 義兵將의 功勳記 조사

尹致章은 1876년 고종 13년 丙子 6월 13일에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 94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尹漢燮과 어머니 沈槐盛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난 尹 항일의병장은 본명이 재옥(在鎣), 자 致章(昆)으로 남원 尹氏 집안 족보상 '鎣'字가 호적에도 동일하여 그의 異名인 在元은 兄名인 듯 하다. 윤치장 義兵將의 공적을 살핀 조사서에 따르면 ;

> 유년기 8세때 한문 書堂에서 소학, 효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주역, 춘추 등을 익혀가며, 향리 先代의 가풍을 뒤따라 15세경 아내 曺雲山(1872~1925)과 결혼한다. 세 자녀를 두고 어엿한 남편이자 아버지요 또한, 마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한학에 깊은 뜻을 몸소 생활에서 실행하던 중 농촌의 농민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물론이 벅차 올랐다. 살아 가며 벌어지는 국내의 혼돈한 역사적 事件들이 일개 농촌 청년을 촌속에만 묻혀있게 놔두질 않았다. 더구나 그의 제구는 보통 수준의 사람을 훨씬 앞서는 巨軀의 외모를 유지하는 젊은이였다.
>
> 나라가 백척앞에서 신음하다 못해 죽어가는 지경에 이른 乙巳조약 체결과 조선 총독부 설치 이후의 탄압정치로 인한 우리 민족의 주권 상실을 통탄한 나머지 전국적인 의병 투쟁과 자결사건 등의 술렁이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게 윤치장 의병장의 한 개인을 뛰어 넘은 전체 국민들의 괴로움이었으리라. 그러므로 尹 의병장은 그의 나이 31살인 1907년 11월에서 이듬해 봄 사이, 대왕면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인 낙생, 과천, 연주 일대에서 뜻을 같이할 의병 70여 명을 규합하여 지역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후 일경 및 日寇과 대항하였다.
>
> 1908년 許蒔, 李康秊 등과 합세하여 서울진격을 준비하며 지금의 미아리 고개에서 대치 중 日警과 교전하기도 했다. 그해 10월에 체포되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 중, 무기징역으로 다시 15년 감형, 일제의 왕자 출생 특사로 1923년 석방되어 해방을 맞고 중년 이후 잠시의 서울 생활 외에는 줄곧 고향집에서 96세 사망할 때까지 농업에 전업을 삼았다.

여기까지의 생애를 통해 尹 의사가 겪은 일제에 대한 분노는 적지 않은

투쟁이었다. 그가 殉國하지 않았다고 하여 功勳을 낮춰 볼 것이 아님은 그의 얼굴 뒤에 총탄 중상으로 인해 죽는 날까지 괴로움을 짜내면서 日帝의 잔혹한 침략인들의 흉터를 매단진 그 원한 어린 삶이 억울하다 못해 뼈저린 통한이 가슴 깊이 맺혔던 항일 투사였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 先代들의 일제 탄압기는 살았다고 하여 진정,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었다.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같이 억울한 고통, 짐승만도 못한 천대를 당한 것이다. 나라를 잃고 방황해야 했던 사람들, 기울어진 깃대를 세워 보려고 가정을 외면 한 채, 만이슬의 산속이거나 바람치는 황야를

(윤치장 의병장)

떠돌며 유격전을 벌이면서 救國 抗戰을 위해 다치고 죽어간 그 숱한 애국지사의 怨魂은 차치하고라도, 그들과 생사를 함께했던 애국義士 또한 몸까지 나라위해 바친 怨魂과 함께 산 자 죽은 자를 따로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城南지역의 항일 義兵들의 처절한 마땅히 추앙받아져야 할 밖에 없다고 본다.

그의 공적조사서 첫면을 살피면 198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어졌다고 등재되었으며 기타란에는,

- 당시 서대문 형무소 수감시 故 리승만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으며, 이 인연으로 인하여 정부 수립후 이대통령의 생일때엔 초대를 받아 참석하시곤 하셨으며, 이대통령이 같이 일하자는 누차의 제의를 끝내 사양하시고, 野人으로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며 여생을 보냄.
- 독립운동 중에 日警의 총탄에 노년까지 관치가 안된 채 좌측 팔 등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함.
- 96세로 별세하시기 전까지 농사일에 젊은이 못지 않은 기력을 보임으로써 원래 氣骨이 壯大하였을 알 수 있음.

이라고 쓰여 있다. 尹 의병장의 둘째 아들 尹琮鎬(1899~1946) 직계손인 尹永世(1936~) 후손 증언을 좀더 보충해 둔다.

저의 조부님은 漢學을 익힘에 있어서도 남달리 앞선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향집 인근의 언주연(현재의 서울) 처가될 마을 서당에서 공부를 할때도 친구들과는 체구 자체가 우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해독함에도 남들 보다 항상 앞서서 끝내는 非凡함을 보이셨답니다. 4살 연상의 조씨 할머니와 혼약한 후에도 중국의 여러 서적을 탐독하시며, 여수선한 세상을 늘 불안으로 탓하며, 양반들의 잘못 또한 크게 지적하는 장수 같은 사람. 집채라도 뛰어넘는 초인적 능력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3칸 방 크기라도 뛰어 넘으셨던 할아버지. 단층 집 높이를 훌훌 날으듯이 뛰어 넘으셨다던 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 동네 안에서 부락민들이 자주 들려주곤 했지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기골이 장대하셨으며, 아흔살 되실때에도 농사지은 벼 1가마를 번쩍 들어 옮기신 것을 저도 목격했어요. 그분은 항상 제게 강조하신 말씀이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근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의병활동 내용조차 다른 데 알리기를 싫어하셨거든요.

1960년경 부터 여기저기 옛 항일투쟁의 친구들로 부터 간간 연락이 왔으며, 면사무소와 군청 등에서 연락이 오거나 자료조사를 위해 몇 차례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보상을 위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평생 보고 익힌 농사에만 골몰하셨어요. 현재 저희 집안이 함계산 자락에서 선조 15대째 살고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오늘처럼 도시발전으로 세상에 떠들썩하니 법석을 떨때도 할아버지는 그저 그 고장을 떠나지 말자고 하셨어요. 지금의 분당구 청계산 주변은 우리 지역의 옛 전통과 문화유산이 풍헌 땅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예전부터 저희 부락에나 면사무소와 국민학교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골목으로서의 장터까지 크게 열리던 데였으므로 성남시에서는 가장 앞섰던 곳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가장 남 먼저 알 수 있고요.[16]

한 사람의 생애를 추적하여 살핀다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나 후손에게서 직접 이같은 일화를 듣고 보니 尹 의병장의 삶의 진면목이 회상으로 생생하고, 더구나 귀하게 남은 노년기의 사진 한 장이 더욱 그의 일평생 족적을 알아차릴 수 있다. 尹致章 義兵將은 농촌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토에서 성장하며 모든 삶을 다시 그곳 조상발치에 한줌 흙으로 돌아간 지극히 평범한 한국의 옛 농민이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 한 생애를 거머쥔 당시의 역사가 오늘날 정도로 평온이라도 유지하여 내 주권과 의무를 실행하면 족한 시대에 처했다면 굳이 그의 삶에 큰 얼룩이거나 흉터를 남길 이유가 없었을 생애다. 그러나 그도 한국인이었고, 농민된 자로서 머뭇거리기만 할 시대가 아니었기에, 尹 의병장은 남들은 커녕 집안에서 조차 외면하고 반대했을 항일 의병전에 스스로 뛰어들어 한참 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15년이란 긴 세월을 에태우며 감옥안에서 고통을 감내하였고, 또 2년간의 피땀나는 抗戰日記를 쓰는 대장부의 가시밭길을 자초했던 이였다.

후손에 의해 훈장 추서를 건의한 공적 조사서에 따르면 ;

16) 윤영세(윤치장 의병장 손자), 1985. 1월 두 차례에 걸친 대담 및 관련문 획사와 사진 등 자료를 근거로 함.

1. 1907. 11월 乙巳 5조약이 체결되자 항거를 도모하여 廣州郡內에서 동지 70여 명을 규합 주동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광주군 흑동에 주둔한 일본 기병대와 전투하는 등 의병활동함.
2. 1908. 3월 광주군 광주면에서 휘하 중군장 吳司果 외 2명으로 하여금 같은 면에 사는 朴勝浩를 찾아가 軍資金 100圓을 받고 그중에 40圓으로 京城에서 탄약을 구입토록 하는 등 무기확보와 군자금 모집에 적극 활동하다가 체포됨.
3. 1909. 1. 26 경성지방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言渡받아 복역 중에 같은 해 3.23 경성공소원에서 감도죄로 감형이 無期로. 다시 일본국 공주 출생의 특사로 15년이 되고, 뒤이어 일본국 왕자 출생 특사로 1923년 석방됨.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 근거는 京城지방재판 判決文 1909년 3월 23일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보수 개관된 옛 서울교도소(서대문)의 전시관내에서는 이강년, 허위 두 義兵將과 윤치장의 세 사람 이름이 돌에 새겨져 전시 중임을 보아도 우리 영남지역의 尹致章 항일 의병장 치적은 짐작할 만 하다. 이는 필경 그의 투쟁 가운데 군자금 확보와 무기 구입 외에도 서울 진격 당시의 戰功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미 앞에서 살핀 南相稷 항일의병장과 근거리 지역의 거처를 둔 동년배 인물이었고, 같은 목적의 의지로 抗戰을 펼친 愛國鬪士였기에 그들의 평가를 구별지을 수 없는 것이나, 한 사람은 獄死한 자취를 남긴 사람이며, 다른 쪽은 고통속에서라도 96세라는 찾아 보기 힘든 노령을 이은 이어서 어느 쪽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할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고장의 위대했던 애국적 偉人을 추앙하는 향토문화 발굴 사업이 앞으로 전개되는 싯점에 이를 경우, 南·尹 두 義兵將 평가는 구분지어질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우연의 일치인 가 몰라도 이 두 抗日 鬪士가 같은 나이로 살았으면서도 활동 거점이나 항전 결론은 다를 뿐, 그 두 사람이 섬긴 스승같은 의병대장은 같은 시기의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곧 다름아닌, 제천지역의 총대장

이면서 전국적 수준의 의병 전적을 남긴 雲崗 李康秊(1858~1908)선생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더 확실한 조사를 찾지 못하였을 뿐, 우리 고장의 두 의병장은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역 내지는 당시의 국가안위를 위해 몸바쳐 싸우기를 함께 명세하지 않았나 추측케도 된다.

南相稷 의병장의 33세 옥중 殉節이 가져온 너무나 애처러운 비애에 견주어 볼때에 尹致章 의병장 서거는 96세였다. 한 사람은 그의 후손 혈통이 獨子 世系를 외롭게 이룬데 반하여, 尹 의병장 후손은 그래도 여러 형제자매를 후대에 뻗친 家門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尹의병장의 자취는 다소나마 몇 가지 가치있는 유품이라도 연이 보게됨을 천행인 듯 생각한다. 그가 남긴 필적과 필사본 서책·사진이 우리 앞에 놓임은 실로 감회로울 수 밖에 없다.

尹 의병장은 의병활동과 투옥의 20여 년 세월을 제외하곤 특사로 석방되어 옛 집을 되찾아 왔다. 그리곤 예전처럼 다시 농민의 한 일꾼으로서 田

(윤치장 묘비)

場을 덮고 선 중년기의 백설이 되었다. 그가 남긴 필사본 『蠶桑 栽培法』이란 20여 쪽의 손때 묻은 서책과 『大韓國 歷史』의 필사본 글 내용 중에서 한 인물의 극히 부분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 글의 잘잘못은 제쳐놓고 오직, 한 생애를 잇는 시대의 분위기가 한 인물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후손된 우리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삶을 영위하려 해도 자기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극히 난국을 지나쳐야 한다고 할때 그 누구라도 일생은 비통함과 원한스러움으로 점철되기 마련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고자 하는 개인 욕구가 그 무엇이며, 국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역사가 바로 서고, 시대가 바로 영속되어 평화로울 때만이 개인의 행복과 기대는 가치성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두 義兵將 행적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우리에게는 큰 교훈의 거울이길 바래는 심정일 뿐이다. 더구나 성남시를 품고 사는 우리 고장의 옛 어른들의 뚜렷한 향취가 무심코 지나쳐 사라지게 함은 후손된 우리에게 있어 잘못됨이 확실하다.

이 두 의병장의 향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이 시대는 물론이요, 다음 세대들에게 民族 正氣를 스스로 찾아 보는 지표이게 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감이 현재를 다져가는 뜻있는 이들의 사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이다.

4) 제3차 義兵 항전과 성남지역의 운동 활약

엄밀한 의미에서 제3차 丁未 의병은 3년 앞서 거세게 일어났던 제2차 義兵과 구분할 수 없다. 두번째의 丙午의병이 그대로 丁未의병으로 발전하여 20世紀初 한국의 사회를 대혼란기로 몰아 넣었다. 이에 따라 의병 대장소나 참모진 조직이 끝났다해도 그 휘하의 병사 진영은 연속 전국적 항일투쟁사는 여러제서 힘차게 불길이 번져 나갔다. 그냥 이어지지 않고 더욱 거

세계 민중들의 合勢에 의해 충격적인 정변을 불씨로 하여 확대되었다.

> 그 후 廣州지역에서는 丁未의병때 다시 의병활동이 있었는 바, 1907년 8월에서 1909년말 사이에 李益三(광주), 金昇(광주), 尹傳(광주), 林文淳(광주), 權東說(광주, 양주), 高在寅(광주, 양주), 李根豊(광주, 이천) 등이, 1908년 1월 7일 慶安 부근에서, 동년 6월 27일에는 경안남쪽 20리 지점에서 교전한 것을 비롯하여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17]

後期 의병인 제3차 義兵 항전은 한 마디로 말하여 전국민 모두의 민족의식이 집약된 '輔國安民' 정신으로 전국 곳곳마다의 민중 투쟁이었던 것이다. 前期에 비해 후기에 이를 수록 의병장 마저 兩班, 儒生 보다 농업, 상인, 광부 그리고 군대해산으로 인하여 合勢한 군인 장교와 사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城南지역의 의병 항전도 이때쯤은 그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한 마을의 우두머리가 창과 방패를 들었다가 붙잡히면 또 다른 이에 의해 옆 마을로 불똥이 튀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너나가 따로 없이 정든 가족과 마을을 등진 채, 救國의 항일 투쟁 노선을 밟으며 韓日合併이 되기 까지 국내 抗戰은 멈추지 않았음을 여러 史料에서 알 수가 있다.

우리 고장의 두 義兵將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戰果를 올린 시기도 2차 의병말 부터 3차 의병때인 점을 보더라도 제3차 丁未義兵 말기 투쟁사는 전체 국민들의 집약된 의식아래 사기 충천한 게릴라식 외침과 격투, 기습에 항전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각 지방에서의 일제에 대한 기습전을 소단위 의병투쟁으로 본다면 전국 13도 倡義隊 결성과 서울 진격작전은 대규모의 전투였다. 서울 동대문 밖에서 집결하여 사방으로 부터 모여든 의병진의 최종 목표는 광화문 부근의 종로와 총독부 점거였다. 이같은 큰 계획이 뜻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좌절되어 수많은 애국민 의병이 붙잡히고 죽어간 지난 역사밑에 서서 오늘의 한국민 후예된 우리들이 생각할 일이 무엇인가?

17) 李完宰, 『城南地域의 歷史』, 민족문화사 ; 1993. 10. pp. 121~2

좁게는 영남지역이요 넓게는 한국땅 그 어디에 살든 모든 한국인이 살며 일하는 가운데 누려나가는 현재 자신의 행복 욕망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는 문제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거친 역사 속에서 일생을 愛國愛族 신념으로 산 殉國烈士의 忠誠孝悌 깊은 뜻을 살피고 가져야 할 몫은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것이다.

열강의 야만적 침략과 약탈 앞에 국가와 민족을 건져내려 했던 義血의 선대 행적을 일부분 살피는 일도 평온한 시대의 우리들이 할 일이며, 당대는 물론, 후대의 정화를 위해 분연히 大義로써 싸웠던 애국자 그 피와 땀 방울을 구석구석에서 찾고 닦아내는 일이 곧, 향토의 얼을 계승시켜 나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1910년 韓日合倂 단계로 이르기 까지의 사건 일지를 발췌한다.

1907. 8. 군대해산. 隆熙 연호 사용. 원주, 강화 등지에서 義兵 봉기. 해산된 軍隊 봉기
11. 흥사단 조직
12. 13도 倡義隊 1만명 양주 집결
1908. 1. 의병장 許蒔 3백명으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
6. 허위, 이강년, 민긍호 체포, 신돌석 살해
12. 서울 상수도 개설
1909. 1. 日章旗 사용 거부
6. 이인영 체포
7. 司法權 박탈
9. 호남 및 각지역 의병 토벌작전
10. 안중근義士 이등박문 살해

약 3년 동안에 항일 투쟁으로 戰死한 의병수는 16,700명, 부상자 36,770명으로 연구자의 한 조사통계를 살피지 않더라도 中·後期 의병사의 우리 선조들 활약상은 엄청났다. 1907년 부터 서울 진격을 기도한 창의대장 휘하 각 지역 의병들은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도 국제법상의 전쟁단체로 의병대를 인정해 줄 것을 서신으로 요구하며 정당성의 독립군대 위치를 주

장하였다. 이로써 제3차 의병 항전의 기세는 풍전등화 같은 시대추세를 무릅쓰고 더욱 가열되어 나갔다.

나라가 망해가는 길목에서 高宗은 밀사를 여러 곳에 파견시켜 보았으며 온갖 방법을 다하여 각 나라에 호소도 하였었다. 아울러 갑체 해산된 서울 주둔의 시위대와 각 지방 8개 대대 진위대 력시, 서울 진격전에 일원으로 참가하거나 지방 의병진에 합세하여 수없이 많은 항전을 벌였다. 특히, 원주, 강화분견소 군인들이 모두 의병에 가세하였으며, 제1연대 제1대대장 朴昇煥의 항의자결이 커다란 도화선이 되어 병사들은 의병 시가전 전투에 서울 시내 거리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원주진위대의 김덕제, 민금호, 강화진위대의 하정도, 유명규, 연기우 등이 의병진에 가세한 것을 비롯하여 해산군인 중에 특히, 사병들은 적지않은 숫자가 각 지방 의병에 들어가서 싸웠다. 물론, 산발적으로 개인이거나 무리로 합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영주우편소 기습이나 문경 조령전투, 춘천 샘밭의병 전투, 속리산, 청풍, 안성, 임실, 진주, 보은, 죽산, 토산 등지에서 많은 해산병과 각 지방의 의병들과 연합하여 격전을 벌였다. 우리 경기지방에서 활약한 군인 출신 의병장을 열거하면

> 이경한, 정용대, 연기우, 하상태, 김준선, 지홍일, 황순일, 김석하, 이익상, 박종한, 윤 전, 지홍윤, 황재호, 김동수, 연기우, 제갈윤신, 현덕호, 조재호, 허 준, 신창호 등이다.[18]

1906년 일제 統監府가 설치된 후에 농촌 수탈이 감행되므로써 전국의 대부분 농민들이 품은 원성은 엄청났다. 이러한 시기에 군대해산이라는 악랄 마수가 뻗치자 해산된 군인 가운데 농민출신의 자녀들은 더 격분한 울분으로 의병에 가담하게 되었다. 뒤이어 나타난 친일세력 관료와 농민 대지주들에게 당하는 수탈을 응징하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므로 제3

18) 민족문화협회 편 : 『의병들의 항쟁』, p.146

차 의병항전의 양상은 주로 평민에 의해 남세 거부·소작료 납부 거부, 악질적 양반재산의 약탈·응징으로 변질되어 갔다.

농민 뿐만 아니라 광부와 철도 역부까지 勞動爭議 처럼 봉기에 가담하여 전국이 온통, 침탈 항전 분위기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이르자 일제는 드디어 전국토 의병 대토벌작전을 전개하는 악랄함을 드러냈다. 구속, 체포, 살상의 만행이 거듭되는 막다른 시기에 다다르자 적지않은 의병들은 중국땅 間島이거나 먼 러시아 또는, 미국 등지로 망명을 하는 중에 대부분 의병들은 그들의 향방을 지역별 산악지대로 잠입하면서 끝내는 모두 구속 수감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상당수 의병들은 옥중에서 고문에 의해 憤死하게 된다.

훗날까지 일부 의병들은 抗戰을 계속하였으나 대부분 옥중에서 또는 가석방되어 병이 들어 殉國하므로써 한일합병 이후 의병들의 그 구국적 항전은 3·1운동 직전까지 유격전으로 멈추지 않은 채, 이 땅의 愛國魂이 지하에서 잠들지 못하고 나라없는 백성들의 뼈아픈 고통을 죽은 후에까지 허공에서 떠도는 꼴이 되어 갔다.

앞에서 논급한 대로 해산군인과 광부·역부들이 3차의병에 가담하므로써 지역별 의병들의 전투양상은 달라졌음을 살폈다. 일제가 통계한 바로는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부터 그해 12월 까지의 擊戰 횟수가 323회였다고 하는 것을 봐도 군대해산 직후 격렬했던 항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같은 해 9월경, 李麟榮(1867~1909) 13도 창의대장을 중심으로 허위, 민긍호, 박정빈, 권중희, 방인관, 정봉준, 이강년, 문태수 등의 서울진격 연합 의병전은 그해 11월에 양주로 집결하였다. 그들은 두달 가량 서울 근교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군사장 許蓮의 지휘 아래 수없는 싸움을 벌였다. 이 시기에 우리 고장의 두 의병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치장 의병장도 합세한 듯이 보인다.

서울 인근의 중부지방은 의병들의 최후 공격지인 서울을 두고 숱하게 싸

운 기록을 찾을 수가 있다. 허위 등의 임진강 연합의병, 김수민 의병 부대, 이강년 부대, 민긍호 부대, 이은찬 부대, 연기우 부대, 한봉수 부대 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결국은 서울 부근의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을 떠돌면서 무수한 交戰을 벌이므로써 무기노획에서부터 일본군과 헌병, 친일파 세력의 살상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기록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항일투쟁을 하였다. 이처럼 중부지방의 의병이 전국 어디서나 활약한 의병 못지않게 치열한 활동을 한 것이다.

제3차 丁未의병은 1910년 8월의 國恥 전후까지도 항전이 계속되었다. 지역마다 뻗쳐있는 산악지대를 무대로 하여 낮에는 잠적하였다가 밤이면 일본에 대항하는 기습전을 전개하면서 해외로 이동된 의병진용과 연락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애국 계몽을 벌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895년 을미의병 이래 1910년 국치 이후까지 계속된 의병항전에서 한국민족의 줄기찬 독립의지가 표현되었다.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에 대항하여 싸운 의병이 당초부터 승산 이론이 있어 항전을 편 것도 아니었고, 수많은 의병 자신이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 것도 아니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알 바가 아니라 오로지 義를 위하여 몸 바칠 뿐이라는 한국인의 전통적 정의 정신을 계승하여 봉기했고, 또 싸웠고 죽었다. 이것은 역사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 역사계승의 정신과 자세가 의병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의병운동을 단계적으로 보면 을미·병오·정미 의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각 단계마다 주객관적 상황은 달랐다. 乙未의병은 위정척사 사상에 의한 유생과 동학혁명적 전통에 의한 농민이 합세하여 일으킨 의병이었다. 양자에는 이질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적대관계의 대상이 같았으므로 합류할 수 있었다. 丙午의병은 외교권을 박탈해 가는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봉기한 민족적 항쟁이었다. 을미의병적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유림의 고장인 안동지방에서 신돌석의 의병 등 서민의병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의병운동은 민족사회의 저변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丁未의병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중략)그리고 丁未의병은 해산군인과 더불어 농민, 광부, 산포수 등 거의 서민의병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었다. 종전처럼 유림의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병으로 계속하는 한 유생적 생리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1908년 경이 되면 민중 속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의병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산유곡에서 노숙하면서 기습하면서 기습을 받는 작전속에서 봉건적 위계를 요구한다면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의병운동은 민중이 담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의병운동은 민중운동으로 정착하며 발전해 갔다.[19]

이와같은 의병 항전에 가담하여 싸우며 죽어야 했고 또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평생동안 病苦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고장의 南相穆 의병장 그리고, 尹致章 의병장 두 애국 義人을 새삼 되새기는 일은 마땅히 그 어떤 것으로도 공과에 비겨 다하지 못할 뿐이다. 단지, 후대인으로서 용담두 의병장의 怨魂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싶은 작은 정성으로 적당한 시기를 찾아 살피고 추앙해야 옳을 뿐이다.

3. 결　　론

韓國의 역사는 실로 험난한 길을 걸어 왔다. 東北亞 대륙의 한쪽을 차지한 위치에서 우여곡절이 國內外的으로 너무 많았고, 近代史가 열리며 몰려든 世界列強으로 인하여 조용하던 나라안이 일대 혼란으로 뒤범벅이 된 셈이다. 그러므로 지난 1世紀의 역사는 한 마디로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한편, 반강제적인 開港 이후 일제 식민지로 부터 헤어나기 까지 우리의 近代史는 자주독립을 위해 너무나 엄청난 백성들이 忍苦로 몸부림친 歷史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開港을 전후하여 日本 強權에 대항한 항일義兵史를 세 시기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城南 인근지역의 항전 양상을 중심으로 하려 했지만 결국, 국내외 전반적인 투쟁내용을 언급치 않을 수 없었고, 오

19) 상게서 : pp. 229~231

허려 성남지역의 의병사는 아직껏 자료의 엄성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몇몇 제한된 두 義兵將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관심 있고 열성있는 전문가에 의해 부족함을 더 확대하여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이 글을 씀에 있어 나라없는 백성의 서러움이 그 얼마나 컸으며, 이는 부모 형제 없는 孤兒보다 더 큰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 뿐이라는 점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우리들의 先代가 겪은 그 엄청났던 죽음으로 이어진 삶의 현장은 목숨이 붙어있다 손 치더라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되새기게 되었다.

外勢를 물리침에 있어 무기 조차 신통치 않은 채 땀과 피로써 주권을 찾고 민족을 보존해 가려했던 우리의 偉大했던 祖上들 특히, 피를 뿌리며 日帝와 싸운 100년전의 義兵들 그 투쟁정신은 실로 위대한 민족혼령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칠의 표면적 強占이 되었을 뿐, 결코 한민족의 얼까지는 지배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같은 주장이 있어야 하는 논리가 바로, 義兵 항전과 독립운동 그리고, 애국계몽 등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애국정신의 총집결로서 전국 각처에서의 對日本 투쟁을 살피면서 오로지 우리 고장 성남의병들의 발자취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사라진 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정말로 황토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아끼고 살펴나가는 일이야말로 하루 속히 서둘러질 사업으로 생각한다. 제1차 乙未의병에서부터 3차 丁未의병 까지의 약 15년 사이에 성남지역의 크고 작은 항전이 지금처럼 물허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잃었던 國權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鄕土 선열들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인 항전기록을 찾아, 나라 사랑의 그 不滅 정신을 이 시대는 물론, 후대들에게 영원토록 잊지 않토록 해야 하겠다. 우리와 인접된 남한산성안에서의 전투상황은 의병抗戰에 있어 커다란 교훈이며 이천, 용인, 충주 등지에서의 크

고 작은 전투들이 이 지역과 연계된 애국적 투쟁이었다고 심증이 가는 것이다. 인근 지역 산악지대에서의 의병항쟁 때에는 우리 고장 先代들의 애국투쟁이 합세된 전투로서 보아 틀림없을 일들이다.

실상 어느 민족 누구라도 과거 역사의 애국적 偉人을 숭배함은 당연히 후손들의 몫이다. 그 어떤 사업 보다 소망스럽고 미래를 새롭게 밝히는 역사인식이야 말로 더욱 절실한 일이다. 이제 스스로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지역이거나 다른 나라로 부터 관리를 당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변화하면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의 개달음이 있어야 한다. 의식만의 개달음 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까지 변화된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이어야 한다.

'正義', '자주독립'을 위한 의병 항전에 몸바친 우리 고장 성남의 남상목, 윤치장 두 의병장들의 거룩한 奉公的 忠君愛民 정신을 흠모하는 향토문화 계승이 올 해를 기해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일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향토 인물 조사와 연구, 추모비 또는 기념비를 건립하는 공간이 어느 한 자리에 마련되어지길 바랜다. 예전부터 전해오던 문헌도 정리하고, 훌륭한 선조들의 발자취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연구단체의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마련되어 명실공히 성남시의 위상을 역사와 더불어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분단과 해방의 반 세기, 의병 항전의 1세기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가 그 억눌림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민족 생존권 死守의 피 흘린 업적을 찾아 내어 정리하고, 많은 향토 시민들에게 '정의'라는 역사 정신을 추모비 또는 인물지에 기록해 두는 일이 어느 누가 해야 할 일일까? 이같은 사업은 남들에게 맡겨질 일이 아니며, 스스로의 참모습을 파악하고 또 후대 자손들에게 바로 전해주는 의미가 절코, 헛되지 않다면 올 해의 성남시 향토문화 선양 사업으로 〈義兵抗戰 殉國追慕碑(가제)〉를 건립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일을 시초하여 우리의 불행하고 치욕된 한 때와 고난스런 역사를 기회있을 때 마다 되짚어 가는 연례적 추모행사도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법권이 통방 남의 손에 빼앗긴 시기에도 우리 나라의 민족혼은 사라지지 않은 채, 의병항전과 독립투쟁, 애국운동들이 전국 각처에서 불굴의 정신 하나로 온 백성 모두가 횃불을 높이 들었던 사실들을 기억해 나가도록 힘써야 된다. 더구나 지방화의 분권시대를 앞당기려는 의지가 우리 눈앞에 닥아 선 때를 맞아, 성남시 자체의 외형적 거대도시만의 발전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결코, 배부른 돼지 모습으로 겉치레만이 지역발전, 민주국가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겉도 꾸미고 속도 알찬 미래가 엿보이는 문화향수의 도시로 가꾸는 데 있어 애국 위인의 추모사업은 그 한 역할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금년도 8월의 광복절을 기해 우리 고장 그 어느 지역 변듯한 터전위에 돌 한 덩어리라도 세우고, 그 앞뒤에 두 사람 열열했던 의병장 공훈기를 새겨 두는 일이 이 시대를 값지고 밝게 열어 가는 일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傑人은 먼 미래까지도 거울이 되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許 昌 武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 교수)
(철학, 성남문화원 부원장)

〔目 次〕

1. 머리말
2. 설립목적과 연혁
   1) 설립목적
   2) 주요연혁
3. 기구 및 편제
4. 주요사업
   1) 기본사업
   2) 부속사업
   3) 개원이후 주요 연구활동 개황
5. 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미래와 사업방향

1. 머리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된 1970년대 후반은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전에 대한 희망과 열기, 그리고 그러한 시대상황이 초래하는 부의 획득에 대해 절차적 正義를 무시한 목적의식만이 팽배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희망과 우려의 전망이 뒤엉켜 제기되던 시기였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를 주눅들게 했던 가난의 굴레로부터 조만간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동시에 물질적 풍요로움의 반사작용으로 나타날 가치전도, 즉 도덕의식의 약화와 인간존엄성의 경시풍조 양상이 초래될 것에 대한 우려가 동시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남북분단,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제성장의 결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나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국가와 개인 할 것 없이 부유한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열기와 노력은 전국민의 주된 관심사를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문제로 집중시켰다.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제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자연히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의식구조, 가치관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가 초래하게 될 미래적 결과는 긍정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기에 이미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양상이 초래되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꾸어져 온 훌륭한 정신적 유산과 가치관, 생활문화 등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일각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들을 하루속히 일소할 것을 주장하며, 서구적 가치와 하급문화에 매몰되어가는 양상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우리는 사상과 문화, 그리고 거의 모든 생활양식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이루게 될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제기되기었다.

우려해야 할 어두운 측면은 비단 이에 머물지 않았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인의 욕구팽배는 오직 잘살면 된다는 목적가치만이 유일하게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문제는 개의치 않는 나쁜 풍조를 만연시키면서, 부정과 탈법, 인명경시풍조 등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 양상은 당시의 한국사회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우리에게 전통과 문화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신적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정부는 국가발전의 큰 줄기로서 과학 및 물질문명의 발전과 정신문명의 고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고 하겠다. 당시 정부는 두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으로 설립하였는데, 과학 기술문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정신문명의 고양을 모색할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된 토대 위에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 글은 70년대 후반기의 시대상황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구적 인식

을 토대로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발전사와 주요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본 성남문화원의 존재근거와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참고적 인식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간 서울의 위성도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도시로 일반인들에 인식되어 온 성남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경기일원의 그 어느 도시에 못지않는 재정자립도를 확보하였고, 물질적 삶의 수준뿐만 아니라 분당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인구의 대량유입으로 규모면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이제 문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발전사는 성남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참고할 하나의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설립목적과 연혁

1) 설립 목적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고도성장이 시작된 70년대 후반의 시대상황과 미래인식을 바탕으로 설립된 범국가적 연구기관인 만큼 그 설립목표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분명하였다. 그것은 곧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며,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표의식에서 출발한 한국정신문화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전문 국학연구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개원과 동시 인문·사회과학 전분야에 걸친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국학연구에 몰

입하여 국학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현대적 학문의 틀을 이용한 재해석 등의 측면에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이 당대의 일과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민족적 과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최초의 설립목적을 후세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개원과 거의 동시에 한국학대학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장차 사회 각계에서 국학연구에 헌신할 수 있는 후학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는 한 때 설립당시의 목적의식으로부터 다소 일탈된,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당장에는 가장 절실하고 긴요한 문제였던 이데올로기 연구에 사업비중을 두기도 하였다. 그것은 국가정책의 추이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였으며, 나날이 극성스러워지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침범과 내부에서 일부의 지식인 및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의 혼란에 직면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시각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연구하는 것이 그 때 본 연구원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시대적 과제였다. 비단 이러한 노력은 연구원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사립을 망라한 전 대학에 소속된 관련학자들의 몫이었고, 또 그러한 노력이 당시의 전교육제도와 정책, 그리고 교육과정에 뿌리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5공청산이 시작되면서 본 연구원은 5공화국의 집권자들이 행한 이데올로기적 기만의 본산으로 지목되어 학계와 정치권의 거친비판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는 연구원의 당시활동과 함께 이데올로기 연구에 몰두했던 일반의 학자들까지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없이 오직 본 연구원을 대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한 때 연구원은 심각하게 표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류를 거쳐 연구원은 설립당시의 한국학연구기관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전교직원과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주요 연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78년 6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아, 1978년 6월 30일 개원하였다. 초대 원장에는 李瑄根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개원당시에는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 출발하며 국학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리에 몰두하였다.

2년 후인 1980년 3월 5일에는 한국학대학원을 개원하였다. 이는 국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 인문사회과학 제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지닌 국학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다.

이와 함께 1980년 3월 18일에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발간작업을 추진할 편찬부를 발족하였다. 이 사업은 민족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의 전영역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수록한다는 거대한 목표에서 출발하여 향후 15년간의 장기사업을 시작한 첫걸음이 되었다.

같은 해인 1980년 10월 27일에 제2대 원장 高柄翊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1981년 6월 30일 도서관을 준공하였다. 본 도서관에는 藏書閣을 두어 방대한 고서(經·史·子·集), 개인문집, 고문서 등을 비치함으로써 국학연구의 본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일반의 개별가정에서 보관해 온 고문서 및 문집류, 혹은 희귀서들을 모두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하여 영구보존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82년 1월 7일에는 제3대 원장에 鄭在覺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1983년 2월 12일에는 제4대 원장에 柳承國 박사가 취임하였다.

1984년 5월 30일에는 대학원 강의동을 준공함으로써 교육환경을 새로이 조성하고, 대학원의 교육 및 교학업무가 보다 독립성과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 2월 12일에는 제5대 원장에 文鍾柱박사가 취임하였으며, 1988년 9월 13일 제6대 원장에 金錫坡박사가 취임하였다. 당시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격동 속에서 연구원이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자성노력 등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1989년 5월 18일 제7대원장에 李賢宰박사가 취임하여 연구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국학연구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현재박사는 1992년 5월 18일 제8대 원장에 연임되었다.

1995년 5월 18일에는 李榮德박사가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3. 기구 및 편제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기구는 기획처, 연구부, 사무국, 도서관이 있으며 부속기구로 한국학대학원 및 한국민속문화 대백과 사전 편찬부를 두고 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방향 설정과 예산편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처에는 기획조사실, 연구협력실, 예산관리과 등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에는 총무과, 경리과, 시설과를 두고 있다. 총무과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경리과는 예산의 집행과 지출 및 결산을 담당한다. 시설과는 연구원의 모든 건물의 유지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원 사업의 핵심을 이루면서 연구원의 존립근거가 되는 연구부는 인문과학연구부와 사회과학연구부로 나누어지는데, 인문과학연구부에는 철학·종교연구실, 역사연구실, 어문연구실, 예술연구실이 있으며, 사회과학연구부에는 사회·민속연구실, 정치·경제연구실, 교육·윤리연구실이 있어 명실공

의 인문·사회과학의 전영역에 걸쳐 한국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편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 각 연구부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67명의 전임교수(조교수이상)가 연구원의 경영을 비롯한 연구활동과 대학원 강의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학자료의 발굴과 정리 및 번역과 해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그리고 대학원 강의와 연구과제사업에 참여하는 객원교수들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가장 자랑하는 시설의 하나인 도서관에는 자료조사실, 사서과, 출판과를 두고 있는데, 한국학 연관자료 전문도서관으로서 주로 한국고전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열람케 하고 있다. 아울러 본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결과를 토대로 발간되는 각종 연구자료를 학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 연구원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고전·국학관련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한 인문-사회과학 관계 전문서적 23만 9천책 및 장서각 도서를 비롯한 고서 10만 9천책 등 총 34만 8천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또 귀중본, 고서, 고문서 및 구입불가능한 국내.외 도서 등 35만점 이상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분야 학술잡지 700여종(국내 270, 국외 470)도 비치하고 있다.

또한 개원 이래의 학술연구 및 조사·수집자료를 도서로 발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학술연구논총 332책(대계류 117책 포함), 조사연구보고서 43책, 보고논총 45책, 국민정신관계자료 41책, 고전자료총서 125책(국역총서 30책 포함) 및 문고류 등 총 320종 728책에 이르고 있다.

연건평 2,460평의 도서관에는 장서각서고를 비롯하여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특수자료를 비치한 열람실 등 9개의 서고가 있으며, 마이크로 필름의 촬영, 복제, 복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부설기관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는 단일과제를 위해설립된 대

규모 부서로써 편수 1실, 편수 2실, 운영과를 두고 있으며, 각 학문영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24명의 전문 편수원들이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정리를 주관하였으며, 백과사전 전편이 완간된 현재에는 보유편 및 개정판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원의 교학업무는 교학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내외의 많은 교수들이 강의에 참여하여 질높은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인문·사회과학 전문아에 걸쳐 석사과정이 63명, 박사과정이 55명이며, 개원이후 지금까지 대학원을 거쳐간 졸업생은 석사학위 취득자가 298명, 과정수료자가 65명이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44명, 과정수료자는 83명 등 모두 490여명에 이르고 있다.

4. 주요 사업

1) 기본 사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기본사업은 연구사업과 연구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사업방침이 한국학 전반에 걸친 제반 학문영역별 연구를 통해 한국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고, 국학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학자 및 일반인들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경제적 학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연구 사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사업은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사업의 기본방침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를 설정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신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할 수 없는 개인의 생존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앞으로의 정신적, 문화적 민족좌표를 설정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 때 우리는 해방이후 밀려온 서구의 발전된 물질문명에 직면하여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이러한 경제성장을 도모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들이 서구적 근대화를 실현하는 데 장애요소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의 서구학자들이 뒤늦게 출발한 동양, 특히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일본 등의 국가들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실을 놀라워하며, 그 원동력을 동양인들이 삶의 철학으로 체득해 온 유교정신 등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야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근대화의 실현에 역기능적 요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뒤늦은 각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에 뒤따르는 물질만능사조의 팽배와 우리 민족의 정신적 황폐화는 근대화의 물질적 성장에 맹목적으로 매달렸던 단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현대적 계승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출발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의 방침을 다음 세 가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

고전자료 등 전통문화의 유산을 현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학문적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고 한국학 관계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단절위기에 놓

인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정리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역사의 때에 중요한 갖가지 자료와 선조들의 사상이 밝혀진 개인문집, 과거의 생활상을 담은 고문서 등의 고서 발굴과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현대사회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 전통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 삶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해 왔던 도덕적, 인문적 가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히는 노력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병리현상과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전통가치의 회복을 통한 현재의 문제점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③ 주체적인 현실인식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국제화의 현대적 추세 속에서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 민주화의 추세 속에 야기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변화와 가치의 다원화 등으로 야기되는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장과제의 성격에 따라 지속사업, 혹은 장.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며, 여기에는 연구원 내의 교수들 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격과 관련된 국내외의 우수한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여 내실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연구 협력사업

연구사업에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협력사업은 본 연구원의 설립이념인 국학연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술정보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

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한국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하여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해외 학자들의 한국학 연구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학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외국의 한국학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학과 개설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자와 학생등 인적교류는 물론 연구원과 해외의 각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 및 출판물을 상호교환함으로써 한국학이 세계적인 학문분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② 해외 한국학 연구학자 연구지원

해외에서 한국학의 발전과 연구인력의 확대 및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10명 내외로 외국의 학자를 초청하여 연구비와 숙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개원이래 94년 말까지 연구활동을 지원받은 해외 한국학자는 총 23개국 98명(학자 81, 학생 17)에 이르고 있다.

③ 각종 학술연구 발표회

한국문화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분야의 학술발표를 통해 연구결과의 보급을 확대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문제에 대한 학문적 검토와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분야별 학술세미나, 국내학술대회, 인문·사회과학 학술토론회 등의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④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세계적으로 일고있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및 사회현실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2년마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⑤ 세계 한민족 학술회의

해외 한인학자(인문·사회과학분야)들의 연구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계한민족학술회의를 9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한다.

본 회의는 전세계의 한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적 관심사와 민족문화, 해외 한인의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으로써 해외 한인교포들과의 민족정 동질성 유지와 민족의식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우리의 고유한 가치의식과 문화의식이 외국의 그것들을 모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빈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화를 통해 재외 교포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95년에 실시된 제3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는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실시한 바 있다.

2) 부속 사업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한민족의 모든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하여 간행하고, 지속적으로 그 편찬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간 이후의 사회변화와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 보유편 및 증보개정판의 편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은 1979년 9월 25일에 공표된 대통령령 제9628호에 따라 작성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사업추진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1991년말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예술, 지리, 풍속, 인물 등을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여 총체적으로 수록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7권을 완간함으로써 장장 12년동안 추진된 사업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백과사전은 부록 2권을 포함한 전27권(권당 면수는 1,000면)에 65,000항목, 약 420,000매의 원고와 40,000여점의 도판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이 백과사전의 편찬사업은 추진위원회 아래 편찬위원회와 분과별 편집위원회를 두어 200여명에 달하는 국내학계의 원로, 중진이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며, 국내의 각 부문별 전문연구인력 3,800명이 원고를 집필한 세계초유의 한국학자료 집대성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개시 당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살리고 일회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유편 및 증보개정판 발간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판본 발간 이후의 사회변화양상과 추가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1,800항목에 걸쳐 교정을 완료하여 보유편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보유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개정판 전30권을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초판본의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함과 아울러 깊이 있는 인식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축약 번역한 영문판 한국대백과사전의 편찬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 백과사전에 수록된 한국학자료를 정리하여 학계 및 사회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94년도에 이미 한국사문헌DB를 구축하여 공중통신망(HITEL)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후속작업으로 향토문화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96년도에 이르러 일반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개원이후 주요 연구활동 개황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기본사업이 연구활동은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에 걸쳐 역사, 철학, 종교, 예술, 경제, 사회, 민속, 윤리,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출판되어 한국학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전공별 논문 뿐만 아니라 한국학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집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주요 연구결과물과 실적들이 연구논저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주요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류

앞에서 설명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27권을 비롯하여, 인문과학의 제분야에서 한국사상의 포괄적 특성과 흐름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한국사상사대계』 전6집이 상고대편, 고대편, 중세편, 근세전기편, 근세후기편, 근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 연구의 중심 기초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한국학기초자료선집』이 있으며, 본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의 전지역에서 口傳되어오는 신화, 전설, 민담, 민요, 巫歌 등 모든 문화재를 전85권의 방대한 책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특히 기록되어진 것 이상으로 국민의 생생한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연구에 뺄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2) 자료집

자료집은 고대의 지도로부터 당시의 문화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호적대장, 고문서, 문집류, 大典類, 書誌, 務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전원문을 소개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작업을 겸하고 있으며 해제와 색인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대표적 결실 가운데 하나인 『고문서집성』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개인소장의 고문서를 비롯하여 향교나 서원 등에서 보관해 온

고문서를 소장처·자별로 정리함으로써 향토사, 사회사, 경제사연구에 귀중한 1차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연구원은 앞으로 전국의 고문서를 계속적으로 조사, 발굴, 수집하여 출판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정리되어 출판된 고문서는 총 20편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총43종의 자료집이 76권의 책으로 발간되어 있다.

(3) 학술대회 보고자료

개원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및 토론과 논평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해 오고 있다. 이 학술대회 보고자료는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현안이나 문제들을 적기에 다룸으로써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시사적이면서도 학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2년도부터 시행된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은 우리민족 문화의 발달사와 제성사를 비롯하여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위치를 자각하고, 나아가 재외 한인교포들의 생활과 문화보존 실태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4) 정기 간행물

본 연구원이 개원 이후 지금까지 당해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정기간행하고 있는 『정신문화』 또는 『정신문화연구』는 주로 한국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우수한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는데, 특별기획과 연구논문, 그리고 학술발표리뷰, 서평 및 한국학관계 자료해제들로 편집되고 있다.

이 간행물은 지금까지 통권 57호가 발간되어 있다.

이밖에 각 전공별로 수행된 연구과제들이 주제별로 종합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논저목록』에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5. 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한국학대학원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따라 한국학 제분야의 심오한 이론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정수를 계발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할 목적으로 1980년 3월 설립된 특수 대학원이다.

본 대학원에는 인문사회과학의 전분야에 걸쳐 석사 및 박사과정을 두고 한국학 제분야의 학문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교육하기 위하여 단일학과인 한국학과를 두고 있다. 학과 내에는 철학·종교, 역사, 어문·고전, 예술, 사회·민속, 정치·경제, 교육·윤리의 7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독자적으로 국학연구에 필수적인 고전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심도있는 한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문원전에 대한 독해능력은 실질적인 한국학 연구의 필수 능력으로써, 석사과정 중에는 9학점, 박사과정 중에는 12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 전공별 수업진행에 있어서 한문원전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전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각 학문영역별로 체계화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케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체득한 현대학문의 이론을 기초로 역사 속에 배어있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취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학의 다양한 전공영역이 현대학문의 이론적 보편성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유구한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구축했던 사상 및 문화적 경험을 밝힘으로써, 한국학이 보편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족의 전통과 맥을 잇고, 미래 한민족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전수해주어야 할 이시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적 과제이니 만큼, 한국학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사명을 수행 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희망자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비를 보조하는 등 재학생 전원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성적 우수자에게는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히 소정의 과정이수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및 동구권지역 해외연수에도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과정 일정 학기를 이수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유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동등한 수학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젊은 외국학자에게 한국학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의 국제적 보급과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미래와 사업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개원이래 지금까지 단절위기에 놓여있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료발굴 및 연구, 산업화에 따라 퇴색되어가는 정신문화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학문적 업적을 축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날로 증가하는 해외로부터의 한국학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분야가 공동으로 부단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날로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사회내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치의 다양화

혹은 상이한 삶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정신적 좌표가 무엇이며, 우리의 학문은 진정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비단 본 연구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일반인과 국내학계 전체가 공유해야 할 시대인식이자 사명이며, 본 연구원은 그러한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환경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민족문화창달과 국민정신선양으로 집약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기초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종합적인 한국학연구소라는 특수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심도있는 연구업적을 축적하고, 동시에 한국학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한국학연구의 터전이자 정보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학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국내학계는 물론 해외 한국학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중심문제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거나 정리되지 않은 국학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해석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수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문화창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한국학에 대한 연구성과와 자료들을 부단히 습득함으로써 상이한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온 외국인들이 우리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자리매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병행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민족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서로의 믿음과 정을 바탕으로하는 단결과 협력의 문화를 창조해 왔다. 농업을 주로하던 시기에 선조들이 가꾸어온 두레, 품앗이, 향약 등의 공동체문화는 인간미 넘치는 유대와 협력의 생활공간을 창출하며 낙후된 경제생활 속에서도 질적으로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좋은 예들이었다. 경제발달과 도시의 성장은 이웃개념을 약화시키며, 오늘날의 우리들을 점점 더 메마른 삶의 공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신문화연구원이 각각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서로 인간적 친밀함과 존경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수행은 이제 문화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는 성남시에 있어서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은 성남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성남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양적으로 성장된 성남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기획함과 동시에, 성남시민 모두가 친밀감과 인간애로 연결된 가족시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의 창달과 공간확보, 그리고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시민문화 개척에 앞장서 나갈 때 성남문화원은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강화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朝鮮後期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Ⅰ)

趙 炳 魯

(京畿大學 敎授)

〔目 次〕

Ⅰ. 머 리 말
Ⅱ. 南漢山城修築論의 대두
1. 南漢山城의 由來
2. 南漢山城修築論의 대두
Ⅲ. 南漢山城의 修築과 廣州府의 移設
1. 南漢山城修築의 再論
2. 南漢元城의 修築과 築城軍 (以上 本號)
3. 廣州府의 移設과 山城 居民의 確保
Ⅳ. 南漢外城의 增築과 砲樓, 墩臺의 설치
1. 蜂巖城, 漢峰城 및 新南城의 築造
2. 砲樓, 墩臺의 설치
Ⅴ. 南漢山城의 構造와 防禦施設
1. 南漢山城의 構造
2. 南漢山城의 施設
Ⅵ. 맺 음 말

Ⅰ. 머리말

조선시대의 防禦體制는 五衛制와 鎭管制 그리고 關防을 주축으로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 關防이란 도로가 모인 곳이나 고개마루의 좁은 길목에 성곽을 쌓고 군사를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방에는 일반적으로 城柵이나 烽臺 및 墩臺 그리고 塹壕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관방은 삼국이후 隋唐과의 항쟁이나 고려말 홍건적 및 왜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善守城'의 전통을 이어 받은 방어체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방조직은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군사제도를 개편하여 5위제와 진관제를 확립하였으며 성곽을 중심으로 한 관방조직을 마련하였다.[1] 그 중에서도 城池는 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수성책으로 인식되었다. 일찌기 유성룡이 糧餉, 軍兵, 器械와 함께 城池를 戰守策의 하나로써[2] 그 중요성을 설파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였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沿海지방이나 군현의 治所에는 邑城이나 行城 등을 수축함으로써 연해의 鎭堡와 함께 중요한 관방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山城 역시 備亂과 守城의 최대방법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옛성을 개축하거나 신축함으로써 備禦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초에는 4군6진 등 변방개척과 함께 沿邊에는 주로 행성이 축조되었고, 서해안 등의 해변에는 왜구 창궐 이후 邑城과 鎭堡를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산성의 중요성은 다소 떨어졌던 것이다.[3] 그러나 임진왜란을

1) 車勇杰,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한국사론》 7, 1981.
金鎬逸, 〈東萊之戰 關防論〉, 《한국사론》 7, 1981.

2) 柳成龍, 《西厓集》 2, 雜著 備邊雜錄.

겪으면서 변방방어 못지 않게 都城防禦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왕실과 중앙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訓鍊都監을 비롯하여 점차 5軍營을 설치하였으며 관방시설로서의 산성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도성방어체계의 일환으로[4] 江都와 南漢山城의 수축론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

종래 이와같은 관방에 대한 연구는 관방시설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5] 임난 이후 攻城術의 발달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성수축기술이나 방어시설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火器의 발달에 따라[6] 산성에서의 방어시설이나 戰法 및 수비책으로서의 軍營編制와 軍糧확보가 어떻게 이뤄져 나갔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 분야에 문외한인 필자가 산성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고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은[7] 江都 및 水原 老城山城과 더불어 도성방어에 있어 犄角의 勢를 이루는 保障處로서의 기능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산성수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조선후기 산성 연구의 일환으로 《重訂 南漢志》, 《南漢謄錄》 및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와 《朝鮮王朝實錄》 등의 편년사료와 문집, 법전류를 분석하여 우선 17세기 이후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남한산

3) 車勇杰, 〈조선후기 關防施設의 변화과정 — 임진왜란 전후의 관방시설에 대한 몇가지 문제 —〉 《한국사론》 9, 1981, pp. 44~52 참조.

4) 吳宗祿, 조선후기 都城防衛體制에 대한 일고찰 — 五軍營의 三手兵制와 守城戰 —〉 《史叢》 33, 1988.
金駿錫, 〈조선후기 都城防衛策과 정치, 사상계의 동향〉
《제6회 서울학보사학술대회발표(서울시립대)》 1995.

5) 車勇杰, 앞의 논문 및 李泰鎭 《조선후기의 政治와 軍營制變遷》, 한국연구원, 1985.

6) 許善道, 〈이조중기 火器의 발달(上, 下)〉 《역사학보》 30, 31 1966.

7) 남한산성의 축성에 관한 연구는 李炫熙, 〈朝鮮南漢築城論考〉 《史叢》 7, 1962. 이 유일하다. 본고 작성에 많은 시사점이 있었음을 밝힌다.

성 수축론이 대두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살펴볼까 한다. 그리고 산성수축 기술상의 변화도 주목하여 砲樓, 墩臺 등 방어시설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산성방어 체계상의 군사조직 및 군량 확보문제 등을 연구하는 序章으로 삼고자 한다 江湖諸賢의 叱正을 기대하는 바이다.

Ⅱ. 南漢山城修築의 대두

1. 南漢山城의 由來

오늘날 城南市에 자리잡고 있는 南漢山城은 新羅의 晝長城(또는 日長城)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즉,

> "新羅文武王 12년에 城을 漢州 동쪽 봉우리 위에 쌓고 晝長城 또는 日長城이라고도 불렀다. 石築으로 둘레는 4,360步이고 안에는 여섯 개의 우물과 시내가 있다."[8]

고 한 바와 같이 文武王 12년(672)에 漢州 동쪽에 축성한 城이 바로 晝長城이다. 이 晝長城의 위치는 《三國史記》 文武王 12년 8월의 기록에 따르면 "漢山州"[9]라 하였다.

원래 漢山州는 新羅 文武王 4년(664) 南漢山城을 漢山州 또는 南漢山州로 개칭한 데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는데 景德王 16년(756)에 漢山州를 漢州로 고치고 1개의 州와 1개의 小京 그리고 28郡과 47縣을 관할하였다. 그

8) 洪敬謨, 《重訂 南漢志》 卷1, 上篇 城池條. 또 같은 책, 卷11, 下篇 勝蹟條에 의하면 "日長山城卽新羅時晝長城 文武王所築 內有六井及溪 周八萬六千八百高二十四尺 石築"이라 하여 日長山城은 곧 신라시대 晝長城인데 둘레가 8만 6천 8백尺, 높이는 24尺으로 城의 축조방식은 石築이라 하였다.

9)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文武王十二年八月條. "…(前略)築漢山州晝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후 高麗 太祖 23년(940)에 이르러 漢州는 다시 廣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漢山州와 漢州는 같은 위치에 있는 同一 地名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晝長城(또는 日長城)이 어떻게 남한산성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즉 《重訂 南漢志》 卷 1, 上篇 南漢條에 따르면,

> "南漢山城은 百濟의 옛터이며 新羅의 晝長城이다. 本朝(朝鮮:筆者)에서 그대로 수리하여 廣州 府治를 성안으로 옮기고 府尹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留守로 승격하여 守禦使를 겸하여 鎭撫토록 하고 保障의 땅으로 삼았다. …〈중략〉…상고해 보면 南漢山은 今日의 日長山이다. 史에 이르기를 百濟의 溫祚王이 도읍을 漢山아래로 옮겼다 하였으니 廣州의 옛 邑治가 바로 그 곳인데 山下라고 말하였으니 城을 山上에 쌓고 도읍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대개 漢山은 그 도읍에서 5리쯤에 있는데, 뒤에 新羅가 그 땅을 빼앗아 비로소 城을 山上에 쌓은 것이지 이 城을 百濟가 쌓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혹 百濟가 천도한 뒤에 山上에 柵을 세운 것을 신라가 그 옛터대로 城을 고쳐 쌓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땅이 漢水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 한 것이요, 그 뒤 漢山郡 또는 南漢山州라고 부른 것은 모두 漢水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다."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남한산성은 옛 신라의 晝長城으로서 百濟의 溫祚王이 13年(BC. 6)에 漢山아래로 도읍을 옮긴 곳이며, 廣州의 옛 邑治가 있었던 곳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도읍이었던 河南慰禮城은 漢山으로부터 5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漢山은 오늘날의 廣州로서 당시 온조왕이 樂浪과 靺鞨의 患難을 피하여 漢水 이북에서 漢南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이 곳이 漢水 이남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0] 이후 고구려,

---

10) 洪敎讚, 앞의 책, 卷1, 上篇 建置條. "百濟始祖溫祚王十三年 自慰禮城移都于漢水之南 七月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九月立城闕 謂之河南慰禮城 按漢山今廣州也 溫祚避樂浪靺鞨之患 遷都漢南 則明是自北而遷南也"

신라에 영토를 빼앗기면서 이곳의 명칭은 漢山→新興州→新川停→南川停→漢山州→南漢山州→漢州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결국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晝長城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日長城[11]을 거쳐 오늘의 南漢山城에 이르게 되었다.[12]

이와 같은 南漢山城의 形勢에 대해서 일찍이 李睟光은 그의 〈關防圖說〉에서 南漢은 天險함이 있으니 동쪽으로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겹쳐 있고 서남쪽은 갑자기 두절되어 廣野에 임하였다."[13]고 하였고, 沈象奎의 〈坐勝堂記〉에서는 "漢山의 城은 옛부터 百濟 溫祚의 도읍지로 일컬어져 왔는데 서북쪽은 깎아지른 듯한 험곡과 漢水로 막혀 있고 동남쪽은 영·호남을 제어하고 京師를 막아낼 정도로 하늘이 만들어 낸 높은 山은 長子와 기상이요 棧閣와 劍閣과 같이 險한 형세는 앉아서 싸우지 않아도 이기지 않을 수 없는 땅"[14]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內曠外截 天作高城 北帶漢水 南控列郡'하여 畿輔의 保障處로 그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

11) 日長城(또는 日長山城이라고 함)은 《重訂 南漢志》卷1, 上篇 城池條에 "…〈前略〉…磻溪隨筆曰 輿地勝覽 廣州 日長山城 新羅文武王所築 晝長城卽南漢山城也…按 漢州 今廣州古邑 而百濟之舊城也 百濟襲 漢州爲高句麗所得 及句麗亡 新羅得其南界 置漢州 築城於此 蓋溫祚舊都在漢山之下 非此城也 稱之日長城者 以城於日長山 而或謂山勢雄高 早見日出 晚見日入也"라고 한 바와 같이 신라 문무왕때 廣州古邑인 漢州에 축조된 것으로 보아 晝長城의 곧 日長城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漢山이 日長山으로 개칭되어 이곳에 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2) 南漢山은 漢山, 日長山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百濟 近肖古王 26년(371)에 하남위례성에서 다시 南平壤(당시의 京都, 현재의 서울)으로 移都한 후 신라-고려에 걸쳐 거의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城의 興廢를 고증할 수 없게 되었으나 朝鮮 中葉에는 한 때 蒼溟山으로도 불리우게 되었다.(《重訂 南漢志》 卷8, 下篇 題詠, 〈南漢山城記〉 및 같은책, 卷1, 上篇 山川條 참조)

13) 洪敬謨, 앞의책, 卷1, 上篇 形勝條.

14) 註 13)과 같음.

2. 南漢山城修築論의 대두

南漢山城의 修築問題가 조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게 된 것은 壬辰倭亂이 일어 난 직후였다. 鮮初에 이르러 지방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廣州는 太祖 4년(1395) 京畿左道에 예속시키게 되었고, 世祖 원년에는 左右前後輔例에 의거하여 楊州는 後輔, 水原은 前輔, 廣州는 左輔, 原州는 右輔로 삼아 京師 곧 수도를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築城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張維의 〈南漢山城記〉에

> "(백제)근초고왕으로부터 백제·신라·고려를 거치는 천여년 동안 城의 興廢를 참고할 길이 없고, 本朝(朝鮮 : 筆者)가 天命을 받으면서 國家大計가 무력을 중요시하지 않아 산골짜기의 성곽 같은 것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다 임진왜란이후 訂謨石畫의 선비들이 축성의 뜻을 가진 바 있었으나 당국자들은 나라에 건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또한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15]

라고 한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明과의 事大外交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방민족의 위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성이 안전한 곳이라 여기고 특별히 각 지방의 山城에 대한 방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선조에 있어서 關防施設의 기본방향이 압록강·두만강의 沿邊에 4군6진 등 새로운 영토를 개척함에 따라 鎭堡를 설치하여 北方防禦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고려말에 왜구창궐을 경험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沿海지방의 防守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에 내륙지방의 경우 소수의 邑城이나 山城의 改築에 의존하였을 뿐 북

15) 洪敬謨, 앞의 책, 卷 8, 下篇 題詠 南漢山城記 "…(前略)…日有古之遺墟濟羅北麗氏千有餘歲 城之興廢 不可復攷 暨我朝受命 治酒大猷 兵革不用 其於山谷城郭之間 宜若無所事也 壬辰倭亂以來 訂謨石畫之士 多有意於是城 而當國者莫克建白 豈亦有所待歟…(後略)…"

16) 車勇杰, (朝鮮後期 關防施設의 變化過程 — 壬辰倭亂 前後의 關防施設에 대한 몇가지 問題 —) 《한국사론》 9, 1981, pp. 44~52 참조.

방 및 沿海鎭堡의 방비보다는 훨씬 소홀히 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都城의 경우 동대문에는 擁城이 시설될 정도의 소극적 방어시설이었으며, 각 지방에도 많은 城址가 있었으나 北方이나 沿海鎭堡만큼은 못하였다. 다시 말해 壬亂이전 내륙지방에서의 관방시설은 한마디로 外固內虛의 상태였다.[16] 당시 내륙지방의 산성으로서 軍倉을 가진 것은 富山城(慶州), 城隍山城(梁山), 英陽山城(寧海), 德峰山城(醴泉), 龜山城(榮州), 北山城(禮安), 龍飛山城(龍宮), 西山城(玄風), 俗門山城(金山), 黃石山城(安陰), 東山城(丹城), 沙斤山城(咸陽)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壬辰倭亂으로 都城이 쉽게 함락되자 전통적인 淸野入保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山城築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것은 古城을 修築하는데서 부터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경기지방의 幸州山城이나 禿城山城에서 일본과의 싸움에 승리한 정부는 山城의 효능에 대해 크게 고무되면서 古城이나 옛 城址를 修·改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宣祖25년(1592) 水原의 禿城山城을 修築하였고, 坡州의 馬山古城, 楊州의 儉岩山古壘, 驪州의 波婆城, 竹山의 竹州古城 등을 새로 쌓았던 것이다. 경기 지방에서 邑城보다는 古城을 수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커다란 효능을 인식하게 되자 下三道지방에서의 山城을 修築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졌다. 특히 전라도지방에서는 南原의 蛟龍山城, 潭陽의 金城山城, 順天의 乾達山城, 康津의 修仁山城, 井邑의 笠巖山城, 同福의 瓮城山城 등이 修築된 것[17]이 그것이다.

그런데 南漢山城이 임진왜란의 와중에 山城으로서 점차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그 修築보다는 防禦問題가 먼저 논의된 것은 宣祖26년(1593)이었다. 파죽지세로 쳐들어 온 倭寇로 인하여 都城을 포기하고 義州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宣祖는 明軍의 원조아래 그 이듬해(1594) 還都하여 都城守禦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宣祖26년

17) 李勇杰, 위의 논문, pp.54~56 참조.

(1593)10월에 임금께서

> "漢江이남에 왜적의 진지가 별이나 바둑돌처럼 벌려 있어 앞뒤가 서로 잇닿아 있기 때문에 한 軍營을 침범하면 금방 상응하는가 하면 높은 곳에는 으레 요새를 만들었으니 가히 지형을 잘 알았다고 할 것이다."[18]

고 말하면서 변방 고을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에 대한 방어대책을 논의하자 豊原府院君 柳成龍은

> "신이 보건대 原州·砥平·楊根에는 守禦할 만한 곳이 매우 많고, 廣州의 南漢山城, 水原의 禿城, 衿川의 衿之山은 모두가 특이한 요새로 된 데이어서 여기를 지키면 湖南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京畿防禦使를 차출하여 광주·이천 등지의 군사를 취합하여 서울을 방어하게 해야 합니다."[19]

라고 하여 都城防禦策으로서 광주·이천 등의 군사를 취합하여 廣州 南漢山城을 守禦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때에 여러 대신들은 山城守備策과 함께 왜적 방어책으로서 鳥嶺, 秋風嶺, 竹嶺 등지에 關門을 설치하고 火砲·鳥銃의 제조와 破樓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四道都體察使 柳成龍은 도성 방어책으로서 경기지방의 山城을 수축하도록 하였으니 즉,

> "수원의 禿城은 성첩이 이미 수축되었고 기계도 대략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府民이 모두 안절부절 뜻을 가지고 지금 私力으로 가옥을 수리하여 들어가 살고자 하는 자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민심이 믿는 데가 있으면 스스로 潰散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營將 趙儆은 하는 일에 근실하여 주야로 게을리 아니함으로써 약간의 실효를 거두었으니 자못 가상합니다. 만약 사변이 있으면 의당 수원 부사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발은 전직 虞候로서 지금은 직명이 없어 군졸을

18) 《宣祖實錄》 卷 43, 宣祖 26年 10月 壬寅條. "上御便殿謂大臣等曰…上曰漢江以南賊陣 星羅碁布 首尾相接 往一營則輒相應 高處則例爲設險 可謂能知形勢矣 (豊原府院君)柳成龍曰 臣見原州砥平楊根 可守處甚多 如廣州 南漢山城 水原禿城 衿川衿之山 皆保奇險 守北則湖南可防 當差出京畿防禦使 聚合廣州利川等地之軍 捍禦京城可也…"

19) 註 18)과 같음.

통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게 實職을 부여하여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龍仁과 陽智 사이의 요충지에 古城이 있는데 그 이름은 石城입니다. 그 지형의 험난함이 독성보다 나으며 또 直路의 요충지에 있으니, 만약 이곳을 수축하여 군량을 저장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우측으로 독성을 안고 좌측으로 南漢山城을 연하여 犄峙의 형세를 이루면 京都의 문호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에 신이 용인 현령 尹粹然으로 하여금 흩들을 모집하여 廨屋을 수리하게 하였고 또 良才察訪 崔屹로 하여금 軍器將을 겸하게 하여 아울러 경영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크고 인력은 미약하여 쉽게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 근처의 安集都監으로 하여금 屯田의 農牛와 양곡을 옮겨 보태고 힘을 합하여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 둔전을 설치한 것은 요새를 접거하여 백성을 취합하려는 계획에서였는데, 경기의 직로는 경영하여 다스리기를 더욱 시급히 해야 합니다."[20]

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수원의 禿城山城과 용인의 石城山城을 수축함으로써 南漢山城과 함께 京都防禦의 중요한 문호구실을 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도성 방어책은 꾸준히 제시되었으며 宣祖29년(1596) 12월 備邊司는 한강 방어의 하나로 驪州·楊根·廣州 등으로부터 도성에 이르는 江邊의 여울(灘)을 把守하기 위하여 堡를 쌓거나 土城을 축조하여 木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에는 僧將 惟政이 거느린 僧軍 60여명을 보내어 산성의 수비와 앞으로의 축성에 대비토록 하였다.[21] 宣祖30년(1567) 정월 倭軍이 다시 침입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京畿지방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漢江 연변에는 木柵을 세우는 한편 南山, 白岳 등의 山城을 看審하여 미진한 곳은 改築토록 하였다.[22] 그리하여 京畿等四道都體察使 柳成龍은 경기지방의 산성을 순찰하는 일로 임금과 의논하는 중에 남한산성에 경기 백성들이 들어가 방비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城을 지키게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에 가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

20) 《宣祖實錄》 卷 74, 宣祖 29年 4月 癸丑條.
21) 위의 책, 卷 83, 宣祖 29年 12月 庚午條.
22) 위의 책, 卷 84, 宣祖 30年 正月 乙未條.

바치도록 하였다.[23] 宣祖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御駕所로서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유성룡과 의논한지 1개월 후에 다시 同知事 盧稷에게 남한산성의 형세와 성터·우물 그리고 修築의 役事가 시작되었는지 下問하였다. 이에 노직은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 "광주의 남한산성은 주위가 布帛尺으로 1만 7천 4백여 척인데 외부는 험난하고 안은 깊숙하며 능선이 매우 길어 갑자기 포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약간 평지이고 다른 곳은 모두 암석이어서 기어오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이 바로 漢祚의 옛 도읍지로서 다른 성에 비하여 더욱 크고 일찍부터 거주민도 있었습니다."[24]

라고 하여 남한산성의 둘레는 布帛尺으로 1만 7천 4백여 尺임을 알 수 있고, 역시 外險內奧의 天險의 요새지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성터와 우물에 대해서도

> "돌은 다듬어 만들었으나 퇴락한 것이 3분의 2는 되며 남쪽은 험하지 않은데 또 曲城을 쌓았습니다. 가운데는 큰 개울이 있으며, 우물은 모두 6개소이고, 수답이 거의 십여 石지기나 되며, 좋은 밭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25]

고 한 바와 같이 石築으로 축성되었으나 거의 3분의 2가 퇴락한 상태이고 또한 曲城을 쌓았으며 큰 개울과 6개소의 우물이 있고, 田畓이 상당히 개간되어 있었던 것 같다.

---

23) 위의 책, 卷 84, 宣祖 30年 正月 庚申條. "京畿等四道都體察使 領議政柳成龍 近書邊邑事狀啓 上命引見 上御別殿謂曰 卿近書近後卽還來乎 成龍曰近書後 有可留者有爲事 則欲留之耳 上曰 然則亦有副使 可卽上來 成龍曰 南漢山城 雖民欲入 故欲爲防禦 且耕且守 礪江以上江邊近書後 竹山楊州安城等處及水原江華而還來快計爾 上曰 南漢山城 誰可守之曰 僧將惟政… 上曰 卿往見南漢山城 爲予寫出一幅圖形 送之".

24) 위의 책, 卷 85, 宣祖 30年 2月 丙戌條.

25) 註 24)와 같음.

그러나 修築문제는 이 당시 東門과 南門 그리고 水口門은 이미 수리를 끝마친 상태이나 城役의 공사가 너무 거창하고 방대하였기 때문에 廣州의 군사를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고 城址를 수축하려 했으나 마침 보리 파종기에 농사가 그르칠까 봐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때는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婆娑城(여주), 禿城山城(수원), 瑞雲山城(안성), 芙蓉城(여주), 金弓城(양근), 竹山山城(죽산) 등의 수축과 방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관심이 있었으며 그 결과 부분적으로 수축하기도 하였으나 남한산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수축논의가 다시 대두하게 된 것은 宣祖36년(1603) 2월에 임금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케 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즉,

> "일찍이 남한산성의 형세가 우리 나라에서 으뜸이라고 들었다. 廣州는 畿甸의 巨鎭으로 南道를 왕래함에 있어 요충이 되는 곳이다. 만약 이곳에다 산성을 수축한 다음 한결같이 禿城에서 처럼 군사를 조련하고 수험을 택하여 지키게 한다면 안으로는 京都의 保障이 되고 밖으로는 諸陣을 控制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년에 산성을 지켜 내지 못한 이후 산성을 수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人情과 氣習이 이와 같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皇勅에 있는 聖旨를 보지 못하였는가. 다만 그곳의 형세를 상세히 모르겠는데 수축할 만하다면 지금 마침 牧使 자리가 비어 있으니 本司에서 회의하여 그 일을 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엄밀히 가려 差出한 다음, 方略을 지시해 주고 헤아려 조처하게 함으로써 諸道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는가? 먼저 計畫가 있는 사람을 보내어 잘 살펴본 다음 도형을 그려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26]

고 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형세는 동방의 으뜸이며 廣州의 巨鎭으로 남북지방을 왕래하는 요충지라 하고 여기에 산성을 수축하여 군사를 조련하고 지키게 한다면 京都의 保障이 되고 밖으로는 諸陣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備邊司에서는,

26) 위의 책, 卷 159, 宣祖 36年 2月 乙巳條.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本司에도 익히 살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연히 한 都邑이 이루어졌는데, 서북쪽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동서 쪽은 확 트여 시냇물과 논이 있으며 꼬불꼬불한 산굽이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百濟가 이곳을 국도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다 성을 쌓은 다음 한결같이 禿城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여 안으로는 京都의 保障이 되고 바깥으로는 諸鎭을 控制하게 한다면 참으로 장구한 계책이 될 것으로, 聖衆가 미치신 바가 실로 뛰어나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헤아려 보건대, 이 성은 형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각읍이 모두 진파된 곳이어서 人力이 부족한 탓으로 規劃하려 해도 형세상 매우 어렵습니다. 독성의 경우는 水原府가 사람과 物產이 많아 廣州에 비할 바가 아니고 또 城子가 광활하지 않으므로 많은 인력으로 수선하고 設鎭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한산성의 경우는 독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주의 목사를 엄밀히 선택하여 差遣한다 하더라도 무슨 힘에 의지하여 쉽사리 성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정에 정해진 계책이 있어 사람을 가려 뽑아 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먼저 僧徒를 모집하거나 혹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人戶를 모집해 들여 부역을 면제해 安集시켜 점차 터전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기를 헤아리고 힘을 요량하여 某處의 군사를 주어 城池를 수선하고 樓櫓를 지어 서울 가까운 곳의 한 巨鎭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정해진 의논이 없어 장구한 성과가 있기를 책임 지우지 못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본사의 堂上 李箕賓으로 하여금 畫手를 대동하고 가서 審審하고 나서 도형을 그려오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27]

라고 하여 다소 愼重한 편이었다. 남한산성을 축성하여 군사를 조련하면 京都의 保障이 되고 諸鎭을 제어할 수 있는 長策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부근 고을이 피폐하고 人力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그 대안으로서 승도를 모집하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고, 人戶를 모집, 安集시켜 터전을 잡은 뒤에 군사를 배정하여 城池를 수축하고 樓櫓를 설치하면 京都의 巨鎭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우선 비국당상 李箕賓으로 하여금 산성을 살펴보고 도형을 가지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말

27) 註 26)과 같음.

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비변사의 입장은 많은 人力을 動員해야 하는 문제와 守城의 어려움 때문에 남한산성 축성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竹州山城의 수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이었다.[28]

결국 宣祖시대에 都城방어책으로서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었지만 倭亂後 국가부흥과 民生安集을 도모해야 할 당시의 형편상 광활한 산성을 수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수선할 수 있고 만약 수선한다 하더라도 수만 명의 군사가 없으면 지키지 어렵다는 현실론에 떠밀려 論議만 紛紛한 채 남한산성의 수축은 실시되지 못한 채 일단락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Ⅲ. 南漢山城의 修築과 廣州府의 移設

1. 南漢山城 修築의 再論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仁祖反正으로 즉위한 仁祖때였다. 光海君시대의 大北政權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인목대비까지 유폐시키는 사건이 일어나 성리학적 윤리관에 크게 벗어나자 이러한 패륜행위는 사림세력으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광해군 3년(1611) 鄭仁弘이 退溪가 일찍기 南冥 曹植의 학문을 평가절하한 데 대한 반발로 이른바 晦退辨斥이 일어난 뒤였다.[29]

28) 前의 책, 卷 161, 宣祖 36年 4月 丁酉條. "備邊司啓曰 南漢山城周回二十八里 折以論之 則方七里之城也 必大用人力 可以修補 百雉成修補 非累萬人難守 竹州山城 當諸路之衝 城小而向陽 其下又多通望沃饒之田 高麗時 邑人守此而能却丹兵 與其修築廣闊之城 漫費人力 不如勦便小之處 聚民屯耕 設法修築 爲他日通用之器 但竹山乃無形一小縣也 縣監雖擇遣 而官卑邑殘 勢難責成 必須合併擇邑 先募流民 受役安接 以爲漸次修築之計 前者 本司堂上李貴實 看審南漢山城而來 今亦令李貴實 單騎馳往 更爲審察形勢後 議處何如 傳曰允".

29) 朝明基,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20, 1988.

이러한 광해군의 패륜행위를 구실로 栗谷의 문하생인 李貴를 중심으로 李曙·金瀗·申景禛·具宏·具仁垕·張維·沈器遠·金自點 등이 광해군 15년(1623) 3월 13일 광해군을 폐위하고 綾陽君倧을 추대한 것이 이른바 인조반정이다. 인조반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서인들이었다.[30] 서인들은 '崇用士林'의 기치를 내세워 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李元翼등 南人을 등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앙군사력의 강화와 親明排金의 외교노선을 표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訓鍊都監을 제외하고 慰衛廳의 설치를 포함한 摠戎廳·御營廳·守禦廳의 설치는 西人정권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계기를 만들었고[31] 외교정책의 변화는 後金을 자극하여 西北方 변방의 방어에 소홀할 수 없게 되었다. 張晩을 都元帥, 李适을 副元帥로 삼아 下三道로부터 赴防軍 15,000여 명을 동원하여 서북방어를 강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반면에 경기군사는 서북방어를 위한 부방군에서 제외시키고 도성 방어와 국왕의 호위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長湍, 楊州, 利川 등의 군사들은 仁祖反正에 직접 가담하였기 때문에 有事時에 대비하는 국왕호위병력의 증강은 불가피하였다.[32] 따라서 남한산성의 수축문제는 인조반정 이후의 서인세력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李貴였다. 仁祖 元年(1623) 윤 10월 知事 李貴는

"우리 나라는 본시 군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식자들이 걱정

30) 李泰鎭,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1985, pp. 81~85.

31) 이 시기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泰鎭, 〈中央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崔孝軾, 〈仁祖代의 國防施策〉 《東國史學》 19·20, 1986.

崔孝軾, 〈摠戎廳硏究〉 《東國大論文集》 4, 1985.

崔孝軾, 〈御營廳硏究〉 《韓國史硏究》 40, 1983.

車文燮, 〈守禦廳硏究〉 《東洋學》 6·9, 1976, 1979.

32) 車文燮, 〈禁衛營의 設置와 組織編制〉 《大邱史學》 7·8, 1973.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적과 대치하고 있어 변방 걱정이 있어 변방 걱정이 날로 다급해지는데도 아직 예정된 계획이 없이 서로 돌라라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고 사전에 예정하면 옹색하지 않은 법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의 군대를 禁衛軍이라 이름하여 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호위에 투입시키도록 하고, 외방의 군대는 각도로 하여금 늘 조련시키게 하여 미리 단속해 두었다가 변이 발생하면 일제히 조발하여 兵使가 각기 부하의 군병을 거느리고 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 팔도의 군병을 체찰부에 배속시켜서 통솔하도록 한다면 병제가 확립되어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33]

라고 하여 京畿軍을 禁衛軍으로 삼아 국왕호위병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都城이외의 保守之地로써 南漢山城을 미리 修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역시 미리 수축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保守할 수 있는 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廣州牧使 林檜는 재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희에게 모두 맡아준다면 명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34]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仁祖도 禁衛軍 창설문제를 의논토록 하고 광주목사 林檜로 하여금 山城을 修築할 뜻을 비쳤다. 이와같이 仁祖초기에 남한산성을 적극 수축하자고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안으로 국왕과 都城을

---

33) 《仁祖實錄》 卷 3, 仁祖 元年 윤 10月 壬寅條.

"上書講大學于文政殿…(知事 李)貴曰 我國本是無兵之國 自昔陳者 固已憂之 今到與敵對壘 逢虞日急 而未有定計 置之相忘 豈不寒心哉 凡事有備則無患 前定則不困 臣以預爲備之事 獻爲禁衛軍 如有緩急 使之入衛 外方之事 亦令各道常如組練 預爲團束 有變則一齊調發 兵使各自領來 而入路之兵 屬諸體府 使有統攝 則庶幾兵制素定 可以應卒…"

34) 위의 책 卷 3, 仁祖 元年 윤 10月 壬寅條.

"…(李)貴曰 南漢山城 去京不遠 形勢險固 亦須預先修築 以爲緩急保守之地 庶得人爲急 廣州牧使林檜 稍有才局 可以辦此 若以廣州一邑之力 盡委於林檜 自明春修築峙糧 足爲優爲…"

방어하고 밖으로는 유사시 王室의 피난처로써 적합한 保障處[35]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조정에서는 서쪽 변방의 방어에 세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仁祖反正 이후 西人政權이 들어서자 그들의 외교정책이 光海君시대의 中立外交 노선을 포기하고 崇明排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은 後金을 크게 자극하게 되었다. 마침 후금은 建州女眞의 한 갈래인 建州左衛 출신의 누르하치(努爾哈赤)에 의해 1616년(光海君8)에 興京에서 건국되었으며, 八旗制에 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주본토에서 점차 明의 변경인 遼東지역을 공략하므로써 급기야 1621년(光海君13)에는 瀋陽과 遼陽을 함락시켜 요양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36] 이로써 서북변방에는 朝-後金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仁祖 元年(1623) 윤10월에 備邊司는 서북변방의 일에 대해 우려한 나머지 대응책으로서의 都城守禦를 담당할 인물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언급하고 나아가 도성호위를 李曙와 申景禛에게 위임하여 사태의 완급에 따라 外方出身과 軍兵을 모집하여 방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都城守禦 뿐만 아니라 동시에 江都保障論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 수축문제는 看審한 뒤에 의논하여 조치토록 하였다.[37]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목사 林檜를 발탁하여 남한산성의 수축문제를 논의하여 실시하려 했으나 仁祖 2년(1624년) 정월에 李适의 逆謀가 뜻밖에 일어나므로써 임회는 慶安驛에서 피살되고 산성수축 문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5) 이 보다 앞서 光海君 13년(1621)에 남한산성이 비로소 保障之地로 선정되었으며, 安邦俊의 《遲川日記》 卷3, 備禦論條에 따르면 李貴는 仁祖 元年(1623) 9월에 西邊防禦策으로 ①장기의 군사를 훈련시켜 근본을 견고히 할 것 ②남한산성을 수축하여 미리 保障을 정해 둘 것 ③여러 堡의 군사를 합쳐 큰 鎭을 견고하게 지킬 것 ④변방에 屯田을 설치하여 군량을 마련할 것 등의 8가지 조목을 열거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여 保障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36) 金斗鉉,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 中國史 Ⅳ》 지식산업사 1989. pp. 143~153.

37) 《仁祖實錄》 卷 3, 仁祖 元年 윤 10月 丙午·丁未條.

원래 李适은 仁祖反正시 弘濟院 점령지에서 大將의 지휘권 문제로 金瑬와 不和한 바 있으며 논공행상에 있어서도 2등공신 밖에 되지 않고 漢城判尹에 제수되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서북지방의 오랑캐의 후환을 두려워하며 이괄로 하여금 平安兵使兼副元帥로 삼게 되자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정월 22일 龜城府使 韓明璡과 공모하여 擧兵하였다. 이때의 군사력은 15,000명의 兵力으로써 중앙의 禁衛軍보다 훨씬 숫적으로 우세했다. 당시 중앙군은 훈련도감군외에 長湍軍 1천명 미만, 水原軍 2천 여명, 御營軍 200 여명, 四大將軍官 500 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官軍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西北大路인 寧邊→安州→平壤→黃州→平山→開城으로 남하하지 않고 寧邊→慈山→鐵原→平山→開城의 사잇길을 택하여 도성으로 입성하였다. 반란군의 남하소식을 들은 平壤의 都元帥 張晩은 이를 중간에서 차단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끝내는 松都 靑石洞을 지키던 京畿監司 李曦의 군사력마저 교란시키면서 臨津江까지 압박해 왔다. 임진강은 都城防禦의 최후 堡壘였다. 이곳은 李貴의 御營軍, 李興立의 水原軍 그리고 坡州牧使 朴孝立의 군사력까지 배치되었으나 박효립의 내통으로 마지막 방어선도 쉽게 적의 수중에 들어가버렸다. 이에 御營使 李貴는 황급히 都城으로 들어와 南遷을 건의하게 되었다. 결국 仁祖는 2월 9일 훈련도감과 어영군의 호위를 받으며 公州로 播遷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10일 도성을 점령하고 興安君瑆를 국왕으로 추대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官軍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았다. 평산에서 크게 패한 都元帥 張晩의 군사는 적을 되쫓으면서 경기감사 李曦의 군과 합세, 임진강을 넘어 서울입구인 鞍峴(길마재)에서 반란군과 접전끝에 크게 이겼다. 이 안현싸움은 반란군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이괄은 水口門→三田渡→廣州→利川으로 퇴패하던 중 廣州 慶安驛 부근에서 屯宿하다가 부하 奇益獻, 李守白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38]

38) 李泰鎭, 앞의 책. pp. 94－96 참조.

그러나 이괄의 난이 비록 짧은 시일내에 진압되었지만 도성의 함락과 王의 公州蠶頭까지 초래하여 都城防禦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괄의 난은 御營軍의 증강과 捕盜軍의 성립 이외에 방어를 위한 保障處로서 南漢山城修築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李曙를 중심으로 한 京畿軍의 정비는 江都經營, 南漢山城修築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추진되었다. 이것은 남한산성을 단순히 國王의 피난처로만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 江都와 함께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남한산성은 對後金방어 전략에서만이 아니고 남방의 對倭방어 측면에서도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임진왜란의 전란중에 柳成龍이 京畿의 關防으로서 水原의 禿城山城과 廣州의 南漢山城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괄의 난을 진압한 정부는 江都와 犄角의 勢를 이룰 수 있는 南漢山城의 修築에 대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大計로써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3월 5일 임금이 여러 대신들과 資政殿에서 당면한 국정현안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가운데 더욱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영의정 李元翼이

> "신은 한번 都門을 나가서 방비하는 대책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국내의 역적은 천고에 없었던 것이니 어찌 다시 이런 변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북 변방의 일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江都의 보장에 관한 대책은 李聖求에게 전임시켰으나, 江都는 한 구석진 곳이므로 온 나라를 호령하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사변이 있을 경우 元子는 남한산성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으면서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쉽게 축조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제 李曙를 장수로 정하여 성을 쌓는 일을 전담시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죽기 전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副體察使와 처리하고 싶으니, 오늘 계책을 정하기 바랍니다."[39]

---

39) 《仁祖實錄》 卷 5, 仁祖 2年 3月 己未條.
"上又御資政殿 引見三公及備局諸臣…(領議政李)元翼 曰 臣雖無疾病八十立朝 有賢士大夫之廉隅 況臣疾病沈痼者乎 都體察使既不許逃 則臣欲一出 →

라고 하여 江都의 保障對策은 李聖求에게, 南漢山城의 修築은 李曙로 하여금 전담케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축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좌의정 尹昉만이 동조하였을 뿐 우의정 申欽, 병조판서 金瀅, 우찬성 張晩, 그리고 호조판서 沈悅 등은 수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백성을 동원하므로써 민심이 이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편이었다. 오히려 예조판서 李廷龜는 산성 수축보다는 對敵防禦策으로서 1만명의 군사를 뽑아 騎兵을 양성하고 糧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영의정 李元翼은 대신들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산성 수축을 주장하였다. 같은 해 3월 8일 임금과 別殿에서 산성의 형세와 옛성의 毁破문제, 그리고 산성수축의 방법을 의논하는 가운데 남한산성은 奇險의 形勢로서

→ 都門 以試防備之策耳 城中之賊 此固千古之所無 豈容再有此變 但西邊之事 極可憂也 江都保障之策 專委李聖求 而江都一隅 似難號令 城中如有事變 元子入南漢山城 則庶可居中節制 但南漢山城 似難容易舉之 今宜以李曙定將 專委築城之責 則可趁多前 得以舉役矣 臣請以未死病 得盡心力 與副體察使料理爲之 願今日定計 左相尹昉曰 臣曾爲京畿監司時 以江都保障南漢山城 東西犄角 緩急得力之策 具由狀啓 而言不見施矣 右相申欽曰 南漢山城 今不可不爲修補 而但不可勞民動衆也 兵曹判書 金瀅曰 動衆則不可爲也 先量其功程然後 可以預爲料理矣 右贊成張晩曰 領相之意 欲以逃亡論乎 據罪築城 非計之得也 善能手築 本是遊食之人 若專委城役 則必生怨咎 且難獨當大役 勢將用民力也 避賊之策 當以江都爲主 若兩處並舉 則恐力分而事未易就也 戶曹判書沈悅曰 築城之役 極爲浩大 勢不得不煩於民 若開築城之令 則民心必先驚駭矣 上曰李曙將爲出審 必能量其功役 可待其還而議定也 上又曰 今此議定者乃避賊之策 而非禦賊之策也 如欲禦賊 當若之何 續曹判書李廷龜曰 今番去邠之策 出於不得已 而一出都門之後 官府文籍器械糧餉 一時蕩然 倘幸天心默佑 得見匡復 今又先講避賊之策 非計之得也 臣曾爲京畿監司 詳知南漢形勢 如欲駐蹕其處 則必多營造修補之事 工役浩大 勢未易就 山城之役 決不可爲 不必使人往視也 惟當講求禦海之策 精抄一萬兵 分給牧場馬 常加練習 則緩急庶有所賴 瀅曰 騎兵固當精抄 而但患糧不足耳. 都監能手 領難覓餉 況此精抄之騎兵乎 上問戶判曰 糧餉可得措辦耶 悅曰 今方設減祿人 恐無以辦出軍餉耳 上曰 調兵不可不爲 元帥在病 可言其所見 晩曰李時發曾抄黃海道別勝軍三千人 着力組練 故今爲可用之卒 且李元翼爲關西方伯時 別抄營能手 至今仍行其規 今番得力 專賴此兩軍耳."

가히 保障地가 될 만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도 城을 1년 이내에 修補하는데는 반드시 募民入居하여 백성을 安集시킨 뒤에 능력을 헤아려 점차 수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원익은 李曙로 하여금 우선 挈家入居하여 축성을 담당케 하고, 점차적으로 募民에 의해 수축하는 한편, 4~500石을 貸穀하여 축성비용에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40] 이와 함께 完豐君 李曙 역시 京畿軍士의 정비 문제와 短兵接戰에서의 鞭棍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임금과 의논하면서 아울러 남한산성의 형세와 축성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의 형세가 어떠한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면의 둘레가 2천 3백 칸이고, 성안의 논은 10여 석의 곡식을 파종할 만한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은 반이 넘습니다. 남북은 가깝고 동서는 먼데 동서를 남북에 견주면 3,4배가 됩니다. 사면이 모두 높은 산과 험한 봉우리인데, 성밖에는 들어다 볼 만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는 좋으니, 어떻게 성을 쌓겠는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3천 석의 쌀로 일꾼을 사고, 벌을 주어야 할 포수들을 아울러 쓰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41]

---

40) 李元翼, 《梧里集》 別集 卷 1, 引見奏事, 甲子3月初八日.

"上御別殿引見大臣 領相公及左相尹昉 右相申欽 承旨韓孝伸 假注書李性源 記事官權諱李省身 入侍…上曰 山城今已往見云耶 公曰觀其形勢 極爲奇險 且多音有水 其形勢可作行都云矣 上曰 其城慕築毁處云耶 公曰別無全然 貿城者 雖初所築 無非大石 而所毁處甚少云矣 上曰 山城比水原孰優形勢與水原孰好 公曰 形勢則極爲奇勝云矣 上曰凡事 雖以一年內成就 而暫欲補修其城 須預爲募民入居 待其安後 觀勢量力 漸次修築 則可爲矣 公曰 臣所謂可使李曙挈家入居 則殿下者 正謂此也 當此農節 募民入居 勢甚未易 若徐徐募入則可矣 而所患者 唯是無物力 若有物力 則不患人之不聚矣 公又曰 其仁祖所指之米 若輸來則可用 且前日送米貿米之數亦多 若貸出某處穀用之 則四五百石米 不患其難償矣."

41) 《仁祖實錄》 卷 5, 仁祖 2年 3月 癸亥條.

"上御食殿 引見完豐君李曙…上曰南漢山城形勢如何 曙曰 四面周回二 →

라고 한 바와 같이 4면이 高山峻峰하고 城外無窺峰하여 天險의 형세라고 好評하고, 3,000石의 米로써 築城軍을 雇役하고, 또 훈련도감 포수들도 함께 築城役에 조발시키면 일반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城役을 끝마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당시 논의의 초점은 이괄의 난 이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을 安集시키면서 동시에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성비용과 築城軍의 확보문제에 놓여 있었다.

영의정 李元翼은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3월 14일 資政殿에서 完豐君 李曙, 훈련대장 申景禛 및 備局堂上 등과 남한산성 수축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임금께서 수축하지 않을 수 없다면 백성에게 경비를 거둬들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이원익은, 첫째 戶曹로 부터 1,000石의 山城役糧을 미리 대출받은 후 體府의 上納米로 갚는 방법과, 이른바 八百別軍(李适의 亂때 區別에 응하지 않은 훈련도감군)을 축성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훈련대장 申景禛이나 李曙도 대체로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축성비용과 방법은 3,000石의 城役糧餉과 800명의 軍士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42]

→ 千三百間 百城中水田 可播十數石之穀 今之耕墾處過半矣 南北近而東西遠 以東西比南北 則三四倍 四面皆高山峻峯 而城外別無窺峯矣 上曰 形勢則好矣 何以築城耶 曙曰 如以三千石米雇役 兼用別役能乎 則弊不及民而可以完役矣."

42) 李元翼, 《梧里集》 別集 卷 1, 引見奏事 甲子三月十四日.

"上御資政殿 引見領議政公及完豐君李曙 訓鍊大將申景禛入侍 左副承旨權盡己 假注書遷復一 記事官李者身 李埈…公曰南漢山城修築事 臣與左右相備問堂上及張晩相議 而工費不貲可悶 上曰不可不修築 而此時不可聚歛於民 不然則難以修築 何以則可 公曰 役糧一千石爲先貸用該曹 而將以體府上來米 還償其貸給與否 問于戶判定行何如 上曰可也 公曰八百別軍 可用於軍器造成 而過三朔後落滌何如 上曰三朔赴役 非輕費矣 赴否 亦以此軍先送可也 景禛曰 山城修築 以此軍移用無妨 八百名三朔赴役最緊除他小弊 趕速修築爲當 上曰此軍其能力役耶 曙曰 先得戶曹米五六百石 然後始役 則事諧矣 公曰看書定奪 然後始役可矣 上曰別軍八百 不少時亦可爲之時也 公曰如必爲之 令李著掌書往留董役爲當 →

이에 임금께서도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성의 수축결정은 쉽지 않았다. 적극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 2년 3월 16일 여러 대신들이 또한 차례 資政殿에서 남한산성 수축문제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영의정 李元翼, 부제학 鄭經世, 徐渻, 좌의정 尹昉, 대사헌 鄭曄 등은 적극적인 편이었고 호조판서 沈悅, 예조판서 李廷龜, 서평부원군 韓浚謙, 형조판서 李時發 등은 신중한 편이었다. 한편 임금께서도 先江都保障後南漢山城修築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43]

그리고 京畿水營을 江華에 移轉하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영

→ 上曰可也 公曰更當商議定奪 上曰糧餉有無 問于戶曹爲之可也 上又曰 以城役之故 人心亦將有騷動之擧耶 公曰 不無其弊 曄曰 南漢城堞 不過四萬 可以六七千守之矣 上曰 山城險形勢之地 而潤大難守云 何以爲之 曄曰 此城以八百名三師赴役 而役糧三千石 足可用之也 上曰八百名軍三千石米 亦可完畢耶 曄曰 雖未完畢亦可成形矣 且險阻形勝 莫最於此城 上曰 若是其險阻耶 公曰 定奪之後 小臣當往見 上曰 許能修築 則使其修築人守之可也 曄曰早晚若不幸有賊變 則可以江都南漢爲保障之地矣 上曰群議欲速聞之."

43) 《仁祖實錄》 卷 5, 仁祖 2年 3月 庚午條.

"上又御資政殿 引見三公備局諸臣三司長官…上又問南漢築城之擧 領以處之 (李)元翼曰 新軍不可全釋 莫如爲築城之用 南漢既築則將與江都爲掎角也 嗣徒學鄭經世曰 臣意祖宗定都于此者 必有意焉 宜以此軍修築京城 至如南漢 臨時設權而守之亦可也 (徐)渻曰 無兵無粮 故曾不爲守 京城之計 豈徒築城而已 宜思得兵粮之道也 戶曹判書沈悅曰 方今大亂初定 瘡痍未起 難不役民 若築此城 其於見聞 亦必驚駭 尹昉曰 今則龍經大亂 不可動民 而以形勢言之 江華南漢 措置甚好矣 廷龜曰 臣意曾以爲都城不可不守也 然云 國大不可守 而若修築則民有所恃 況祖宗擇地爲都 豈合棄此而之他 西平府院君韓浚謙曰 當此大亂之後 勢難築城都監之卒 何能辦此大役乎 (金)尙客曰 南漢形勢 甚好 必爲他日緩急之用 但龍經大亂 以此人心物力 恐難築城 徐待人心鎭定 農事登登而爲之可也 刑曹判書李時發曰 南漢築之甚好 而恐不可易就 若力分而未及措置江華 則城可虛也 大司憲鄭曄曰 祖宗擇形勝 以爲定都之地 而全盛時城中民戶 不知其千萬 故以此可守 今則異於古 譬之必守則非也 江都可以守之 以備無措置之事 甚爲圖謀 南漢雖不可遽今築之 以監司兼牧使留鎭廣州 日漸修築則得寸則寸 易爲功也 上曰 後此不及 不若先江華而後南漢也 元翼曰 不可徒爲論議而已 宜速決之也 上曰 不可不爲掎角之勢 而并擧亦難 山城待明年築之 今結專力江華可矣."

의정 이원익은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할 것을 완강히 주장하게 되었고, 지사 정엽도 적극 호응하면서 우선 修繕하여 保障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沈器遠을 元帥兼廣州牧使로 추천까지 하였다.[44]

그런데 이때까지만해도 산성수축문제는 민심수습과 경비조달의 어려움으로 신중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仁祖 2년 4월에 이르러 점차 수축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특진관 李貴가

> "…또 남한산성은 형세가 매우 좋습니다. 沈器遠을 전과 같이 漢南都元帥로 삼아 三南을 통제하도록 하여 三南의 방백이 3년 기한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해 山城의 補修를 완결토록 할 일을 심기원에게 위임하여 전적으로 勾管하게 한다면 일은 성취될 것이요, 위급한 경우에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남한산성의 보수공사는 衆論이 모두 심기원이 담당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李時發이 江都의 次知였던 예에 따라 沈器遠을 南漢山城次知堂上이라 호칭하여 서울에서 요리하게 하여 서서히 성취토록 하는 것도 타당하옵니다…… 우선 앞으로 사세를 관망해 가며 처리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45]

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제안이 수용되었으며 결국 沈器遠을 南漢山城次知堂上으로 임명하게 되었고, 이어 같은 해 6월 27일에는 南陽府使 柳琳을 廣州牧使로 差出하여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46] 이리하여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을 수축하게 하였다.

---

44) 《仁祖實錄》 卷 5, 仁祖 2年 3月 丙子條.

"上書講論語于資政殿…(知事鄭)曄曰 南漢山城雖不能趁今年築之 不可不修繕以爲保障之地也 沈器遠有才局 以此人爲元帥兼廣州牧使 使自擇其判官 預備器械器械可也 器遠曰 臣有痼疾 且無才局 不敢當 而鄭曄之言 則實是也 上曰 予亦有是意 而恐於今年 不可築城 故姑遲之矣…."

45) 《備邊司謄錄》 3冊, 仁祖 2年 4月 30日條.

"啓曰本月二十三日 特進官李貴所啓…且南漢山城 形勢最好 宜以沈器遠依前爲漢南都元帥 使之總制三南 三南方伯 以三年爲限 責其成效 山城補完之事 委諸器遠專爲勾管 則事必就緒 緩急可恃 上曰 此兩件事 令廟堂議處事傳敎矣…且南漢山城修補之役 會議皆言 沈器遠可以擔當云 依李時發次知江都例 以沈器遠稱爲南漢山城次知堂上 在京料理 以爲陰檢責成之地 亦當 張晚既受八道元帥之任 漢南四道 時無警急 似難別出元帥 姑觀日後事勢 議處之急 啟啓 答曰依啓."

46) 《備邊司謄錄》 3冊, 仁祖 2年 6月 27日條.

2. 南漢元城의 修築과 築城軍

南漢山城은 축성시기에 따라 元城과 外城으로 구분되었다. 肅宗 12년(1686) 外城인 蜂巖城을 始築하고 同王 19년(1693) 漢峰城을 築造함으로써 元城과 外城의 구별이 있게 되었다.[47] 이에 필자는 肅宗 12년 이전까지 축성된 것은 元城이라 하고, 이후를 外城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한 논의가 仁祖 즉위년부터 2년 3월까지 분분하게 된 배경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甲論乙駁할 수 만은 없었다. 드디어 仁祖는 2년 7월 남한산성 수축을 명령하였다. 그것은 洪敎謨의 《重訂 南漢志》 卷 9, 下篇 城史條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 "…秋 7월에 山城을 쌓도록 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京畿를 두고 廣州 等鎭의 軍務를 節制하도록 하니 처음에는 捕戎使라 稱하고 李曙가 임명되어 그 일을 주관하고 南陽府使 柳琳으로 牧使를 삼았다. 李适의 亂이 있은 뒤에 論議가 있기를 畿輔 가까운 땅에 마땅히 保障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영의정 李元翼과 연평 부원군 李貴가 남한산성 수축하기를 건의하였다. 李曙에게 命하여 築城을 감독하게 하니 이서는 널리 名僧인 覺性과 應聖 등을 불러 각각 승도들을 거느려 지역을 나눠 맡도록 하고 別將 文希聖 李一元과 神將 李光春 등으로 監董케 하였다."[48]

46) 《備邊司謄錄》 3冊, 仁祖 2年 6月 27日條.

"啓曰 南漢山城 方爲修築 料理世務 未可一日 昔漢而必與本州牧使諸委役軍築城之事者 然後 可以就緒 廣州牧使睦欽南陽府使柳琳 俱著於治民 似不可替易 而第廣州與南陽 地界相接 不過一日之程 迎送不至大段貽弊 欽自面貌生 軍務非其所長 柳琳則素有董役 曾所熟諳 而卽今農務已歇 刈草採葛等事 此時爲急 換差何如 答曰依啓."

47) 洪敎謨, 앞의 책 卷 1, 上篇 城池條.

48) 洪敎謨, 앞의 책 卷 9, 下篇 城史條.

"仁祖二年… 秋七月 命築山城 仍設京畿節制廣州等鎭軍務 始稱捕戎使 以李曙爲捕戎使主其事 南陽府使柳琳爲牧使 自适變後 議者以 畿輔近地 宜有保障 領議政李元翼 延平府院君李貴 請修南漢山城 命曙監築 曙廣召諸名僧覺性應聖等 各率其徒分地賦功 而別將文希聖李一元 神將李光春等監董之."

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남한산성의 수축은 仁祖 2년(1624) 7월에 이원익, 이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융사 李曙에게 명령하여 시축되었다. 또한 仁祖 4년(1626)에 이르러서는 廣州鎭 등의 軍務를 담당할 京廳 즉 守禦廳[49]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남한산성 수축의 주관에 대해서는 沈器遠을 南漢山城次知堂上이라 칭하여 임명하였으나[50] 부친상을 당하자 중간에 李曙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산성수축의 정확한 날짜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축한 달도 기록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張維의 〈南漢山城記〉에

> "…城의 사방 둘레의 옛터가 뚜렷하니 溫祚가 옛날에 쌓은 곳이다. 평평하고 험한 곳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증축하였다. 甲子(인조2년) 9월에 시작하여 丙寅(인조4년) 7월에 완공하니 城의 둘레가 약간의 丈尺이요 女墻이 1,700堞이며 大門이 4개, 暗門이 8개이다. 안에는 寺刹 7채를 세우고 관청,창고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51]

고 한 바와 같이 仁祖 2년 9월에 시작하여 仁祖 4년 7월에 완공하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洪敬謨의 앞의 책 卷 9, 下篇 城史條에 의하면

---

49) 洪敬謨, 앞의 책 卷 1, 上篇 職官條.
"仁祖四年築山城 設守禦廳 置使節制 廣州築鎭軍務 以牧使兼防禦使"
자세한 守禦廳의 설치와 編制에 대해서는 車文燮, 〈守禦廳研究(上·下)〉 《東洋學》 6.9 1976, 1979 참조.

50) 《仁祖實錄》 卷 6, 仁祖 2年 7月 庚辰條.
"上書講論語于資政殿… 特進官李貴曰 南漢築城 國之大計 而沈器遠適遭父喪 設意則以大臣一人 句管責成 加出嗣使 使之料理 則自然完就矣 上曰 令備局速出其代"

51) 洪敬謨, 앞의 책 卷 8, 下篇 題詠, 南漢山城記條.
"…城之四周 基址宛然 蓋溫祚舊築也 乃因以增之 酌其夷險 爲之倂陣 以甲子九月經始 丙寅七月工告竣 城周若干丈尺 女墻千七百堞 設四門 其暗門倍之 中置御廳七區 館廨倉庾 僧不修具…"

仁祖 2년 7월에 시작하여 仁祖 4년 11월에 완공되었다고 하였다.[52] 당시 洪敬謨가 어떤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實錄이나 備邊司謄錄 등의 사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변사등록에는 仁祖 2년부터 12년까지의 약 10년 간의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仁祖 2년 6월 27일에 비변사가

> "남한산성을 방금 수축하려 하니 요람할 서무를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本州의 牧使는 반드시 役軍과 築城에 익숙한 자를 가려서 맡겨야만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 목사 睦敍欽과 남양부사 柳琳은 모두 治民을 잘하여 바꿔서는 안될 듯 하오나 광주와 남양은 地界가 연달아 있고 1일의 일정에 지나지 않아 遲速에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흥은 백연유생으로 軍務가 그 특징이 아니며 유림은 무리를 이끌어 役事를 독려하는데 본래 익숙합니다. 지금 농사는 한가하고 풀을 베고 짚을 걷는 일 등이 시급한 때입니다. 바꾸어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53]

라고 한 기록에서 아마도 仁祖 2년 6월 27일 부터 7월 27일을 전후하여 南漢山城次知堂上 沈器遠을 대신하여[54] 총융사 李曜가 임명됨으로써 이 시기에 축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仁祖2년 7월 역사적인 남한산성의 修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수축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築城軍

---

52) 洪敬謨, 알의 책 卷 9, 下篇 城史條.
"仁祖四年冬十一月 城役告竣 乃移廣州邑治于山城 以牧使兼防禦使 以廣州田二千餘結 屬之山城"

53) 《備邊司謄錄》 3册, 仁祖 2年 6月 27日條.
"啓曰 南漢山城方爲修築料理庶務 未可一日稽遲 而必須本州牧使 諳委役軍築城之事者 然後可以就緒 廣州牧使睦敍欽 南陽府使柳琳 俱善於治民 似不可替易 而第廣州與南陽地界相接 不過一日之程 遲速不至大段貽弊 敍欽白面儒生 軍務非其所長 柳琳則曾爲董役曾所熟諳 百部今農務已歇刈草採葛等事 此時爲急換差何如 答曰依啓"

54) 《仁祖實錄》 卷 8, 仁祖 3年 2月 癸巳條.

의 동원과 그에 따른 糧餉의 확보였다. 그것은 산성수축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 내지 소극론이 나타난 요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산성축성에서의 人力確保와 財源調達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55] 이때 제시된 방법으로서 募民入居制에 의거하거나 또는 給價雇役하여 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한산성 수축에 동원된 인력으로써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僧軍이다. 승려가 산성축성에 동원된 것은 특히 임진왜란 이후 많았다.[56] 유성룡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남한산성의 수비와 축성에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惟政으로 하여금 승군 60명을 이끌고 산성방어를 하도록 한 것[57]이 그 예이다. 그리고 仁祖 2년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에 "…命曜監築 (李)曜廣召諸名僧覺性 應聖等 各摠其徒 分地賦功"[58]이라고 한 것이나 "李曜役僧徒築南漢山城 而且募民屯田 穀至累萬石 器械措備者亦多"[59]라고 한 데서 覺性 등 전국의 유명한 승려들이 僧徒들을 모아 지역을 나누어 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역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 "僧徒들이 南漢山城의 築城役 때문에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한산성의 城役은 나라의 큰 役事로서 오로지 僧徒들에게 取辦하니 그 役의 무거움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중으로서 田土를 가지고 生業한 자는 매우 적습니다. 빌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수백 천리 밖에 赴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役僧이 있었습니다만 각 도에는 정한 숫자가 있어 역에 동원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役에 따라

55) 임적이 비변사는 광해군 10년 6월에 오랑캐 침입에 대응키 위하여서는 남한산성의 수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경기도내 物力의 결핍과 백성의 모집, 그리고 糧餉과 器械확보의 難易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 한 것이 그 한 예이다.(《備邊司謄錄》 2권, 光海君 10年 6月1日條)

56) 宣祖 29년 3월 비변사가 牛禿山城에 대한 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근실하고 유능한 중을 모집하여 僧任을 제수하고 僧徒를 많이 모아 먼저 사찰을 창건한 후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다.(《宣祖實錄》 卷 73, 宣祖 29年 3月 癸酉條)

57) 《宣祖實錄》 卷 83, 宣祖 29年 12月 庚午條.

58) 洪敬謨, 앞의 책 卷 9, 下篇 城史條.

59) 《仁祖實錄》 卷 25, 仁祖 9年 7月 甲戌條.

度帖을 지급하고 度帖이 없는 자도 役에 동원케 하니 나라의 중들이 모두 城役에 동원됩니다. 이것은 진실로 중들이 전에 없었던 무거운 부담입니다. 대저 南漢山城의 수축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데서 나온 役事입니다. 그러나 걸식하는 중들로서는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없어 원망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60]

이것은 孝宗원년(1650)에 趙翼이 승도들의 山城役 이후 軍役을 폐지하고 度俗을 허락해 줄 것을 상소한 내용인데 당시 승도들의 山城役이 얼마나 고역이었는가 하는 점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僧軍의 立役은 이외에도 山陵役, 造紙署立役 그리고 각 지방에서 소요되는 白綿紙 등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61] 그러나 남한산성의 승군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동원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찰의 대소와 승려의 다과에 따라 일정한 인원을 調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仁祖2년 10월 남한산성 축조에 있어서 승려를 입역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중에 知事 金湜가

"그리고 남한산성을 쌓는 것이야말로 현재 나라의 대역사인데 승려를 官軍과 함께 立役케 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 합니다. 요즈음 듣건데 승려에게 捕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마치 국가가 각 도에 분부하듯 독자적으로 각처에 호령을 행하게 하고 있다 하는데, 어찌 국가가 직접 외방에 호령하지 못하고 일개 출섭의 손을 빌린단 말입니까. 過臣으로 하여금 사찰의 대소와

60) 趙翼《浦渚先生集》卷 3, 請山城已役僧人許度俗勿定軍役疏.
"伏以臣聞 僧徒以南漢之役 勞役不已 而南漢之役 國中大役 而專取辦於僧徒 其役之重可知也 夫僧人有田土 生業者甚少 皆以丐乞爲生 而使之裹粮赴役於數百千里之外 自前固有役僧者矣 然每道有定數 來役者不多 今則準役而後給度帖 無帖者執之 國內之僧 畢皆來役矣 此固僧人 前所未有之重役也 夫南漢之築 所以爲強國之備 固不得已之役也 然僧人丐乞者 力所不堪 則其怨亦宜矣"

61) 趙翼, 위의 책 卷 15, 詩話 論僧人役布事狀啓.
"…且僧人雖曰閒散 亦非無事者 凡南漢及各處山城修築 皆用僧人 頃者 山陵之役 亦用僧不少 且每年有南漢及 各處山城義僧立役及造紙署立役之事 三南大小寺刹 皆徵布以資送 至於外方白綿紙之繳 皆責出於僧人 又各營各官役徵之事極多 然則可謂重役 亦可謂苦矣"

승려의 다과에 따라 인원을 정하게 한 뒤 差員에게 領送하게 하도록 한다면 편리할 것입니다."[62]

라고 말한 데서 살필 수 있다. 승군의 동원은 摠攝의 주관아래 각도의 僧을 上番立役시키도록 하였으나 摠攝의 作弊 또한 컸다. 仁祖 3년 2월 昌德宮을 지을 때 摠攝 惟政이 승군 수 천명을 거느리고 家舍 등을 건설하였으나 이때 총섭이 각 지방의 사찰에 橫行하여 승도들에게 끼친 폐해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총섭으로 하여금 도첩을 지급하고 각 도의 승군을 조발하여 부역케 하려고 했으나 폐단이 많아 각 도의 수령이나 관찰사로 하여금 주관케 하였다.[63] 그러나 뜻대로 각 지방의 승군이 제때에 산성역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仁祖 3년 3월 特進官 李曙에 따르면

"…각 도의 승군이 곧 바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경우 단지 76명만이 올라왔으나 鴻山, 青山 등의 고을에서는 승려가 없어 전혀 올려 보낼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臣이 비록 산성에 갈지라도 監董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경상감사가 장차 내려 가려하니 승군의 일은 政院으로 하여금 조처하여 확실히 거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64]

한 바와 같이 각 도의 사찰의 규모와 승려의 수에 따라 산성역에 동원될 승군을 배정하였지만 충청도의 경우 겨우 76명만이 上番하게 되자 타 지방의 僧軍差出을 독려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體城이 어느

62) 《仁祖實錄》 卷 7, 仁祖 2年 10月 丁酉條.
"上晝講孟子于資政殿 知事 金濬曰… 且南漢山築城 方爲國中之大役 而僧徒若與官軍一體立役 則似有其弊 近聞僧人名爲摠攝 自行號令於諸處 如國家之分付於各道云 豈有國家不能號令於外方 而假手於摠攝乎 若令道臣 隨其寺刹之大小 僧人之衆寡 定其名數 使差員領送爲便 上曰 此言不無所見 但慮各官之有弊耳 令廟堂及句管之人 更爲商確處之…"

63) 《承政院日記》 4冊, 仁祖 3年 2月 2日條.

64) 위의 책 5冊, 仁祖 3年 3月 26日條.
"…(特進官李)曙曰 昨日問敎後 欲往南漢山城 而各道僧軍 旣不上送 忠淸道則 只七十六名來到 而鴻山青山等邑 無以無僧 全不起送 臣雖出往 無所監董矣 慶尙監司 將爲下去 僧軍事 令政院知委 使之差實擧行可矣…"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에 女墻이나 暗門 등의 役事가 지극히 커서 역군이 더욱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의 승군들이 隱漏하여 상경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였다.[65]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군이 거의 없어 磚灰나 磚甃 그리고 女墻 등의 성역이 중단되고 암문이 미처 다 완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각 도의 승군으로서 도첩이 없는 자가 거의 없어서 입역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水原 禿城山城에 도첩이 없는 승군 3,000여명을 調用하기도 하였다.[66] 축성 당시의 기록이 상세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축성에 동원된 승군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 축성 이후 승군의 편제에 대해서는 洪敎謨의 《重訂 南漢志》〈營制〉에 의하면 僧軍 摠攝 1명, 僧中軍 1명, 敎鍊官 1명, 哨官 3명, 旗牌官 1명, 原居僧軍 138명, 義僧 356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義僧은 남한산성 축조시 산성에 거주하는 승려가 적어 산성을 守直하는데 고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의 鄕僧을 교대로 上番하여 助役케 한 데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鄕僧의 上番守直은 原居僧軍의 침해 등의 각종 폐단이 야기되어 義僧防番錢制를 실시하게 되었다.[67] 즉 지방의 향승은 일정한 防番錢을 납부하면 그 경비로서 義僧을 雇役하여 守直케 한 대신에 향승의 上番은 면제하였던 것이다.[68]

65) 위의 책 7冊, 仁祖 3年 7月 21日條.
"…(右副承旨)李植 以備邊司言啓曰 南漢城役雖得畢事 而女墻暗門等役 極爲浩大 前期役軍難備 各道僧軍隱漏不來者 其數倍多 依體臣書啓 江原全羅兩道監司薪朝時 持此事意 自政院言送 到界者實擧行宜當."

66) 위의 책 8冊, 仁祖 3年 9月 4日條.
"(右副承旨李植)… 又以備邊司言道體察使意啓曰 南漢山城役軍頓絕 磚灰磚甃 女墻等役停止久矣 暗門未畢處尙多 此則不可不多前完畢 各道僧軍無雇者絕無 雖不來則已矣 以京畿一道觀之 水原禿城無塡之僧三千餘名 公然徘徊 無意來役… 他道道則令兵使擒發 無雇之僧 依事目 論罪後 指名狀啓事 監司處 並行申飭 宜當敢啓 傳曰依啓 禿城所居僧調用"

67) 《備邊司謄錄》 130冊, 英祖 32年 正月 12日條.(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

68) 이의 자세한 내용은 金甲周 〈南北漢山城 義僧番錢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 1988 및 〈조선후기의 僧軍制度〉 《차문섭화갑기념논총》 1990, 참조.

한편 산성의 축성에 각 지방의 軍兵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일찌기 유성룡은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의 수축을 주장하면서 "或先爲募聚僧徒 或先設倉廩 措峙糧穀 或募入人戶 免役定集 漸成根基 然後相時量力 給與某處軍士 繕設城池樓櫓"[69]라 하여 승도를 모집하고 양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일반 백성을 募集하여 생활터전을 잡은 뒤에 서로 힘을 발휘하여 성역에 충원하고 또한 軍士를 급여하여 城池와 樓櫓를 수선케 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난이후 都城이나 江都 그리고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각 지방의 산성을 축성할 때에 官軍을 많이 동원했다. 光海君 9년 黃州山城을 축성할 때에 上番軍 차출문제로 備邊司는

"備忘記에 이르시기를 '黃州築城에 上番軍의 除出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좋은 계책에 따라 논의처리하여 속히 城役을 완성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고 傳敎하였습니다. 황주의 축성은 역사를 시작한 지는 오래이나 공사를 마칠 기약이 없으니 聖慮가 미치심은 실로 무연이 아닙니다. 다만 役事는 軍士가 있어야만 성사되는 것으로 軍士를 除給하지 않고 대역사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70]

라고 하여 황주축성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는 군사의 차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서 上番軍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군사는 남한산성 축성시에도 동원되었다. 仁祖 2년 10월 知事 金澎가 "且南漢山築城方爲國中之大役 而僧徒若與官軍 一體立役 則似有其弊"[71] 라고 하여 승도와 함께 관군이 축성역에 동원되고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괄의 난 이후 京畿軍士를 정비하면서 남한산성 수비와 관련 守壘軍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경기지방의 군사를 남한산성에 소속시켜야 할 필요가 컸던 것이다. 仁祖 16년 경연관 李景奭이

"남한산성에 경기지방의 군병을 나누어 예속시켜야 하는데 수원의 군병은

69) 《宣祖實錄》 卷 159, 宣祖 36年 2月 21日 乙巳條.
70) 《備邊司謄錄》 1冊, 光海君 9年 1月 8日 및 5月 20日條.
71) 《仁祖實錄》 卷 7, 仁祖 2年 10月 丁酉條.

> 殿下親兵이니 이 밖의 諸色軍兵을 산성에 예속시켜 만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각 읍 수령들로 하여금 그 예속된 군병들을 거느리고 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 수령은 각각 자신의 信地(담당구역)를 알아서 그 신지에 대한 수축에 반드시 힘을 기울일 것이며 隱匿奴僕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함께 산성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군율을 엄히 하고 장비를 정돈하며 때때로 조련해서 반드시 지켜내는 계책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72]

고 하여 경기 각 읍의 군병을 남한산성에 예속시키도록 주장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 5읍인 楊州, 廣州, 驪州 등의 군병을 남한산성의 入防軍으로 편성하였다. 仁祖 14년(1636) 7월 당시 남한산성의 입방군은 12,700명이었다.[73] 이러한 입방군은 유사시에 山城守壞軍으로서 각각의 信地를 지켰으며, 평상시에는 操練과 산성수축을 맡았던 것이다. 승군과 군병 이외에 기타 각종 匠人, 僧軍[74] 등도 축성에 동원되었다.

한편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에 따른 糧餉의 조달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산성수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기 되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李元翼이 米 3,000석으로써 축성군을 雇役하거나, 훈련도감 도망군 800명으로 축성케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그리하여 仁祖 뿐만 아니라 성역을 총괄하고 있는 李曙도 糧餉의 備蓄과 軍器의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75] 특히 李曙는 三穴銃 1,000자루, 조총 1,000자루를 만들어 畿內의 군병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남한산성에 저장케 하였으며,[76] 한편으로 남한산성을 수호하고 양식을 저장할 대책으로서 下三道의 생선과 소금을 덜어 내어

72) 《備邊司謄錄》 5冊, 仁祖 16年 10月 17日條.
73) 《仁祖實錄》 卷 33, 仁祖 14年 7月 丁巳條.
74) 《備邊司謄錄》 5冊, 仁祖 16年 2月 5日條.
75) 《仁祖實錄》 卷 8, 仁祖 3年 3月 甲子條 및 《仁祖實錄》 卷 13, 仁祖 4年 윤 6月 壬子條.
76) 위의 책 卷 9, 仁祖 3年 8月 己卯條.

곡식을 사들여 군량을 비축케 하였다.[77] 그래서 이 당시 山城 糧餉의 확보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되어 시행되었다. 甲士牧場을 屯田으로 삼아 산성군량의 근본으로 삼자는 방안이나[78] 남한산성 축성에 동원된 工匠이나 別將 등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廣州에서 선혜청에 납부할 春等米 500石과 秋等米 300石을 산성에 留儲케 하자는 방안[79] 등이 그것이다. 또한 仁祖 3년 10월 호조가 비변사에 移文한 내용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糧餉을 儲峙하는 일이 당시 제일의 급선무이므로 여주, 이천, 양근, 지평, 광주 등의 田稅와 可興倉에 저장한 米豆를 운송하여 산성의 糧餉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으며[80] 심지어는 서쪽 지방 즉, 椵島에 주둔하고 있는 毛文龍軍營에 보낼 광주의 西糧米까지 산성으로 옮겨 바치게 하였다. 그것은 仁祖 4년(1626) 2월에 비변사가 남한산성 완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 "南漢山城의 役事에 있어 성의 수축을 마쳤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工匠과 將士들의 料布가 당초에 준비한 것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御史의 書啓로 인하여 물고기 한 마리 종이 한 장도 외방에 요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곳의 本邑이지만 여러가지 責納해야 할 물품들 가운데 한 가지도 산성을 위하여 減下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으로 운송한 糧餉을 結마다 각각 1두5승 씩을 걷고 있는데 本州의 쌀도 운송해야 하는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쌀을 산성으로 옮겨 바치게 한다면 한편으로는 양향에 보탬이 되고 한편으로는 民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81]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군량확보 방법은 대체로 광주의 전결에서 징수한

77) 《仁祖實錄》 卷 9, 仁祖 3年 8月 辛巳條.
78) 《承政院日記》 7冊, 仁祖 3年 7月 21日條.
79) 위의 책 5冊, 仁祖 3年 4月 10日條.
80) 위의 책 9冊, 仁祖 3年 10月 7日條.
81) 《仁祖實錄》 卷 11, 仁祖 4年 2月 癸巳條.

田稅, 三手粮 그리고 毛兵粮 및 宣惠廳作米를 충당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仁祖 3년 8월 宣惠廳이

> "비변사에서 도체찰사의 啓請로 인하여 광주의 癸亥年條 미수된 미곡을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남한산성에 거두어 들이도록 할 것을 이미 啓下받았습니다. 요즘 국가에 일이 많아서 각 고을에서 제때에 독촉하여 보내지 않으므로 본청에서 수납하는 곡식도 미납된 수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앞으로 써야 할 자본에 관계되니 제때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까닭으로 다른 곳에 옮겨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料外의 용도가 날로 더해지고 달로 늘어나서 선혜청의 저축으로는 항상 이어대기에 어려움을 걱정합니다. 사세로 헤아려보면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체찰부의 啓請에 따라 광주에서 거둔 미곡 3백석을 이미 남한산성에 유치하였는데, 지금 또 이 계획이 있습니다. 본청에 저축한 것으로는 현재 바닥이 나서 이어댈 계책이 없습니다. 결코 봉행하기 어려운 뜻으로 황공하게 갖히 아룁니다."[82]

고 하여 癸亥年條(仁祖 1 : 1623) 광주의 未收米를 남한산성에 유치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仁祖는 이 未收米를 산성에 저축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仁祖 4년 8월에 이르러 비변사가 남한산성 군량의 조달책을 다음과 같이 아룀으로써 결정되었다. 즉,

> "…南漢은 바로 溫祚가 수백년 동안 도읍으로 정하였던 곳으로 지형의 험하기가 한 사람이 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그곳에 쌓은 성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합니다. 식량이 준비되면 반드시 수비해 낼 수 있는 곳이지만 식량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하고 험한 요새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강구해야 할 것은 다만 이 식량 한가지 문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物力이 毛文龍의 군대 식량보급으로 바닥이 나서 아무리 애써 마련해보려 해도 별로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굳이 마련한다면 本州의 전결이 거우 2천여 결이지만 국가에서 차라리 이 한 고을의 稅入을 손해보더라도 山城에다 소속시켜서 모든 田稅와 三手粮과 毛兵粮

82) 위의 책 卷 9, 仁祖 3年 8月 己巳條.

> 및 宣惠廳의 作米를 모두 본성에다 비축하도록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자연 얼마간의 모양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신들의 계책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밖에 조처할 계책에 대해서는 捕戎使 李曦로 하여금 다시 헤아려 계품해서 시행토록 하는것이 합당하겠습니다.[83]

라고 하여 시행한 바와 같이 廣州 田結 2,000여 結에서 거둬 들일 田稅,三手粗,毛兵粮 그리고 宣惠廳 大同作米를 남한산성에 비축하여 粮餉을 조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廣州田結稅로써 산성을 충분하게 경영할 수 없게 되자 魚鹽의 貿販과 屯田經營을 통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84]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수축은 都城을 방어하기 위한 保障處로서 그 중요성이 넓게 인식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끝에 仁祖 2년(1624) 7월에 시작되어 僧軍과 軍兵 등의 築城軍을 동원하고 魚鹽의 貿販이나 田結稅 및 屯田經營을 통해 軍糧을 확보하면서 드디어 仁祖 4년(1626) 11월에 완료되었다. 그리고 산성수어책의 하나로 廣州府를 移設하고 入居民을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는 호란을 겪으면서 남한산성의 증·개축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으며 특히 肅宗대에는 도성방어책의 일환으로 北漢山城이 축조되면서 그와 軌를 같이 하여 南漢山城의 外城 즉 蜂巖城과 漢峰城이 증축되기도 하였다.

---

83) 위의 책 卷 14, 仁祖 4年 8月 壬子條.

84) 위의 책 卷 14, 仁祖 4年 10月 丁卯條.

附　　錄

편집위원

총 괄 : 한춘섭, 전보삼, 김용일
위 원 : 김창환, 박상규, 백남욱, 소진광
장삼현, 장철수, 조병로, 허창무

城南文化硏究 (1995. 제 3 호)

인 쇄 : 1995년 12월 10일
발 행 : 1995년 12월 20일
발 행 인 : 이 형 하
발 행 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시민회관 2층)
전 화 : (0342)753-1020 FAX : (0342)756-5245

※ 이 연구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 지원금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